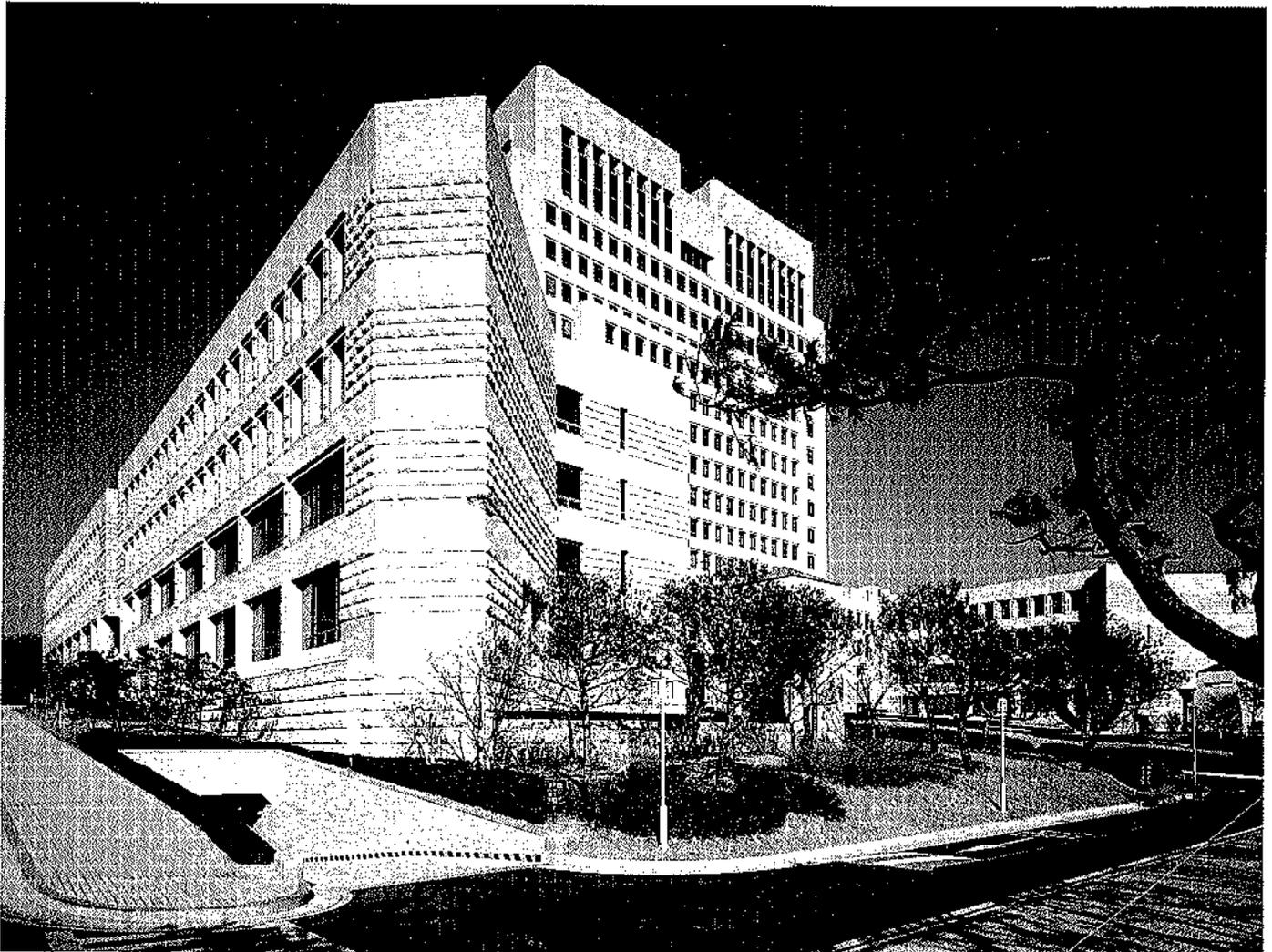


KOREAN ARCHITECT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6년 1월호 통권321호



월간 건축사 1996년 1월호 통권 321호(매월 5일 발행)·발행·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1987년 3월 23일 등록번호·(사)라-26 1985년 12월 31일 제3종우편물(나)급인가

January

1

신년사
우리건축의 경쟁력강화에 전력을 / 김규태

칼럼
건축사, 그들은 누구인가 / 조구현

논단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2) / 최찬환

외원작품
대법원청사 / 윤승중+변영우

한국영상아카데미 / 삼정디자인
정소년수림마을 보람원 / 시도광

서울 스피드웨이 / 문성우
정주 예술의 전당 / 권영

작품노트
연남동 「STEP」 / 방철린

건축기행
중국 건축기행(1) / 박재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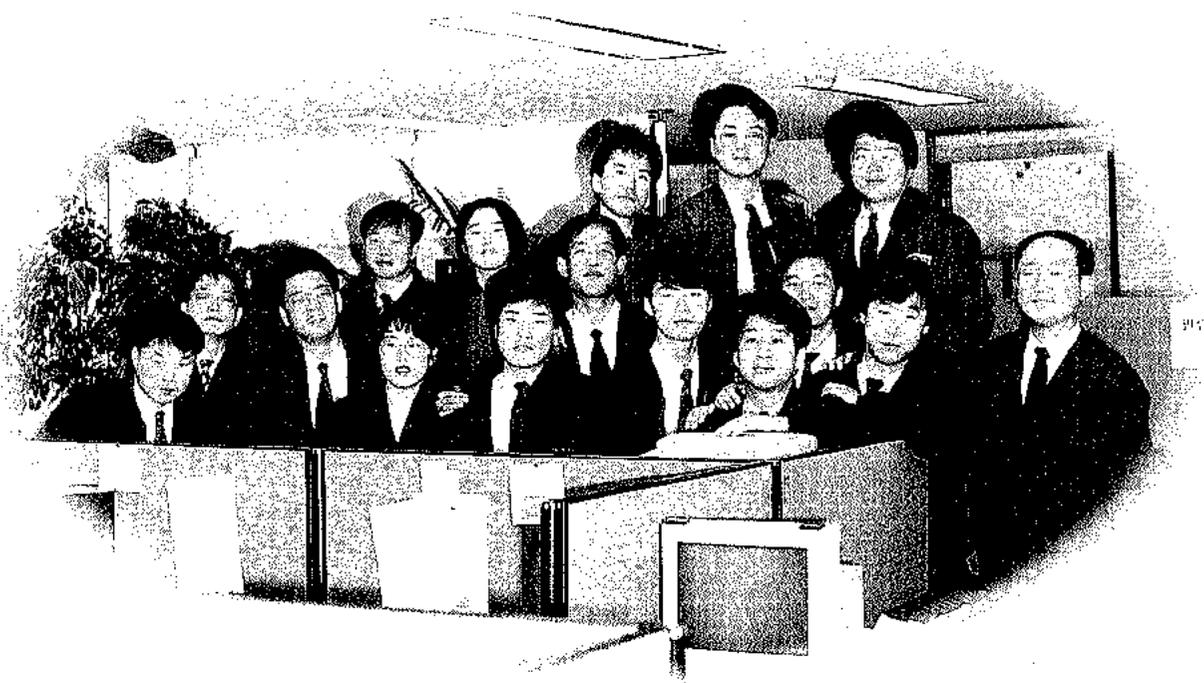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 정인국(1) / 박길룡

전통건축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5) / 김지민

현상설계경기
경부고속철도 통합역사(남서울, 대전, 동대구)

법령
건축법시행령 중 개정령

J
540.5
대 92 7
c.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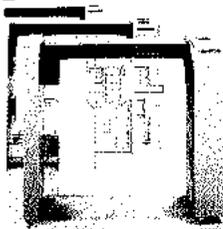


신뢰로 자라납니다.

수많은 컴퓨터회사 중에서
 건축설계의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컴퓨터 활용기술을
 갖춘 전문회사만이 믿을수 있는 건축CAD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건축CAD전문회사인 (주)건캐드
 그간 250여개사의 성공적인 건축CAD시스템 구축한 풍부한 경험과 차원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신의 정보와 지속적인 기술을 지원하여
 고객의 실질적인 만족과 이익을 제공합니다.

성공을 향한 신뢰의 선택 (주)건캐드!

하드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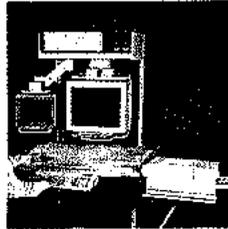
- 최상의 고성능 컴퓨터 486 SYSTEM
- 저렴하고 다양한 CAD SYSTEM 보유
- 광범위한 호환성 및 뛰어난 확장성
- LAN, PLOTTERS, PRINTER, MONITOR 등

소프트웨어



- 최고의 건축CAD설계지원시스템 CADPOWER Ver 6.0
- 건축설계지원시스템 MECADPOWER
- AutoCAD R11, R12, 전환공 등 판매

CAD기술연구소



- 효율적인 건축CAD활용 기술연구
- 건축CAD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 건축설계전산화 프로그램 운영
- 건축CAD 3D 렌더링, 모델링 용역

건축CAD교육센터



- 건축설계실무에 바탕오른 교육
- 체계적인 단기간의 건축CAD교육
- 다양한 시간대의 강습과정 개설
- 건축CAD실무자 양성 및 취업지원

애프터서비스



- 신뢰, 성실의 애프터서비스 제공
- 24시간 신속한 서비스 체계구축
- 고객 업무 작업의 연속성 유지체계
- 실무자의 시스템 관리 능력 교육

건축CAD전문회사

(주) 건 캐 드

서울·서초구 서초1동 1444-2 (풍원빌딩 4층)
대표전화: (02)584-6480 팩스: (02)587-1803

(주)건축CAD기술연구소

서울·서초구 서초1동 1444-15 (중문빌딩 5층)
대표전화: (02)598-1486 팩스: (02)598-1487

차세대 건축용 내화피복재 등장! 에스코트 AF

에스코트 AF는
환경무해성과 최대 내화성능을 함께 실현한
획기적인 퍼라이트 내화피복재입니다.

에스코트 AF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는 Non Asbestos, Non Mineral fiber, Non Vermiculite로 설계하였으며 시공시 또는 마감후의 분진문제해결은 물론 환경무해성을 실현한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는 최고의 내화피복재입니다.

에스코트 AF는 최소의 내화두께(1시간 내화 20mm, 2시간 내화 30mm, 3시간 내화 40mm)로 최대의 내화성능을 보장하고 철골부식방지효과가 뛰어나며 또한 시공성을 극대화하여 공기단축, 총 공사비 절감을 이룩한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 내화구조 지정내용

구조	내화시간	에스코트 AF 피복두께 (mm)		지정
		건축용	공업용	
모 기둥	1시간	20	15	제 1995-18 호
	2시간	30		
	3시간	40		

에스코트는 국내 제일의 퍼라이트 전문회사 (주)삼손이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만든 새로운 흡음단열, 내화피복재입니다.

- 분시식 흡음단열 마감재인 **에스코트 AT**와
산업용 내화피복재인 **에스코트 IF**도 있습니다.



본 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21 청합빌딩
TEL(02)563-8181 FAX(02)538-2589
영 업 부 : TEL(02)552-8181 FAX(02)552-6224
부산지점 : TEL(051)512-8181 FAX(051)516-9343
광주지점 : TEL(062)268-8181 FAX(062)268-8186



(주)중앙창호

본사·공정 인천시 서구 석남2동 223-40
 목재사업부 (032)571-7771 Fax 575-6655
 건기구사업부 (032)582-7771 Fax 571-7744
 시스템창호사업부 (032)583-7771 Fax 571-7744
 서울전시장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0-9
 기린건축자재백화점 102호
 (02)548-8033 Fax 549-9234

창호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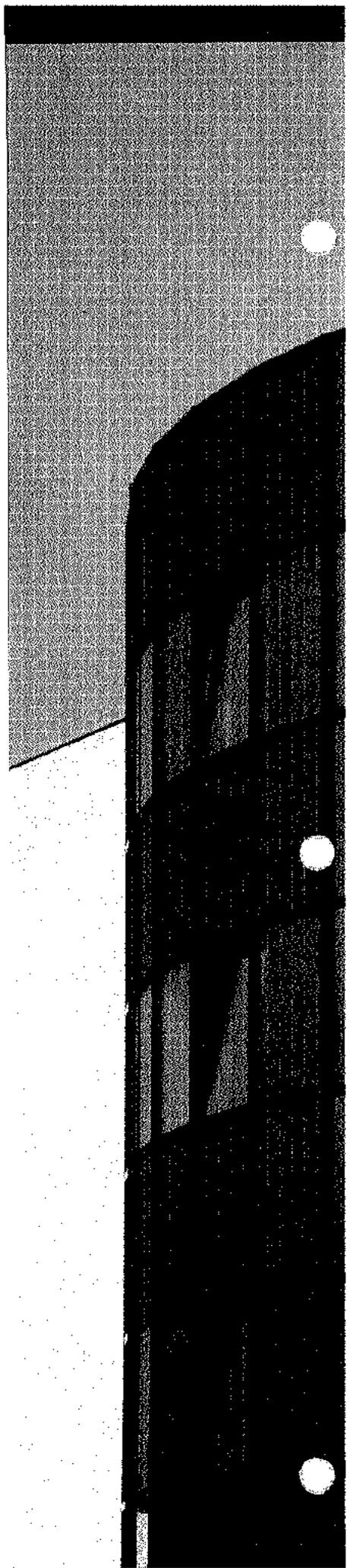
독일HARTMANN社の 정통시스템 창호 — 중앙창호

고급 특수목 가공으로 명품의 창호, 건구, 가구를 제작 시공해온
 목재의 명문 중앙창호가 독일 하트만사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만나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의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중앙창호의 모든 커튼월과 시스템창호는 엄격하기로 이름난
 독일 DIN 규정의 폴리아미드 단열바와 하드웨어 등을
 사용함으로써 뛰어난 방음효과, 탁월한 단열효과, 완벽한 결로방지,
 다양한 개폐방식 등...
 독일의 합리성과 견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독일 하트만사의 수백가지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다채로운 색상은
 건축가가 원하는 어떠한 디자인의 건축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알루미늄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는 고급특수목의 건구,
 가구와 함께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드리는
 중앙창호와 상의해 주십시오
 모든 건축물과 주거공간을 한층 돋보이게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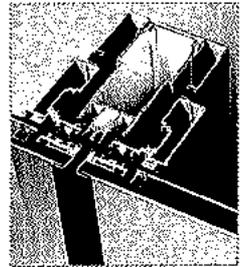
신감각

신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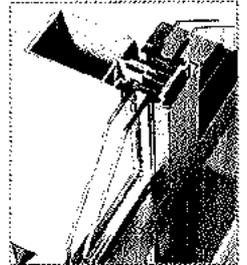
신미학

기술이 다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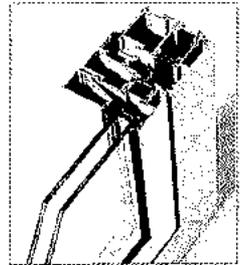
가치도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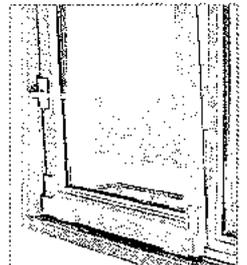
S-5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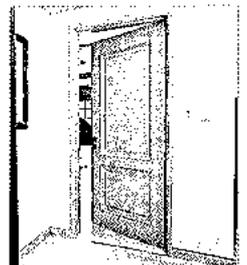
S-4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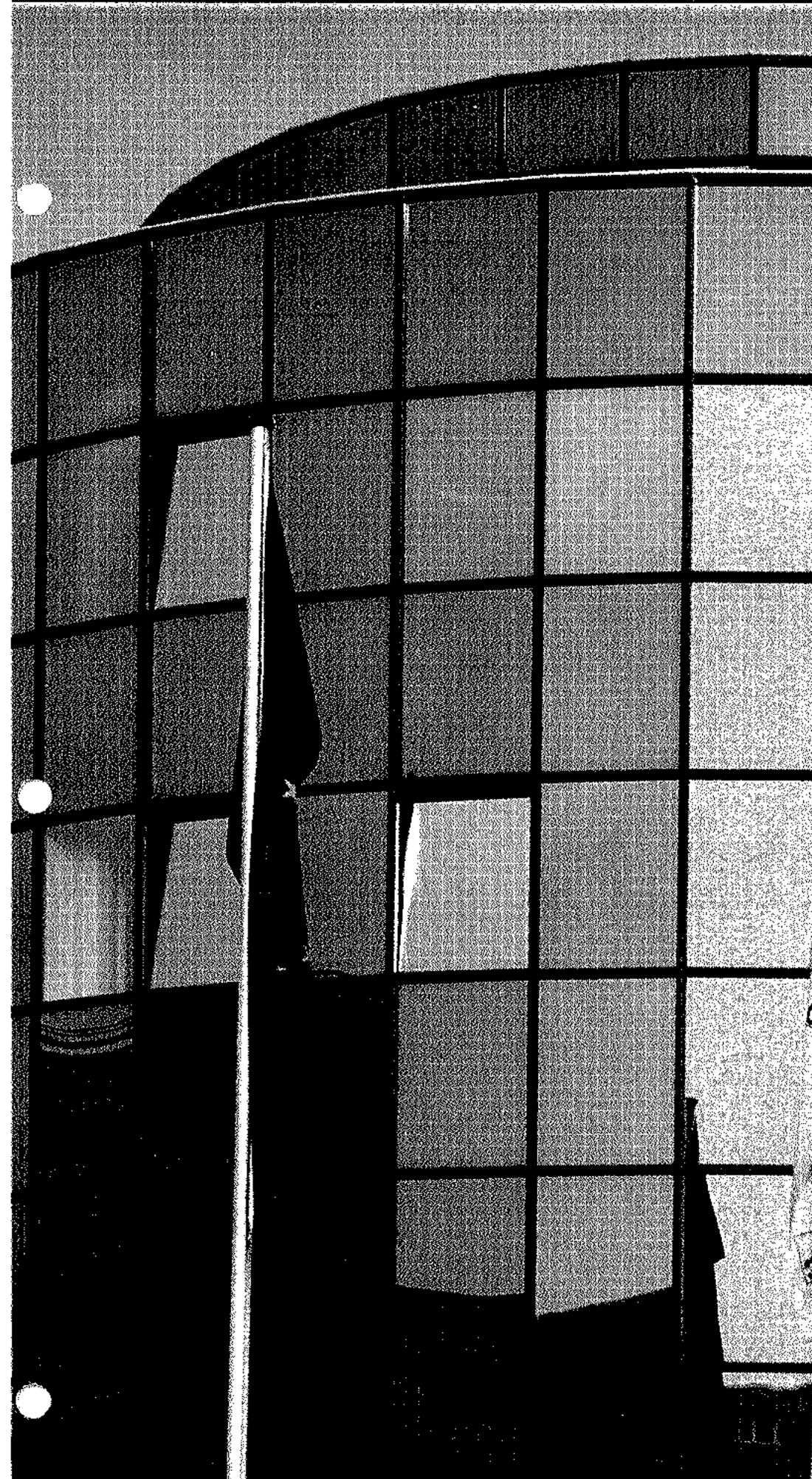
S-3000
단열창호T/T
(알루미늄+단열바, Tilt Turn)



알루우드PST
(Parallel Sliding & tilt)
알루미늄+목재



원목DOOR
목재창호, 건구,
가구, 시스템키친도
생산합니다.



CIN CAD U.b

건축설계 자동화프로그램



주요 기능

■ 도면 초기화
DCL을 보면서 Center, 열, Number, Column을 편집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Bouble 및 치수를 필요한 부분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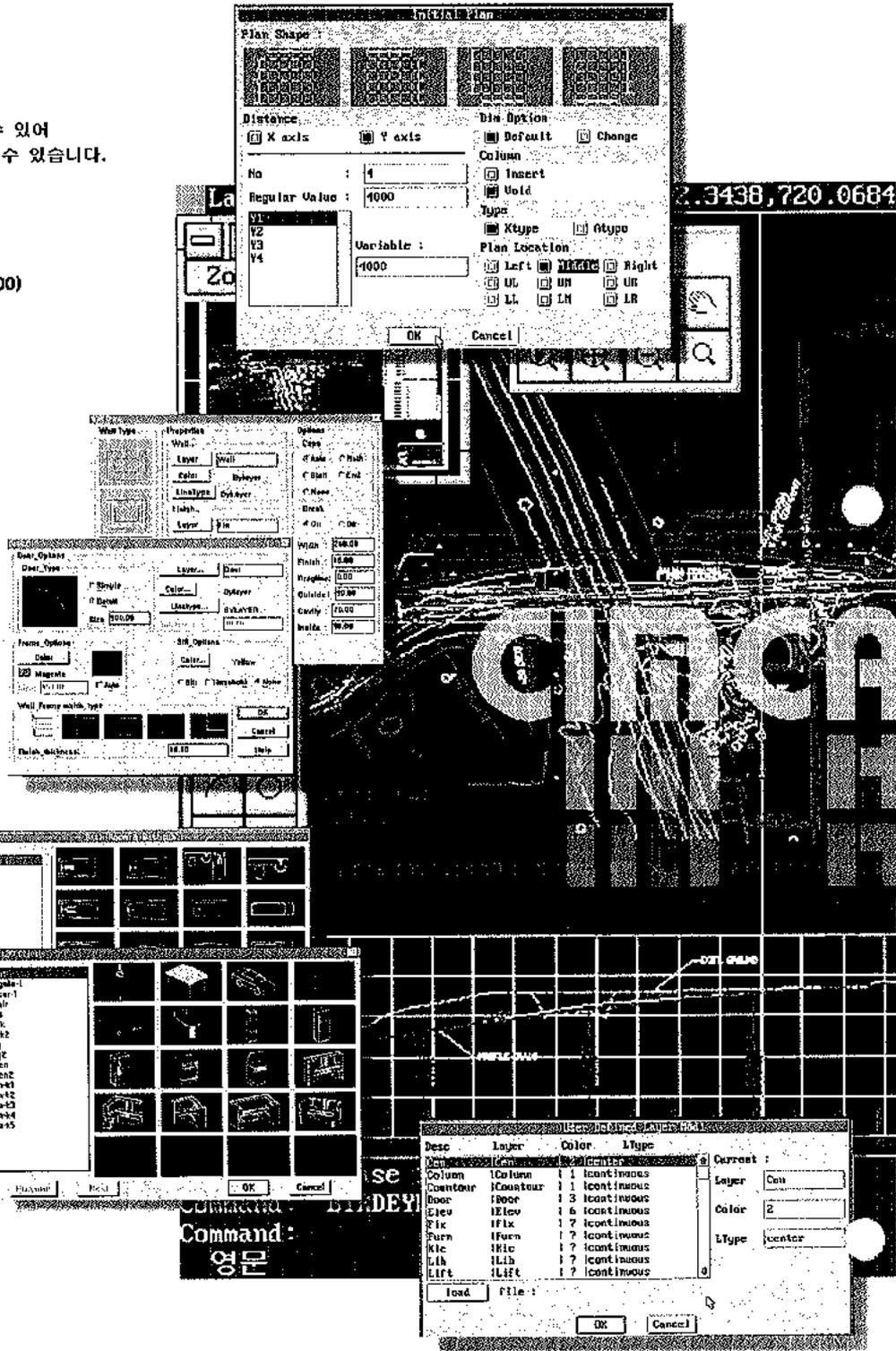
■ 다양한 플랫폼 지원
AutoCAD R12, R13 DOS & Windows, AIX 4.1(R/S 6000) 플랫폼을 함께 지원하므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 Lisp에서 ADS로의 전환
기존의 Lisp에서 ADS로 전환하여 속도의 최적화를 이루었으며 향후 버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모든 구성을 모듈화 하였습니다.

■ Wall, Door 기능의 향상
마감 동시 표현, 편집 기능이 보강되어 Drawing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건축 Symbol 150여개 추가
건축 관련 Symbol을 정리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게 ICON화 하였으며 600여개의 Symbol 제공으로 건축 업무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자동 치수 기입
축선의 선택만으로 자동 치수 기입이 완료됩니다.



Row	Sum	Floor	Trize	Yalce	Main	No	Nile	Cap	SDie	Cap	Shopo	
021	1	1000	1000	H822	33	H010	300	H010	900	X		
031	1	2-5	900	H80	H822	22	H010	300	H010	900	X	
041	1	5,7	700	700	H822	22	H010	300	H010	900	X	
051	1	PH1	500	660	H822	22	H010	300	H010	900	X	
061	1	PH2	500	500	H822	22	H010	300	H010	900	X	
071	1	C2	33-01	1000	1000	H822	44	H010	300	H010	900	22
081	1	1	1000	1000	H822	33	H010	300	H010	900	22	
091	1	2-5	900	900	H822	22	H010	300	H010	900	21	
101	1	5,7	700	700	H822	22	H010	300	H010	900	11 6	

AutoCAD 사용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축설계자동화 프로그램 CIMCAD가 보다 나은 기능으로 Upgrade되어 여러분 앞에 선을 보입니다. 건축 실무진들이 요구하는 기능들을 수렴, 대폭 보강하였고 건축사가 직접 제작에 참여, 직관적인 작업의 흐름을 유도 하였으며 프로젝트 관리 및 도면 검색, 관리 기능과 실질적인 건축설계작업에 필요한 기능들을 보다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CIMCAD는 최적의 건축설계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CIM View AutoCAD Display Driver

- Bird's Eye View
원하는 부분을 신속히 볼 수 있고 빠른 속도로 화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 Spy Glass
도면을 확대하지 않고 커서의 움직임만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 Fast Zoom, In, Out, Fast Pan, Fast Redraw 기능
- 화면상의 Tablet Menu를 제공하며 사용자 정의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 Screen Capture기능
- 한글 Driver 제공으로 모든 Message의 한글 입출력 가능

View Master

도면 검색 프로그램

- DOS용과 ADS 버전을 함께 공급
 - DOS 용 : AutoCAD 없이도 도면 검색 가능
 - ADS 용 : 도면 검색 및 Insert, Xref 기능

CIM Drawing Manager

프로젝트 및 도면관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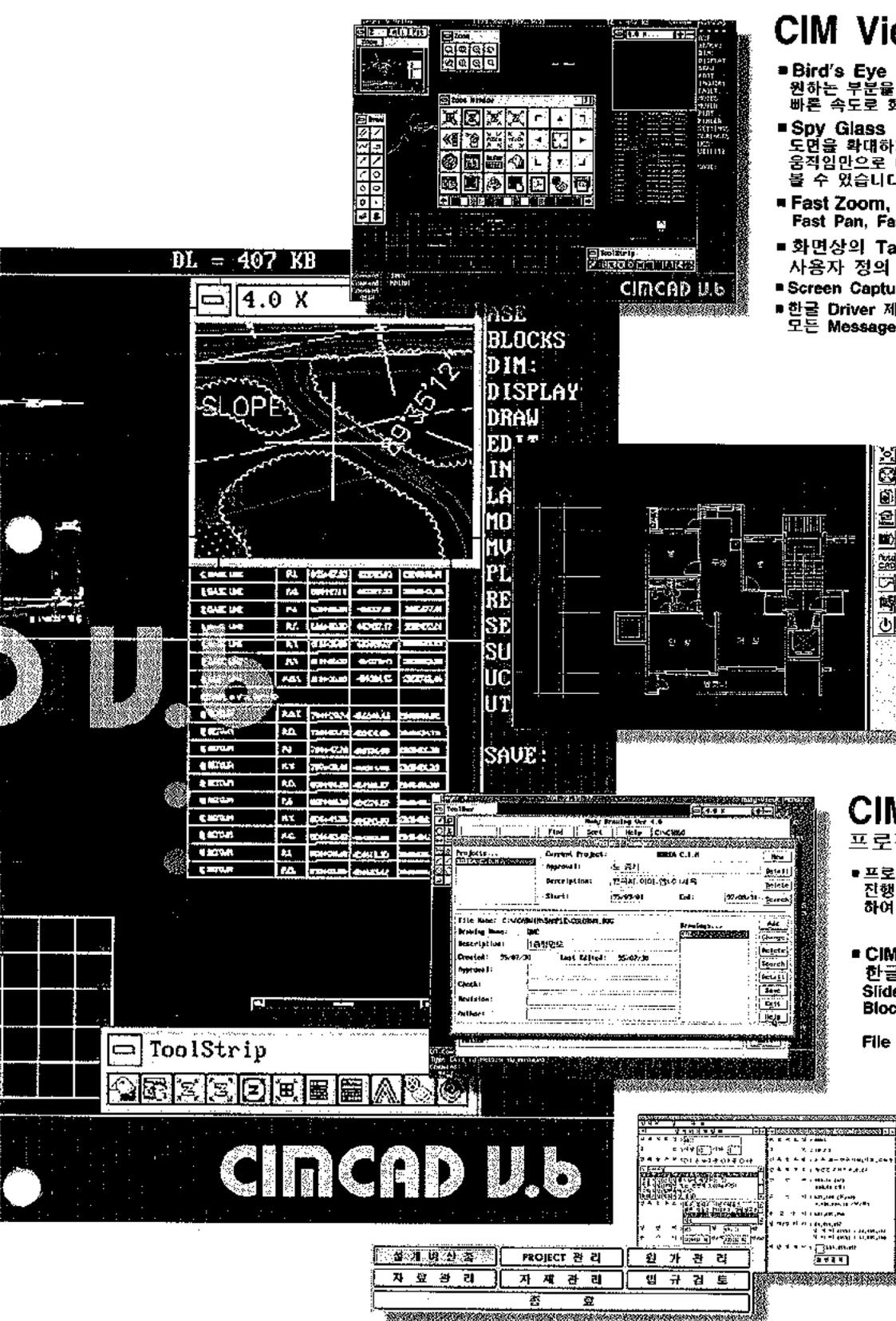
- 프로젝트 관리자 및 실무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만들어지는 모든 도면을 Data Base화 하여 누구나 손쉽게 도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 CIM View에서 한글 Driver를 설치했을 경우 한글로 Data Base 구축이 가능합니다.
 - Slide Manager - Library 구축에 필요한 Slide 관리
 - Block Manager - 작업 중에 발생하는 Block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 File Manager - 도면 File 및 모든 File을 복사, 삭제 등이 가능.

설계정보 프로그램

- 산출 내역 중 공사가 설계 감리비, 제안 용역비를 평과 하여 자동 산출해 준다.
- List의 Mouse만 클릭해 주면 건축물에 맞는 표준 평당 공사비가 입력, 계산

CM 한국사아아엠(주)
ARON (주) 아론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22 근동빌딩 3층
TEL : 515-3167(대), FAX : 515-3169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필

실용신안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성4년 3718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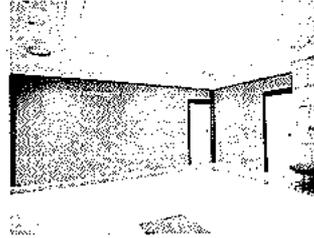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중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으로 통합했습니다.

경계성 절대만족, 안전성, 편의성 등 1만족 시키며 세계최초로 방화셔터를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푸마셔터 설치업체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도파 상계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아쇼핑 • 신세계 영동점 • 경방빌 프리자 • 부산 리베라 쇼핑 • 명동 SS 패션매장 • 대한투자신탁사옥 • 제일은행 구본점 • 하이아트호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호텔 • 워커히호텔 • 속초아남하이츠 • 세브란스빌딩 • 영도 구청사 • 이주대 부속병원 • 제주중앙병원 • 모량제약사옥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외 100여 업체 시공 |
|--|---|

세계전시회 출품

- '93 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건설전
- '94 경향 하우징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총판
- 전문건설업·참호·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제작·설치업체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産業株式会社

본사: 서울特別市 九老區 九老6洞 98-6
TEL: 838-4545 (代)
FAX: 838-0474
공장: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B/L

제조원: **아주셔터공사**

“적산업무 전산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남품실적

조달청, 총무처(시설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시지하철공사,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체신부조달사업부, 법무부, 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육군본부,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수협중앙회 데이콤 현대건설(주), 공영토건(주), (주)기산, (주)대명건설,
 신동아종합건설(주), (주)대동주택, (주)우양건설, (주)삼환기업, (주)삼환끼유, 성일건설(주), 경향건설(주) 동국산업(주)
 신화건설(주), 라이프종합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주)대륙건설, 그랜드종합건설(주), 한주개발(주), (주)씨엠기업, (주)한솔건설
 삼안기술공사(주), 동보건설(주), (주)한국종합건축, 승도종합건축, 한강종합건축, 서울주택개발(주), 미주실업(주), (주)범한
 거양개발(주), 부성건설(주), 진로건설(주), 두산건설(주), 삼경건설(주), (주)창조종합건축, (주)신한, 서울건축(주)
 엄이건축(주), 유일종합건축(주), (주)세마종합건축, 토당건축, 보람종합건축, 한국조형건축, 진화건축
 (주)이공건축, 미래건축(주), 동명기술공단(주), 가전종합건축, 도화종합기술공사(주)
 한양적산연구소, (주)세원엔지니어링, (주)한국산업경영연구소, 성진건축
 삼안건설기술공사(주), 서인적산연구소, 외 500개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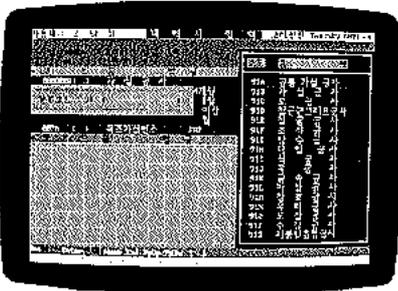
견적비가 설계비의 5%도 안된다고 신경을 못쓰셨습니까?

시장개발을 맞아 머지않아 기획에서 설계, 견적, 시공에 이르는 전문 분야를 연계하는
 CIC구축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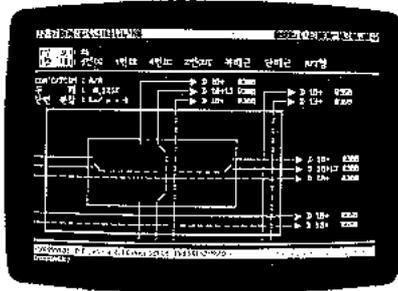
“이젠 적산업무를 외주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려전산의 견적관리 프로그램이 **설계사무소** **관공서** **시공회사** 에서 많이
 사용하고, 평가가 좋은 이유를 아십니까?
 초보자도 사용하기 쉽고, 설계예산 내역서에서 부터 발주처 시공회사까지 DATA가 연계처리
 되며 사용하면 할수록 빛이나기 때문이다.

EMS-I(내역관리)



R.C(골조물량산출)



K-FIN(마감물량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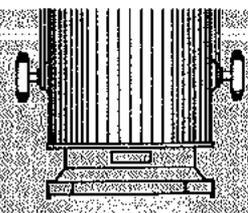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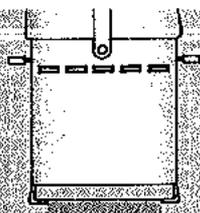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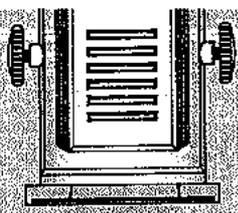


효 과: ① 외주비 절감 ② 신뢰도 증가 ③ 다양한 분석 및 기술축적

- 특 징: ① 사용하기 편리하다(도움말/화면메뉴/팝업메뉴방식)
 ② 최소의 입력으로 최대의 출력과 집계분석
 ③ 물량산출시 내역으로 자동연결됨
 ④ 자재코드, 일위대가 제공
 ⑤ 설계변경/기성내역 작성이 용이하다.
 ⑥ 관공서(발주처) 전산내역 입찰과 연결
 ⑦ 통신을 이용한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

S/W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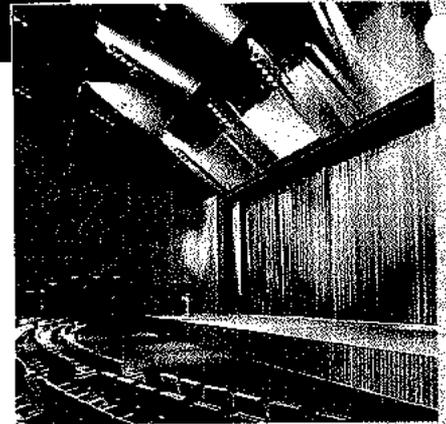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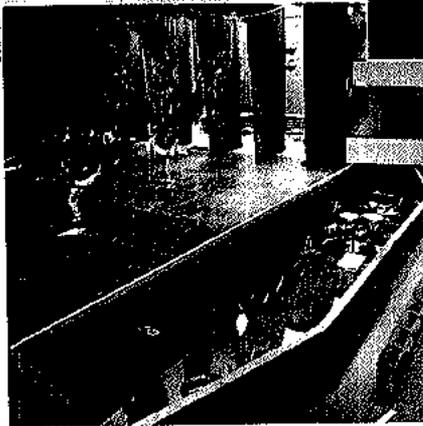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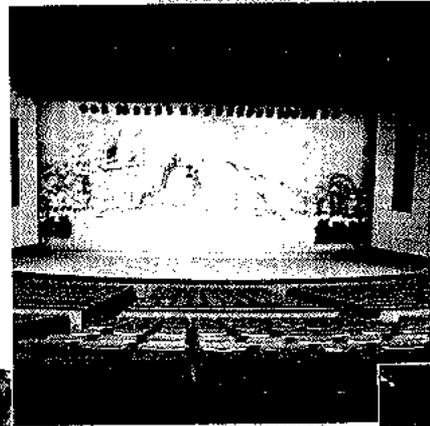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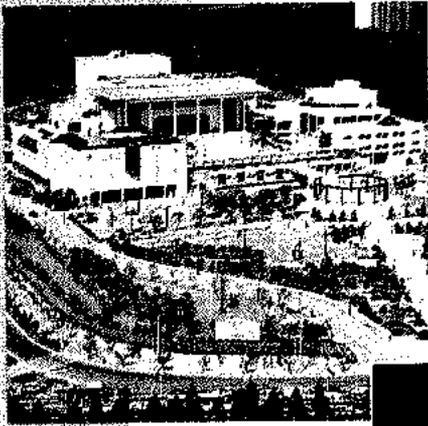
- EMS-I 내역 관리 SYSTEM
- EMS-II 전기내역관리 SYSTEM
- EMS-III 설비내역관리 SYSTEM
- EMS-IV 토 목 내역 SYSTEM
- R.C 골조물량산출 SYSTEM
- K-FINISH 마감물량산출 SYSTEM
- M.M.S 자 재 관 리 SYSTEM
- P.M.S 공 사 관 리 SYSTEM
- A.M.S 건설회계관리 SYSTEM
- P-PMS 인사/급여관리 SYSTEM



무대기계

무대조명

영상설비



기 획 · 설 계 · 시 공

SSE (주) 성스테이지엔지니어링
SUNG STAGE ENGINEERING CO., LTD.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0-8(시화공단2나 209)
TEL : (0345)499-8100~4, FAX : (0345)499-8105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위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세종문화회관
- 유관순기념관
- 안양문화예술회관
- 국립극장
- 충현교회본당
- 중앙대 예술대학강당
- 해라튼위커피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계몽 센터 예술극장
- 롯데호텔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육군박물관
- 부산문화예술회관
- 서울·제주 신라호텔
- 대전시민회관
- 이화여대강당
- 수안보와이키키관광호텔
- 강원대학교
- 과천시민회관
- 원주치악문화예술회관
- 충북문화 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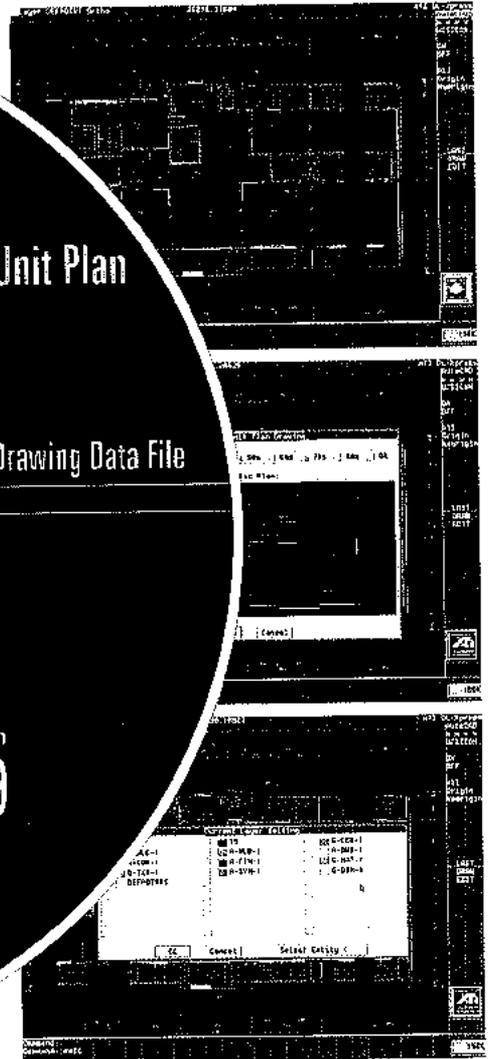
주요 생산품목

- STAGE & STUDIO
- CONFERENCE ROOM
- BASIC EQUIPMENT SYSTEMS
- SCHOOL STAGE
- THEATRE STAGE
- DESIGN & ENGINEERING
- TELEVISION STUDIO
- MANUFACTURE
- OPERA HOUS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332-4500(代表), (02)335-4642(代表) FAX. (02)392-2751
工場: 京畿道 金海郡 金海邑 大阜面 山 209-1 松蘇里 山 209-1 TEL. (0341)987-4184, (02)632-0216



사용환경

DOS 버전 3.3 이상

AutoCAD R120 이상

CD-ROM Drive

386급 이상의 IBM 호환기종

최소메모리 8MB 이상

가격 : 70,000원 VAT 별도

(CD-ROM 1장, A3 메뉴얼 1권)



Young Fellows System

02-587-5168/9

개발 및 판매원 : (주) 청우시스템
 서울서초구 방배동 980-29 백재빌딩 2층
 전화 : (02) 587-5168 팩스 : (02) 588-4156

아파트 평면도를 삼킨 CD

무려 120개의 아파트를 삼켜버렸습니다

AutoCAD Drawing Data File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모음집120선은 10평대에서 80평대에 이르는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도 120개를 선정하여 AutoCAD 도면파일로 CD에 수록한 자료집입니다.

아파트 설계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세대 평면도를 선정하여 치수표기, 실 면적표기, 건축요소에 따른 레이어설정, 색상등을 통일된 조정작업을 하였으며, 도면파일과 함께 Kfont한글유틸리티등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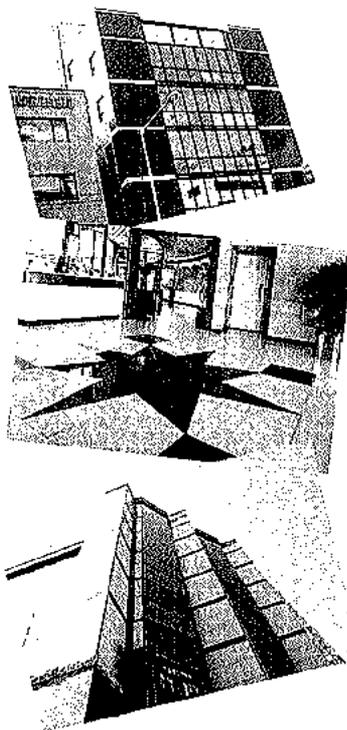
건축설계사무소, 건설회사, 컨설팅 회사, 건축전공 학생등이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을 설계하거나 검토할 때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입니다.



(주)청우시스템
 02-587-5168/9



이태리풍의 미래형 건축내외장재- 대림 미라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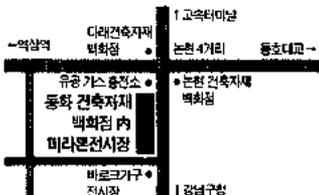


고객신뢰의 대림이 국내 최초로
ITALY BRETON사의
세계특허공정으로 만든 미래형
첨단건축 FASHION 내외장재-
아름답고 한차원 높은 품격을 요구하는
건축물에는 미라톤을 꼭 사용하세요.

대림 미라톤의 특징점

- 천연석이 표출 할 수 없는 색상과 질감을 낼수 있습니다.
- 충격이나 마모, 화학물질에 강합니다.
- 공극이 없는 미라톤은 흡수율이 "0"에 가깝기 때문에 동결융해에 의한 "해"가 없습니다.
- 두께; 12mm, 15mm, 20mm, 30mm 크기; 3m x 1.2m 범위 내
- 건축물 뿐만 아니라 INTERIOR FURNITURE (싱크대, 세면대, 탁자등) 에도 좋습니다.

대림미라톤 상설전시장 OPEN
TEL.(02)516-5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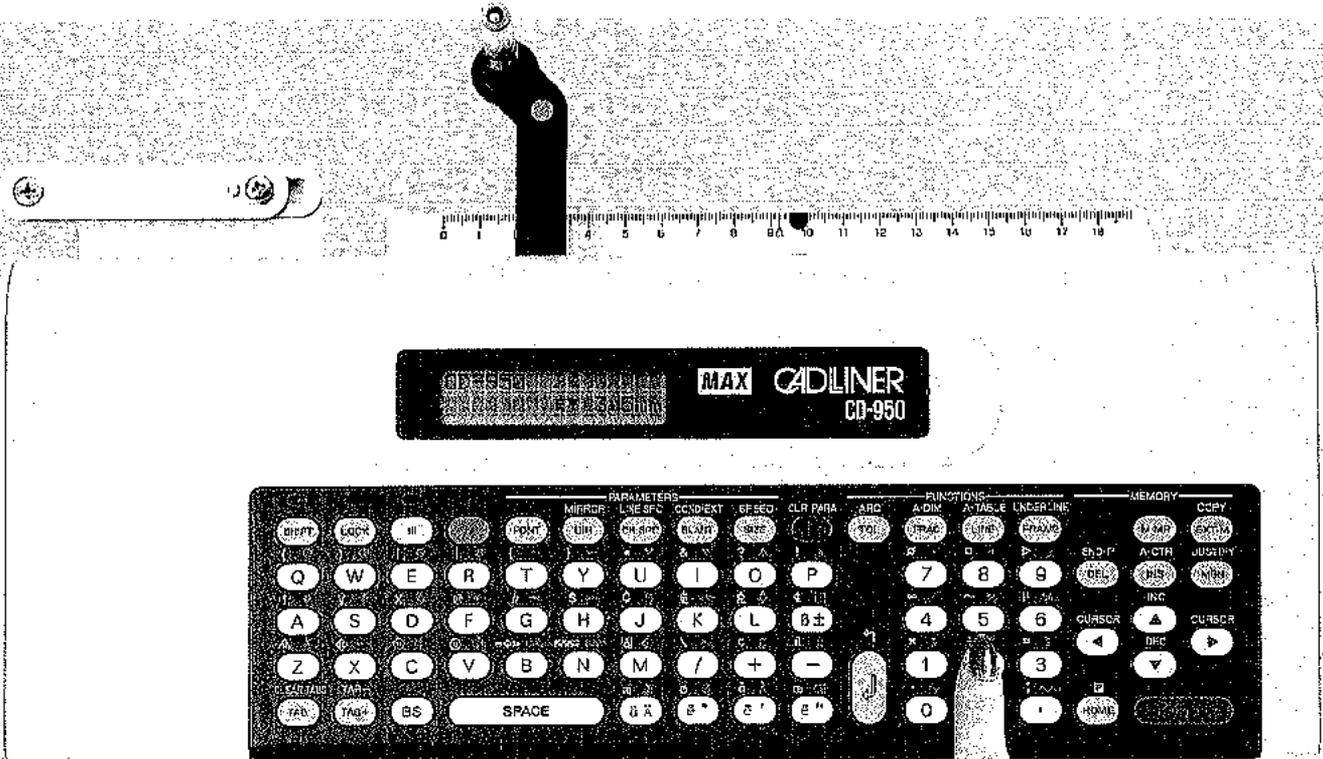


대림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본사: TEL (02) 725-3501-9 공장: TEL (0415) 62-8101-4

“깨끗한 도면, 살아있는 글자체 (한글·영문)”

세계최초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

아직도 글씨를 손으로 쓰고 계십니까?
설계도면 및 레터링 작업시 빠르고 깨끗하게 쓸수있는 레터링 프로터.
자, 이제는 맡기십시오!



CAD LINER CD - 950

특 징

- 세계최초로 개발된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로 정전시에나 현장등 어느곳에서나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7가지 영문체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도면 사양에도 적합합니다.
- 더욱 깨끗하고 새로워진 한글체도 기본으로 되어있어 편리합니다.
- 기존제품 보다 훨씬 다양해진 기능과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해진 컴퓨터식 보턴.

용 도

- 기계 도면 제도, 건축 도면 제도, 전기 도면 제도, 전자 도면 제도, 토목 도면 제도, 측량 도면 제도, 설비 도면 제도, 연구 논문 작성, OHP 필름작성, CAD 원도작성, 기타 서류 작성 등.
- 각종 설계도면의 내용 표기, 글자, 기호등 표기.
- 정확하고 깨끗한 글씨는 설계도면의 품위와 신뢰도를 높여 줍니다.

CADLINER CD-950

MAX

수입원 : **유 미 교 역**
서울 중구 북창동 93-3
(삼육빌딩 603호)
TEL (02) 776-2252
FAX (02) 776-2253
H. P. 011-272-1929

이태라 NEOLT사 제품입니다.

설계제도의 필수품 - 레터링 플로터 한글 스크라이버 NED-316



신제품

한글 스크라이버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도면작업의 효율화를 이루고 설계도면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설계·제도용 OA기기 - 한글 스크라이버 NED-316 한글, 영문, 숫자, 기호 등의 레터링은 물론 각종 도형을 프로그램하여 저장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플로터가 복합된 첨단 레터링 플로터입니다. 또한 CAD와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더욱 경제적입니다.

NED-316의 특징

- 한글, 영문 14가지 기본서체 내장
- 문자크기 최대 40mm, 메모리 8k로 확장
- 단축키 사용으로 간편한 조작

(주)삼아 테크시스템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6-17 장흥빌딩
(02) 515-3287 (代)

100년을 위한 선택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이젠 시멘트도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한 방울의 물도 통과시키지 않는다

쌍용 방수몰탈 (섬코트)

- 액체 방수의 문제점 (크랙, 들뜸 등)을 해결한 최신공법의 방수몰탈

강도 800 이상 발현

쌍용 고강도 시멘트

- Autoclave양생설비 불필요, 고강도용 시멘트 2차제품 생산용

빠르다. 그리고 견고하다

쌍용 초조강 · 초속경 시멘트

- 초조강 - 1일에 보통시멘트 7일강도 발현
- 초속경 - 3시간만에 보통시멘트 7일강도 발현

기타특수시멘트

- 쌍용 금결재(스피더) 탁월한 금결성, 초기강도 우수한 슛크리트용 금결재

- 쌍용 S/L재 스스로 정밀한 수평을 유지하는 자동 수평몰탈

- 쌍용 비폭성파쇄제 유진동무소음, 무공해의 혁신적 파쇄제

전문 취급점

- 서울지역 남양사(02)470-4188 나진물산(02)307-9691~4 쌍용기술(02)333-9045 부성건영(02)419-7357삼근개발(02)508-1012
- 경기지역 인성상사(032)431-9279 남유산업(032)420-1151 금용산업(0345)407-6500
- 대전지역 태영상사(042)253-9338 (주)세화유용산업(042)486-9561 • 대구지역 대도록수(053)958-4921한양양행(053)983-5577 이건설사(053)768-0540
- 광주지역 효광산업(062)675-4659 신홍상사(062)525-7489 (주)태정(062)941-2582

쌍용 첨단 특수시멘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어떠한 틈새도 허용치 않는다

쌍용 그라우트재(바스콘)

- 기계기초, 철골 및 철주기초, 교량 이음부양카볼트 집합 등을 빈틈없이 견고하게 접합시켜 줌
- 무수축, 고강도, 고유동성의 간편한 프리믹스 타입

수중 공사의 완벽한 해결사

쌍용 수중콘크리트 혼화제(워터콘)

- 우수한 증점성, 고유동성에 의한 총진효과로 수중에서 재료분리가 없고 강도 발현이 우수한 수중 콘크리트용 혼화제
- 교량 및 수중·해양 구조물의 기초콘크리트 제조, 방파제, 하천제방의 구축 및 보수용 콘크리트 제조

연약지반을 돌처럼 단단하게

쌍용 마이크로시멘트(마이셈)

- 연약지반 보강용 초미립자시멘트
- 지하철, 댐 축조현장 등 기초 그라우트

• 쌍용 토질안정제

연약지반 개량 및 안정화 처리제

• Pile-cutter

현장타설일쪽의 두부정리용 파쇄제



최고추구 · 세계기업

쌍용양회

제품문의 : (02)270-5432~7

• 경북지역 신성도건(0562)72-2400 용미상사(0561)773-1211 쌍용상사(0562)73-4129 쌍용판매(0546)52-3033 동아상사(0582)34-4239
 선진개발(0662)74-4413 • 부산지역 도시발파(051)441-3251 신화건재(051)208-7144 부산시멘트(051)532-0016 • 경남지역 쌍용특수(0551)45-4547
 (주)경남(0522)66-6700 명보상사(0557)41-4571 • 전남지역 대양건영(0667)793-0207 대성산업(0631)78-3542 • 전북지역 대한건설(0652)243-0366
 • 강원지역 원성산업(0394)34-9591 학진상사(0371)731-9951

Robbins 

Premium Hardwood Floo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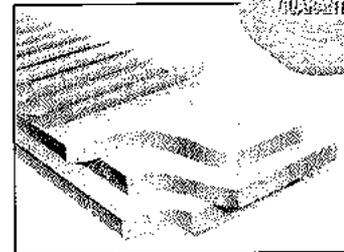


(국제 라이선스 DIN 독일규격 합격)

원목바닥재의 명품 - 로빈스

새로운 목재문화의 창조

올림픽이 증명한
최상급의 바닥재
로빈스 우드프러링!
100년 전통을 자랑합니다.
(88 서울올림픽, 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실내경기장 시공)



(5년간 품질보증 마크)

(도장의 극치)



(Permacushion
Maple system)



(Maple Natural)



(Oak Chablis)

규격/주거용 10/12mm X 57/76mm X 1219mm
상업용 19mm X 57/83mm X R/L
체육관용 20/27mm X 57mm X 2130mm
수종 : Oak, Maple 시공 : Glue down or Nail down

 동양목재공업주식회사

본 사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45
TEL: 032-763-1321 ~ 4 FAX: 032-762-0015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8-1 금정빌딩 6층
TEL: 514-5411 (교환) 641 ~ 4 FAX: 546-8175
546-8174 (직통)

취급품목

건축마루재/고무바닥재/PVC바닥재/세라믹타일/무늬



국산신기술력독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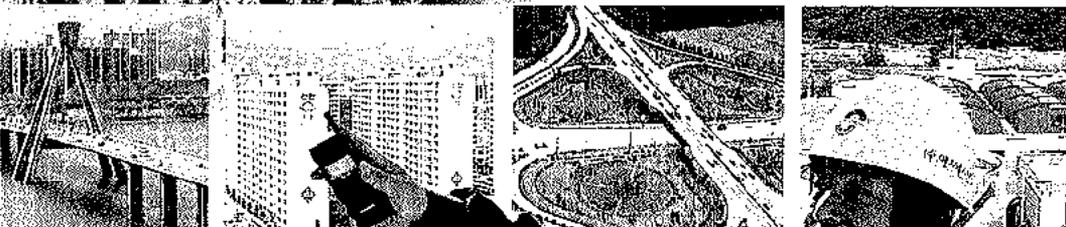
업계 최초 신기술 인정 K.T. 마크 획득

- 83 소제국산의 및 양산의 지정업체 선정(특수산업부)
- 91 발명특허 제77184호, 제77185호 획득(특허청)
- 92 신기술 창업자금 지원대상업체 선정(재경원)
- 93 국산 신기술(K.T. 마크 획득(과학기술처))

고품질 콘크리트 균열방지 입체섬유보강재 - 슈퍼스트롱 콘.화이버®



(주)에스에스산업의 신기술, 신소재 - 슈퍼스트롱 콘.화이버® 는 현재 국내 및 수입 외제품 콘크리트 보강용 합성섬유 중에서도 뛰어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최고의 제품입니다.



■ 특징

- 건조수축 균열 억제.
- 충격, 파손, 마모, 저항력 증대.
- 투수성 감소(철근부식 감소)
- 동결 및 융해 손상감소.
- 메탈라스 및 와이어 매쉬 대체.
- 숏크리트 리바운드 감소



(주)에스에스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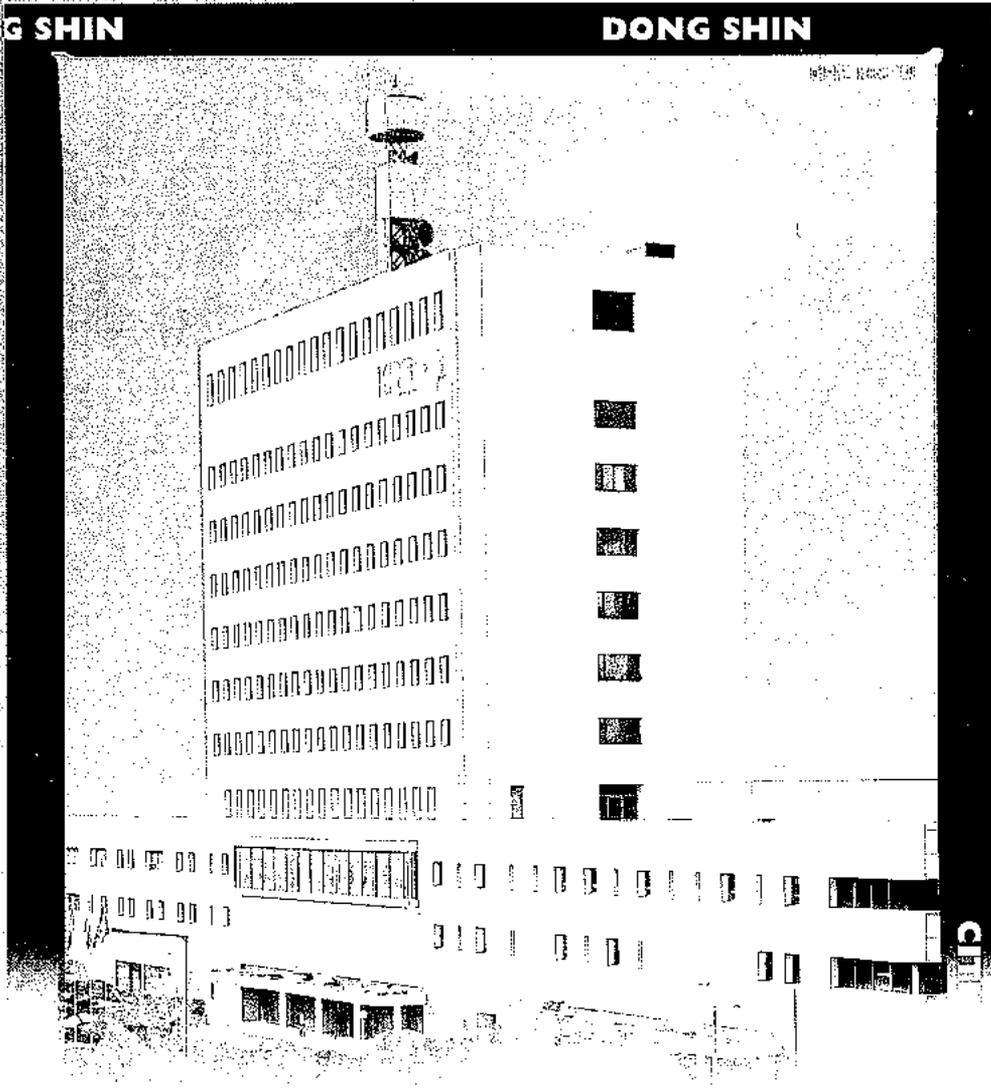
●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3동 779-10(석암8/D)
 TEL : (02)836-2233(대표) FAX : (02)836-2222
 ● 공장 :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소내리 213-1
 TEL : (0334)72-0789 FAX : (0334)73-0789

영업종목 : 슈퍼스트롱 콘.화이버® / 아스콘 화이버®



DONG SHIN

DONG 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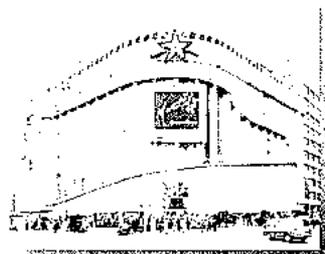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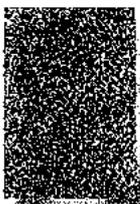


이제 건물이 확 달라집니다 —

CITIWALL®

CITIWALL은 Laminating 방식이 아닌
 Flow Curtain Coating 방식으로 제조되는 불소무늬 판넬입니다.
 다양한 색상과 자유로운 패턴의 첨단 외장판넬로서,
 건물의 신선한 활기와 패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표현력으로 개성적인 외관디자인은 물론 건물의 이미지변경에 최적합합니다.

KBS별관/ 청주여객승용차터미널/ 메트로미도파/ 조흥은행 하남지점/
 러시아 홀스크 현금계산센터/ 인도네시아 KIANI KERTAS빌딩등에
 시공되어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신개발 건축자재입니다.



메트로 미도파

DONG SHIN

DONG SHIN



동신법랑이 선택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랑판넬의 가장 큰 장점은 내후성과 내부식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내충격성뿐만 아니라 자외선과 비바람에도 변색, 부식이나
광택이 떨어지는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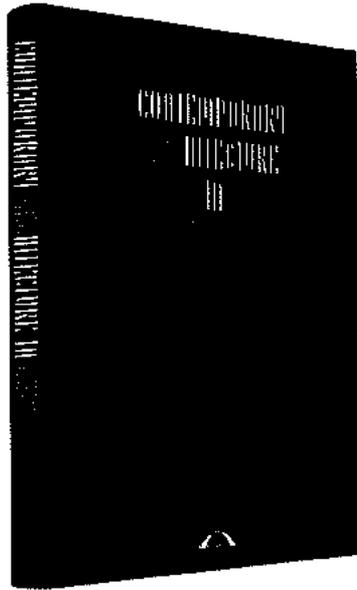
미국 법랑연구소가 미국 국가표준국과 합동으로 실시한
법랑판넬 30년 내후성 시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내후성의 극대화, 시공시의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법랑판넬은 본연의 아름다움과 반영구적인 광택도,
뛰어난 경제성으로 이상적인 건축 외장재입니다.

목천 관성장 호텔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ASIA



발언에서 전세계 건축인들에게 아시아건축을 알린다.

- 영문본
- 대한건축사협회 지음
- Size : 235×310mm 양장본
- 아시아 15개국의 83개 작품 수록
- 풍부한 화보, 도면, 해설(비평)
- 전세계 출판사 및 서점망을 통해 배포
- 가격 : 35,000원

아시아 15개국의 유명한 건축가들의 빼어난 걸작 83개 작품에 대한 사진, 도면과 비평이 실려 있는 책이다.

이번 단행본에는 주로 아직 건축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의 건축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그들 특유의 재료와 디자인으로 계획된 이색적인 것들이 눈에 띈다.

해설 또한 단순한 건물의 형상이나 디테일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어쩌면 어렵기도 한 주제를 쉽게 서술한 점이 이책의 특징이다.

아시아 건축의 현재 모습을 파노라마로 보면서 오늘날 우리 건축의 질적 수준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필독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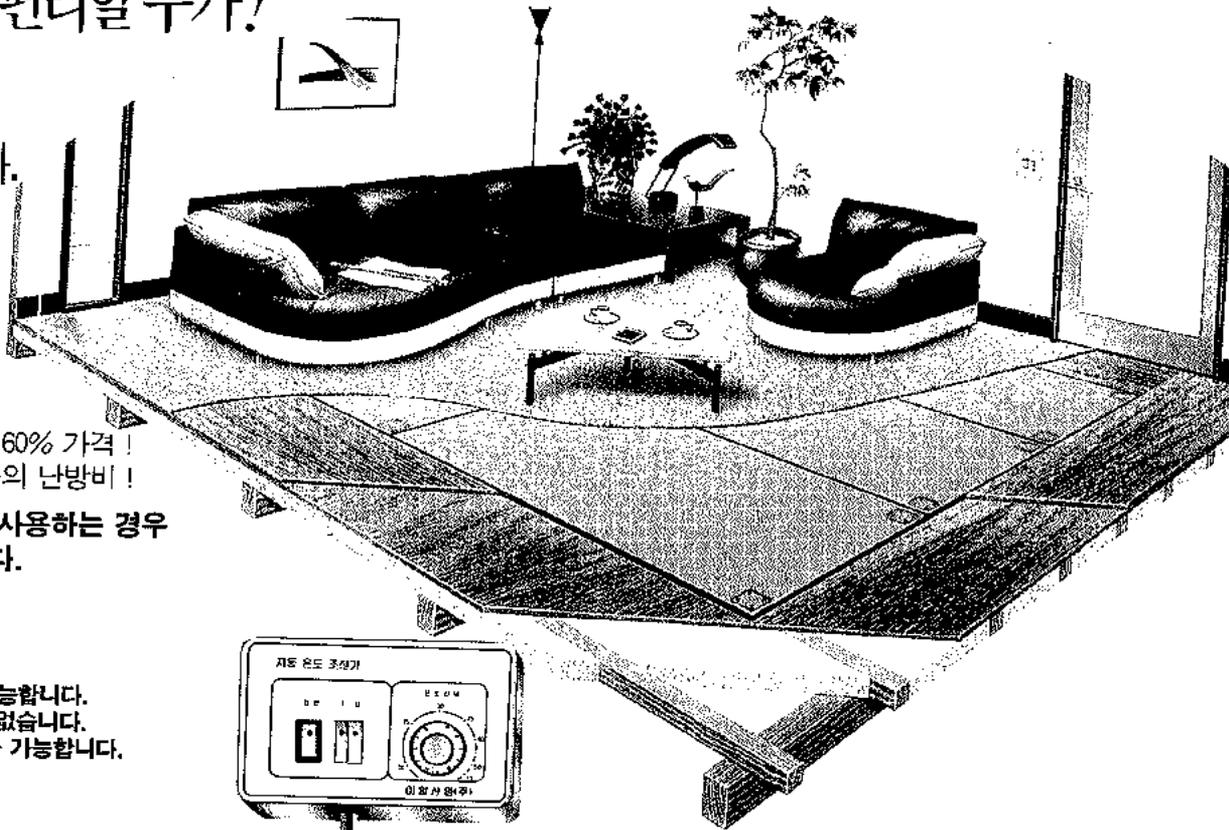
이책에는 한국건축으로 김종성, 김석철, 김원, 등의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저자:ARCASIA
가격:35,000원

이일 전기 온돌판넬

이렇게 따뜻하고 편리할 수가!

당일시공, 당일난방,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시공비는 가스, 기름보일러의 60% 가격!
가스, 기름값보다 저렴한 수준의 난방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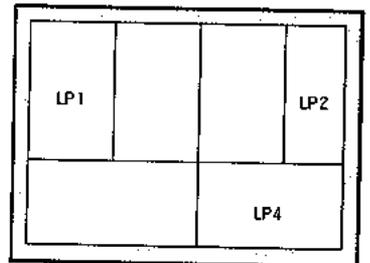
일반용 전기나 산업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연료보다도 경제적입니다.

1. 시공이 간편합니다.
2. 경제적입니다.
3. 스위치 작동 후 5분이면 난방이 가능합니다.
4. 쾌적한 공간, 소음, 연기, 냄새가 없습니다.
5.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 설치장소

일반 주택은 물론 별장, 여관, 기도원, 절,
놀이방, 현장숙소, 빌딩대기실, 휴게실,
콘테이너 하우스 등의 난방, 특히 음식점,
독서실, 유아원, 공장 기숙사의 온돌 난방에
아주 좋습니다.

■ 설치프랜 예



공진청 형식승인 3-7-4527
실용신안권출원 제91-11674호
실용신안권 출원 제92-18466호
의장권 출원 제91-10816호

* 본 제품은 1억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방면적 10.2㎡/난방면적 7.5㎡/부설율 73.5%
- 소요지체
 - 온돌판넬 LP1 (220V/240W) × 4장
 - 온돌판넬 LP2 (220V/120W) × 1장
 - 온돌판넬 LP4 (220V/180W) × 1장
 - 온도조절기(중형) × 1대
- 전기용량소요 1.26kw
- 전기요금예상
 $1.26kw \times 10hr/일 \times 0.7 \times 59원/kwh = 520원/일$
 $520원 \times 30일/월 = 15,600원/월$
 ※ 1일 10시간 사용, 통전율 70%, 전기요금(일반용 전기)단가 59원/kwh의 월간전기요금임.



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9-4(덕암빌딩 402호)
TEL. 521-9417~8 FAX. 521-9419
공장: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94블럭 14롯데
TEL. (032)813-5407 812-8798

지방지역의 총판

대전: (042)628-2945 강원: (0392)33-0917
부산: (051)248-8933 광주: (062)225-0064
대구: (053)753-4848 제주: (064)44-4520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6년1월호 통권321호

發行人 : 金圭泰
 編輯企劃 : 編纂委員會
 委員長 : 李俊憲
 委員 : 吳龍夫, 李柱勳, 梁海潤, 崔泰容, 李 頤, 金宗植
 編輯·取材 : 弘毅部/梁元錫, 鄭孝相, 趙漢國, 李善模, 尹泰日
 發行處 : 大韓建築士協會
 (協會創立日:1966년10월23일)
 住所 :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 137-070
 電話 : 代表 (02)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 (02)586-8823
 登錄番號 : 서울 라·28(月刊)
 登錄 : 1987年 3月23日
 U. D. C : 69/72(054-2) : 0612(519)
 印刷人 : 李鳳秀/正文社

Publisher : Kim Gyu-Tae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Chun-Heon
 Member : Oh Yong-Boo/Lee Joo-Hoon/
 Yang Hae-Yoon/Choi Tae-Yong
 Lee Bok/Kim Chong-Shik
 Assistant Editor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87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 및 복사
 는 금합니다.

차례

1996년 1월호 통권 321호

신년사	
우리 건축의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 김규태	26
칼럼	
건축사, 그들은 누구인가? / 조구현	28
논단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2) / 최찬환	30
회원작품	
대법원 청사 / 윤승중+변 용	34
영상 아카데미 / 종합건축 삼정 디앤드지	40
청소년 수련마을 보람원 / 서보광	46
서울 스피드 웨이 / 문성운	52
청주 예술의 전당 /곽은영	58
계획작품	
색장리 주택 / 김석환	62
회원칼럼	
팔공산 연불암 가는 길에서 / 임종순	64
허물어진 공간 그 안의 우리... / 윤여욱	65
일하며 생각하며	
모여서 내일을 열며... / 김정관	66
작품노트	
연남동 「STEP」 / 방철린	68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 정인국(1) / 박길룡	72
건축기행	
중국건축기행(1) / 박재환	76
전통건축	
한국 유교 건축의 재조명(5) / 김지민	84
해외건축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9) / 박효순	92
현상설계경기	
경부고속철도 통합역사 (남서울, 대전, 동대구)	101
법령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령	114
통계	
1996년도 11월분 설계도서신고 현황	122
95년도 건축사시 출목차	124
협회소식	126



표지사진 / 대법원청사(윤승중+변 용)

CONTENTS

VOL 321 JANUARY 1996

NEW YEAR ADDRESS

Go on New Courage / Kim Gyu-Tae 26

COLUMN

Architects, Who are they? / Cho Gu-Hyeon 28

PLATFORM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Law & System(2) / Choi Chan-Hwan 30

WORKS

The Supreme Court, Korea / Yoon Seung-Joong & Byeon-Yong 34

Motion Picture Production Corporation / Samjung Architects, Engineers & Planners 40

Poramwon, Youth Training Village / Suh Bo-Kwang 46

Seoul Speed Way & Bau Bau / Moon Sung-Un 52

Cheonju Art Center / Kwak Eun-Young 58

PROCESS WORK

Saekchang-ri Dwelling House / Kim Seok-Hwan 62

GALLERY

The Way to the Yeonburaam of the Palgong Mtn. / Im Jong-Soon 64

We are in the Collapsed Space / Yoon Yeo-Wook 65

ESSAY

Prepare for Tomorrow / Kim Cheong-Kwan 66

WORK NOTE

Yun-nam dong 「STEP」 / Bang Chul-Lin 68

SERIAL

Korean Architect, Cheong In-Kuk(1) / Park Kil-Ryong 72

ARCHITECTURE TRAVEL

The Travel of Chinese Architecture(1) / Park Chae-Hwan 76

TRADITIONAL ARCHITECTURE

A Study on the Confucian Architecture in Korea(5) / Kim Chi-Min 84

OVERSEAS ARCHITECTURE

Catholic Church & Manastery Building in France(9) / Park Hyo-Soon 92

COMPETITION

Union Station House of The Seoul-Pusan Rapid-Transit Railroad 101

LAWS & ORDINANCES 114

STATISTICS 122

'95 GENERAL CONTENTS 124

KIRA NEWS 126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당실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서대문분회/33-8411 · 관악분회/882-6744 · 도봉분회/903-3425 · 영등포분회/632-2143 · 강동분회/484-6840 · 강서분회/604-7168 · 성동분회/446-5244 · 동대문분회/923-0158 · 종로분회/735-0905 · 마포분회/333-5251 · 송파분회/423-9158 · 중구분회/279-1415 · 용산분회/717-6607 · 서초분회/552-8468 · 은평분회/388-1486 · 동작분회/815-3026 · 강남분회/517-3071 · 노원분회/933-8076 · 양천분회/653-2892 · 중랑분회/437-7356 · 성북분회/922-5117 · 구로분회/852-2275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안동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256-9350~4
■경기도건축사회/(031)47-6129~30

직할분회/(0331)43-6662 · 안양분회/(0343)49-2698 · 부천분회/(032)664-1554 · 성남분회/(0342)755-5445 · 의정부분회/(0351)876-0458 · 송탄분회/(0333)666-6153 · 고양분회/(0344)63-8902 · 구리분회/(0346)63-2337 · 이천분회/(0336)635-0545 · 광명분회/(02)684-5845 · 안산분회/(0345)80-9130 · 시흥분회/(032)694-4121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원주분회/(0371)43-7290 · 강릉분회/(0391)41-7371 · 속초분회/(0392)33-5081 · 삼척분회/(0394)31-8708 · 영월분회/(0373)374-2659

■충청북도건축사회/(0431)56-2752 · 53-7342
충주분회/(0441)847-3082 · 제천분회/(0443)43-6258 · 옥천분회/(0475)33-3502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천안분회/(0417)551-4551 · 홍성분회/(0541)32-2755 · 부여분회/(0463)835-2217 · 대천분회/(0452)34-3367 · 서산/(0455)64-8500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아리분회/(0653)52-3796 · 군산분회/(0654)452-3815 · 남원분회/(0671)33-2000

■전라남도건축사회/(062)346-7567 · 33-9944
목포분회/(0631)72-3349 · 순천분회/(0661)743-2457 · 여수분회/(0662)33-2000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2-8317~8
포항분회/(0562)44-6029 · 경주분회/(0561)772-4710 · 구미분회/(0546)51-1537~8 · 안동분회/(0571)54-4832 · 김천분회/(0547)434-2541 · 영주분회/(0572)34-5560 · 점촌분회/(0551)53-6877 · 상주분회/(0582)32-5868 · 경산분회/(053)812-6721 · 달성분회/(053)634-6336 · 영천분회/(0536)34-8256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울산분회/(0522)74-8836 · 진주분회/(0591)745-6403 · 함무분회/(0557)645-7420 · 김해분회/(0525)35-5892 · 김양분회/(0527)355-4848 · 거창분회/(0586)43-6090 · 양산분회/(0523)84-3050 · 거제분회/(0558)635-3432 · 삼천포분회/(0593)33-9779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분회/(064)62-2233

우리건축의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

Go on New Courage

김규태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Kim Gyu-Tae

친애하는 전국의 회원 여러분!

새해 새아침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빌며 또한 여러분의 꿈과 희망 그리고 모든 소원이 금년 한 해 동안에 모두 성취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온갖 역경속에서도 우리 건축문화와 협회발전을 위해 회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노고에 대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95년은 우리 건축계가 개혁과 새로운 위상찾기에 많은 정열을 쏟았던 한 해였습니다. 과거의 시행착오나 잘못들을 가려내어 깨끗이 씻어내고 시대의 조류에 편승한 제도 약의 새 발판을 구축코자 모두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상치 못했던 여러 시련들로 우리의 그 같은 노력들은 미처 빛을 발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충격은 우리 건축의 지난 업적들을 묻어둔 채 피땀흘려 쌓아올린 우리 건축계의 위상을 일순간에 추락시켜 놓았으며, 그동안 국가건설의 주역으로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히 임해왔던 대다수의 건축인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시장개방에 따른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건설관리제도의 도입논의와 부실공사에 따른 처벌기준 강화로 우리 건축사들에겐 힘겨운 한해로 기억됩니다.

이렇듯 힘들고 어려웠던 95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몸이 건강해야 병균에 감염되지 않듯이 건전한 건축풍토 속에서 전문인으로서의 품위와 역량을 강화해 나갈 때 어떠한 외부의 도전이나 시련도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의 우리 건축계 주변상황 역시 결코 낙관할 수 없기에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건축전문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직업적 소명을 다함으로써 우리앞에 가로놓인 시련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 위기를 한국건축의 새로운 위상을 창출하는 절호의 기회로 맞아야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조류는 문물은 물론, 인간의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지역간, 국가간의 교류가 더욱 가속화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우리가 모델이 없는 사회, 정형이 없는 세계를 맞고 있음을 말합니다. 정형이 없다면 스스로 길을 정하고 이를 개척해 나가는 것 이외의 대안이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은 WTO체제의 공식 출범과 함께 우리의 건설사장이 본격 개방되는 해입니다. 물밑듯이 밀려들어올 외국의 대형 자본과 선진기술에 맞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갑절이나 되는 땀과 차원을 달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미 우리 건축이 세계 곳곳에서 그 무한한 가능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선진건축과 경쟁하기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 취약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중차대한 시점에서 우리는 보다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과 구조적 조정을 통해서 우리건축의 국제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사의 노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불확실하더라도 눈앞에 일어난 사실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로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을 주목하는 투명한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미래를 예측하며 현실을 적극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모두 분발하여 개개인의 능력을 총체적으로 발휘함으로써 한국건축의 비약적 발전에 주마가편의 효(效)를 가일층 제고할 것을 다같이 다짐합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작년 우리는 협회창립 30주년을 맞아 이를 계기로 향후 30년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벌여왔습니다.

비록 지난 역사가 절곡과 기형발전의 다소 불만족스러운 역사일지라도 이를 거울삼아 이제부터는 새롭게

일신하여 건축사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회원간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롭게 30년을 출발하는 96년, 우리모두 과거의 시대순응적인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건축을 사랑하고 건축을 천직으로 여기는 전문인으로서의 양심에 입각하여 우리의 건축문화를 공명정대하게 선도하는 강력한 단체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저해하는 각종 모순된 제도와 관행에 대한 과감한 고발과 도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몰이해 되고 있는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 시킬수 있는 계몽과 홍보활동을 확대·강화하여 건축문화가 바로 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일년지계는 원단에 있다고 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사회 각 분야는 나름의 새해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결의를 새롭게 합니다. 개인은 물론이며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라 할지라도 자칫 타성에 흐르기 쉽고 자신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므로 새해는 그러한 기분을 일신하고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절호의 기회로 삼읍시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이를위해 현실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언제나 '가장 앞서가는 건축'을 창조해 내는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완수에 전력을 다해 땀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고결하게 가꾸어 온 우리들 건축사의 긍지가 새해를 기점으로 마땅히 보람으로 다가오리라 믿고 염원합니다.

아무쪼록 회원들 서로가 올해의 푸짐한 수확을 다짐하며 끊임없이 새바람을 일으키는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丙子年 元日

이 지구상은 말할 나위 없이 좁디좁은 땅 한국 안에도 직업의 종류가 3천 몇백 가지가 된다고 한다. 그 중에는 실속은 없으나 존경받는 직업, 실속(?)은 있으나 존경 못 받는 직업, 외형상은 그럴듯하나 내용이 없는 직업, 외형상 존경은 못 받으나 내적으로는 철학이 충만한 직업 등 다양하다.

건축사, 그들은 누구인가?

Architects, who are they?

조구현 / 신세대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o Gu-Hyeon

그렇다면 우리 건축사는 어느 부류에 들어가는 직업일까? 자부심이 있는 직업일까? 자부심은 있고 내용이 없는 직업일까? 자부심이나 내용이 다 없을 수도 있고, 다 있을 수도 있는 것일까? 다시 태어나도 건축 Design을 할 것인가? 그 반대인가? 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도 선뜻 답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

비슷한 예로 사회에서 초면인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나면 으레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하고 묻는다. 대답은 “설계사무실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는 어쩐지 당당하지 못하다. 다음번 기회 때는 “건축Design 합니다.”하고 슬쩍 영어를 써본다. 이때는 어쩐지 무보수 취미로 하는 것같은 인상을 주어 경제력이 없어 보여 이도 그리 당당치 못하다. 스스로 나는 예술가요, 또는 건축가요 하기에는 좀 쑥스럽다. 멋있게(?) 아니면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적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없을까? 변호사는 법만 하면 되고, 기계를 다루는 사람은 엔지니어링만 하면 된다. 또, 순수예술을 하는 사람은 예술만을 하면 된다.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업만을 하면 된다. 우리 건축사는 어떠한가? 예술, 법, 엔지니어링, 운영의 모두를 복합적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에는 작품활동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복잡하고도 복합적인 일들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상호 상반된 학문을 교묘하게 균형을 맞추어 나아가면서 상당한 수준에까지 이끌어 올렸다고 생각하고 싶다.

돌이켜 보건대 건축법에 있어서의 60년대는 건축법을 모르고도

작품활동을 하는데 거의 걸림돌이 없을 정도였던 것은 건축법이 불과 몇 페이지의 계획학의 기본에 불과하였기 때문이었으리라.

70년대에 들어 오면서 건축법이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80년대에 와서는 법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확대되어 감과 동시에 복잡하면서도 다양해져갔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극에 달함과 동시에 법의 개정보완이 조석으로 바뀌다시피 하여 디자인 업무는 제쳐두고 바뀌는 법만을 공부하기에도 벅찰 지경에 이르른다. 출판사가 조석으로 바뀌는 법으로 인하여 법관계 책자의 출판을 못할 지경에 까지 이르른다.

언젠가 우연한 기회에 건축법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들린 적이 있다. 그때 아연 놀랐던 것은 법을 담당하는 담당자수가 적다는 것이었다. 우리 건축사의 수는 정확히는 모르나 5천명 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많은 건축사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을 선포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자신들의 이기적 입장만을 내세워 왈가왈부하는 사이에 몇몇의 담당자들에 의하여 법이 확정되어 버리고... 건축사들은 그때에 와서야 불만이나 터뜨리고, 책임전가나 하고, 이것이 지금까지의 우리들이었다. 여기에 와서는 다시 감리단인데, 종합건설회사도 설계를 할 수 있게 하네, 기술사들도 감리를 할 수 있게 하네, 야단들이다.

같은 건축사들 간에도 설계전담 사무소와 감리단간에 이권다툼이나 하고, 이전투구도 이민저만이 아니다. 이쯤되니 협회의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한다.

협회에 꾸준히 관심을 갖던 회원들도 너무나 복잡하여 수수방관 상태에 들어갈 뿐아니라 차라리 무력감

에 빠졌다고 보는 편이 옳다고 하겠다. 또, 이쯤 되면 모양새도 안좋고 실속도 점점 없어지게 마련이다. 나는 제자리에 그대로 놓아두고 내상태를 유지하자면 주위를 끌어 내리는 수밖에는 없지 않은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식의 단계는 미신, 상식, 과학, 철학, 종교의 순으로 이루어진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건축수준의 단계는 어떠한 순서일까. 확신할 수는 없으나 초보적 단계의 하나로서 최소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 기능적측면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의 발전된 사회에서 완벽한 기능을 갖춘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 아름다워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예술성이 가미되어야 하며 아름다움만으로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니 철학이 다시 첨가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의 세계라는 측면에서는 종교적 가치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기능, 예술, 철학, 종교의 네단계중 어디쯤에 와있다는 것인가?

스스로 점수를 먹여 봄직도 하다.

얼마전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어느 미국인이 영시를 읊어 댔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 소개해 본다.

Bell is not a bell until it is rang.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지 않아요.)

Song is not a song until you sing it.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Love is your heart is not put there to stsy.

(마음속에 사랑은 그 곳에 머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Love is not love until you give it away.

(사랑은 남에게 줄 때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2)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Law & System

건설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최찬환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by Choi Chan-Hwan

1. 서론

밖으로는 건설개방화 시책과 안으로는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으로 건축계는 격변과 시련을 함께 맞이하게 되는 그 유래가 없는 엄청난 개혁과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96년부터 건설시장의 개방화가 시작되었고 95년도에는 다시 생각조차하기 싫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엄청난 인명사고와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으며 이러한 건설사고는 건축계 전반적인 부조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건설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획기적인 개혁이 불가피하였으며 현안의 여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전문가집단이 참여한 건설제도 개혁기획단을 구성하여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합리적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문제해결에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와같은 제도개선의 대안중 최종적인 결과의 하나로 건설관리(construction management)를 도입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건설관리개념과 특성 그리고 이를 도입함으로써 오는 건설업계 전반적인 영향 등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제 건설관리(CM)의 도입과 시행은 기존건설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며 이에 따라 건축사업무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 CM의 개념

CM은 제도로서 보다는 하나의 계약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CM은 종합용역서비스회사이며 한국에서 건설회사와는 매우 다르다.

CM은 발주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각 전문업역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결합을 도모하는 것이며 발주자가 건설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효율적 관리가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정보와 관리기법을 가진 용역회사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여러업무를 그 적임자를 계약에 의해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 복합공정의 공사에 있어서는 전문업체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크며 더구나 발주자가 계약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공사관리를 원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건설관리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CM회사가 설계회사이거나 시공회사이든지 무관하며 회사가 어떤 조직형태를 가지느냐보다는 어떠한 업무와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CM은 건설관리의 전문회사이므로 발주자에게는 전문적 관리를 대행함으로써 가장 낮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줄 수 있으며, 공사참여자들에게는 적절한 이윤을 보장하는 한도에서 설계 및 시공을 운영 관리한다.

CM의 활동영역은 초기단계에서 예산(Project Financing) 개발타당

성(Feasibility study), 완공후 유지관리에 대한 서비스 등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으며, CM이 공사에 참여하게 되는 시점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수행되며 특수한 관리기능에만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CM의 기능은 공사의 규모, 성격, 예산 등에 의해 CM과 발주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3. CM의 발전형태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와 공사참여자의 역할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공사계약방식과 조직체계가 있었다. 건설공사의 발전과정을 다음의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Master Builder시대

초기의 전통적인 계약방법으로 건축주가 공사참여자에게 계약에 의해 전적으로 위임하는 형식이다. 이때 Master Builder는 설계 감리 시공 등 전반적인 건설공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소규모 단순공법 등 제한된 공사유형이나 전문화된 건설참여조직이 없을 때 채택되는 초기단계의 건설수행방법이다.

2) 시공전문업체(General Contractor)의 시대

건축주는 전문화된 설계자와 시공자와 계약에 의해 전문업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임한다. 초기 Master Builder는 설계자와 시공자로 업무분화가 이루어지며 이는 산업기술의 발달 건설물량의 수요증대와 유형의 변화, 자재, 장비, 공법 등의 발달과 전문화의 진행에 따라 이루어진다.

3) 건설공사의 전문화시대

시공전문업체(GC)가 건설공사의 수행과정에서 공정한 전문시공업자에게 하도급에 의한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관리를 하는 형식이다. 공사규모의 확대, 건설과정과 공정의 복잡화, 전문화로 인하여 여러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며 시공전문업체가 자체공사 이외에 참여하는 이들 전문건설업체의 공사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자기공사에 대한 업무수행과 함께 하도급 관리가 이루어질 때 부분적 CM업무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전문공사관리자로서의 CM

건설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는 대규모, 복합공정의 건설프로젝트에는 시공업체의 콘소시움회사, 여러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게 되므로 전문공사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이때는 시공업체(GC)가 하도급의 형

태로 관리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계약방식에 의해 구분하면 전통계약방식을 제1의 계약방식이라 한다면 설계시공의 일괄발주방법인 Turn-Key공사를 제2의 계약방식으로 볼 수 있다.

Turn-Key공사는 종전의 설계가 완료된 후 시공을 발주계약하는 전통적 계약방식에서 탈피하여 설계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설계와 시공이 일괄 발주한다고 하여도 설계와 시공이 각각 전문업체와의 제휴에 의해 전문화되고 있으며 결코 전문화에 역행되는 계약방법은 아니다.

건설공사는 기획 조정 통제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시공회사가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등 프로젝트전체의 관리운영과 경영기법의 구축이 절실해짐에 따라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부터 CM회사가 시작하게 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회사는 건설시공회사(GC)보다는 CM회사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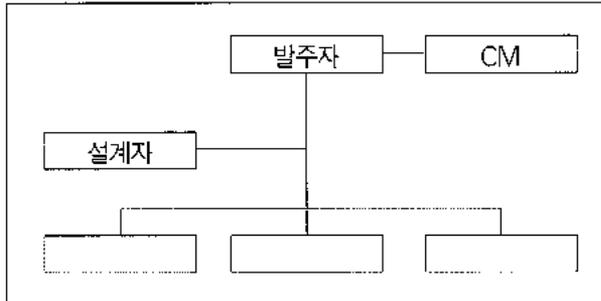
CM은 Turn-Key방식에 이어 필요에 의해 개발된 제3의 계약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콘소시움(consortium), 파트너십(partnership), 협력체제(cooperation)등 다양한 전문기술조직의 조합,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기술공정, 공사비, 공기, 수행방법의 융통성을 가진 Fast tracking이 가능한 제4의 계약방식이 선진국에서 시도되고 있다. 다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고도의 전문화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술, 가격, 품질경쟁에 의해 승패와 사활이 걸려있다는 점 등은 변함없는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건설조직이든 그리고 어떤 계약방식이든 필요에 의해 이를 추구하게 되고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전문화 그리고 경쟁력강화라는 불변의 질서를 위해하거나 역행하지 않는다면 환경변화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다양성과 융통성을 가지는 것은 극히 당연하며 자연스러운 일이다. 필요하다면 CM은 도입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설계회사도 시공회사도 고유한 전문업역이나 그 역할 그리고 위상의 변화는 없다. 보다 보완적인 전문영역이 생기고 그에 필요한 조직이 생겨날 뿐이다. CM은 설계회사, 감리회사, 시공회사 그리고 제3의 전문업체 누구든지 그 능력만 있으며 가능하고 CM이 기존 전문업체의 업무영역을 재약하거나 그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협력하는 조직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CM의 기능과 역할이다.

4. CM의 형태

CM은 두가지 형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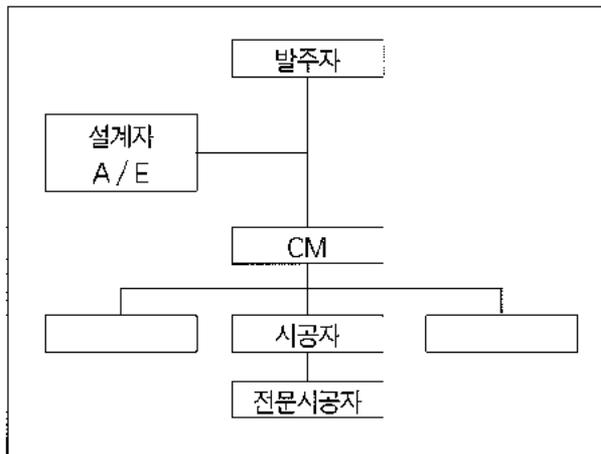
첫째, CM회사는 발주자의 대행인(Agency)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CM for Fee의 형태이다.

종합적인 건설관리능력을 갖추고 축적된 기술력과 Know-how를 바탕으로 각 전문업체를 체계적으로 연결, 결합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며 CM회사는 일정한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관리비(fee)를 받게 된다. 이때 발주자가 해야할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전문 CM회사가 이를 계약에 의해 대행하되 발주자의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 CM회사가 있어도 발주자는 고유한 책임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CM회사는 발주자의 참모와 같은 조직체계를 가진다.



CM for Fee 형태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계약방법에 CM이 발주자의 대행인으로 추가되어 있다. 즉, 발주자가 설계자와 시공자를 직접계약하고 건설프로젝트 관리업자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이들을 관리함으로써 CM회사와 설계자 및 시공자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CM회사가 공사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이나 크레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즉,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용역비(fee)를 받는 순수한 형태이다. 계약은 재정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CM회사나 설계사무소가 그 업무를 수행할 경우 많이 채택되고 있다.(Architect for fee) 둘째는 위험부담형태의 계약(CM at Risk)으로서 발주자가 CM회사와 총액 개념(Guaranteed Maximum Price)으로 계약하여 CM회



CM at Risk 형태

사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책임지고 건설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서 발주자와 CM회사는 직접계약을 하고 재정적 책임이나 하자(크레임)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즉, CM은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윤(Profit)을 취하게 된다. 건설회사가 전체 건설사업을 공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이를 관리하는 형태와 같다. 이와같은 형태의 계약은 시공을 주로하는 일반건설회사가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널리 사용되고 있다.

5. CM과 PM

Construction Management(CM)와 Project Management(PM)은 계약상에 명시된 업무영역범위의 차이로 이해되어야 하며 건설공사에 관련된 모든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제도 또는 시스템 차원에서 CM과 PM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CM내에서 특정한 부분의 PM이 있으며 광의의 PM속에 CM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각각 사용되는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인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면 CM은 공사대상물의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기간, 금액, 품질의 관리를 목적으로하는 활동 및 관련기법에 관련된 것이고 PM은 설계나 시공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정의, 사전계획 등과 같은 예비 설계활동에서부터 운전과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과정을 망라하는 보다 광역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CM의 업무에서도 각 과정별 세부적인 PM기능이 있다.

6. CM의 주체

CM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CM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매우 다양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CM전문회사, 엔지니어링회사(EC), 일반건설회사(GC), 설계회사(Design Firm), 감리전문회사 기타 건설관련 또는 비건설관련 컨설턴트 회사 등을 들 수 있다. CM은 사무소의 조직 형태와 성립요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설 프로젝트 관리 즉 건설관리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한국에서 CM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CM형태가 널리 채택되고 있다. 건축주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 3자에게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이르기 까지 발주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임하고 전문업체에게 해당 업무를 계약관리하여 주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총괄 하도급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소규모업자가 건축주와 협의하여 기획단계라 할 수 있는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의 종류, 규모 등 개발방

향과 그 내용을 정하고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을 전문업체와 계약에 의해 시행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CM 제도가 공인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가장 흔한 것은 발주자가 기획, 설계과정에서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난 설계도서를 가지고 입찰로서 시공회사를 선임하여 발주자가 별도의 감독을 두거나 설계자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감리자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시공회사에 대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같은 점에서 설계회사나 감리전문회사가 CM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합동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설회사가 재개발조합과 합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재개발조합과 건설회사가 계약에 의해 사업에 먼저 참여하게 되고 후에 설계자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때는 건설회사가 기획단계에서 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에 관련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셈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 CM회사가 없기 때문에 설계자와 감리자 또는 시공회사가 CM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사의 대형화와 복합공정 그리고 전문성 등으로 CM전문회사가 필요해진다.

CM회사는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공사감리와 책임공사감리와는 다르다. CM은 설계회사, 감리회사, 시공회사 등에서 그 업무를 부분적으로 담당할 수는 있겠지만 건설과정에서 업무의 전문화에서 필요한 조직이 자기본연의 업무와 함께 CM회사로 겸업하거나 업역을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화에 역행하거나 이와 상치하는 CM은 결코 배제하여야 한다. CM회사는 기존의 각 전문화된 조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들 조직체를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별도의 건설관리체제를 위한 전문조직이어야 하며 결코 설계를 위한 CM, 감리를 위한 CM, 그리고 시공을 위한 CM회사는 배제되어야 한다.

7. CM과 설계회사 및 건설회사

CM은 1차적으로 발주자가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대행하는 역할과 복잡한 여러 전문업체의 업무를 기획 조정 통제하는 건설사업관리로 이해되어야 하며 기존의 설계회사의 업무와 시공회사가 가진 고유업무를 침탈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비전문성의 발주자가 건설사업을 시행, 관리함에 있어 여러 전문업체의 도움이나 자문을 받게 되는데 설계사무소도 이와같은 CM업무의 일부를 고유업무인 설계 및

감리업무에 부가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설계회사가 발주자가 담당해야 할 사업성 검토 등 기획 단계에서 부터 참여하여 발주자의 고유업무를 건축설계 업무에 끼워서 무료로 대행해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CM이 시행된다면 CM회사는 발주자의 고유업무를 대행하면서 설계회사가 그 본연의 전문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과 함께 서비스 업무로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는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자는 설계업무의 현장검토와 자문의 역할을 넘어서서 시공회사에 대한 발주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별도의 추가적인 업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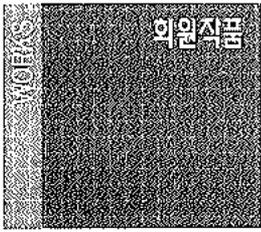
발주자를 대행하는 별도의 전문성을 가진 회사가 있다면 설계회사로서 설계라는 전문업무를 처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소규모공사에 많겠지만 설계자가 실제로 설계업무에 이와같은 CM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CM업무와 시공회사와의 관계에서도 CM회사가 여러 전문건설회사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결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 공사관리와 함께 전문회사가 합리적 공사를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같은 고유한 업역을 무시하고 편법과 월권행위로서 전문성을 해친다면 CM은 무의미하다. CM은 기존의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조직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보완적인 협력체제에서 그 위상이 정립되어야 하며 지배와 피지배 그리고 업역의 침탈 등으로 이해되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곤란하다. 설계회사이든 시공회사이든 현재의 업무중에서 부족한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업무를 별도의 조직으로 보완하고 각기 전문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CM은 설계와 시공을 통합(Design Build)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종합건설업면허의 한 편법적 수단으로 CM이 도입 시행되어서는 곤란하며 이와같은 것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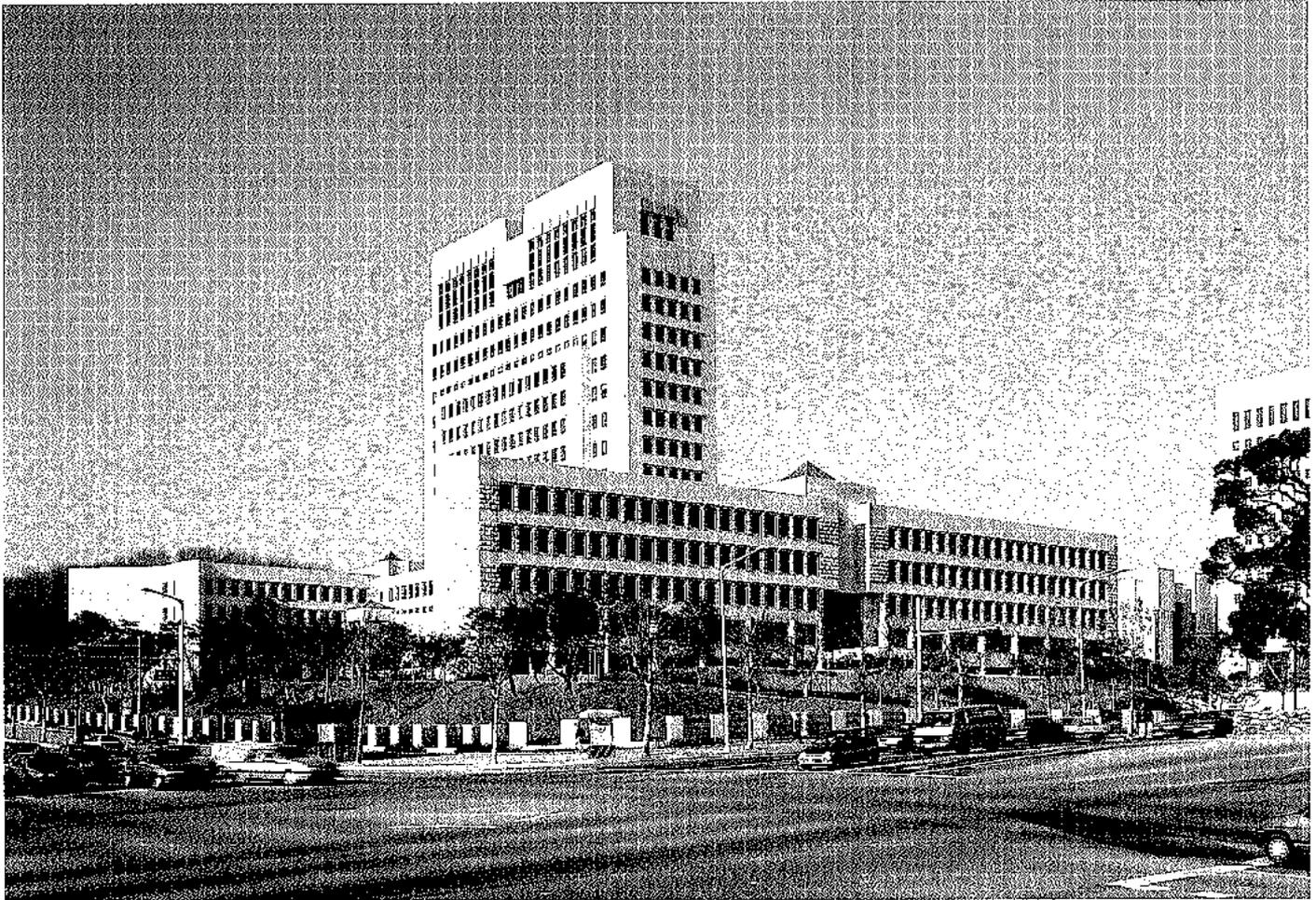
CM은 설계회사와 시공회사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면서 발주자가 건설관리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하는데 그 의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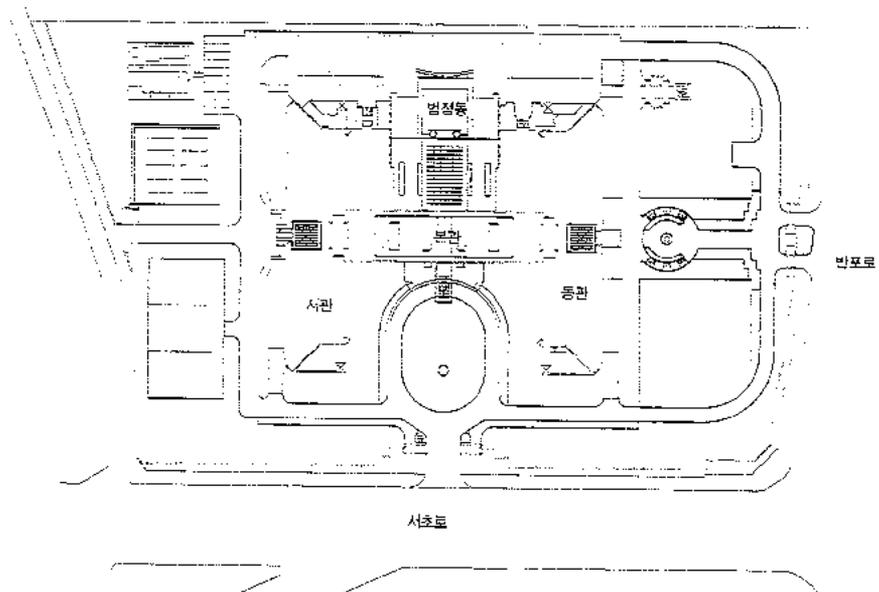
The Supreme Court, Korea

윤승중 + 변 용 / 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Designed by Yoon Seung-Joong & Byeon 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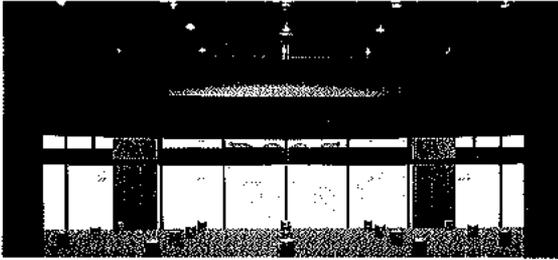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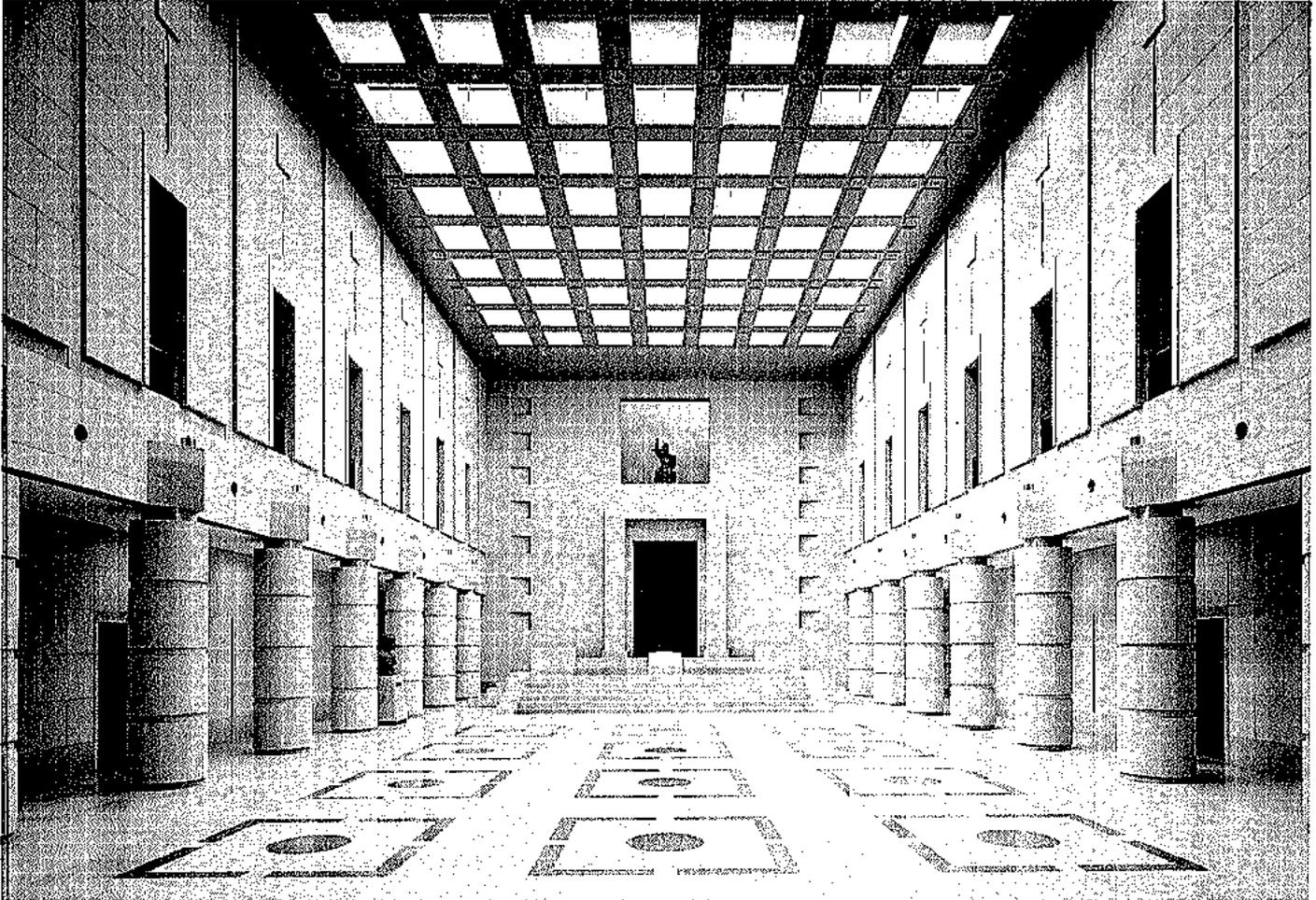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대지면적 / 57,793.3㎡
 건축면적 / 9,765.71㎡
 연면적 / 66,610.03㎡
 건폐율 / 16.90%
 용적률 / 82.65%
 층수 / 지상16층, 지하2층
 최고높이 / 81m
 건축주 / 대법원
 총감독관 / 건설심의회관 김문체
 구조 / 선구조 연구소
 기계설계 / 한일 MEC
 전기설계 / (주)윤유현 전가설계 사무소
 조경설계 / 한림환경엔지니어링
 인테리어설계 / (주)아디프
 시공 / 현대건설(주)
 사진 / 박영채



배치도



3층 홀에서 본 남측 출입구 상부



대홀



남측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Location / 967, Seocho-dong, Seocho-gu, Seoul

Site Area / 57,793.3m²

Bldg. Area / 9,765.71m²

Gross Floor Area / 66,610.03m²

Bldg. Coverage Ratio / 16.90%

Gross Floor Ratio / 82.65%

Bldg. Scale / 16 Stories Above Ground,

2 Stories Below Ground

Client / Supreme Court

General Manager / Kim Moon-Chae

Structural Design / Sen Structure Research

Mechanical Services / Hanil M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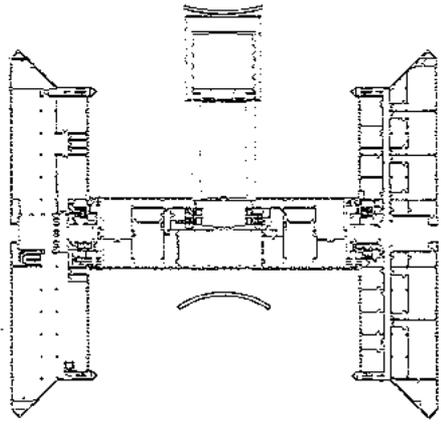
Electric Installation / Moon Yu-Hyeon Co.

Landscaping / Hall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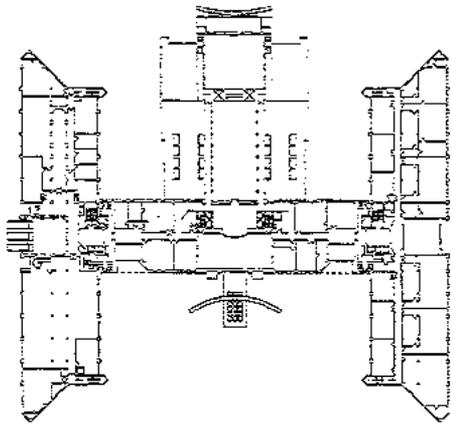
Interior Design / Adif Co.

Construction / Hyundai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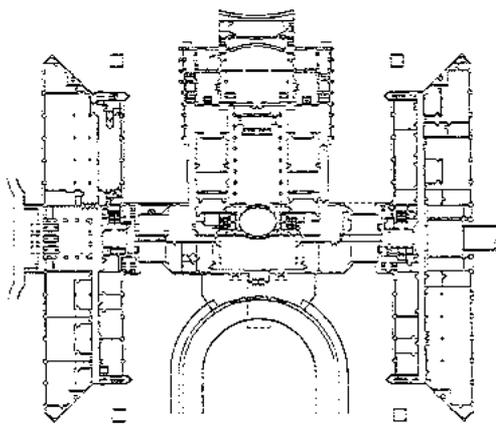
Photographer / Park Young-Ch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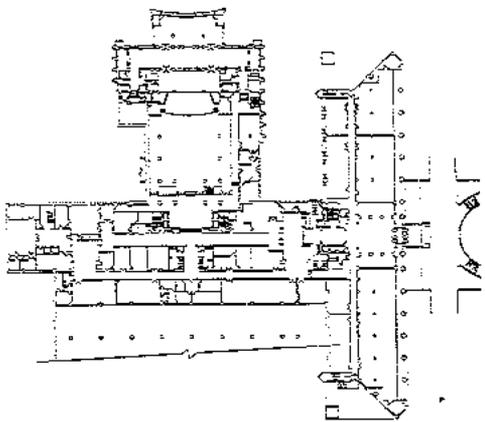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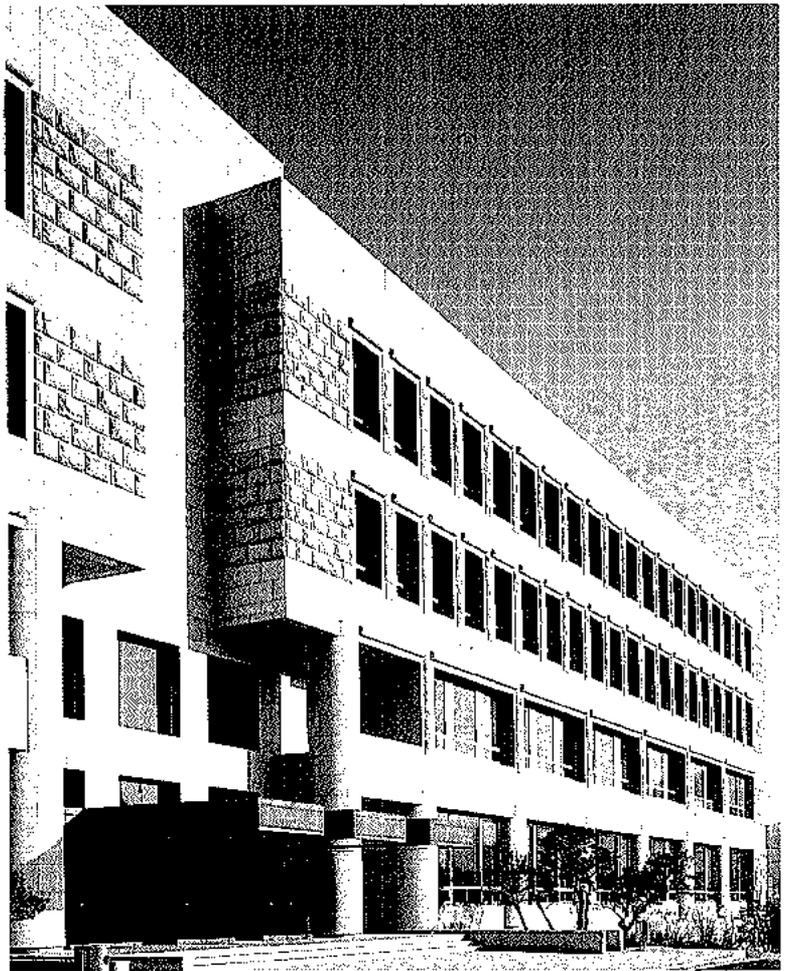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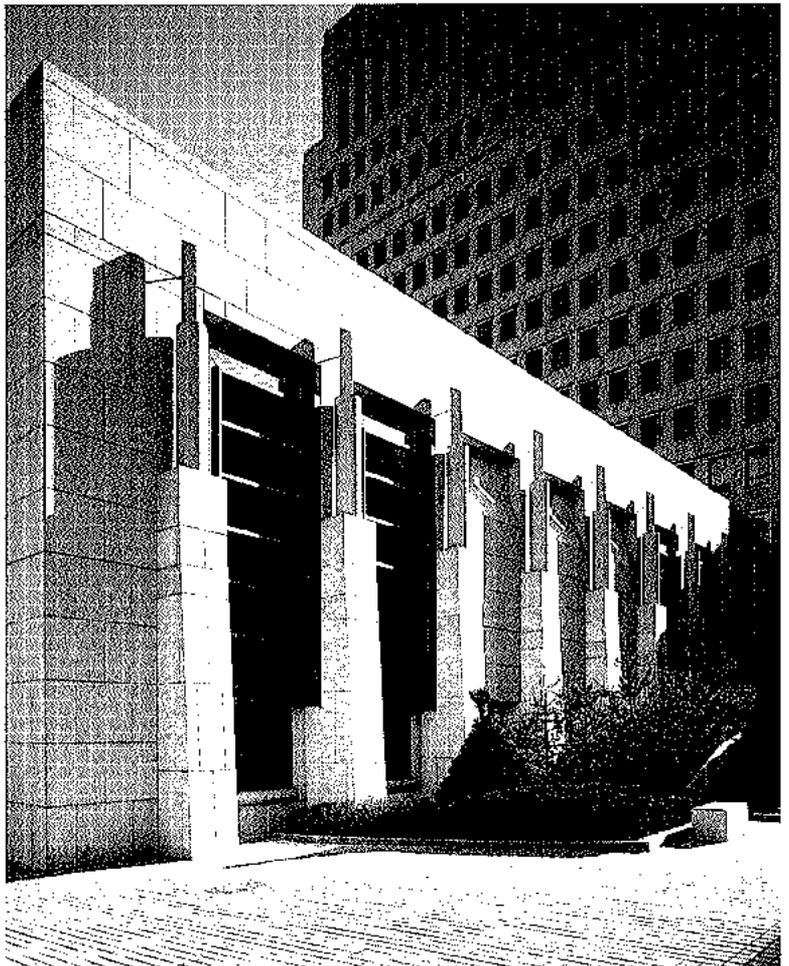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동측 주출입구 벽면 상세



법정동 서측 외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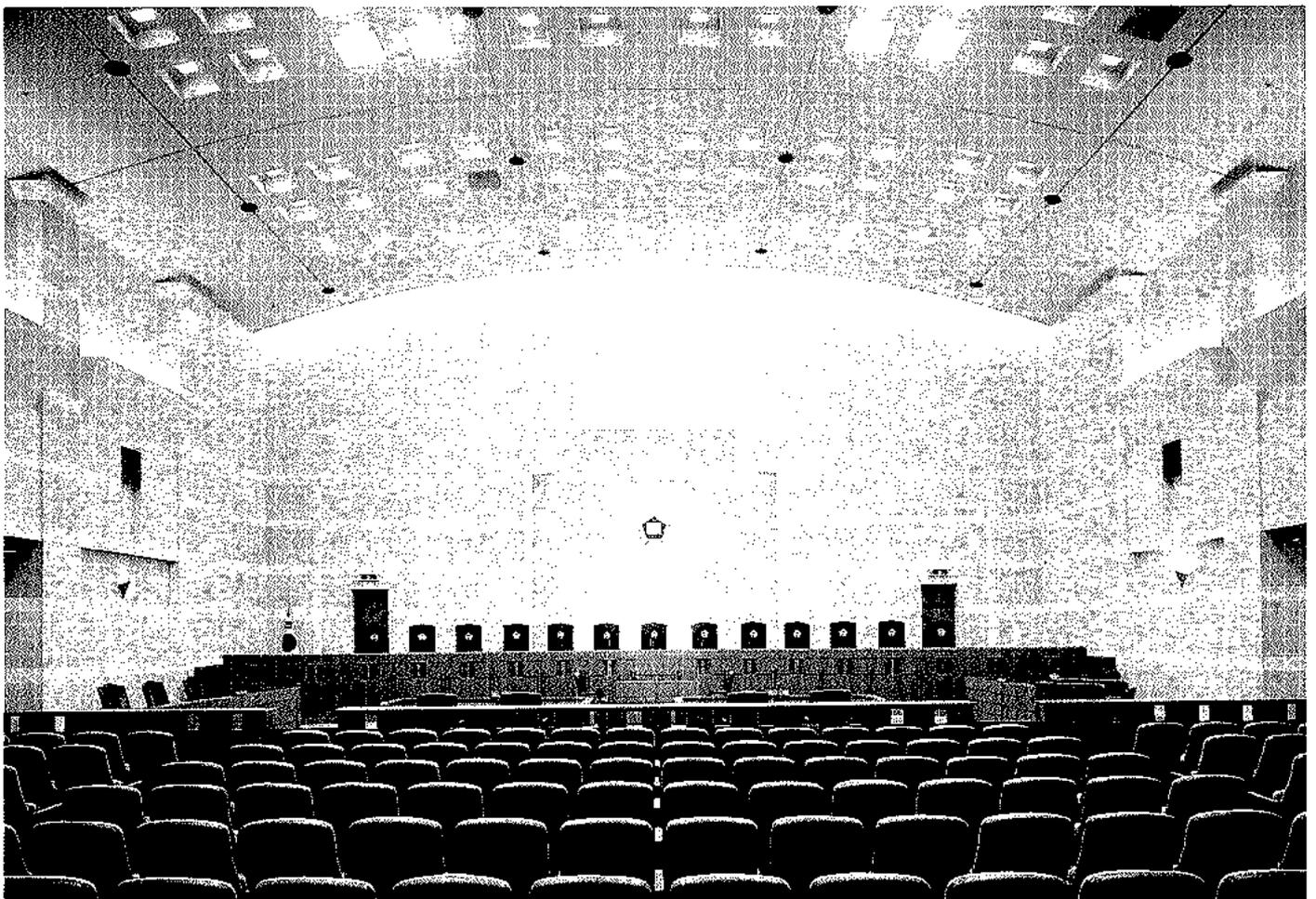
주현관과 광장



동측 전경



남서측 전경(도서관동)



대법정



정면 주출입구 전경



도서관동 출입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기와 국민 또는 국민과 국민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곳이 법원이고 그 최상급 기관이 대법원(Supreme Court)이다. 대법원은 3부 건물의 마지막 청사로 6년을 거쳐 설계 시공 됨으로서, 서초구 일원에 법조 타운이 완결 되었다.

법원의 형식적, 의미적, 유형적인 대표적 어휘는 Court이다. 즉, 커다란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서 당사자간의 시시비비를 법이라는 도구로 평형 시킨다.

현상 당시 대홀이란 Program이 제시되었고, 궁극적인 건축 해결의 중심 개념으로 대홀을 중심으로 대홀=Court라고 설정하였다. 따라서 자연 채광이 도입된 대홀을 중심으로 4개의 정면을 갖고 각 정면에서 각기 다른 기능의 출입구가 된다. 출입구에서 시작된 모든 동선은 결국 대홀에 집중된다.

대법관은 대홀을 거쳐 일종의 의식적 통로로 법정에 이르게 되고, 대홀과 대법정 경계벽 상부에는 한국화한 법의 여신이 앉아 있다. 대법정은 불이문 형상의 프레임으로 강조된 법정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그 법정문은 크기에 있어서 상징성을 부여하여 과장되었고 주위벽도 수직성을 위해 원형의 장식과 작은 Niche로 분절된다. 또한, 대홀의 좌우벽은 중력을 무시한 열주랑과 투명한 난간과 투명한 원구의 조명으로 장식된다.

대홀과 대법정 축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에 중법정 2개가 놓여 있다. 이는 법의 정신으로 또다른 평형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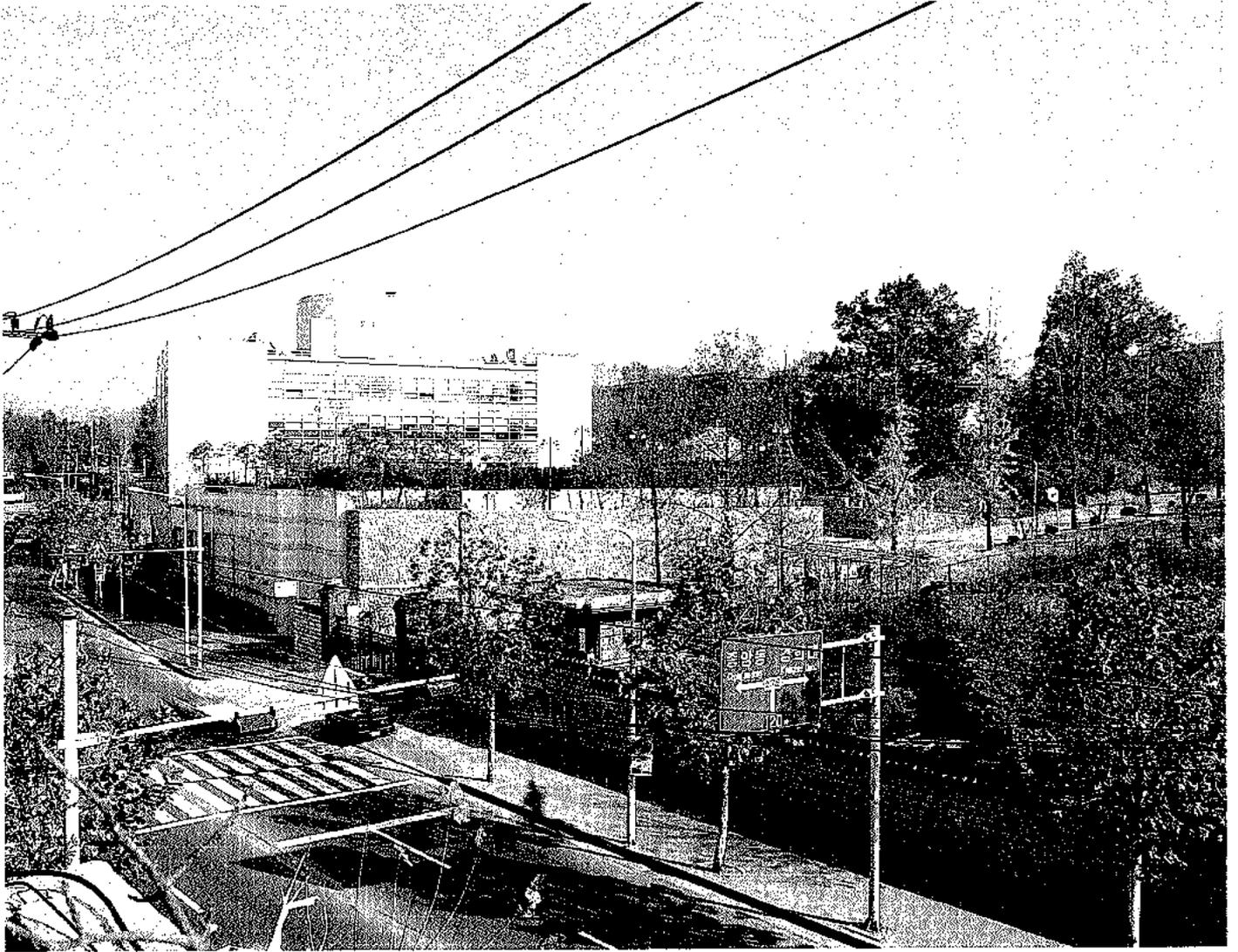
대법원은 관공서 건물로서 건축적 어휘의 매너리즘적 해석으로 정리하였다. 좌우대칭의 4방향으로 회전 대칭인 기하학적 분할을 이루고, 좌우 대칭은 전통 궁궐 배치에서 앞뒤 열주랑 부분을 제거한 배치로 달성된다. 이로서 대칭=(법)의 평형원리를 의미한다. 고층부는 중앙에 놓이므로 대법원의 수뇌부를 우측은 민원 관련 부서로서 법원 행정처, 서측은 도서관과 후생 시설이 배치되었다. 경복궁 근정전 뒤로 사정전이 있듯이 고층부 뒤로 법정동이 있다. 배치 이외에 매너리즘적기호는 과장된 기단부의 원형 실린더 기둥, 장식된 Punching 개구부, Solid한 저층부 외벽, 건물벽 상단의 구성, 입구의 강조, 법정동의 일련의 버트리스, 4개의 배기탑, 동서측 현관상부, 피라미드형의 지붕 등이 첨가된다. 특히 Solid한 저층 외벽과 버트리스기둥은 보호라는 의미에서 성체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영상아카데미

Motion Picture Production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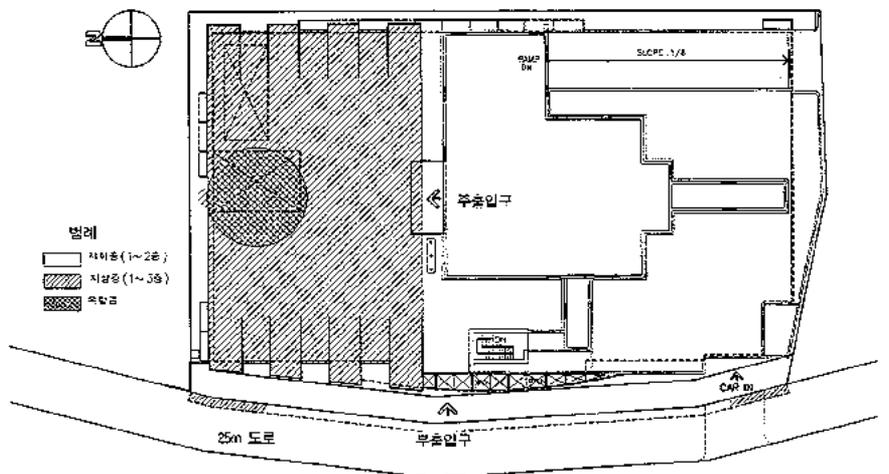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디앤드지

Designed by Samjung Architects, Engineers & Plan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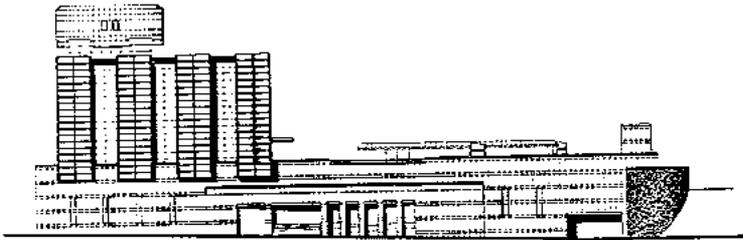


전경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경량리동 206-46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통치지구, 제4종 미관지구
 대지면적 / 3,032㎡
 건축면적 / 899.40㎡
 연면적 / 7,130.64㎡
 건폐율 / 29.66%
 용적률 / 86.80%
 용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규모 / 지하2층,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리멘조
 구조설계 / 샌구조
 기계설비 / 신영기연
 조경설계 / 삼정디앤드지
 시공 / (주)대유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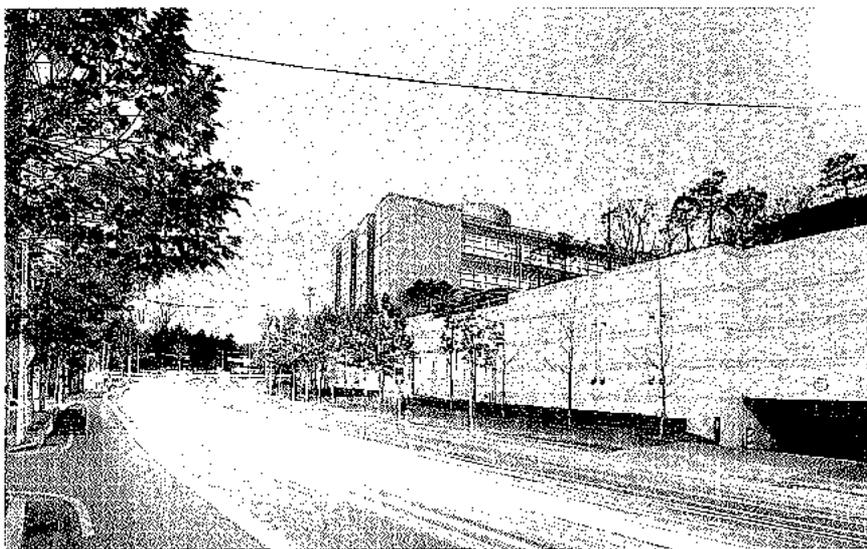
배치도



정면도



자료전시실



아경

Location / 206-46, Cheongnyangni-dong, Dongdaemun-gu, Seoul

District / Houses

Site Area / 3,032㎡

Bldg. Area / 899.40㎡

Gross Floor Area / 7,130.64㎡

Bldg. Coverage Ratio / 29.66%

Gross Floor Ratio / 86.80%

Use / Education & Research

Bldg. Scale / 2 Stories Below Ground,
3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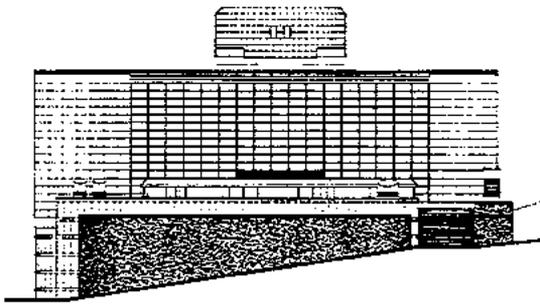
Structure / R.C+Steel

Structural Design / Sen

Mechanical Services / Shinyoung

Landscaping / Sam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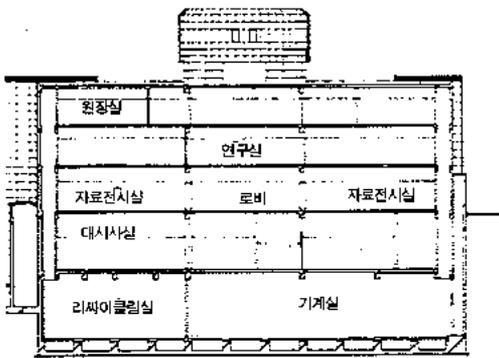
Construction / Daeyu Cons.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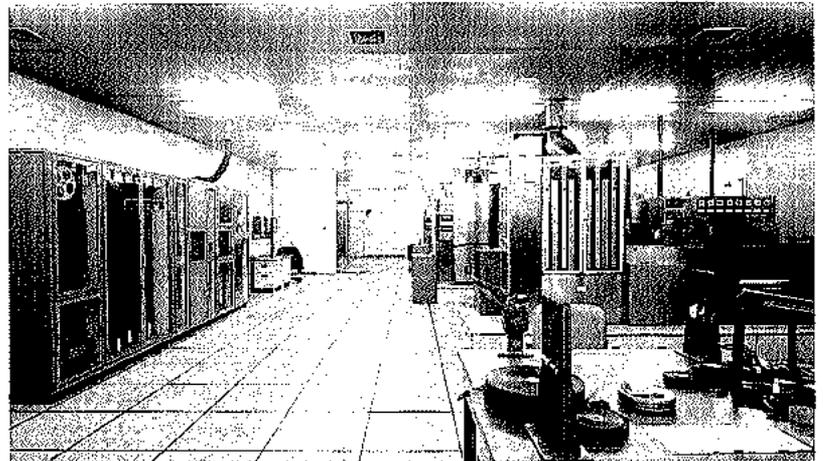
측면도



자료실



중단면도



현상실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은 스피들버그 영화 한 편의 수익이 국산차 몇 백만대를 팔아야 얻을 수 있는 천문학적 숫자라는 사실과 마무리 작업의 부실로 가뜰이나 어려운 한국영화의 현실을 떠올리며 혀를 차곤 했을 것이다. 오죽하면 호주로들 몰려가겠는가?

영화를 찍는다는 행위도 어렵지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꽤나 복잡하고 이 중의 어느 한 곳에서라도 잘못이 있는 경우 작품의 가치는 급전직하하고 만다. 현상, 인화, 보정, 특수효과, 녹음, 시사기능이 최고의 제작지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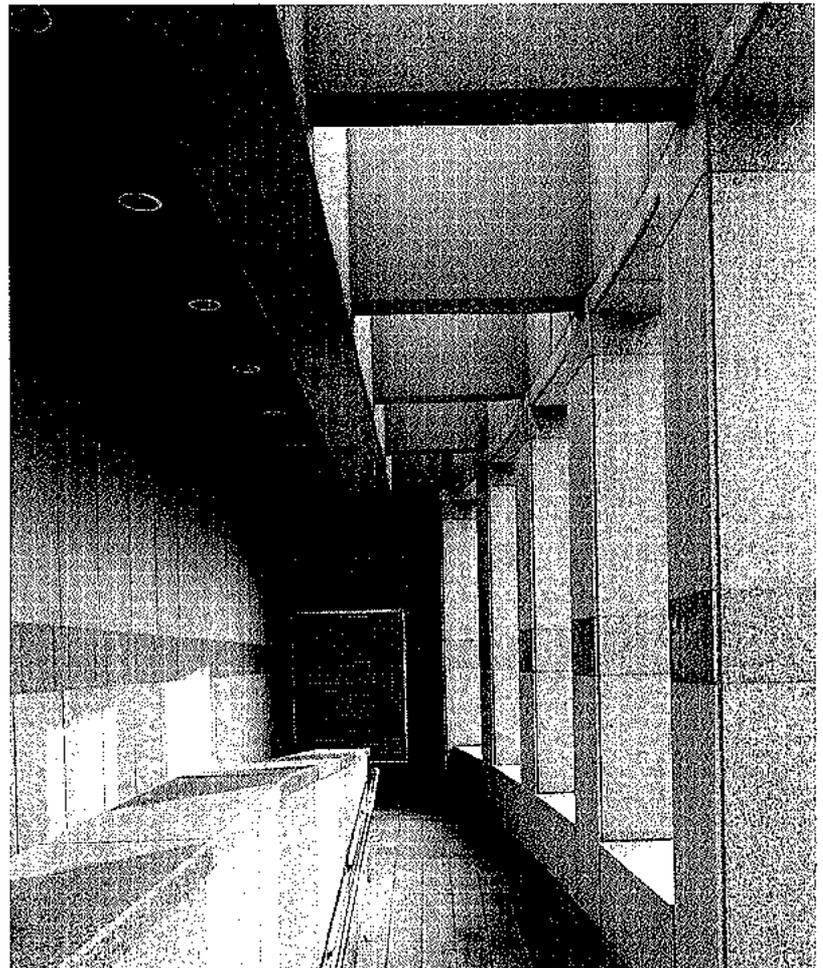
우리 영화발전의 한 축인 영상아카데미가 남산시대를 마감하고 이곳에 옮겨 앉았다.

영화발전을 위한 하드웨어와 우수한 영화인들을 새로 배출하려는 목표하에 추진된 이 프로젝트는 복잡한 기능만큼이나 대지 조건도 까다로운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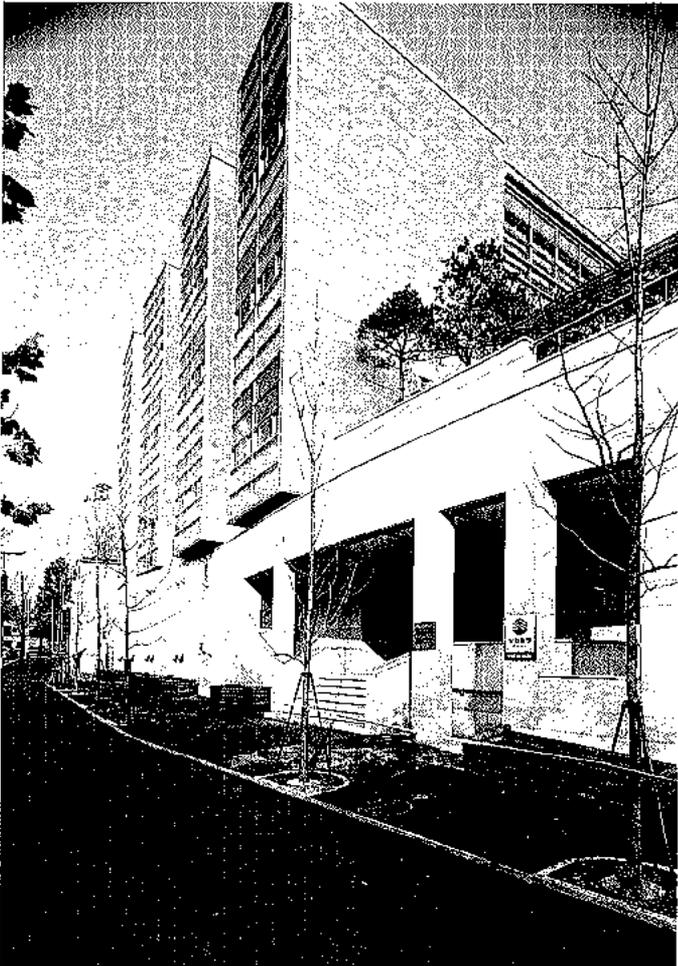
미관도로에 접하기는 하였으나 고저차가 심해 개구멍 같은 출입구 하나가 날 수 있을 뿐이고, 풍치지구로 묶여놓이와 지상규모에 제한을 받으며, 후면의 세종대왕 기념관을 가리지 않도록 한 쪽으로 비껴 앉아야 했다.

교육연구기능과 집회, 현상 기능, 폐수처리시설 기능이 서로간의 영역을 확보하면서 연계운영 되도록 하는데 Planning의 초점을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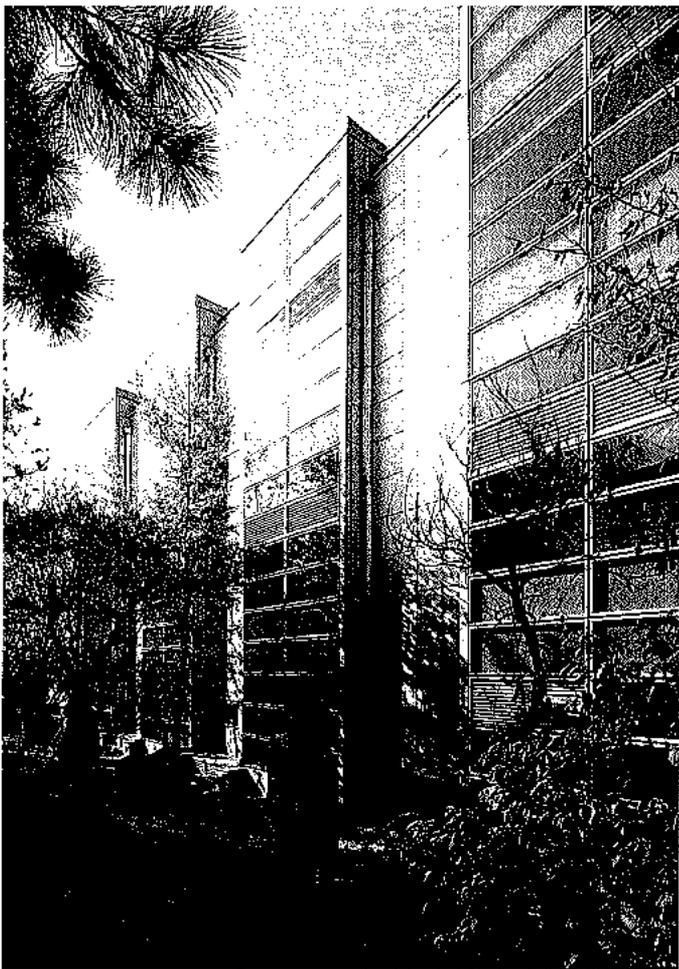
차량이 적어 고속으로 달리는 전면도로의 운전자는 은빛 Mass의 분절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보행자도 화강석과 강들의 파스함을 맞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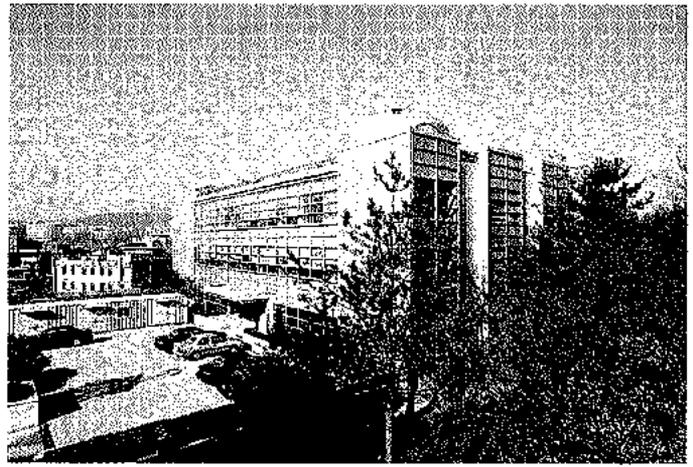
부출입구 경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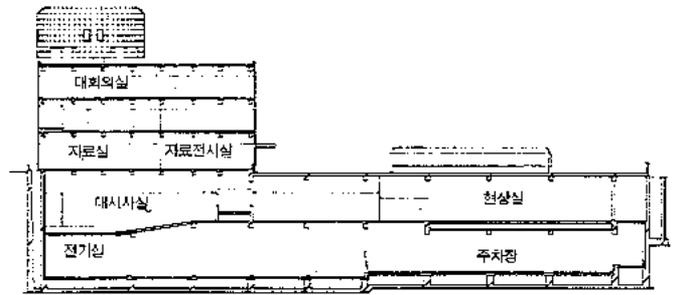
도로측 부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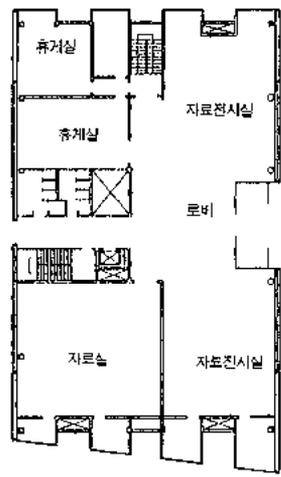
동측 창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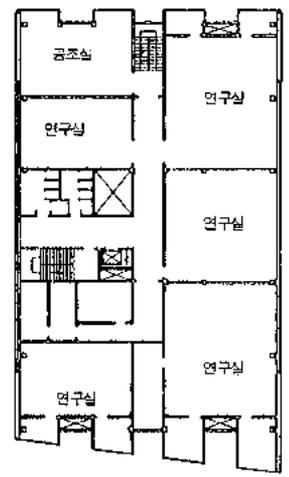
북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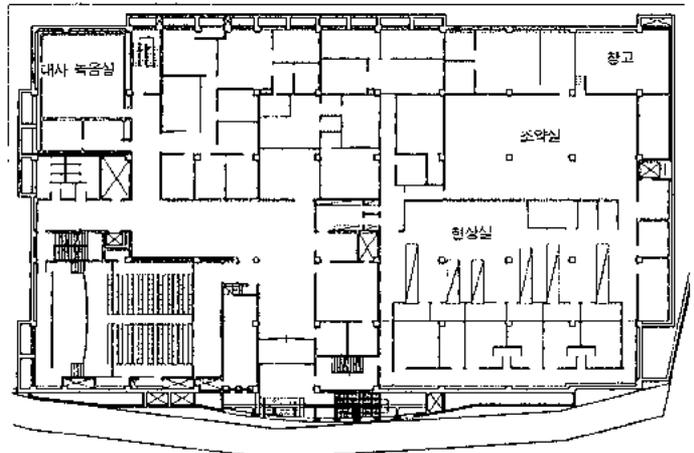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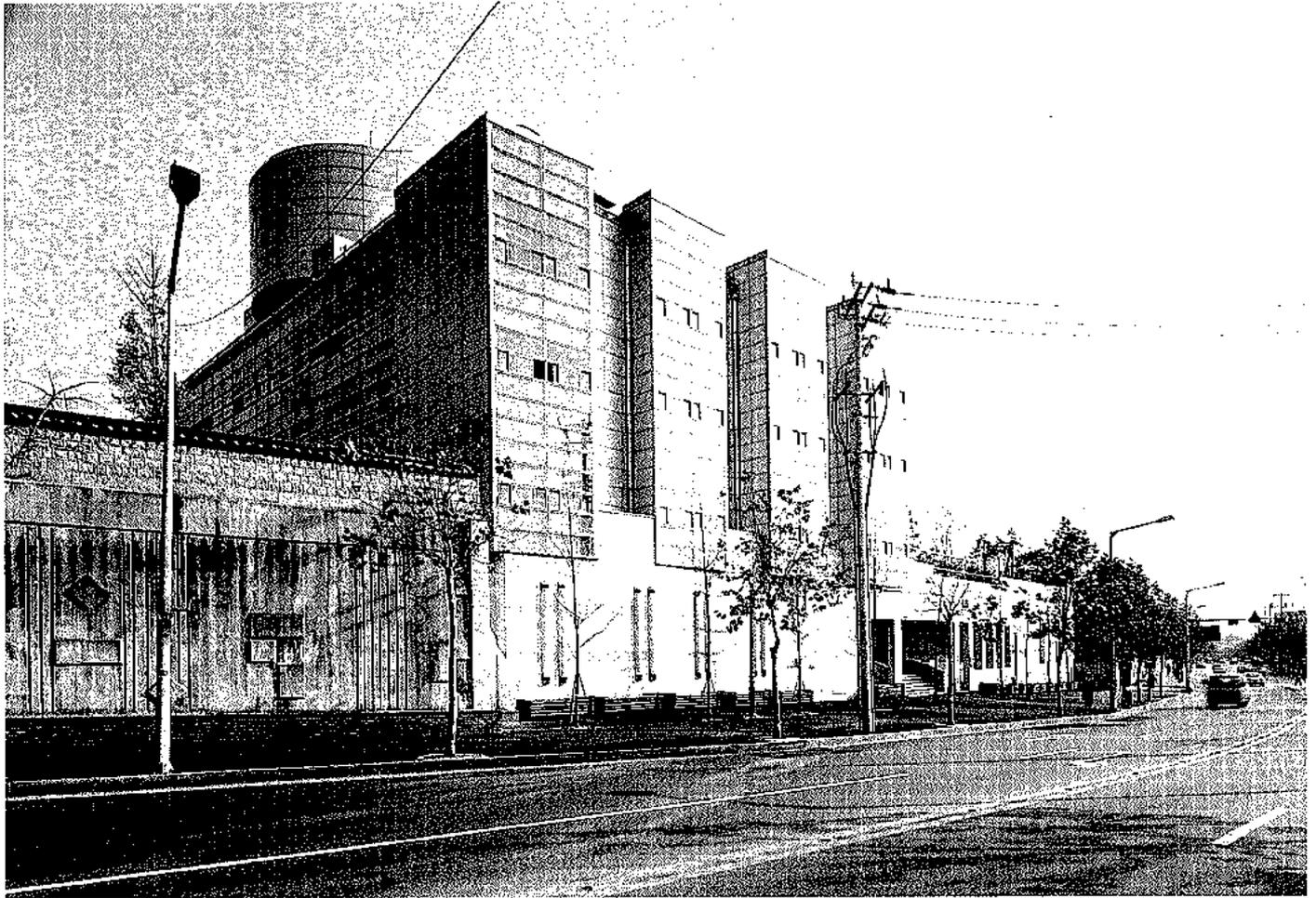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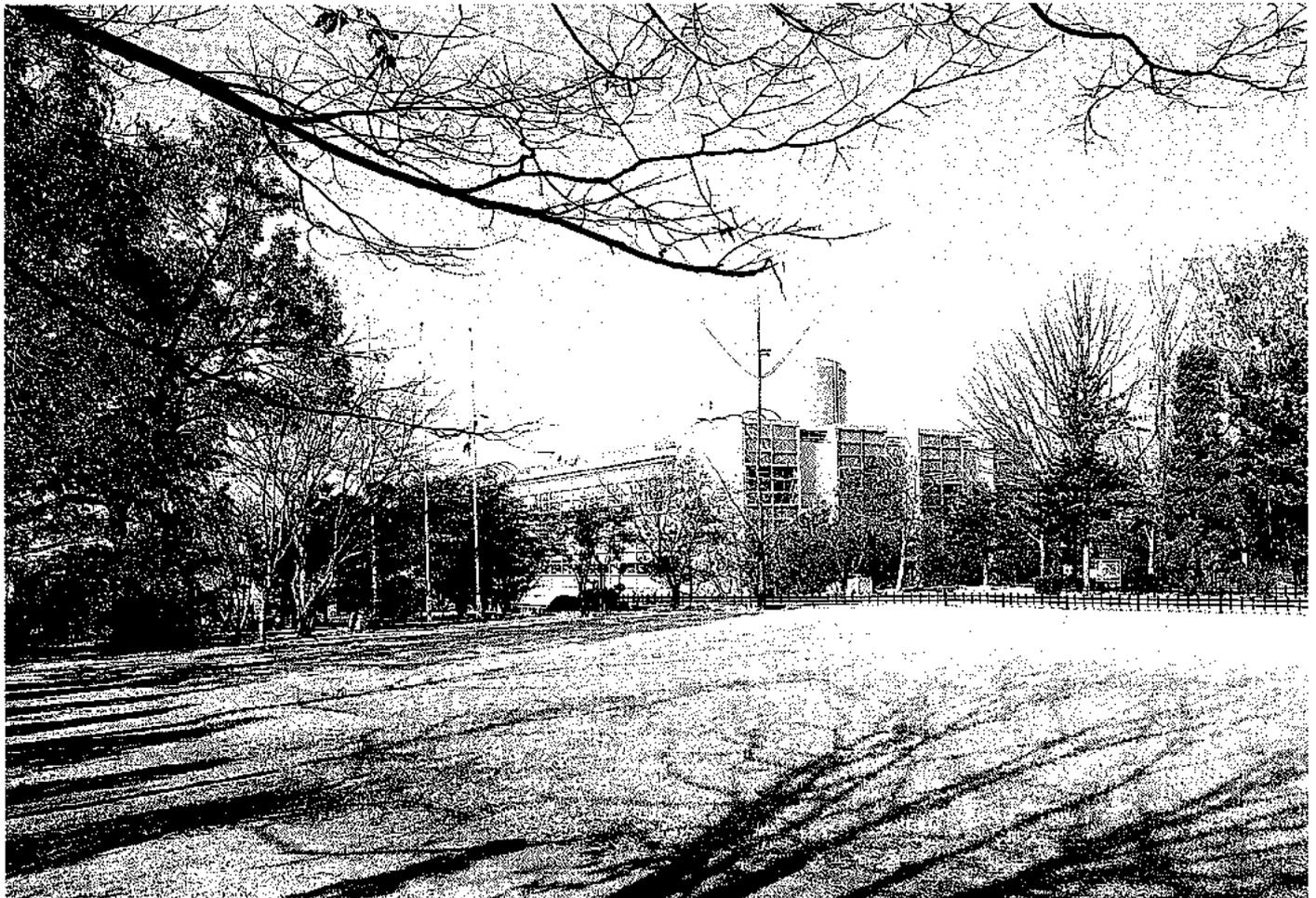
2·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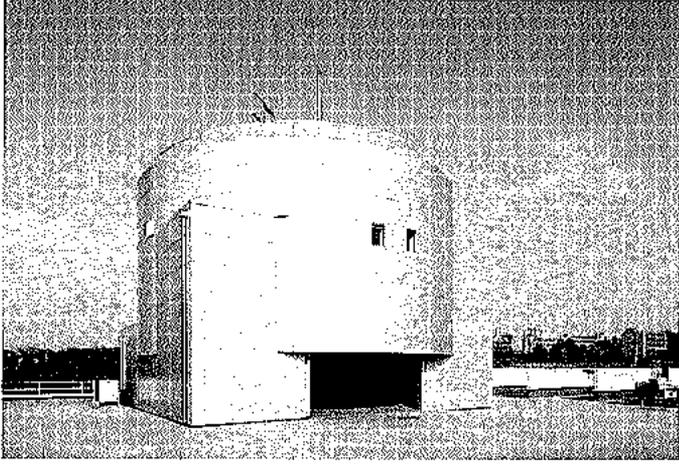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북서측 전경



북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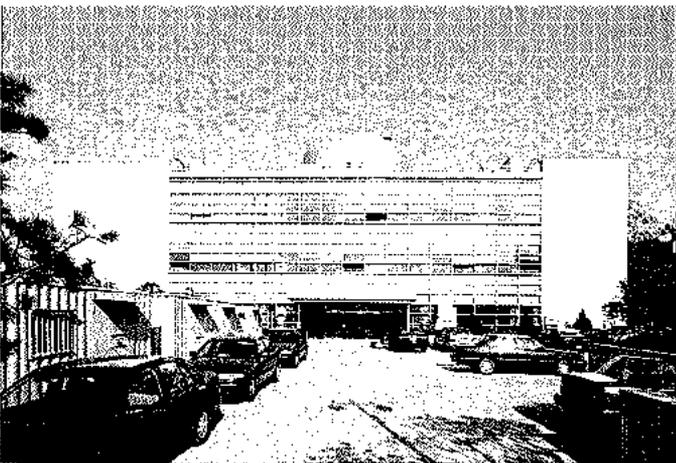
옥탑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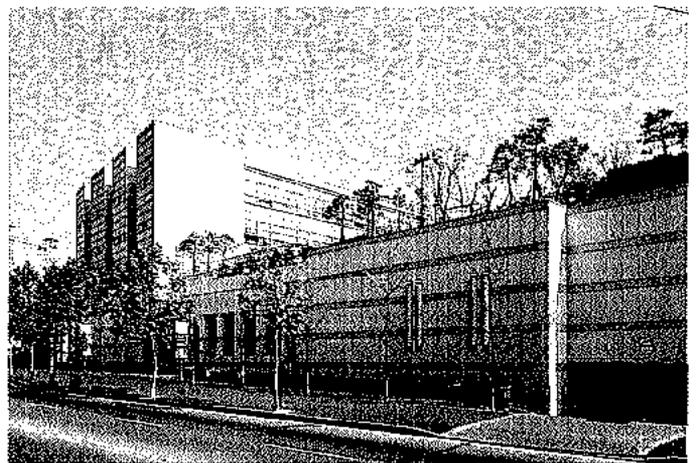
복합 배면



시사실



남측 정면



남서측 전경



청소년수련마을 보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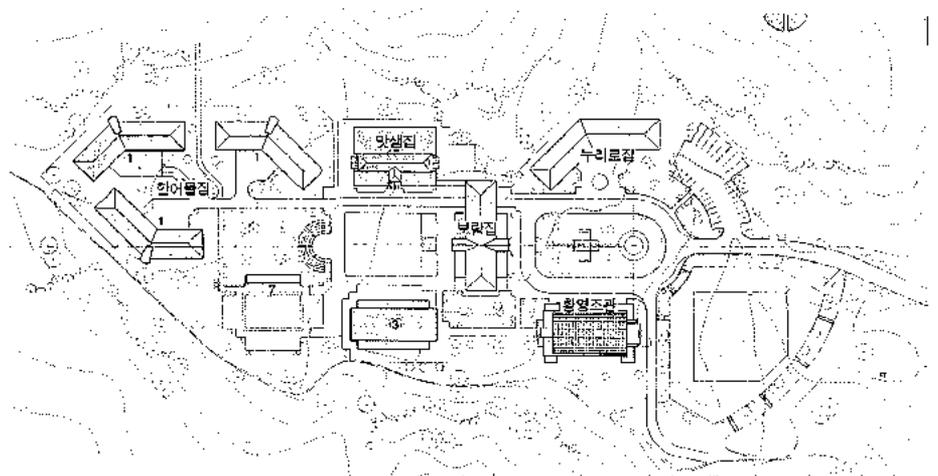
Poramwon, Youth Training Village

서보광 / 동성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uh Bo-K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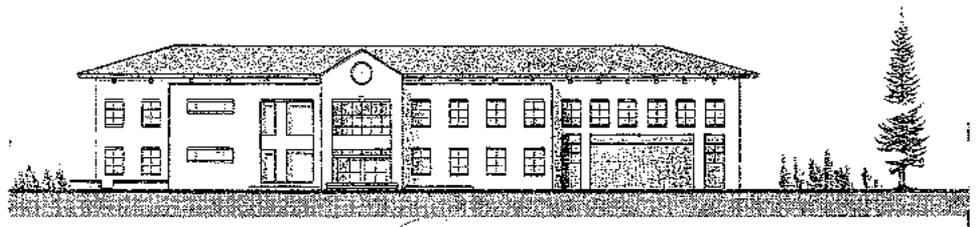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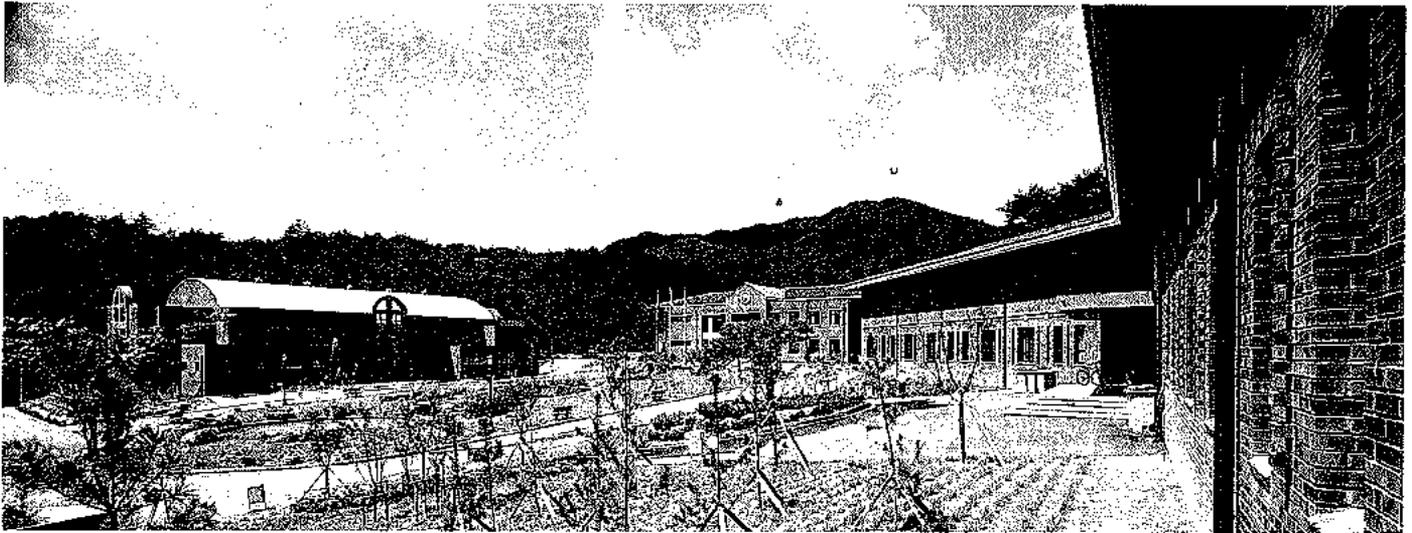
대지위치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일대
 대지면적 / 300,042.00㎡
 지역지구 / 자연환경보전지구
 건축면적 / 6,691.44㎡
 연면적 / 9,825.46㎡
 건폐율 / 2.21%
 용적률 / 3.03%
 용도 / 청소년시설
 규모 / 37동,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목조
 외부마감 / 반색벽돌 차장쌓기, S형 오지마 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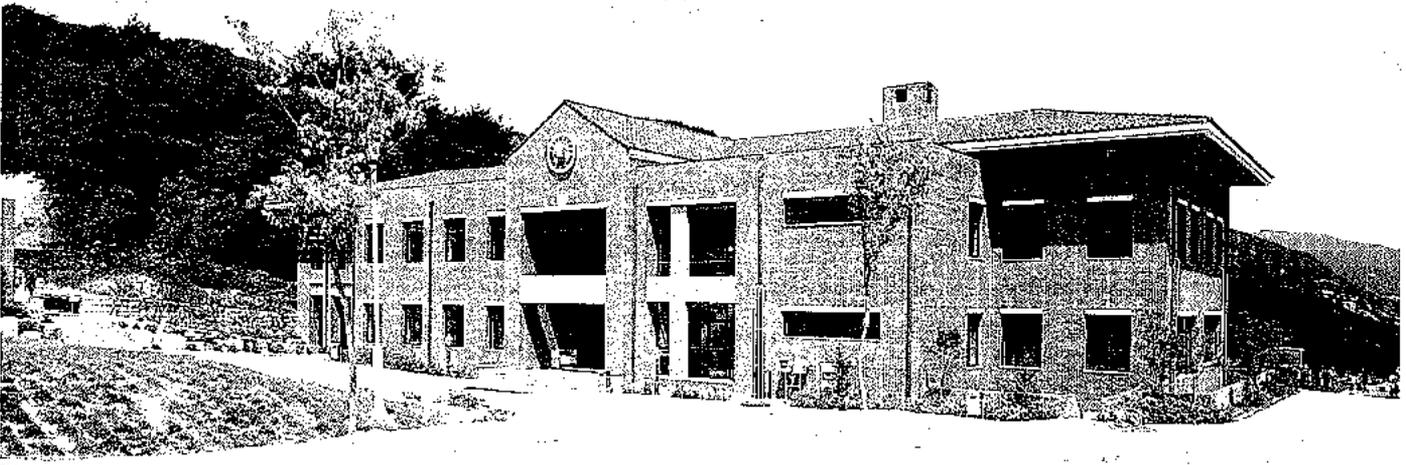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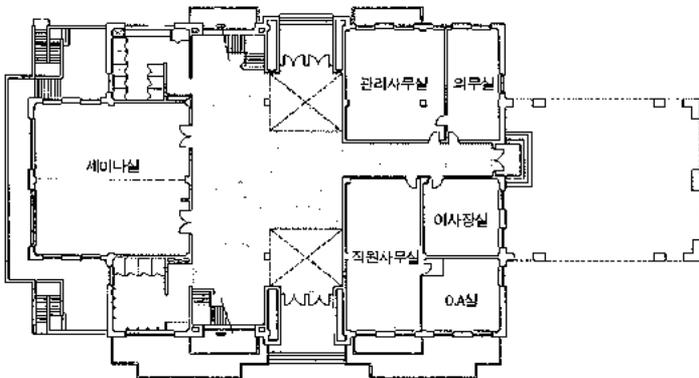
보람집 정면도



누리로 집에서 바라본 보람원 전경



황영조관에서 본 보람집



보람집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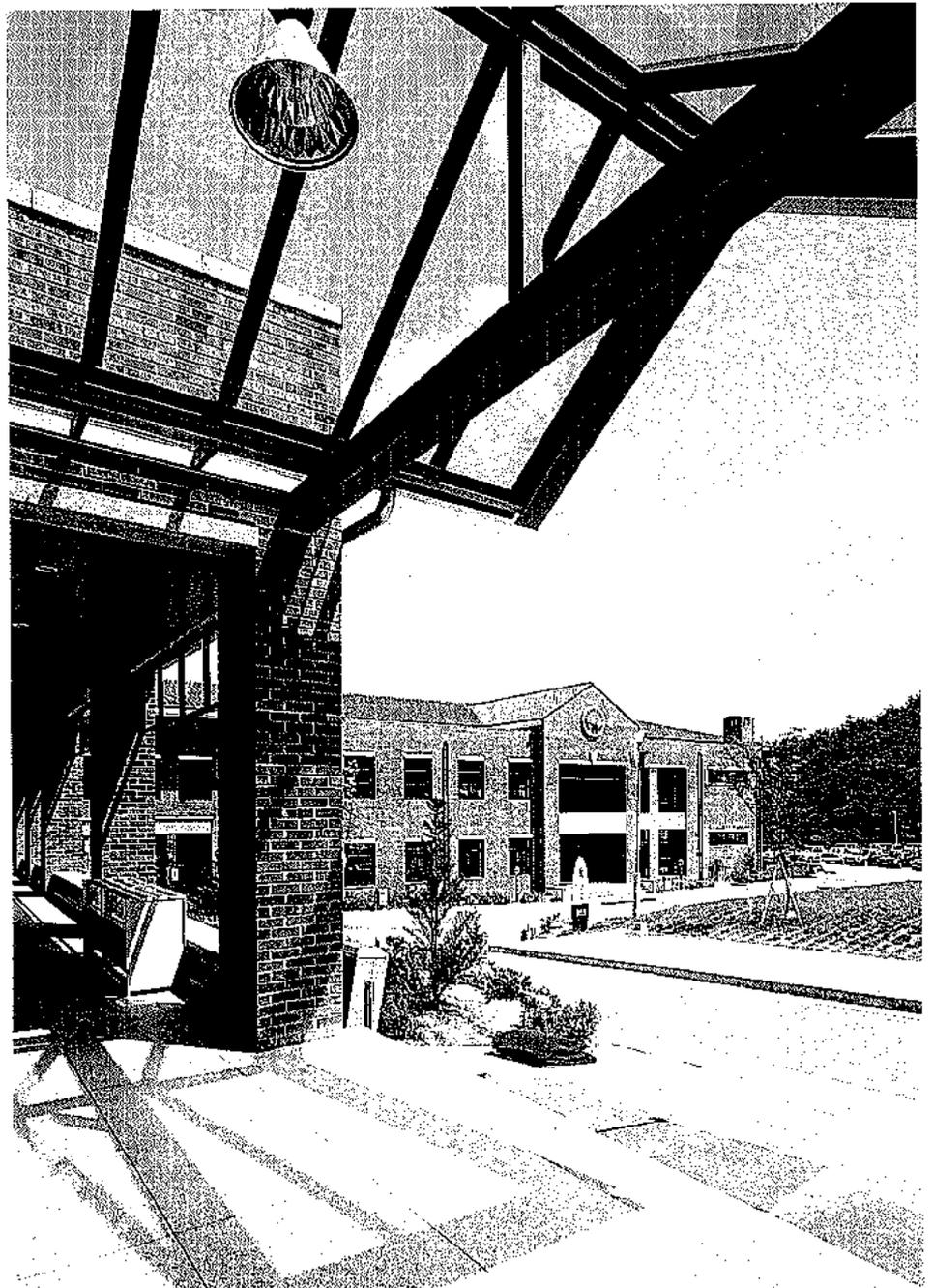
Location / Kwanpeong-ri, Cheongcheon-myeon, Koisan-gun,
Chungcheongbuk-do
Site Area / 303,042.00㎡
District / Nature
Bldg. Area / 6,691.44㎡
Gross Floor Area / 9,825.46㎡
Bldg. Coverage Ratio / 2.21%
Gross Floor Ratio / 3.03%
Use / Youth Facility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2 Stories Above Ground(37 wings)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Brick

속리산 국립공원내 조성되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봉사정신 등 전인적 성장을 도울 보람원은 모두 37동의 건물로 3개의 Zone을 구성하며 전체 마스터플랜을 설정하였다.

먼저 주진입부에서 "ㄱ"자형 계곡을 따라 생생샘매장, 항공훈련장, 땅사랑배움터 등을 조성하여 체력단련의 장으로 설정하고, 다시 세갈래의 계곡이 형성되는 광활한 평지에 상징광장인 우정광장과 함께 해든집, 우락공연장, 오운관 등을 배치하여 문화의 장으로 설정하였으며, 중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한어울집, 솔샘집, 누리로집, 보람집, 맛샘집 등을 군집시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일시에 많은 이용객들의 이용이 예상되므로 인체동작처수에 적합한 단위평면계획을 전제로 하고 각동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상태에서 단지내 조화를 위한 연계성을 도모하였으며, 수련생 주활용공간으로서 치분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동일된 외관으로 일체감을 조성하며 번색벽돌과 기와지붕을 주로 하되 각동의 특성에 따라 건축요소를 달리하여 성격을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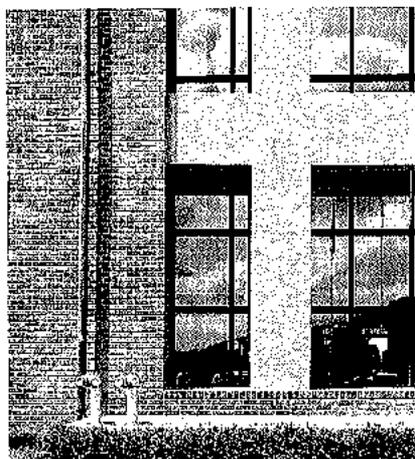
무엇보다도 국립공원내의 자연경관에 조화되는 건축물을 계획함으로써 자연과의 일체감을 극대화시키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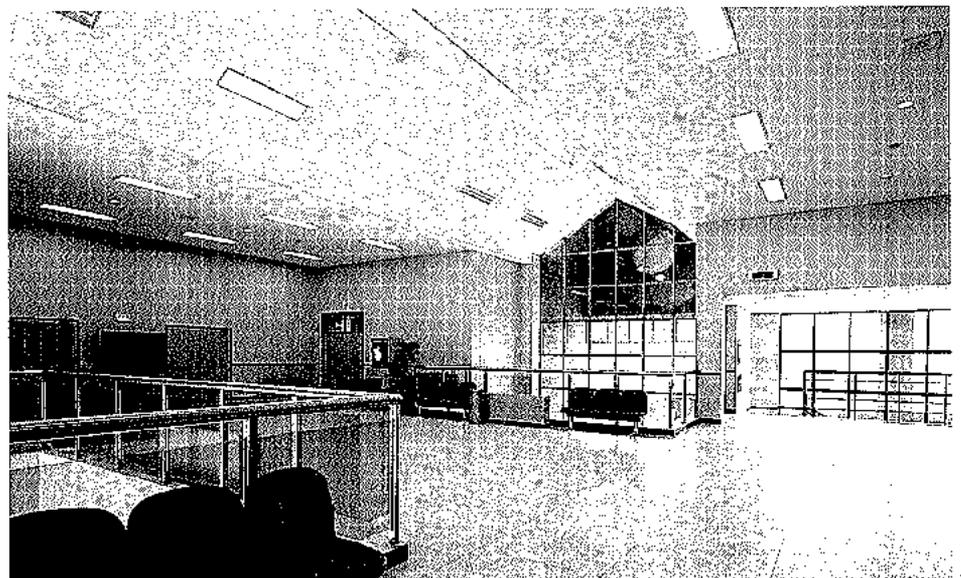
맛샘집에서 바라본 보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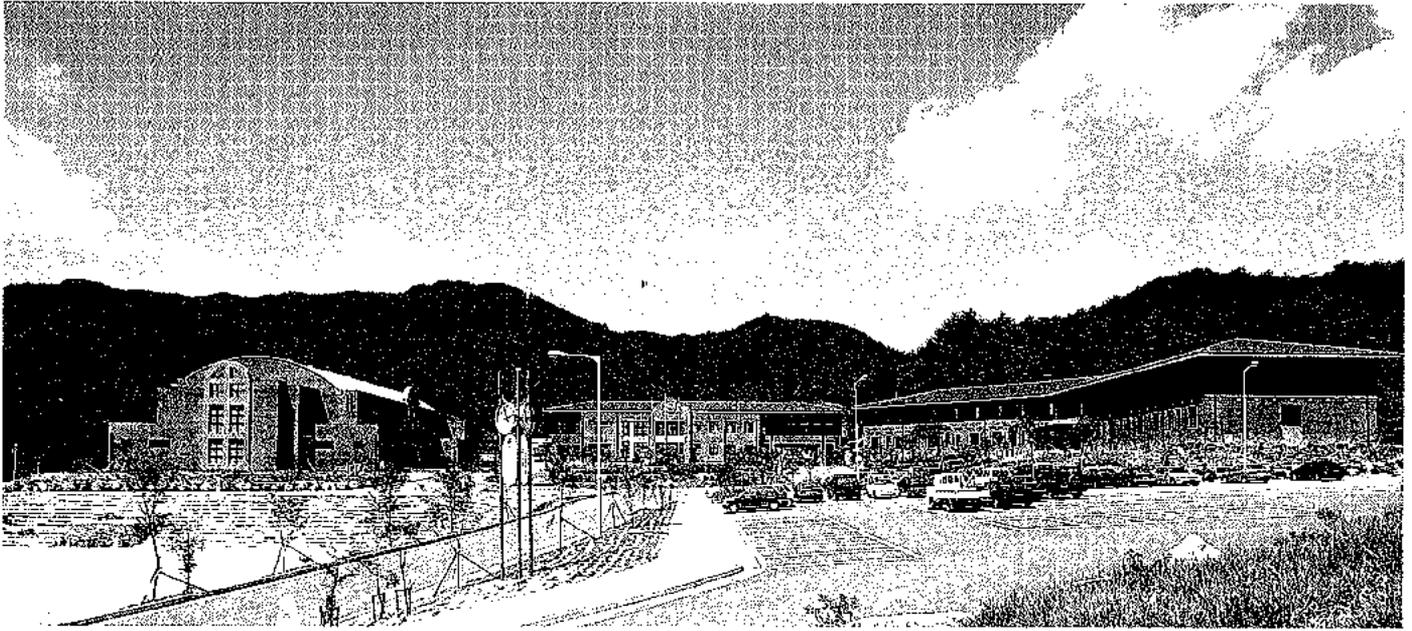
보람원 주출입구



보람원 벽면 상세



보람집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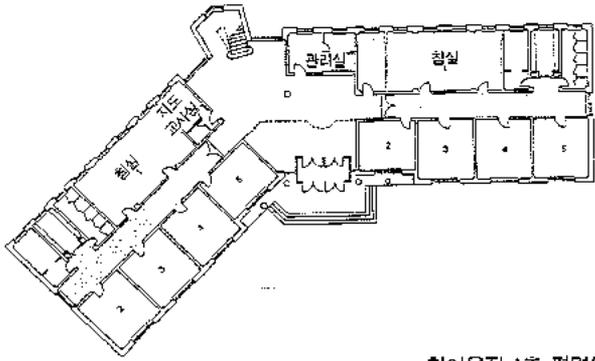
진입부에서 바라본 보람원 전경



한어울집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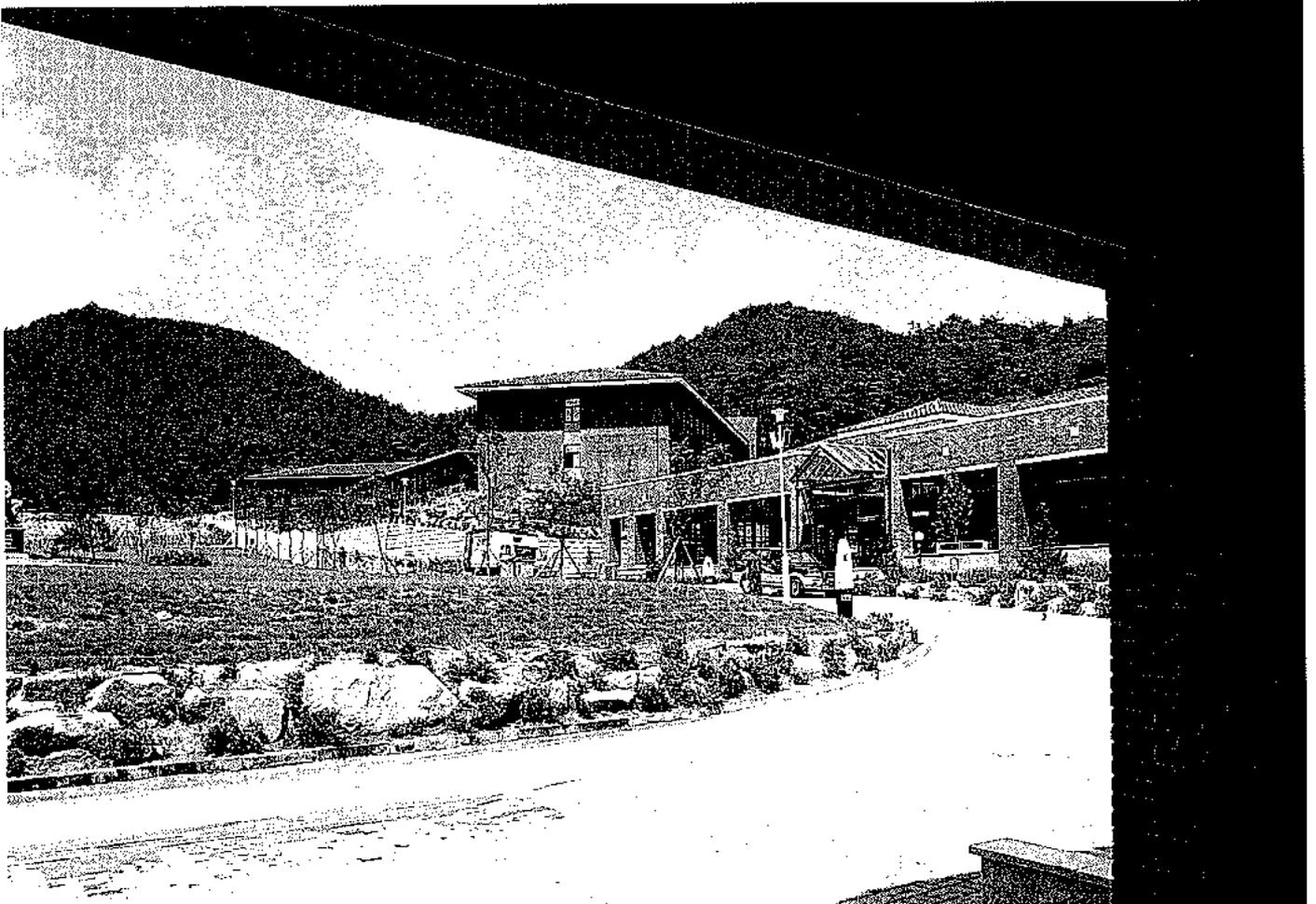
맛샘집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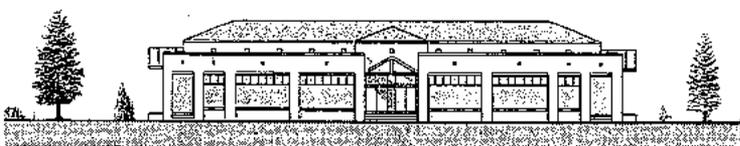
한어울집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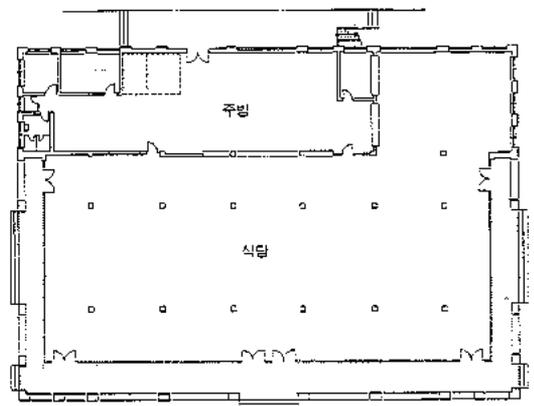
한어울집 정면도



보림집에서 바라본 맛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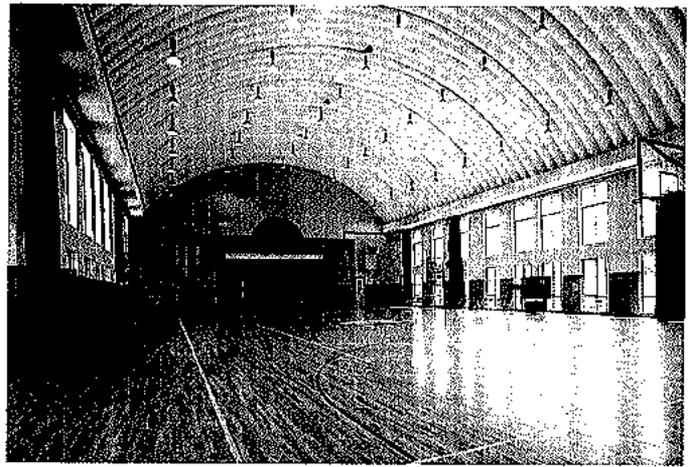
맛샘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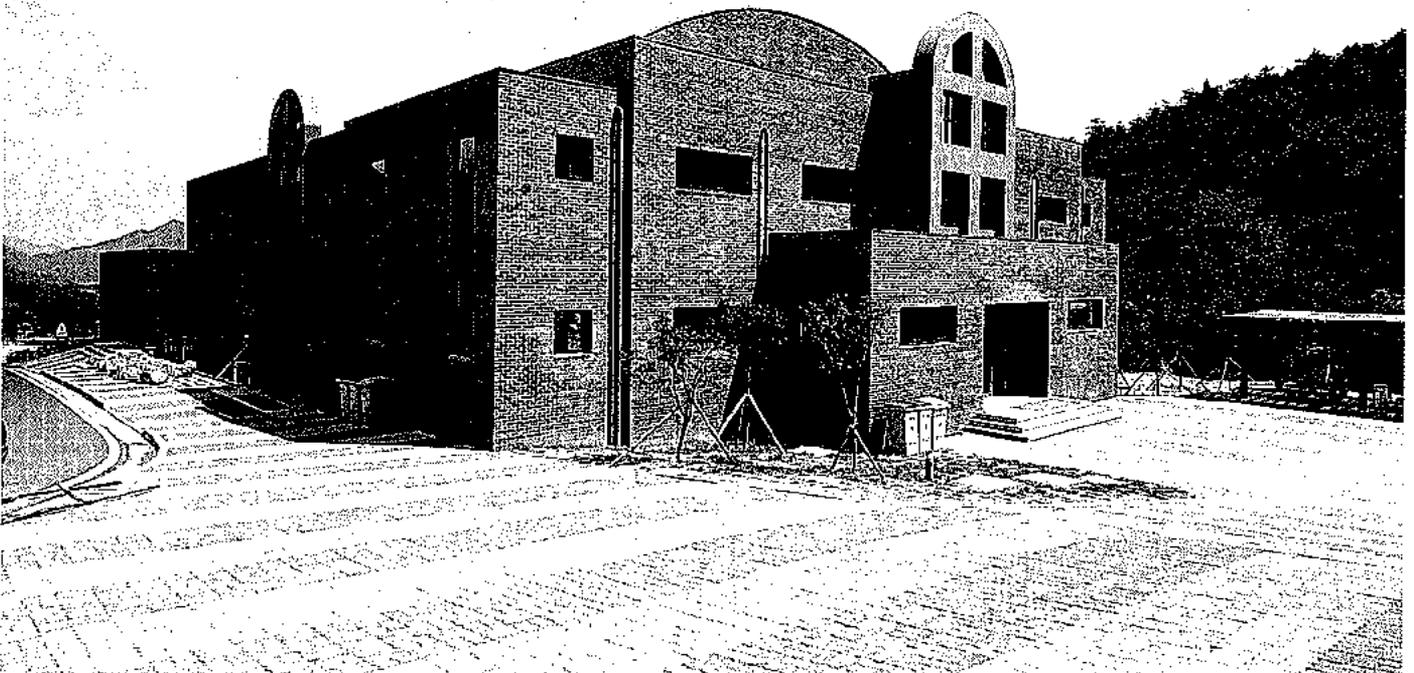
맛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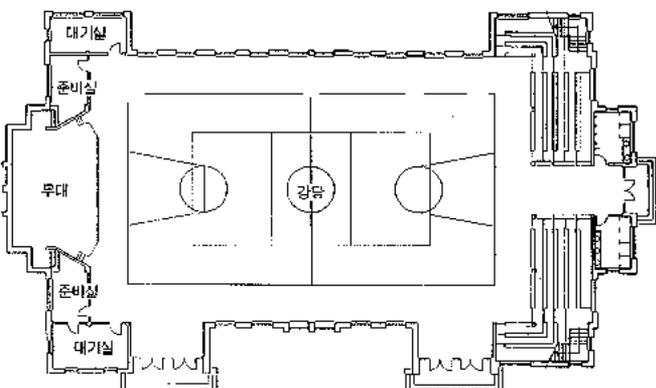
황영조관 정면



황영조관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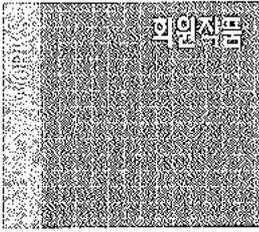
황영조관 전경



황영조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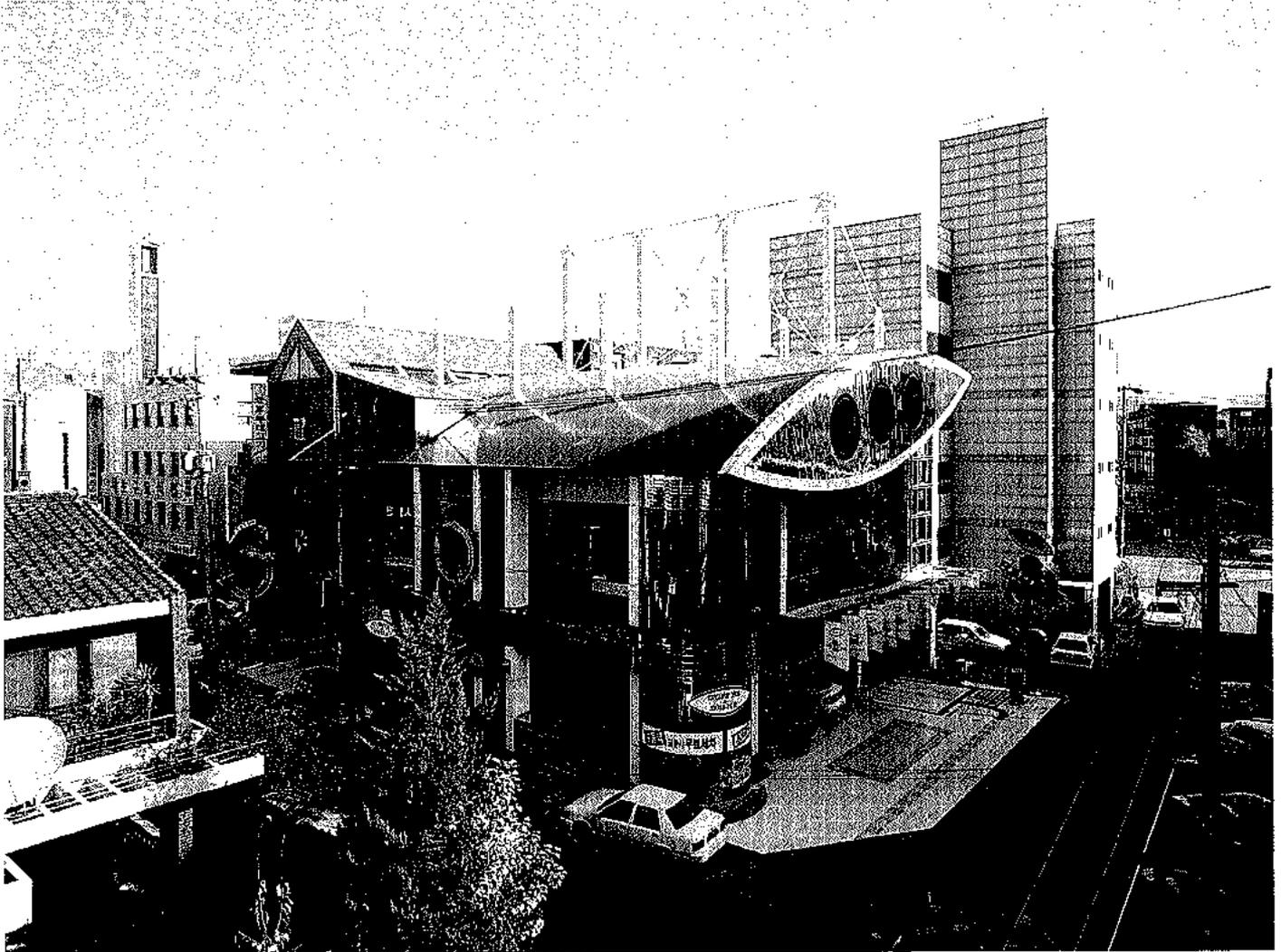
황영조관 정면도



서울 스피드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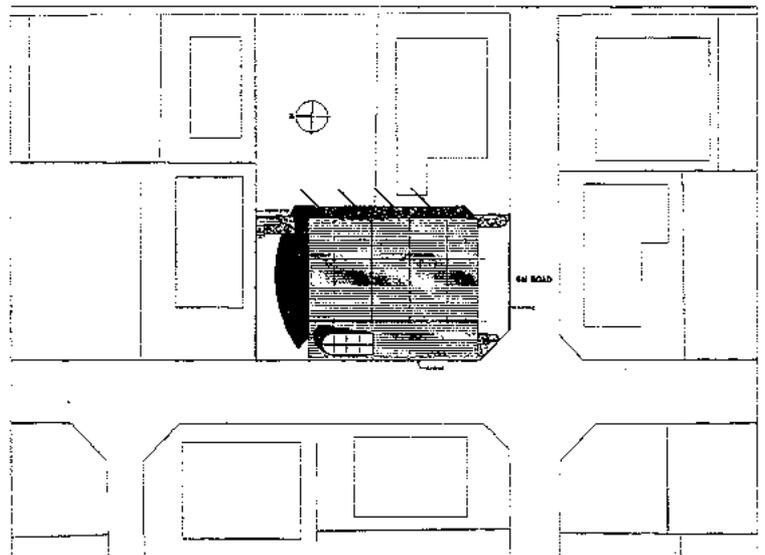
Seoul Speep Way & Bau Bau

문성운 / 건축사사무소 이상도시
Designed by Moon Sung-Un



전경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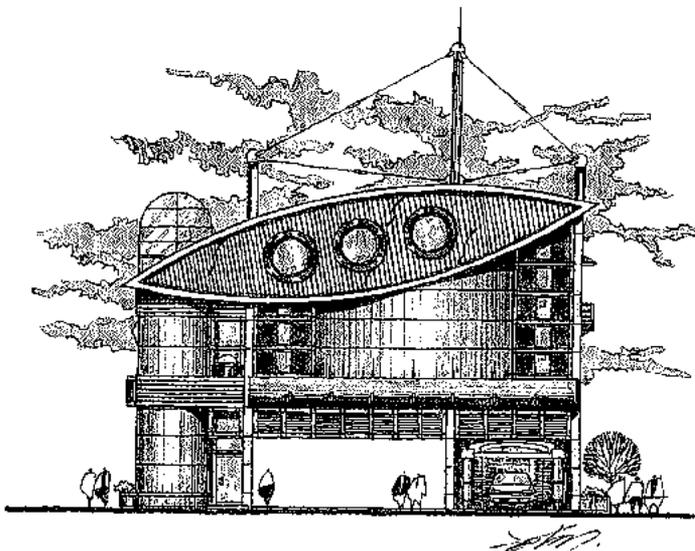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6-10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518.30㎡
 건축면적 / 286.27㎡
 연면적 / 957.30㎡
 건폐율 / 55.23%
 용적률 / 121.90%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 철골조
 외부미감 / 칼리알미늄 복합패널 및 범랑
 건축주 / 최우용
 시공자 / (주)미래건설
 설계기간 / 1995.2~1995.4
 공사기간 / 1995.4~1995.9
 설계담당 / 이종훈, 김영호, 이은경, 이종찬, 김남일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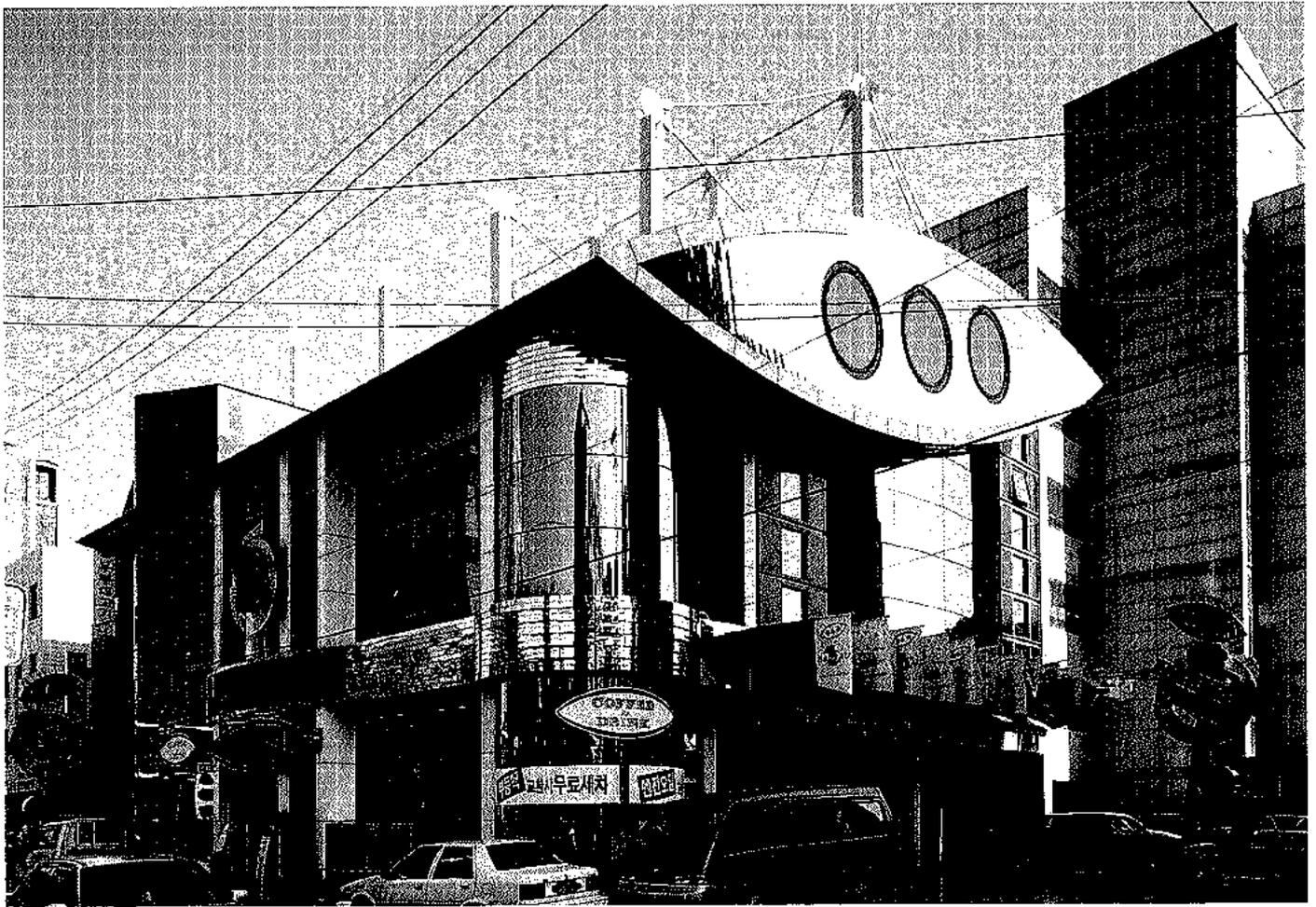


2층 레스토랑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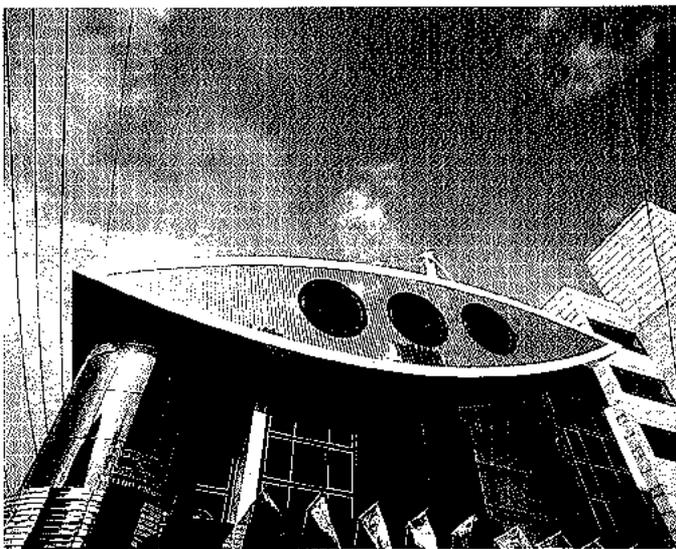


스케치

Location / 1576-10, Seocho-dong, Seocho-gu, Seoul
 District / Houses
 Site Area / 518.30㎡
 Bldg. Area / 286.27㎡
 Gross Floor Area / 957.30㎡
 Bldg. Coverage Ratio / 55.23%
 Gross Floor Ratio / 121.90%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3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Steel
 Exterior Finish / Color Aluminum Composite Panel
 Client / Choi Moo-Woong
 Constructor / Mirae Cons. Co., Ltd.
 Design Term / 1995. 2~1995. 4
 Construction Term / 1995. 4~1995. 9
 Project Team / Lee Chong-Hoon, Kim Young-Ho, Lee Eun-Kyeong,
 Lee Chong-Chan & Kim Nam-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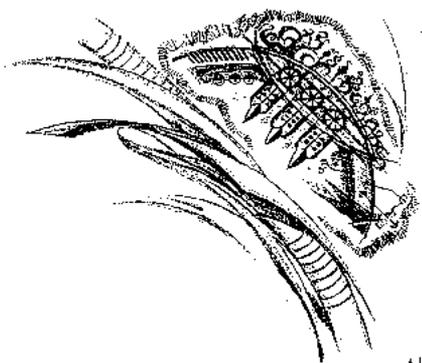
전경 2



정면 상부 창호 디테일



2·3층 연결 계단실



상상도

일정한 형식의 제약없이 조금은 충동적이며, 우발적인 발상으로 일관한 작업이었다. 따라서 잠재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던 장난기 같은 것이 상당 부분 표현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건축주의 전적인 지원과 믿음이 있었기에 별다른 수정 없이 끝까지 완공되어 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부지는 8m 이면도로를 경계로 서측의 주택 밀집 지역과 동측의 상가 밀집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도로 모퉁이에 위치해 있다.

작업 내내 고심했던 것은 '기존 주변 환경과의 순응이나?', 아니면 '대응이나?'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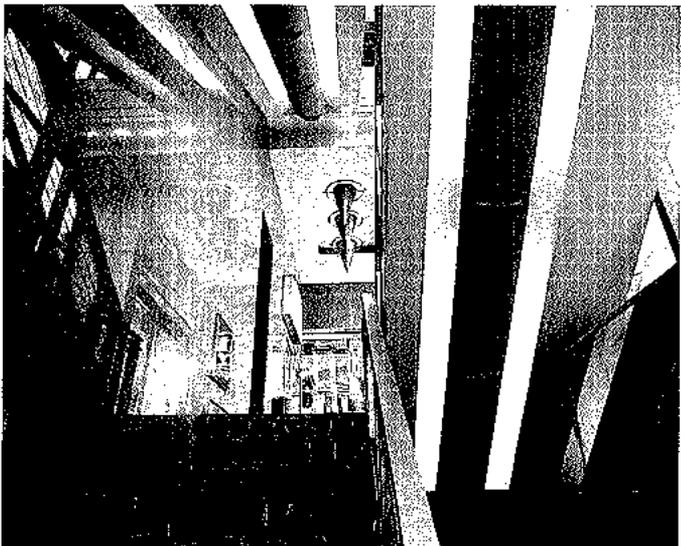
결론은 그 중간점을 택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저층 중규모의 표정 있는 것으로 작업방향은 정리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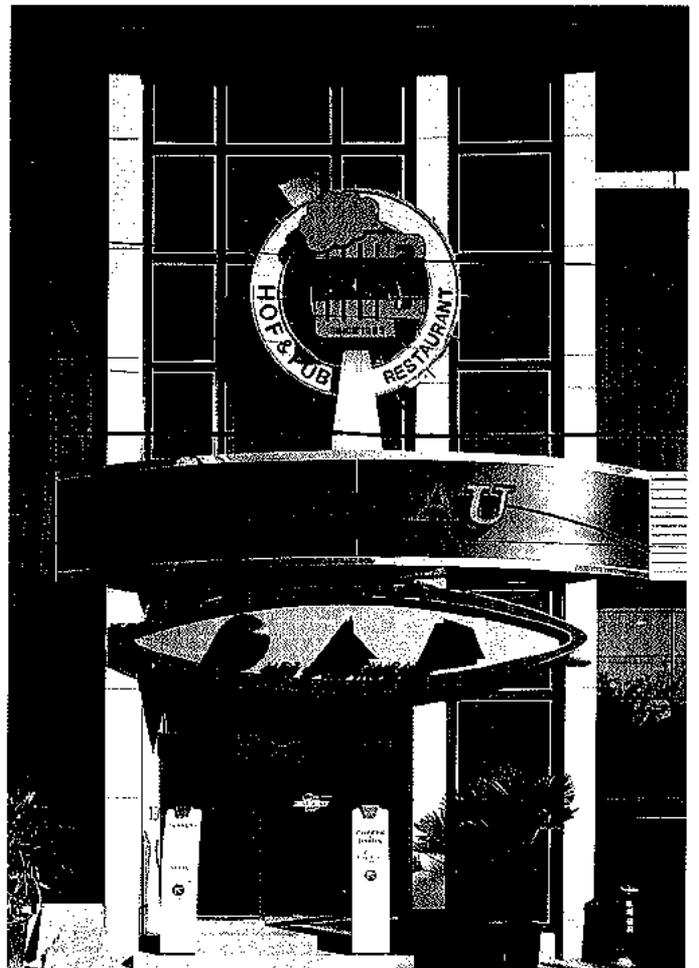
2층 레스토랑



올려다본 2층 계단실



지하에서 본 1층 홀 천정



주출입구 전경

첫째로 기존 상가 형태들이 어둡고, 노후화 되어 있었으므로 기존 환경을 너무 억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파격적인 외관 디자인 형태를 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건물 전체로 볼 때 지붕 부분의 형태가 포인트로 작용할 수도 있겠는데 이는 특별한 의미 부여보다는, 건물 용도가 자동차 경정비 센터와 자동 세차 코너가 1층에 있고, 2층 및 3층은 팝·레스토랑으로써 항상 움직임과 활기가 넘치는 곳이므로 이를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평면에서부터 전체 입면 형태에 있어 물

결의 파형을 은유 했는데 이는 나 자신만의 생각이었기에 보이는 이에겐 어떠한 느낌을 줄지 사실 고려해 본적은 없다.

완공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충분한 녹지 공간 및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상업적인 성격을 강조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반만 지어진 건물같이 생각되어 옆구리 한쪽이 허전하다.

아직은 세간에 감히 비평을 받아본적도, 받아볼 처지도 못되지만 나름대로 뿌리가 있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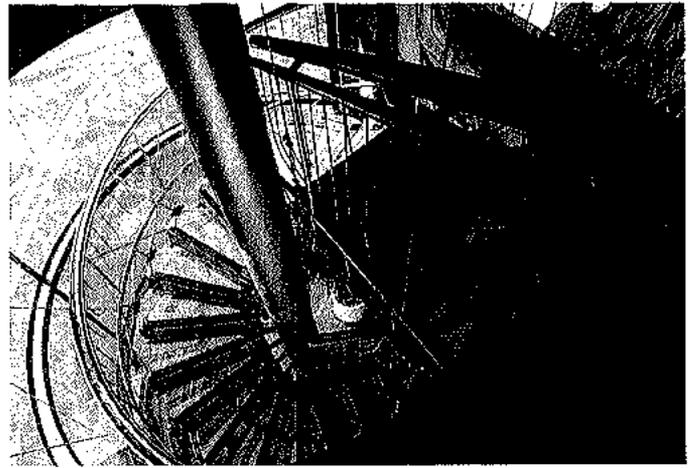
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주 고객 층이 30대를 전후한 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였으나 차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젊은 층으로 캐도 수정을 하였는데, 요즘 가보면, 어떻게 알고 왔는지 20대 초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고객층 설정에 실수를 했다고 본다.

모쪼록 대로변에 접한 건물이 아니기에 세인들에게 쉽게 보여지게 되지는 않겠지만, 사용자나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건물로 오래 남기를 바랄 뿐이다.



3층 레스토랑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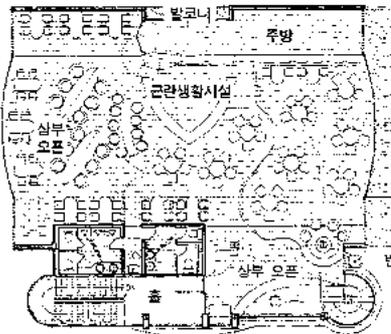
내려다본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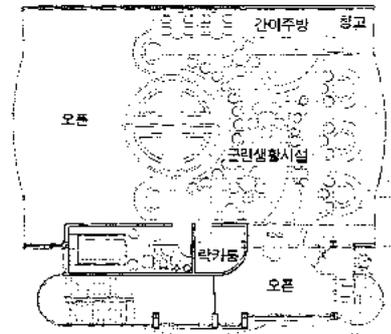
3층 레스토랑 원통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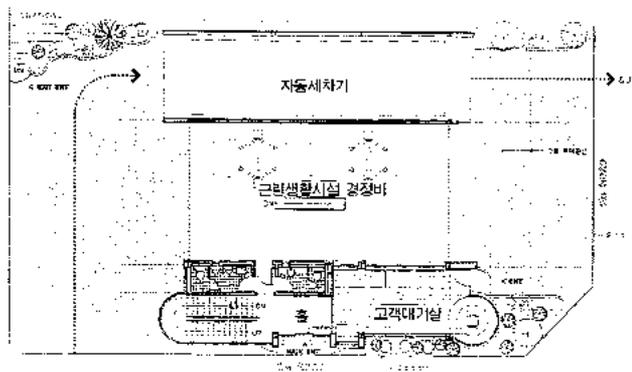
2층 레스토랑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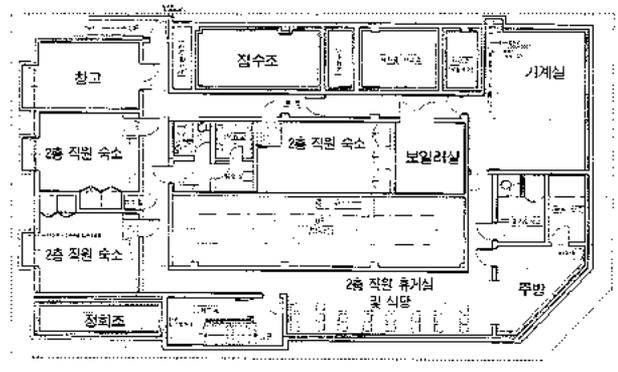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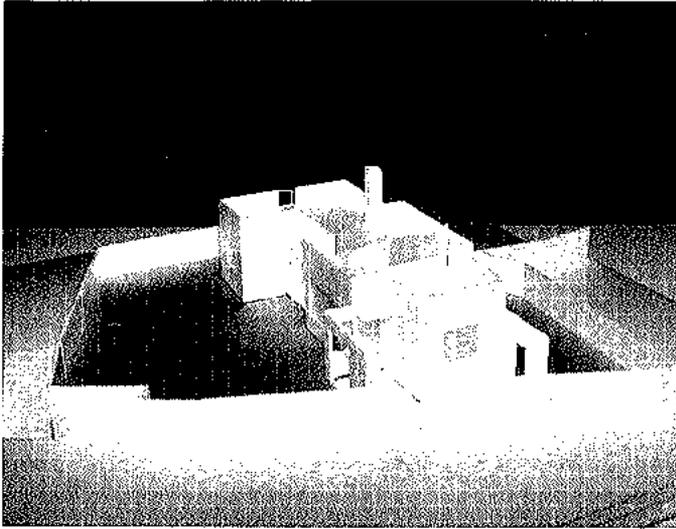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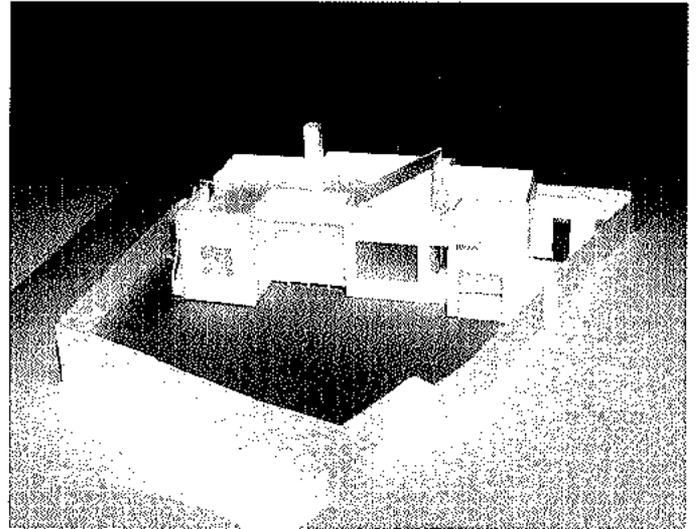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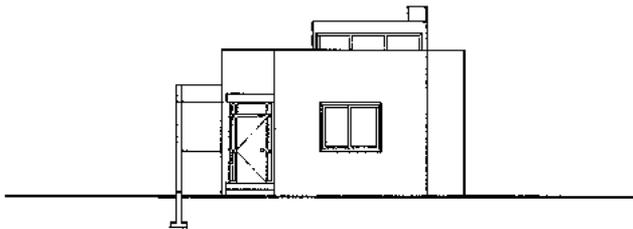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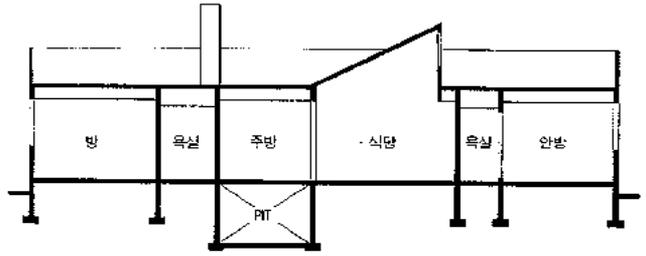
모형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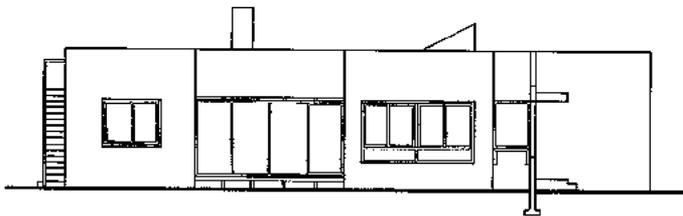
모형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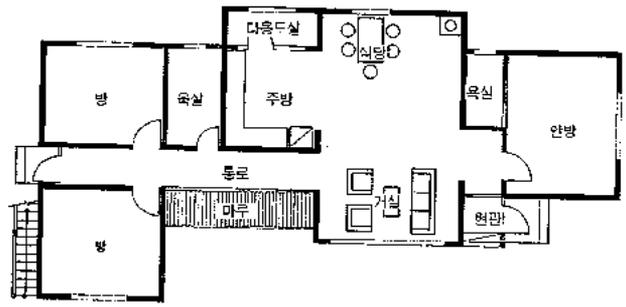
우측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1층 평면도

이 주택의 대지는 전주시의 변두리 농촌마을인 색장리에 위치해 있다. 이 주택의 주인은 그곳에서 봄이면 딸기농사를 짓고 여름이면 벼농사를 짓는 부지런한 농부이다. 이 대지 이웃집에 현장 발령에 따라 임시로 이주한 나의 절친한 친구가 전세를 얻어 전원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다. 나는 그 친구의 사는 재미를 보러 가끔 내려갔는데 봄철이 되면 이 집 주인의 딸기밭에서 담소하기도 하였다. 어느날 친구가 딸기밭 주인이 집을 짓겠다고 한다며 상의하자는 연락을 받고 내려갔다.

나는 우선 이집이 나의 고향에 있다는 것과 대지가 넉넉한 농촌 마을에 지어진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처음에는 50평 규모에 2층으로 계획

했다가 규모를 35평 정도로 줄여 달라는 요구에 따라 1층으로 계획하였다. 예산이 부족하여 규모도 줄이고 공사비도 최소화 하여 짓겠다고 하였다.

건물의 배치는 앞마당을 크게 이용할 수 있게 건물을 최대한 후퇴하고 대지 형상에 따라 뒷마당을 두어 농촌에서의 갈무리 장소로 쓸 수 있게 하였다. 현관과 대문 사이에 독립된 영역을 두고 매개 공간을 거쳐 마당에 진입하게 함으로서 마당의 존재가 더 뚜렷이 인식될 수 있게 하였다.

건물내부의 구성은 각 방의 독립성과 외부 공간과의 접촉을 크게 하였다. 자녀들방은 안방과 분리하여 통로로 연결하고 그 통로앞에는 전통 가옥의 마루를 설치하였다. 건물 전면의 거실의

창과 통로의 미루를 통해 앞마당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거실과 식당을 단일 공간으로 하여 넓은 실내의 개방감을 갖게 하였으며 식당 상부는 경사를 이용한 천측광창을 설치하였다. 동측에 면한 그 채광장은 아침햇살이 들어오고 구름이 없는 방에는 달과 별도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외부는 드라이 비트로 마감하고 순수한 메스의 형태가 읽혀지는 하얀 외벽 처리를 하였다. 옥상의 평지붕은 농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작업과 건조장소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팔공산 연불암 가는 길에서(100p), 임종순 / 창건종합건축사사무소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설익은 모습이지만
이젠 다짐하는 마음 뿐,
어제, 오늘, 내일을 깨어나 일어나서
날아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허물어진공간 그안의 우라...

We are in the
Collapsed Space

윤여욱 / 건축사사무소 도심환경
by Yoon Yeo-Wook

허물어진 공간속에 수 많은 생명, 생명들로 그안의
우리는 누군가
생명을 채간다.
그것도 사람이 자연(사람)의 생명을...
세 생명을 얻고자 사랑과 분열을 딛고 짐승과
벌레로부터 생명의
감지능력을 인간은 배운다.
땅바닥에 집짓기 세력싸움 그 세력 때문에 환경과
시대가 변하는
오류를 넘어 환경세계로...
땅과 인간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스스로 가꾸는
자생적(평화) 문화로...
생태계와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삶.
사람과 사람사이가 친숙했던 시절의 삶.
우주생명존중을 위한 총체적이고 대통합적인
삶(건축)은 없을까?
각각의 생명(사회적 갈등)을 포용하고 질서로부터
이탈없는
인간존엄 생명중심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그안에 우리는 생명계로 빠져 버리는 시간과
공간의 절묘한 조화를
얻는 것이다.

모여서 내일을 열며

Prepare for Tomorrow

김정관 / (주)세일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Cheong-Kwan

전문경영과 조직의 운용, 대사회적 홍보와 브랜드에 대한 마인드가 도입되는 시대적 요구의 대응도 신진 건축사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더욱 적극적인 타개책도 될 수 있다. 생각만으로 시작한 '모여서 하는 건축'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며 직원들과 경제적이거나 직업에 대한 열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한해를 돌아보니

면허를 따고 넷이 시작한 지는 삼년, 법인을 설립하고 우리의 힘으로 한 지는 둘째 해를 맞는다.

개업하며 창간한 사보에 설립에 대한 의미를 새기며 쓴 시(詩)를 되새겨보면 너무 겁없이 시작하고, 그 번(辨)을 너무 쉽게 함부로 토했다고 느껴진다. 그만큼 힘든 한 해였기 때문이다.

각자 사무실을 낸다면 작게 시작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부산의 현실이 거의 소규모임을 볼 때 선후배들이 모여 조직을 갖추어 출발한다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작년 시월 큰 꿈을 안고 출범하였다.

개업식에는 수백명의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을 보며 그만큼 우리에 대한 기대가 대단하구나 생각하며 서로가 결의를 더욱 다졌었다. 총원 25명으로 시작했으나 약관의 우리 형편으로 볼 때 대단한 용기였다.

그러나 작년 한해는 너무 큰 시련의 시간이었다. 정치기류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었는데다가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한 건축계에 대한 불신의 영향으로 설계에 대한 규제가 단순한 압력이 아닌 영역을 위협당하는 각종 제도의 신설로 간단한 도면이나 처리하라는 식으로 되어가는 것이니 생존권의 문제로 직결되는 상황이 우리에게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30여명이나 되는 조직으로 출발했으니 시기를 잘못 택한 것이다.

그동안 설계업계는 작품을 하는 소규모 아뜨리에 형태가 대부분이다 보니 여러 점에서 사회적인 대응에 약하다는 판단을 했고 이러한 문제를 몇명이라도 모여서 일을 영역 별로 나누어 조직이 가지는 강점을 우리의 장점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는데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었으니 그에 따른 후유증은 생각보다 극복해 나가기에 힘에 부쳤다.

건축사 면허를 몇년의 기간 동안 몇천명을 주겠다고 하니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분위기와 감리단의 신설과 감리업무의 영역 확대로 설계인력이 대거 이동하면서 인력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다. 전체적으로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직원에 대한 처우조건이 사무소 별로 너무 큰 차이로 벌어져 신설된 우리의 입장은 도저히 따라 잡을 수가 없게 되어가고 있다.

수주의 주라인을 설계경기, 설계입찰, 건설회사에서 의뢰하는 기획설계 등으로 나누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접근해 보았다. 3년동안 세차례의 설계경기에 응모하여 한번의 당선과 두번의 2등으로 성적은 좋았지만 2등은 승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분을 삭혀야 했다. 물론 설계경기란 모든 면에서 공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후유증은 2등이기에 상당히 큰 것이었다. 이 또한 설립 초기인 것과 사회적인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점에서 어떤 한계를 느껴야 했다.

설계입찰은 이러한 면에서 비교적 공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해진 설계비가 열악하므로 이 또한 작업의 열의가 반감될 수 밖에 없으나 초기의 의욕으로 너무 많은 작업량은 경영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경제적인 설계, 다시 말해서 꼭 필요한 작업만 해야 할 것을 의욕대로 하다보니 살림이 엉망이 되어 버렸다.

건설회사에서 의뢰하는 기획설계는 건수는 한도 없지만 직접 실시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의뢰가 들어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하다 보니 벤파워의 절반 가량이 투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래저래 경영은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연륜이 짧은 우리가 겪어야 할 시행착오가 얼마나 뼈아픈가를 느껴야 했다. 작품보다 앞서서 생

존의 문제는 우리보다 직원들의 현실에서 더욱 고통스러웠다. 살림살이는 우리의 몫이므로 나누기엔 한계가 있었다.

반성과 기쁨

젊음이란 무모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시작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었지만 또 이들 네명이 얼마나 오래 같이 할 수 있을까 우려 했었다고 한다. 같이 한 지 3년, 우리 힘으로 한해를 넘기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진심어린 손으로 등을 두들겨주는 고마움을 준다.

월초는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돌아서면 다음달 걱정이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다룰 바가 없지만, 살림을 맡고 있는 소장을 생각하면 늘어지는 설계일정은 더욱 일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속사정은 애가 타지만 꾸역꾸역 지나는 시간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남보기에도 좋아 보였던 지 우리와 비슷하게 조직적인 사무소로 출발하는 곳이 한두 팀 늘어나게 되었다. 물론 그 분들도 찾아와 먼저 시작한 우리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여 이제는 외롭지않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 이제는 정기모임도 기획하고 있다.

직원의 이동도 잦았다. 원활하지 못한 살림과 의욕만 앞서 무리한 업무량은 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모양이었다. 한명씩 그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나면 우리의 한계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양 처진 어깨가 더욱 내려갔다.

일에 대한 의욕보다는 처우에 관심을 표하며 그만 둔 직원들. 그들의 입장에서 조직의 불확실한 미래에 시간을 투자할 만한 무엇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지만 같이 노력하면 그만큼 안정된 조직이 구축될 것을 함께 할 수 없음이 야속했다.

그런 와중에도 꾀갯하게 남아서 새해를 맞는 직원들을 보면 동생들처럼 정겨웁기까지 하다. 이들과 따뜻하게 술 한잔 제대로 나눌 시간이 없어 시간이 흘렀으니 마음으로 정을 줄 수 밖에.

기획설계, 맡겨주어 고맙지만 모험만들고 도면그리는 정성이 사업성이 없다는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무정함이 한두번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몇십건이 이르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선에 이르게 된다. 몇억에 이르는 설계비의 유혹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직원들의 마음과 우리와 유사한 조직의 출현, 믿고 기획이라도 맡기려는 건축주의 신뢰, 토닥거리면서도 도타위지는 소장들간의 정, 이보다 더한 것을 지금 비란다면 과욕이 아니겠는가?

새로운 설계환경으로서의 새해

우리가 선택한 조직화된 사무소로서의 출발, 살아 남기 위한 선택이다. 설계사무소도 경영의 마인드가 없이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소화와 사회적 위치를 점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사회적 위상의 확보가 수주와 직결되는 현실을 볼 때

조직으로 대응하는 여건은 최소한 날으로 있는 우리 자신보다 더 나은 대사회적 발언과도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니겠는가? 그래서 아직 어린 우리는 이렇게 뭉쳐야 커질 수 있다고 믿는다.

설계실무를 시작하는 이들도 더 이상 배고픈 생활을 원치 않는것 같다. 이제 냉정해져야 하며 설계가 예술이기에 배고픔을 이기고 추구해야 한다는 얘기는 좀 접어두어야 할 것이다. 경영의 합리화와 맨파워의 구축은 신속하고 고도화되어 가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건축이 더 이상 영원히 남는 예술품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충실하게 담아내야 하는 그릇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건물의 수명으로 얘기할 수 있다. 구조적 수명과 상관없이 기능을 담을 수 없게 되면 여지없이 헐어내거나 개수되어 버리는 것이다.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성에 맞추어 다시 짓게 된다.

건축과 건축가와 설계사무소에 대한 정의도 새로 내려야 할 것이다.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건축과 관련한 우리의 주변은 아직 그대로 인 것 같다. 건축사 한사람이 경영과 일을 모두 수행하는 체제와 함께 조직화된 집단으로의 체제가 정착되는 것도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 경영과 조직의 운용, 대사회적 홍보와 브랜드에 대한 마인드가 도입되는 시대적 요구의 대응도 신진 건축사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더욱 적극적인 타개책도 연구해봐야 할 것이다.

생각만으로 시작한 '모여서 하는 건축',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며 직원들과 경제적이나 작업에 대한 열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네명.

왜 모였나?

건축을 위해?

또 다른 무엇이 있나?

건축.

이게 뭔가.

누구는 가는 재질

우리도 가는 우리 길

일터

넓게 펼쳤다.

높은 탑을 쌓으려면

기초 자리는 넓을 수 밖에

넷이 모여

건축을 위해 일터를 일군다.

도움도 받고 도와도 주고

우리 스스로 어루만지며

인생을 펼친다

서일은 옥도는 아니지만

거름을 붓고 땅을 쏘아

뿌리가 깊은 나무를 심는다

한 그루부터 큰 나무로 키운다

(서일 설립 자축시)

프로젝트의 수입

연남동 「STEP」은 94년 10월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다. 건축주로부터 이 프로젝트를 설계수임 받는 순간 가벼운 흥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프로젝트가 특별히 기념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독특한 기능이 들어있는 그런 것이어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다루어 왔던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지극히 평범하고 작았기 때문이다.

오랜기간 동안—공간연구소 시절을 제외하고는—참으로 다양하고도 대형인 프로젝트를 많이 다루어 왔었다. 사실 필자는 공간연구소 시절 김수근씨 휘하에서 공간사육을 다루면서 건축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공간사육의 계획단계부터 건축물이 완성되고 마지막으로 마당에 삼층석탑을 세우기까지 전과정을 통하여 김수근씨와의 대화로 집이 완성되어 갔으며 대화속에서 그의 건축관을 읽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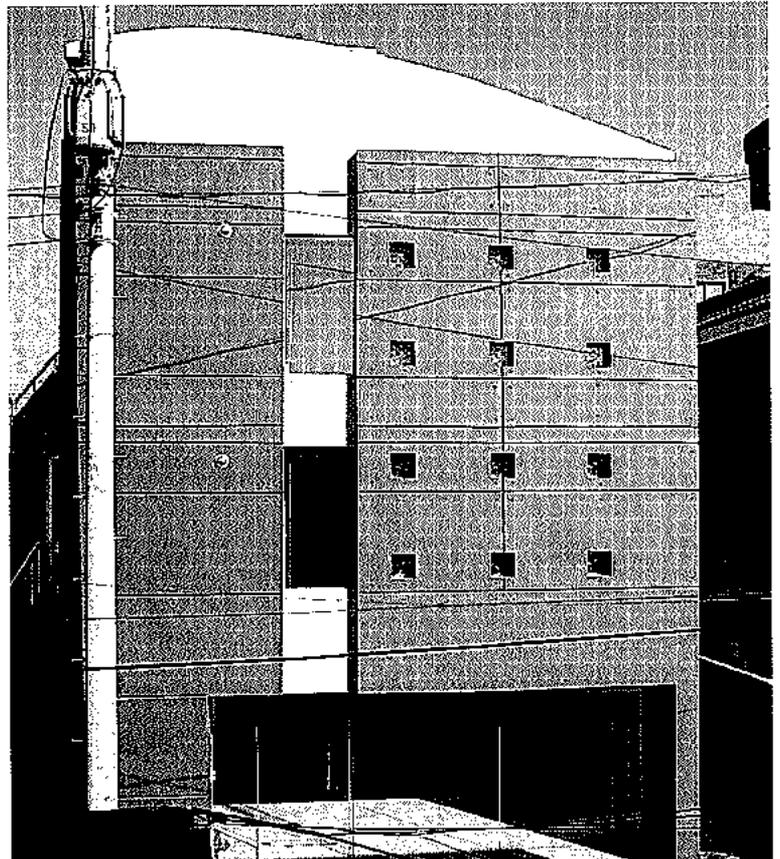
청년기 시절 필자는 일 욕심에 공간연구소와는 다른 경험에 욕심이 생겼고 1년간의 방황끝에 정림건축에서 설계를 시작했다. 이 곳에서는 상당히 다양하고도 규모가 큰 프로젝트들을 다루게 되어 공간연구소이후 작은 프로젝트는 다룰 기회가 많질 않았다. 대학교 마스터플랜, 은행본점, 방송국, 도서관, 대학극장,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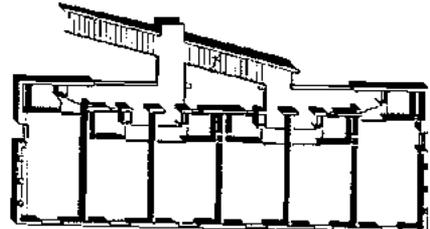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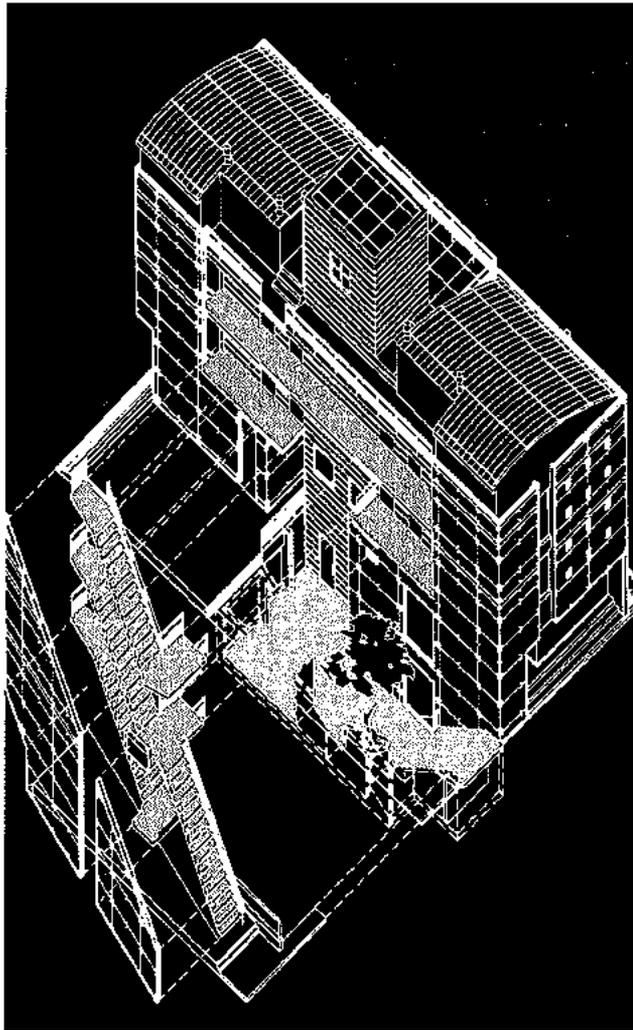
포츠시설... 등에서부터 정림시절의 마지막 작품인 대덕과학문화센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만져지고 완성되어졌다. 이때는 실로 어떤 프로젝트라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패기와 정열과 자신감이 가득차 있었다.

연남동 「ST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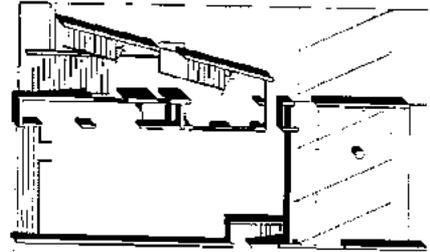
Yun-nam dong STEP

방철린 / (주)인·토종합건축사사무소
by Bang Chul-Lin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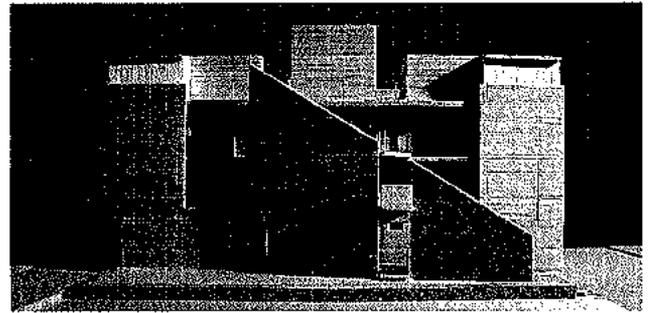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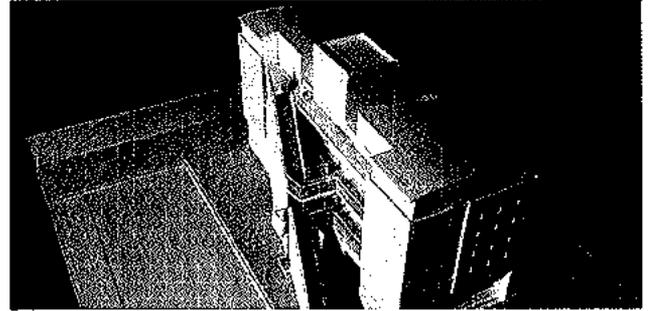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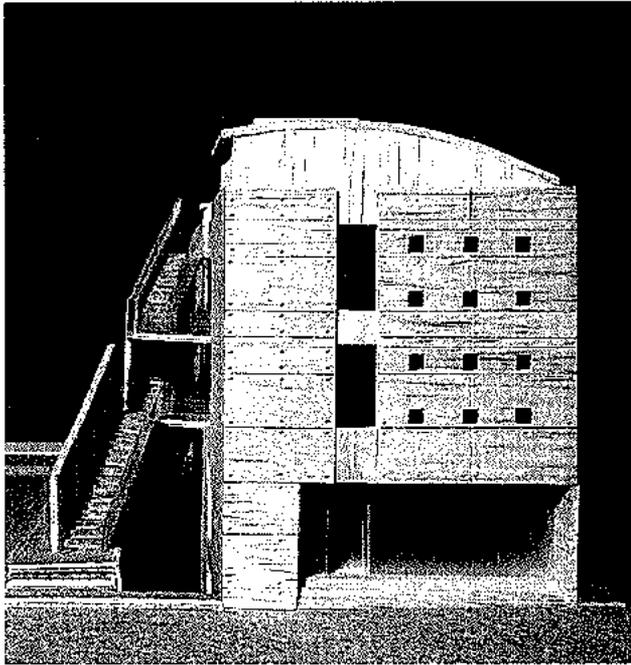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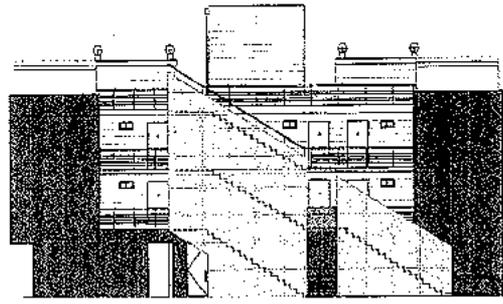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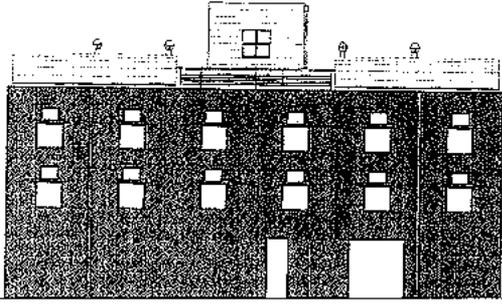
이 무렵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눈을 열게 된 것은 4·3그룹의 활동인 것 같다. 건축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창작을 하는 동료건축가들과 대화와 활동을 통해서 건축의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극히 보편적이고도 작은 프로젝트들을 값있는 인간환경으로 철저히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건축설계자의 임무란 생각은 청년기 시절부터 갖고 있었지만 진실된 건축은 이디에 있는가? 건축의 진실은 무엇인가? 건축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평범한 다가구 주택인 연남동 「STEP」은 이 프로젝트를 만나는 순간 정말 매력있는 프로젝트로 내게 다가왔다. 건축주와 시공자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이미지가 집장사의 그것으로 머리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속의 다가구 주택의 이미지를 과연 바꾸어 놓을 수 있을만큼 살찌운 내용물로 채울 수 있을까?가 관심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이기도 했거니와 정립시절 이후 몇년새에 관심을 가지고 정성스레 다루어 보았던 몇개의 주옥같이 생각했던 작은 프로젝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유산이 되고 말아 작품이 페이퍼워크로만 남는 것을 안타까워 하던터라 더욱더 그러했다.

핍박한 주거지역

건축주와 만나 요구사항을 들어본즉 이곳이 대학 주변이어서 원룸시스템의 다가구주택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지나는 행인이 많으니 1층은 편의점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지하는 건축주 자신의 사무실로 쓸 계획이라는 이야기였다. 부지를 답사하여 본 결과 이 연남동 「STEP」의 부지는 인위적으로 개발된 다른 평범한 서울의 주거지역내의 택지와 다름이 없었으며 비교적 통행이 많은 동네입구에 면한 두번째 부지임을 확인하였다. 마을을 둘러 보았으나 뚜렷한 성격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주거지역으로서의 특별한 특징도 없이 그저 주택들로만 빽빽하게 차 있었다. 30여년전, 도시나 주거지역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는 우리들에 의해 생각의 깊이없이 개발된, 그래서 길과 택지와 몇몇 공동시설만이 동네의 형성요소 전부이고 그 이외의 공동체적 생활을 위한 인간적이고도 핵심적인 시설은 눈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무성적 무특징의 동네였다.



연남동에서 보듯 우리의 현대 도시구조 특히 주거지역의 도시구조는 너무나 뾰박하다. 개개인의 인간다움도 존중되어 있지 않거니와 공동의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되어 있지 않고 인간의 공동으로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암시도 빈약하다. 차라리 전통적 주거지에서 공동체적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장치들이 발견됨을 볼 때 현대사회가 얼마나 문명에 얽매어 비인간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알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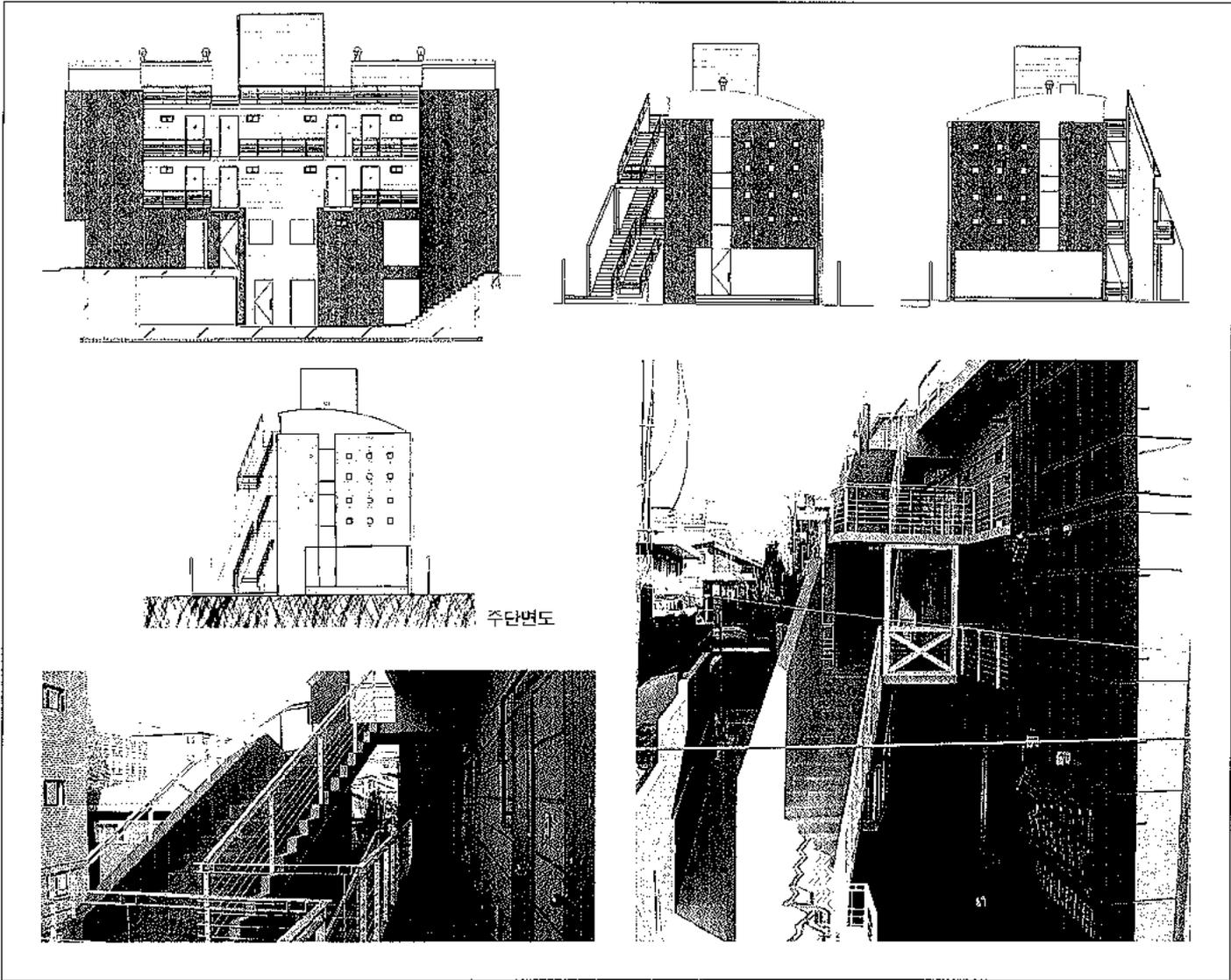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있는 마당, 골목 중간 중간 머물러 대화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들, 빨래터, 장터... 이곳에 사는 이들도 개개의 주거에서 삶을 영위하면서도 마을의 공공장소에서 이웃과 함께 호흡하고 이웃을 서로 느끼며 삶을 살아간다. 이들 공간들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기 보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생활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소가 세월을 두고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더욱 더 오랜시간 보존 유지될 수 있는 것 같다.

잉카문명의 마추피추 공중도시는 우리의 도시개발 결

과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훨씬 치밀함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들 도시 중앙에 배치하고 그 주변을 4등분하여 기능별 조닝(Zoning)을 한다. 신전, 지배계급이 사는 주거지, 공공시설, 피지배 계급이 사는 주거지 등이 산세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고 이들의 성격에 맞게 가로계획이 치밀하게 이루어져 있다. 좁은 골목은 때론 넓은 광장과 연결되기도 하면서 생활속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이곳 잉카문명은 다양한 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이어서 인간은 존중되지 않았음직 한데도 우리의 도시보다 훨씬 인간적이다. 500년후 문명시대로서의 우리의 도시는 어떤가? 신도 인간도 찾기힘든 무기질이 아닌가?

도시에 밀착된 주거

우리에게 주거가 단순한 피난처의 개념에서 뿐 아니라 복합적이고도 심미스런 의미와 기능을 갖게 된것은 원시주거에서 부터의 일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고대주거지에서 주거가 인간 그리고 주변환경과 밀착되어 있으며 서로 의미 있는 관계가 유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어떤 지역의 주거가 다른 환경에 옮겨



졌을 때 그 환경에 쉽게 적응될 수 없을만큼 특수해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주거건축은 그것이 있는 환경에 속하게 함으로서 그 역할을 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남동 「STEP」은 200평이 채 안되는 조그만 주거시설이지만 이 건축물이 놓이게 될 대지 주변의 주거지역으로서의 도시적 여건이 팽박하여 이웃을 느낄만한 공동체적 요소들이 전무함을 감안할 때, 그리고 이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살아야 하는 다가구 주거기능외에도 그런 생활시설로서의 사무실과 Shop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축의 규모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출입될 것을 감안할 때 더욱더 이 작은 건축물이 도시속에 속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주거사이를 잇는 건축적요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도시와 주거가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적 공간요소가 도시와 주거 사이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는 완충역할과 세대간의 대화의 장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도시의 경계에서부터 각세대에 이르는 과정 - 이 과정의 건축적인 도구인 계단과 복도는 단순한 기계적 통로

의 개념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적 산책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산책로 위에서 이웃을 만나기도 하고 다른층에 있는 이웃과 눈인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산책로는 전층에 시선이 닿을 수 있도록 계획 되어졌다. 그래서 이 계단은 이집의 중심공간 역할을 한다. 좁은면적의 공간이지만 이곳은 빛이 지하1층까지 떨어진다. 각 세대로 드나드는 길로서의 계단, 중심공간으로서의 계단은 모든 부분이 항상 밝다.

좋은 건축을 만든다는 것, 건축이 인간적이라 하는 것, 무엇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재료, 인간적인 형태, 이것들이 과연 건축을 인간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재료나 형태와 같이 걸치레적이고도 가식적인 처리보다 건축적 공간과 형태의 순수성과 진실성 속에서 참된의미의 인간이 발견될 수 있고 그런 건축이 좋은 건축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건축속에서 순수성과 진실성이 발견될 때 그 건축은 인간을 위한 참된건축이 되리라.



한국 건축에서 정인국이 갖는 가치
정인국 교수의 건축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작가, 작품론으로 접근하는 것과 다른 특별한 태도가 필요하다.

우선 정인국 교수를 이해하는데에는 그의 실제 작업과 그 배경을 이루는 시대적 의사를 종속적으로 결부하여 볼 이유가 있다. 사실상 그는 대학교수의 입장으로서는 많은 양의 프로젝트를 구현하였고,

동시에 그가 그 시대에 전달하고자 하였던 건축적 사유의 세계도 풍부하다.

이러한 논술 활동과 작품이라는 이중의 작업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적 속박이 되기 쉽기도 하다. 한 건축가에게 있어 이 두가지 가치를 동시에 읽는 것이 어려운 것은, 보통 확연한 자기 개념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적 성과가 미진할 경우, 또는 뛰어난 건축적 표현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축적 개념이 쉽게 설명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논리와 작업이라는 이중의 관점 아래 정인국 교수의 건축 세계를 읽는 것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동시

대의 건축적 보편성을 넓게 이해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정인국 교수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세기 초의 한국 건축이 겪는 변이(變移)의 노력과 함께 어떤 한계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항시 이 보편인 틀이 쉽게 위무(慰撫)받는 상황과 변명을 앞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대인으로서 사고에 가장 큰 가치가 있다. 그가 동시대인들에게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단락으로서 시대의 전이성이다.

첫째, 해방 후 우리 건축의 보편적 명제가 된 모더니즘은 어떻게 체화(體化)되는가.

둘째, 세계주의로서 모더니즘은 우리와 같은 제3세계의 위치에서 어떻게 극복되는가.

셋째, 건축의 지역적 특질로서 한국성은 어떻게 가능한가의 모색이다.

그는 한국의 근대기에서 국토 분단이라는 비극적 상황 때문에 성형된 월남(越南) 건축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대부분의 인텔리겐차와 같이 일본에서 전문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혼돈과 빈곤의 시대 상황을 극복해야 하였던 제2세대 건축가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그의 프로파일은 동시대인들의 보편적인 실루엣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에게는 동조하기 어려운 앞선 사고 때문에 낙천적인 편모(片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면에는 항시 고독한 그늘이 투영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건축의 작가 활동은 1954년 홍익대학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며, 이 시기는 한국전쟁으로 폐허화된 서울이 수복되고 난 즈음이다. 그리고 그는 전적으로 건축의 사회와 실무와 교육이라는 세가지 현장에서 적극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와 같은 물질적 빈곤과 정신적 빈한(貧寒)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는 건축학계와 작가협회의 같은 건축사회의 구축, 일체가 남기고 간 건축 교육의 재편 그리고 생존 수단을 포함하는 건축 창작 등의 여러 역할의 기대에 자신을 쫓아야 하였다.

그의 실질적인 활동기라고 할 수 있는 5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의

한국의 건축가—정인국(1)

Korean Architect, Cheong In-Kuk
모더니즘의 시대인

박길룡 / 국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Park Kil-Ryong

본지는 한국건축사속에서 선각자로 활동했던 건축가를 재조명, 그들의 작품세계를 분석,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 이희태, 김정수, 김수근에 이어 그 네번째로 정인국의 작품세계를 5회에 걸쳐 알아본다.

1. 모더니즘의 시대인

정인국이 갖는 한국 건축에서의 가치, 이북에서의 소년기, 일본 유학기, 너른 합리적 사고와 깊은 정서의 세계

2. 학자 건축가 정인국

홍익대학교에서 건축 교육, 신건축문화연구소, 모더니즘의 시기, 강병구·엄덕문·김중업과의 조우, 건축가협회장

3. 정인국의 지적 중흥기

한국적 모더니즘의 변이, 제3세대, 제3세계 건축에 주목함, 강의실에서 만남, 서양건축사·근대건축론·현대건축론에서의 시대관

4. 한국성의 모색

민족박물관의 교훈, 문화재 위원, 한국 건축 원형의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건축양식론」

5. 정인국 건축의 궁극성

한국건축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UIA 총회, 정인국이 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한 것, 병환

기간은 약 20년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이에 그는 세 번의 변화를 사고 하고 실천한다.

이러한 지속적으로 자신을 진이(轉移)시켜 가는 태도는 동시대 대부분의 작가가 모더니즘의 아류에 안주하거나 불명확한 건축관 위에서 부유하던 태도와는 변별되는 가치이다.

우리는 한 작가가 지속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개별적 가치관에서 어떤 항상성(恒常性)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자기 진화(進化)의 메카니즘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항상성이란 곧 누ру한 권태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대적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미래를 널리 예견하는 시대정신을 회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시대 상황에 충실한 예술 태도보다도 시대를 리드하는 실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천수(天壽)를 다하지 못하고 1975년 별리(別離)하였다. 그의 나이 환갑을 못 채운 59세이며, 제3시대기로서 한국성의 실험이 한창이던 때이었다. 급환으로 후대를 위한 건축적 유언을 채 준비할 겨를도 없이 돌아가 시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마지막 시기는 미완의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한국 근대주의의 맹아(萌芽)와 개척(開拓)의 시대, 그리고 한국건축의 본질이, 한 학자이며 동시에 실천가라는 이중의 영역에서, 어떻게 정리되는가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한 예술인이 마련하는 시대정신이 우리의 빈곤한 인식 상황에서 얼마나 귀중한 가치로 자리하는가에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필자는 이 정인국(鄭寅國)론의 방법을 주로 연대기적인 순서로 하되, 그의 저술을 통한 시대정신과 작품을 통한 실천이 병치적으로 펼쳐 보이는 구도로 기술하고자 한다.

소년기와 일본 와세다 대학 유학 시절/ 너른 합리적 사고와 깊은 정서의 세계

정인국은 황해도 재령군 재령읍 문창리에서 부친 정재유씨와 모친 이재성씨 사이에서 1916년에 출생하였다.

1930년대까지 황해도는 6개 군이던 것이 17개 군으로 확대되나, 재령군은 그 중에서 비교적 군세가 가장 약하였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 고장은 일찍이 선교사가 많이 진출하여 있고, 경성과 동경에 많은 유학생을 배출

하고 있던 개화된 분위기에 있었다.농경 경제가 발달한 이 고향에서 여유있는 지주의 4남 1녀중 3남으로 태어난 그는 비교적 자유로운 가족 생활에서 소년기를 보냈다.

이와 같은 넉넉한 환경에서 총명한 소년 정인국은 재령공립보통학교에 들어가 소년기를 재령에서 보냈다.

12세가 되어 서울로 올라와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며 엘리트 교육의 길로 들어선다. 월반을 할만큼 우수한 성적으로 1934년 봄에 중앙중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35년에 도일하여 와세다대학 제1고등학교에 입학하여 3년만에 이 과정을 마친다.

곧 이어 1938년 와세다 대학 이공학부 건축과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건축 수학에 들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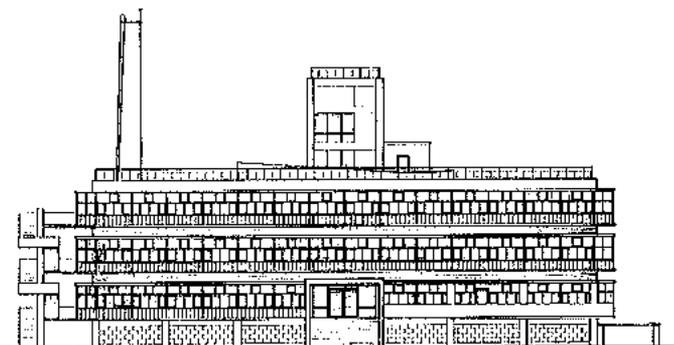
그가 건축 전공에 뜻을 두게 된 것은 고향으로 가는 차에서 어떤 외국인이 초가집을 보고서는 조선에는 이렇게 목장이 많으냐는 질문을 받고 조선의 건축을 일으키겠다는 뜻에 동기가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가 전공의 선택을 이루는 것은 수학에서 특히 높은 재능을 보이고 음악적 정서와 뛰어난 그림 소질에 스스로 주목했었을 것이다.

그는 청년 시절 음악의 세계에 젖기도 하는데, 주로 현악기를 특히 첼로를 상당한 수준으로 연주하였다. 그후 친구들과 교향악단을 구성하여 황해도에서 연주 활동을 한다. 그의 음악 멤버 중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를 지내는 배석빈 교수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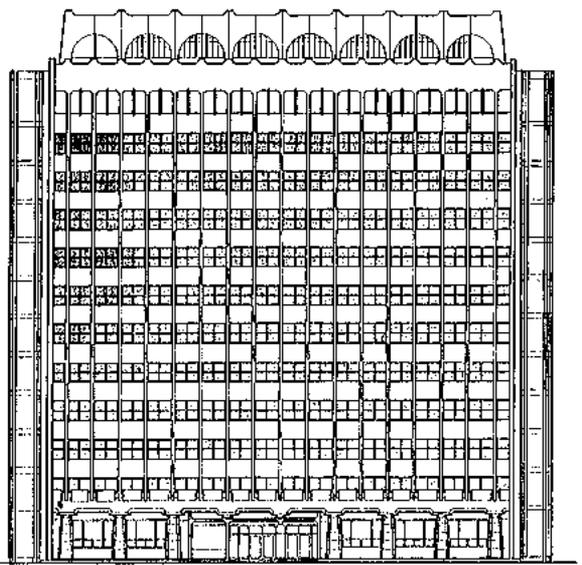
1942년 9월에는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다. 해방되기까지 3년의 시간이 있다.

우리는 일제 치하의 당시 한국의 1세대 건축가는 크게 두 가지 수학경험을 통해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경성고등학교출신을 중심으로 하는 경성에서의 인맥이다. 그들은 박길룡을 필두로 하여 박동진 장연채, 김순하, 유상하 유원준, 이천승, 김재철, 김희춘 등의 인맥이 그러하다.

두번째 계류는 일본 유학파로서 와세다 대학, 동경공대 일본대 등에서 수학하였던 사람들이다. 그 즈음까지 일본에서는 동경공대의 이릉재, 김종량, 와세다 대학의



국립중앙 관상대 정면도



서울시 교육위원회 정면도

김윤기, 이윤순, 일본대의 권경열, 백진기, 김충국 등이 배출되고 있었다. 와세다에서 선병택, 엄덕문, 강명구 등과 조우하는 것도 이때의 일인데, 후에 그들은 정인국 교수가 한국에 돌아와서 자신의 환경을 만드는 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게 된다.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인국 교수는 1942년 안재순 여사와 결혼한다. 결혼식은 재령에서 전통 혼례와 사리원에서 신식 결혼식을 갖는데, 위의 언급된 교향악단의 친우들이 축가를 연주한다. 두 분의 만남은 당시로서는 주변 친우의 전략이 개입되나, 연애의 결혼이기가 쉽다. 부인 안여사는 정교수가 들러리를 섰던 친구 결혼식에서 만난 신부를 들러리였기 때문이다.

와세다 대학의 졸업과 함께 그해 11월에 도쿄 소재의 일산(日産)토건주식회사 설계부에 입사하여 잠시 일본에서 신혼 생활을 가지만, 부인은 출산을 위해 곧 고향으로 돌아온다.

도쿄에서 직장 생활은 1년 정도이며, 1943년에는 중국의 관동주(關東州)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나, 그 해 곧 만주 안동현(安東縣)으로 발령을 받아 해방 즈음까지 지낸다. 그의 만주에서 경력은 당시 대부분의 전문직인들이 그러하였듯이, 학병(學兵)을 면제받는 산업체 근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해방이 되는 1945년 2월에는 일산토목주식회사(日産土木株式會社)를 퇴사하고 귀국한다.

광복과 귀국 후 새로운 입지에서/학자로서 건축가의 시작

한국한 정인국 교수는 1946년 황해도 재령공업전문학교 부교장으로 부임한다. 약 2년 후인 1948년에는 평양

공업대학 건축학부 교수로 부임하며 평양에서의 마지막 기간을 보낸다.

원래 평양의 사립「대동공업전문학교」는 일제 말기인 1944년에 관립으로 개편되며「평양공업전문학교」가 되었으나 이 때 건축과는 폐과되었다. 그 후 이 학교는 1946년 김일성대학의 학부로 흡수 통합되었다가 1948년에는 공학부가「평양공과대학」으로 독립되었다. 건축과가 설치되면서 당시 유일한 건축과가 있는 대학이었는데, 이 대학이 현재의「김책공과대학」이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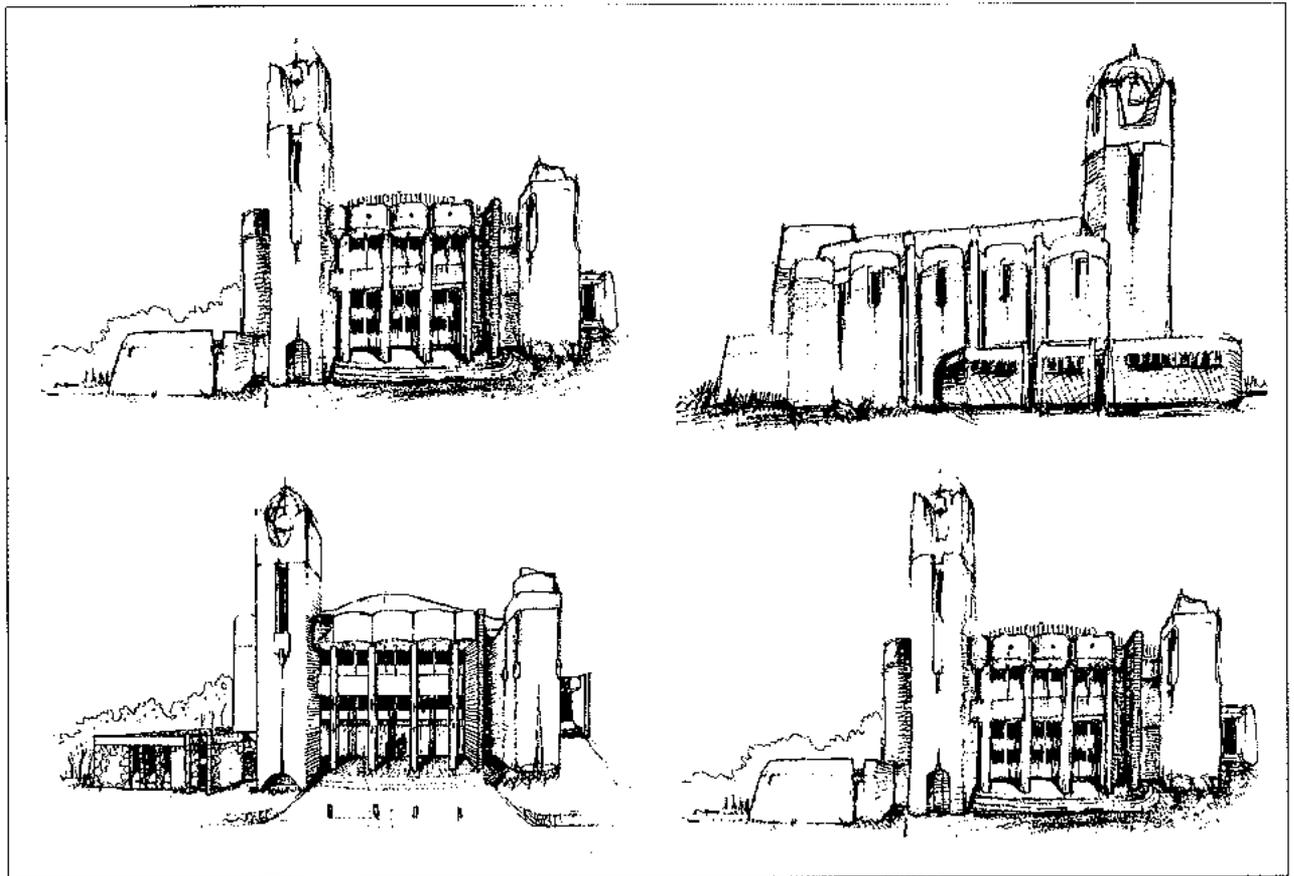
정인국 교수는 1947년 9월부터 1950년 12월 월남할 때까지 이 학교 교수 겸 건축학부장이었다.

정인국 교수가 1.4후퇴와 함께 월남하는 것은, 지주 계급이었던 가계(家系)가 그러하거나, 점차 생활이 위협받는 당시의 공산 치하의 정정(政情)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이해된다.

1950년에 월남하여, 동국건설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계를 해결하나 동란의 상황에서 생활의 근거는 매우 불안정하였다. 이 사이에 서울에 건축과에 재직하며 새로이 건축학계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1951년 3월에는 위의 회사를 퇴사하고, 그해 9월에 대한중석회사 상동 광업소 공무과에 입사하며 근거지를 부산에서 강원도 상동으로 옮겨야 하였다. 이 시기 동안의 가족 생활은 어느 정도 안정된다. 부인의 건강이 염려될 상황이기도 하지만, 비교적 한적한 환경에서 가정에 충실할 수 있었던 시기로 보인다. 그는 1954년 홍익대학에 교수직을 가질 때까지 약 3년간 이 직장에 재직했다.

당시의 건축가 인맥의 환경에서 이북 출신이며, 일본 유학파인 정교수가 서울에 안착하기 까지에는 곤혹이



정동교회 스케치

따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데올로기의 상흔(傷痕)을 가지고, 학맥과 지맥의 이유에서 당시 남한의 건축계의 벽은 그의 일생 중 가장 어려운 시기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의 정교수가 월남하여 안착하는 데에는 와세다 대학의 선배인 김윤기 장관의 도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들을 극복하며, 서울의 건축사회에서 자리를 분명히 한다. 그가 홍익대학 교수에 임하는 것이 1954년이고, 같은 해 신건축문화연구소를 설립하며, 대한미술협회 위원이 되는 것은 1955년인데, 모두 서울에 정착한지 4년만의 일이다.

공백의 상황/1950년대의 한국 건축

이즈음 그가 한국의 건축적 상황에 시선을 들게 되며 목도하는 건축가의 양태, 건축 활동, 건축에 대한 인식은 무위, 빈곤, 척박의 것이었다.

당처한 해방 후 한국의 상황은 일제를 거치는 동안 세계건축으로부터 소외된 환경에 있게 되고, 이를 책임질 당사자는 "그러한 중에서도 한국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잠잠한 가운데 작품 활동을 꾸준히 계속한 작가와 현실적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인식처인 사립학교 재단에서 온전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와 관청에서 건축 행정 면의 경력을 쌓아 올리는 건축 실무자들의 3개 그룹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는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건축가라는 직분이 사회적으로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있는 것은 다만 자유직업으로서의 건축가가 산재하고 있었을 뿐이다."

건축 활동으로서도 해방 후 48년 정부 수립까지는 거의 모든 건축 활동이 동결되고, 그나마 군정(軍政)의 상

황에서 "의욕은 있으나 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신음하던 시기이다."

그 후 10년간이나 정치적 혼란과 한국 동란의 공백을 겪고, 1955년부터 1961년까지 뒤늦게 개화된 국제주의 양식의 무비판한 도입을 보게 된다. 많은 식자들의 탄식과 같이 정인국 교수가 함께 지켜보게 되는 시대성은 "이 시기에 안이하게 기능주의적 합리주의를 기본으로 처리하여 아무 모순이나 안타까움을 오늘과 같이 혼란한 상태에 놓이게 한 책임이 성숙기의 몇 명의 지도적 작가들이 많은 것을 망각한 채 자기 도취에 빠진 탓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책임 있는 입장에서 한국 건축계를 이끌어가야 할 중견 건축가들이 무위도식한 때문이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건축의 예술적 가치를 대중화하고, 사회적으로 설득하는 그 시대 건축가들의 고투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건축사회의 구축을 위한 역할에서 이천승, 김희춘, 엄덕물, 강명구, 김정수 등 여러 건축가들과 함께 정인국은 건축의 지표를 분명히 하여 주었다. 식민지 교육의 흔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어떻게 숙정되어야 하는가, 그의 교육철학은 오늘에도 시사받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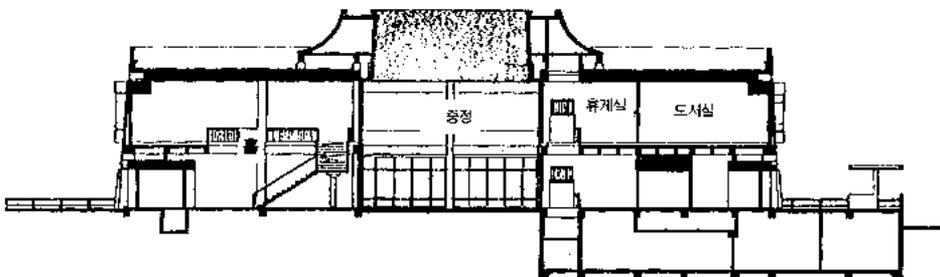
다음의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1954년은 정인국의 기록에서 매우 중요한 연대가 된다. 이제 정인국의 역할을 3가지 범주에서 선명하여지는데, 건축가협회를 통한 건축 문화의 사회화 활동, 신건축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 작업 그리고 홍익대학 건축과의 교수직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정인국선생의 결혼식때의 모습



영남대학교 박물관 정면도



영남대학교 박물관 단면도

1. 여행에 참여하면서

최근 몇 년동안 매년 여름철을 기해 휴가겸해서 해외의 건축기행을 계속하여 해온 바 있는 필자는 지난 여름에는 7월23일부터 8월6일까지 보름간의 일정으로 중국의 고건축과 조경건축물을 돌아보고 왔다.

그간 주로 근대와 현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한 건축기행으로 시대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건축의 양식이나 흐름을 보고 느끼면서 세계건축사조를 배우며 미래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번의 건축기행은 짧은 일정이지만 아시아 문화권의 종주국이라 할수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과 시각을 조정이나 조원, 그리고 고건축물들을 통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폭넓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되었다.

필자는 뒤늦게 시작한 10여년전의 대학원시절 한학기의 강의시간을 통해서 중국의 고대건축사를 배울 기회가 있었다.

순한문으로 쓰여진 고대 건축역사서의 복사판으로 된 교과서를 보면서 주입식 강의를 듣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만든 조경건축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조형물들로 자연을 재구성하면서 실용적이고도 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실례가 많다는 것과 세계적인 문화 유물로서도 가치있는 고건축물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필자는 조경이나 고건축분야의 설계를 다루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오랜 전통을 갖고있는 역사와 문화의 나라 중국, 즉의 장막으로 반세기 이상 가려졌던 공산국가로서 우리에게 관광의 문호가 뒤늦게 개방된 미지의 대륙을 여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호기심이 어느 여행때보다도 컸다.

사실 서울시립대의 안영배 교수로부터 여행에 동참하기로 권유받고 쾌히 승낙한 것은 시대적 상황에서 어쩔수 없었다고는 하나 가르치는 교수나 수강하는 학생이나 충분한 자료도 없이 그 혼한 칼라사진들이

중국 건축기행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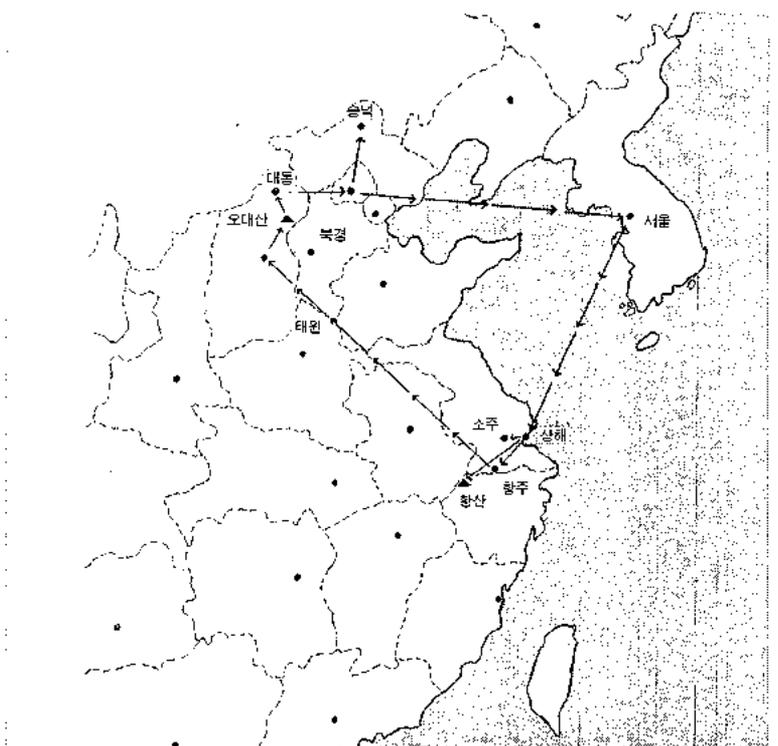
The Travel of Chinese Architecture

고건축과 조경건축을 중심으로

박재환 / 건축사사무소 드성건축

by Park Chae-Hwan

- 1) 여행에 참여하면서
- 2) 청 황제의 휴양지 : 피서산장
- 3) 대동시와 주변의 문화재 : 운강석굴, 구룡벽, 응현목탑
- 4) 불교성지오대산 : 현공사, 남산사, 불광사
- 5) 조경건축과 정원 : 류원, 출정원, 서호
- 6) 그밖의 유물과 문화재 : 황산, 진사, 육화탑, 쌍탑사
- 7) 여행후기



여행일정지도

나 슬라이드 한편도 구경 하지 못하면서 배웠던 역사적인 유물이나 유적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땅 크기는 동서가 5000km, 남북이 5500km로 나라면적이 960만km² 나 되어 유럽 전체 크기와 비슷하며 우리 남한의 96배 되는 대국이기에 보름간의 짧은 기행일정으로는 코끼리에 비스켓으로 비유될 정도로 중국의 극히 일부분 만을 여행한 셈이라 하겠다.

여행일정이나 대상물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여행자유화로 이미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나 단체로서 유명 관광지나 건물들을 둘러 보았으리라 생각되지만 지리적인 교통분제나 특수한 목적을 갖지 않으면 답사하기 어려웠던 승덕의 피서산장이나 오태산의 현공사를 비롯한 많은 볼거리와 특히 인상에 남은 조경건축물이나 그밖의 문화유물에 대한 체험을 정리해본다.

이번 건축기행의 참가자와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건축기행 참가자

윤장섭(서울대 명예교수 부부), 안영배, 홍대영(서울시립대 교수), 이호진(건국대 교수), 송광섭(환건축대표), 목대상(상화건축대표), 이종철(여주공전 교수), 이영(경원대 교수), 본인 등 10명과 국내 여행사의 가이드인 미스 배까지 11명이다.

2. 청 황제의 휴양지 : 피서산장

하북성에서도 내몽고자치구쪽으로 치우쳐 북경에서 북쪽으로 약 256km나 떨어진 연산산맥에 풍경이 수려한 역사와 문화의 도시 승덕이 있다.

이곳에는 중국 4대 병원의 하나이며 중국 십대풍경의 하나로 유명한 피서산장이 있는데 무열사 서안에 위치한 이 산장은 북경의 신화원의 2배나 되는 크기로 총면적은 무려 564만m²나 되며 소박하면서도 품위있는 수많은 별궁과 커다란 호수들이 조경물과 원림들에 둘러쌓

· 중국 건축기행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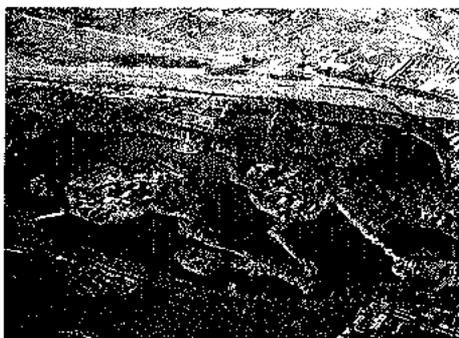
일 자	지 역	기 행 일 정
제 1일(7월 23일)	서울-상해	임시정부청사, 애원
제 2일(7월 24일)	상해-황산	옹화사, 시안영웅공원, 상해시
제 3일(7월 25일)	황산	황산등정(백야경, 시산봉, 배운정, 비래석...)
제 4일(7월 26일)	황산-상해-소주	이동시간
제 5일(7월 27일)	소주-상해	졸정원, 사지원, 청량정, 류원, 한산사
제 6일(7월 28일)	상해-항주-태원	영은사, 육취탑, 서호
제 7일(7월 29일)	태원	진사, 쌍탄사, 승전사, 박물관
제 8일(7월 30일)	태원-오대산	남선사, 불광사, 현통사, 탑일사, 보화사, 남산사...
제 9일(7월 31일)	오대산-대동	금각사, 현공사, 응현불공사
제 10일(8월 1일)	대동-북경	운강석굴, 상·하 화엄사, 선화사, 구동벽
제 11일(8월 2일)	북경	천안문광장, 자금성, 북해공원
제 12일(8월 3일)	북경-승덕	피서산장
제 13일(8월 4일)	승덕-북경	외팔묘(보령사, 보터동승지묘, 보락사...)
제 14일(8월 5일)	북경	천단, 이화원, 옹화궁
제 15일(8월 6일)	북경-서울	도착

여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청대 황제들의 피서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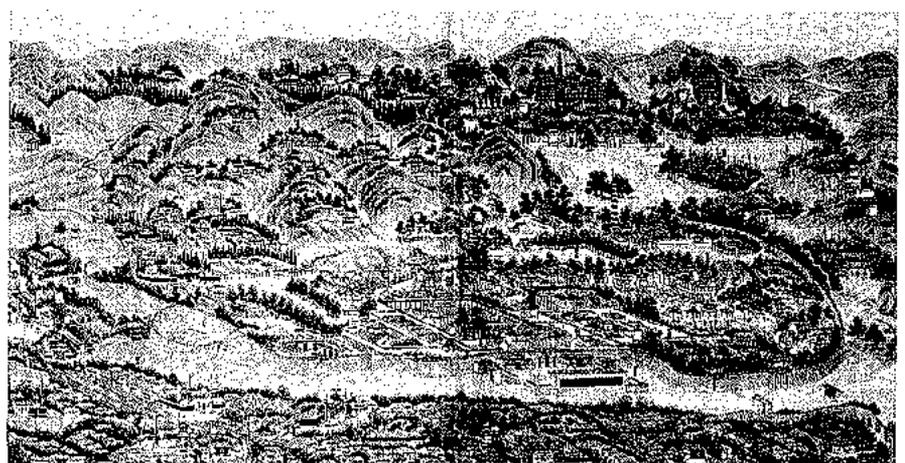
청의 2대 황제인 강희제때인 1703년에 건조되기 시작하여 3대 건륭황제때인 1792년에 완공되어 89년이란 기간이 소요된 셈이나 그 규모와 조경물의 내용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있다.

강희제 이후 역대 청나라 황제들이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1년 중 반은 이곳에서 피서를 지내면서 정무를 집행하고 행락이나 오락을 즐기며 외국의 사신들이나 소수민족의 대표를 접견하면서 성대한 향연을 개최하였다 한다.

길이가 10km나 되는 회색벽들의 성벽으로 둘러쌓인 110여개나 되는 건물군과 수많은 특색있는 궁정원림이 어우러져 있는 이 피서 산장은 중국 각지의 명승지나 특징있는 건물들과 조경물의 모습을 한군데로 모아 재현시킨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왕조정치와 경제의 위력으로 이룩된 제왕사상의 과시라고도 하겠는데 결코 화려하거나 웅장하지도, 현란한 색채나 사치스러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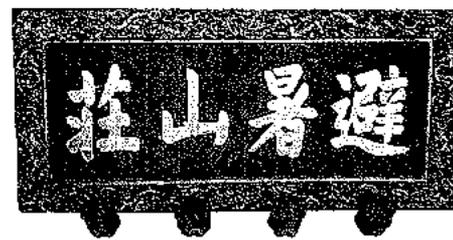
피서산장 수원구 조감도



피서산장 전경



궁전구 전경



정궁구의 내오문에 걸려있는 강희제의 친필 편액

느낄 수 없으면서 인공의 미와 자연의 미를 조화시킴으로서 독특한 풍격을 갖춘 궁정의 원림건축의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다.

피서산장은 4개의 구역:궁전구, 수원구, 평원구, 산악구로 이루어져 있다.

1)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궁전구

궁전구는 피서산장내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기능에 따라 정궁, 송학계, 만경송풍, 동궁 등으로 구분되는데 청의 황제들이 이곳에서 정무를 집행하고 축전을 행하며 주거의 공간으로 쓰인 장소로 피서산장의 남단에 도시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부터 관광의 코스가 시작된다.

제일먼저 산장전체의 정문이며 궁전구의 정문인 여정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문에 걸려있는 현판에는 중앙의 한자 여정문을 사이에 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몽고어, 위구르어, 티베트어, 만주어로 같은 내용이 쓰여졌음을 볼 수 있다. 모두 건륭황제의 친필로 이것은 청나라가 이 피서산장을 주변의 소수민족들을 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정궁으로 들어오는 2번째 문인 내오문에는 남색바탕에 금박으로 빛나는 "피서산장"이라고 쓰여진 편액이 걸려있는데 이는 강희제의 친필로 힘찬 필체를 느낄 수 있다.

정궁 지역에는 피서산장의 정전인 담백경성전을 비롯하여 동서략정, 사지서실 등 많은 건물들이 있다. 특히 담백경성전은 각종의 성대한 축전행사가 치루어진 곳으로 북경 자금성의 태화전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한다. 이 정전은 건물용으로는 최고의 목재라는 남목(늑나무)으로 건축되어 있는데 채색을 하지 않았지만 우아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다.

2) 인공으로 조성된 수원구

강희제와 건륭황제가 강남의 풍경을 수차례 돌아보고 아름다운 그곳의 경치에 매료되어 강남의 풍경을 본떠 만들었다는 수원구는 30헥타르가 넘는 큰 면적을 가진 호수지구이다.

드넓은 호수와 무성한 나무와 숲, 호수안의 크고 작은 섬들, 맑은 다리, 여러 갈래의 제방길(산책로) 등 대부분이 인공으로 만들었다고 하나 모든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정겨울 수가 없다.

그 넓은 지역을 기존의 자연환경같이 인공적으로 꾸민 중국인들의 지혜와 대담성에 새삼 놀라울 뿐이다.

"피서산장을 찾는 것은 곧 수원구를 보러 가는것"이라는 말로 비유될 정도로 4계절의 변화속에 전개되는 변화무쌍한 풍경은 계절마다 특색있는 정취를 만든다고 한다. 월색강성, 여의주, 원벽, 금산, 청연도 등 모두 나름대로 뜻이 있는 이름이 붙여진 호수안의 섬들도 모두 인공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섬위에 또는 호수가에 독립되거나 무리지어 배치된 많은 건물들도 주변 환경과 그렇게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수원구는 동부, 중부, 서부 등 3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수심사에서 금산을 거쳐 열하천에 이르는 동부의 산책로도 좋지만 서부에 위치한 항주의 선계를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지경운체는 영지버섯모양의 3개의 작은섬을 잇는 제방길로 제방길 양 옆 호수위에 떠 있는 이름모를 수초와 연꽃들, 곡선형의 돌다리, 제방길의 수목이 비치는 찰랑대는 수면은 선경을 노니는 기분이라 하겠다.

3) 독자적인 민족색을 갖춘 평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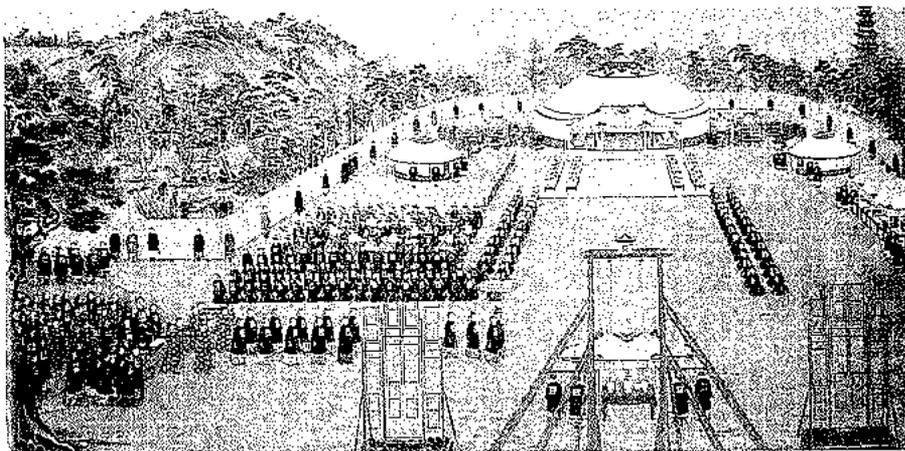
수장구의 북측과 서측으로 광활한 초원이 있는데 이곳에는 궁정구나 수원구와 비교될 만한 큰 규모의 건물은 없는 대신 피서산장이 소수민족과 청나라의 외교활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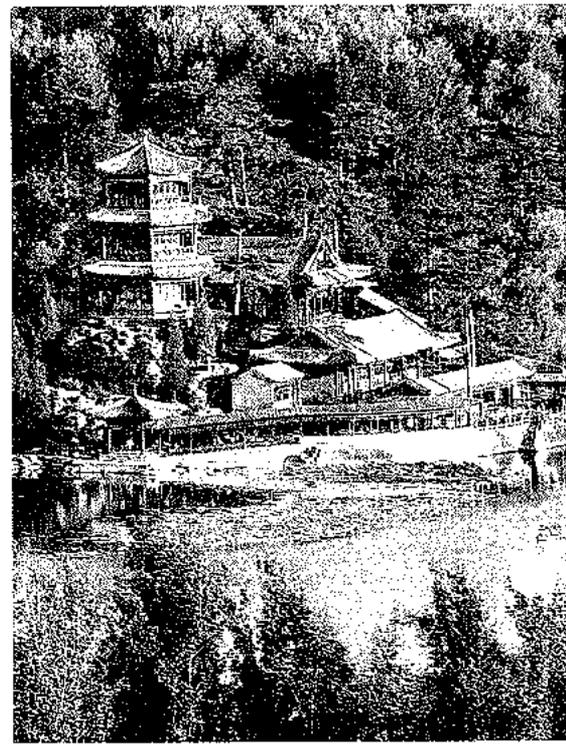
피서산장 평원구 내의 몽고 파오



산악구의 풍경



만수원의 옛 몽고 파오에서 행해진 의식



피서산장 수원구 내의 금산 모습

무대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특색있는 건물들이 적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

방수원과 영우사 등이 볼 만 한데 만그루나 되는 나무가 밀집하게 식재된 정원이란 만수원에는 푸른 초원속에 울창한 나무와 사슴들이 떼지어 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청대에는 직경이 24m나 되는 노란색장막으로 세워진 몽고 "파오"가 아름다운 궁전을 연상시키면서 이곳에서 갖가지 행사가 치루어졌다고 한다.

현재에도 많은 소규모의 "파오"가 숲속에 무리를 이루워 설치되어 있어 이국적인 풍경으로 몽고 파오의 호텔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평은 북측에 우뚝 들어나 있는 65m높이의 8각형의 9층탑인 영우사탑은 건륭황제가 1754년 모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항주의 육화탑을 모방해서 지었다고 한다.

4) 산으로 둘러싸인 산악구

산장 멀리 북서에 병풍처럼 둘러싼 산악구는 산중턱부터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개곡과 봉우리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기복이 심한 지형을 교묘하게 살려서 곳곳에 사면운산정을 비롯하여 고구정, 산근간, 수기당 등 수많은 정자들이 있다.

강희제와 건륭제는 피서산장에서 특히 풍경이 아름다운 곳을 택해 시를 읊고 이 풍경들을 "산장72경"이라 했는데 그 절반 정도가 이 산악구에 있었다니 풍수의 수려함을 알 수 있다.

2-1 다민족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외팔묘

피서산장의 외곽을 둘러싼 동측과 북측의 산에는 일군의 사원과 묘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강희 52년(1713

년)부터 건륭45년(1780년)에 걸쳐 12사묘가 산장의 바깥쪽 8군데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이를 외팔묘라 한다.

이들 외팔묘는 산을 등지고 강을 앞으로 하여 산중턱의 경사지나 구릉지에 또는 고지에 지형을 이용하여 군데군데 떨어져 건축되었는데 사원과 묘들이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뿐 아니라 피서산장 전체와도 통일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오랜 세월타오로 현존하는 것은 보령사를 비롯하여 7개소만 남아있는데 강희시대에 한민족의 전통적 불교사원의 형식으로 건축된 부인사, 부선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건륭시대에 건축되었다.

이를 사원과 묘들의 건축적 구상, 평면형식, 기둥이나 보 등의 구조 방식, 내부장식, 정원의 구성 등 대부분이 "라마교"의 특징과 양식을 배경으로 하여 한민족의 건축적 수법을 교묘히 융합시켜서 각기 특징있는 형태와 특색은 가짐으로서 한민족과 몽고나 티베트 등 소수민족의 종교와 예술이 한데 어우러져 역사적으로 통일된 다민족문화유산물을 이룩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기행일정상 모두 답사할 수는 없었지만 현존하는 대표적 사묘를 소개한다.

1) 보령사

이절은 티베트의 삼마야묘의 양식을 모방해서 건륭20년(1755년)에 축조되었다.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하여 앞부분은 한민족양식의 묘인 "가람칠당"을 중심축으로 산문, 비, 정, 종루, 고루, 천왕전, 동서양측의 배전이 있고 뒷부분은 높이 차이가 있는 지형을 이용하여 암석으로 쌓은 9m높이의 테라스를 경계로 하며 만다라의 배치에 의한 27개의 구조물이 축조되어 있고 최상부에 보령사의 주전인 6층의 누각 지붕을 가진 36.75m높이의 대병각이 있다. 대병각의 외각 4모서리에는 적, 현, 후, 백 사색의 라마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불교의 4가지 지



보령사 전경



보령사 대승각 앞에 세워진 티베트식 건물과 정원



보령사 대승각의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해」를 뜻하고 있다. 대병각의 내부에는 높이가 22.28m 무게가 110ton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목동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40개의 손과 40개의 눈에 25개의 불상이 조각되어 있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불상은 살내를 꼭차게 메우고 있는 거대한 크기도 크기지만 불상전신이 금과 백금으로 도포되어 2백여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은은한 광채를 발하고 있으며 정교한 조각에서 뿐 아니라 조형의 아름다움에서도 조형예술의 주옥이라 하겠다.

2) 보타중승지묘

한민족과 티베트족의 불교문화가 조화를 이루워 건축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이 묘는 건륭 32년(1767년)티베트 라사의 포타라궁을 모방해서 건축되었으며 달라이 라마의 행궁으로도 사용되었다 한다.

22만㎡에 이르는 큰 부지에 60여개의 범우, 탑, 불전들이 자연의 지세를 이용하여 한단계씩 높이를 달리하여 배치되면서 정상에는 폭이 155m 깊이가 100m 높이가 42m나 되는 대홍대를 축조하였다.

그 위로 주전인 「만법귀일」전을 비롯하여 3층높이의 팔각 지붕을 씌운 「권형삼계」 육각지붕의 「자향보도」 등이 배치돼 있는데 지붕에는 황금색의 기와가 얹혀 있다.

2백여년이 지난 지금도 붉은색의 벽, 흰색의 축대, 황색의 빛나는 지붕 등은 푸른 초원속에서 유난히 화려하면서 웅대한 장관을 들어내고 있다.

3) 보락사

보락사의 주전인 「옥광각」은 지붕이 원추형이어서 「원정자」라고도 불리운다. 건륭31년(1767년)에 건축된 이 절의 특징은 한변의 길이가 80m되는 정방형의 프레트한 1층의 테라스위에 또 한층의 테라스가 석조로 구성되었고 그위에 주전이 배치되어 있는 3단의 자성에

있다.

1층에는 72개의 실들이 있고 2층에는 다섯색깔의 라마탑 8기가 옥외 통로에서 있으며 3층에 원형의 평면과 2층의 지붕구조로 상부가 원추형의 특이한 지붕구조를 가진 주전부분인 「옥광각」이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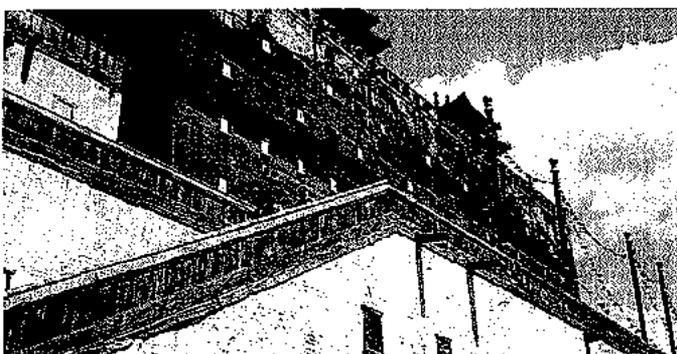
원추형의 지붕은 황금빛의 기와로 덮여져 있고 각의 내부천정에는 중앙에 정교하게 조각된 용과 봉황을 둘러싸고 중국 최대의 목제 만다라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2-2 열 하

북경에서 승덕으로 이동하는 버스안에서 일행인 윤장섭교수가 뜻밖의 말씀을 해주었다. 교수는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 승덕이라는 도시가 열하라고도 불리운다고 하면서 조선시대(정조)의 신학자 연암 박지원이 이곳까지 왔다가 쓴 기행문이 「열하일기」라는 것과 교수의 몇 대 선조도 관리로서 동행했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왜 열하라는 이름이 이곳을 지칭하는 지는 교수도 동행 가 이터도 알지 못하였다.

다음날 피서산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도중 수원구에 위치한 금산의 북측에서 조그마한 연못 앞에 열하라고 쓴 푼말을 우연히 발견하였는데 소개책자에 의하면 추운 겨울철 호수가 얼고 눈이오는 엄동설한에도 이 연못만은 물이 얼지 않고 일년내내 맑은샘이 솟는 곳이라 하여 열하라 이름지어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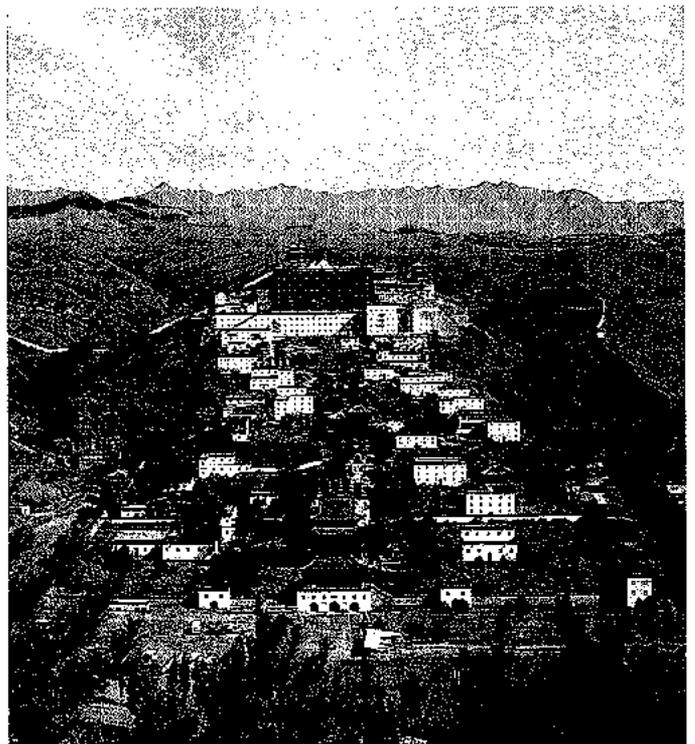
여행후 알게된 사실이지만 연암 박지원이 조선 정조 4년인 1780년 청나라 건륭황제의 칠순연을 축하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었다는 것과 약 2개월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많은 명사들과 친분도 가지면서 여러지방의 문물 제도를 목격하고 견문한 바를 각 분야별로 나누어 날차 순서로 기록한 것이 「열하일기」였다고 한다.



보타중승지묘 대홍대



보락사 원경



보타중승지묘의 원경

이미 2백여년전 북경에서도 6백여리가 넘는 멀고 험한 길을 따라 황제가 머물던 피서산장까지 다녀갔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음을 생각할때 어떻게 여행을 하였으며 이곳을 찾았던 감회는 어떠하였는지 새삼 궁금해지기도 한다.

3. 대동시와 주변의 문화재

1) 운강석굴

북경에서 서쪽으로 382km 떨어진 산서성의 북측에 위치한 대동시에서 다시 서쪽으로 16km 떨어진 무주산 야산기슭의 암벽에 벌집처럼 만들어 놓은 이 석굴은 오히려 토굴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정도로 온통 흙빛으로 빛나고 있어 멀리서 보기에는 길모습이 황량하기도 하지만 가까이 접근하여 바라보게 되면 그 엄청난 규모와 다양한 토굴모양에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낙양의 용문 석굴, 돈황의 막고굴과 함께 중국 3대 석굴의 하나로 꼽히는 이 운강석굴은 지금으로부터 1천5백여년전인 (북위 62년경)AD 460년 효문제의 명을 받아 서역으로 부터 건너온 승려 담요의 지휘아래 축조되기 시작하여 약 34년간의 공사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산을 따라 약 1km에 걸쳐 바위벽에 토굴된 감실형태의 크고 작은 수십개의 석굴 내부와 벽에는 초기에는 거의 10만점의 조각상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오랜 세월과 기후 때문에 그리고 후일에는 약탈자들에 의한 수난으로 현재는 약 5만여점이 보존되어 있다고 하니 숫자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조각품의 크기도 가장 작은 우표만한 것에서 부터 6층높이의 건물규모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와 형태가 실로 다양하기 그지없다.

동굴은 제1동굴(동탑동)을 시작하여 제21동굴(탑동)까지 다양한 크기의 굴이 있는데 몇몇 동굴(제1동굴에서 제4동굴)은 훼손이 심하여 복구중이어서 통상 5,6번

굴부터 관광이 시작된다.

이 동굴앞에는 한때 2천여명의 수도승이 살았다고 하는 4층규모의 큰 사원이 있는데 지금은 관리사무실과 기념품 상점으로만 쓰이고 있다.

복조로 된 건물을 통과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첫번째 굴은 두굴이 한조가 되어 있는 듯한 5,6번굴인데 이곳에 들어서서는 순간 그 엄청난 규모와 험란한 색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다.

5번굴에는 이 운강석굴에 존치된 좌상들중에서 최대 규모인 17m높이의 부처좌상이 금빛찬란한 모습으로 버티고 있고 이것을 둘러싼 둥근 벽면에는 크고 작은 불상들이 조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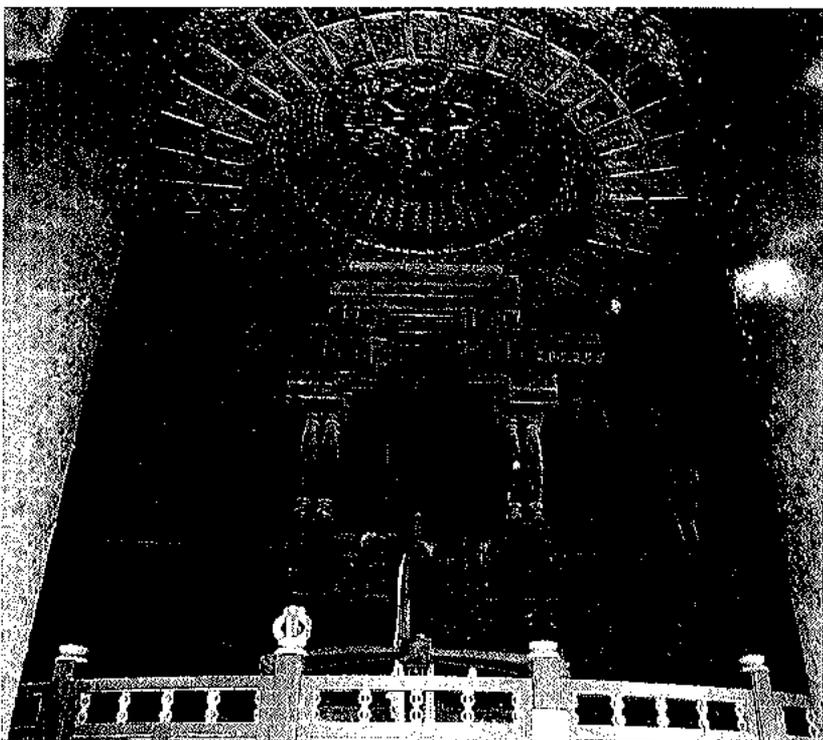
6번굴에는 내부 중앙에 15m높이의 장방형 탑기둥이 천정까지 닿아 있으며 주위벽에는 부처의 탄생과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일생을 묘사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다.

이 두 동굴의 장식은 운강석굴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규모도 규모이지만 섬세한 기교와 험란한 색채는 1천5백여년이 지난 세월속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7번굴 부터는 모든 석굴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굴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에 알뜰막한 난간이 가로막혀 있어 입구에 서서 내부를 보게끔 되었다. 거의 모든 석굴에는 벽면에 혹은 천정면까지 온통 크고 작은 부처와 보살상이 조각되어 있으나 내부공간 뿐 아니라 불상들도 많이 훼손되어 있다.

8번굴에는 인도양식의 조각들이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며 11번굴 상부에는 "북위 태화 7년 조상"이라고 쓰인 현판이 달려있고 어느 굴 보다도 많은 크고 작은 불상들이 조각되어 있다.

이 운강석굴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16번에서 20번까지의 다섯개굴인데 역사가 깊은 만큼 훼손도 심하고 벽화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보리사의 주전인 육광각의 내부 천정



수원구 내의 열하 연못



운강석굴 전경

번호가 붙어있는 석굴중 맨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0번 석굴은 석굴의 전면 입구가 없어 하나의 거대한 좌불상이 그대로 지상에 노출되어 그 모습이 더욱 극적으로 보인다.

운강석굴을 소개하는 책자마다 이 불상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규모와 예술적 가치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인 듯하다.

불교 부흥정책에 따라 황실과 국가에 의해 "황제는 곧 이 세상의 여래"다 라는 생각으로 현존했던 다섯 황제를 다섯 부처로 표현되었다는 이 석굴들(16-20번)을 들여다 보면서 아름다우면서 화려한 벽화를 그리고 정교하면서도 섬세한 수많은 불상을 조각한 선인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여래가 아니었나 생각되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온통 흙빛으로만 보이면서 벌집처럼 뚫린 토굴안의 수많은 불상과 벽화들이 원래의 모습은 많이 훼손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정교한 모습으로 화려함을 잃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이 운강석굴이야말로 불교 예술의 극치요 중국문화의 보고라 하겠다.

2) 대동의 구룡벽

대동은 풍부한 석탄자원을 갖고 있는 산업도시이지만 수많은 고건축물과 귀중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다.

또한 대동하면 "용벽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일용벽, 삼용벽, 오용벽, 구룡벽 등의 주조용벽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용벽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장벽으로서 대부분 황궁, 사묘, 왕부건물의 입구에 건립되었는데 중정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의 횡립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건물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 장엄한 분위기를 가져오는 효과를 만들기도 한다.

용은 봉황과 함께 공상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성한 동

물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몇몇 동물의 특징있는 각 부분을 취합한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겠는데 옛부터 이 용은 중화민족의 입국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문화, 오랜 문명을 지켜준 것으로 생각하며 나아가 중화민족은 항상 자신들을 "용을 닮은 자"라고 과시하여 왔다.

용은 상상에 의한 동물이지만 신비한 색채와 특이한 초능력을 가진것으로 생각하여 하늘을 대신한 통치자로서 역대 황제들의 권한과 능력과 비유되어 제왕들의 기물이나 용구, 또는 복식품에도 장식되어 왔다.

또한 용은 불교의 수호신으로 생각하여 사원산문의 장벽에 용을 도안화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대동시에 남아있는 용벽중 가장 장관인 것은 구룡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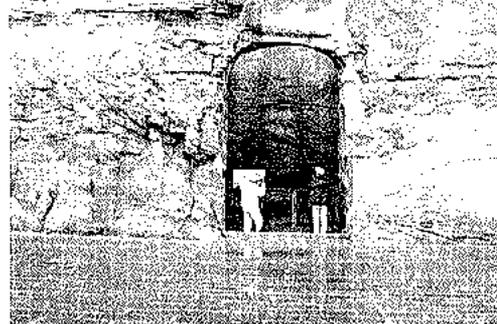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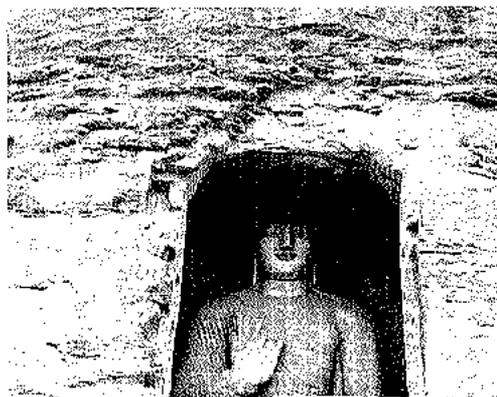
명대의 홍무년간(1368-1398년)에 창건된 이 용벽은 명조의 초대황제인 주원장의 13번째 아들인 대왕주주의 처택의 주조용벽으로서 6백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북경의 북해에 있는 구룡벽보다도 250여년이나 빠른것으로 중국에 남아있는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용벽이다.

길이가 45.5m, 높이가 8m, 벽두께가 2m나 되는 거대한 벽면에는 균형이 잘 잡힌 9마리의 거대한 용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각기 다른 용트림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데 볼수록 힘수록 비약과 강력한 의지를 느끼게 된다.

황, 현, 청, 자, 흑, 백의 채색주조타일로 용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모자이크한 벽면은 아침, 저녁으로 또는 맑은 날과 흐린 날씨에 따라 서로 다른 분위기를 나타내며 특히 미풍이라도 부는 날에는 용벽전면에 조성된 연못의 수면에 용벽이 투영되어 용들이 유유히 파도를 타면서 구름위로 비상하는 모습이 생동감있게 나타난다고 한다.



건축기행 참가자



운강석굴 18번굴 외부



운강석굴 20번굴 좌불 전경



운강석굴 5번굴 내부 불상

대동시에는 이 구룡벽 말고도 일용벽이 4개소 삼용벽이 1개소 5용벽이 2개소에 있는데 대부분이 명대에 건립된 것으로 조각의 정교함에 있어서나 색채의 화려함에 있어서도 빼어나고 한 도시에 이와같은 여러개의 용벽이 몰려있지 않기에 대동을 "용벽의 도시"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3) 응현목탑

대동시의 남측으로 70km 떨어진 응현성내의 평지에 세워진 불공사 대전앞에 위치한 석가탑은 모두 목재로 만들어져 있어 속칭 응현목탑이라고 불리운다.

오대산을 떠나 대동시로 이동하는 여정에서 항산에 위치한 충공사를 둘러보고 응현의 목탑을 찾은 것은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한 오후 6시경이었다.

관리들이 외부 출입문을 닫고 막 퇴근하려는 참이었으나 사정사정하여 간신히 허락을 얻어 경내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대전인 불공사는 수리중이어서 접근할 수도 없었고 목탑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도 굳게 잠겨 있어서 목탑의 내부공간을 볼 수가 없었다.

요대의 청령 2년(1056년)에 건립된 이탑은 9백여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중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탑 일뿐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最古), 최고(最高)의 목조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탑의 아래 부분인 전으로 쌓은 기단은 2단으로 나누어 있는데 아래층은 정방형으로 윗층은 8각형으로 되어 있다.

목탑의 평면은 8각형으로 1층의 직경은 30m나 되며 내부에서는 암층은 포함해서 9층이고 외부에서는 지붕 처마가 6층으로 보이나 1층의 상부지붕처마는 서양간 불임이어서 실제로는 5층식탑으로 67m의 높이를 갖고 있으며 지붕은 전부 누각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층마다 뒷마루와 암층의 2층구조로 된 이 탑은 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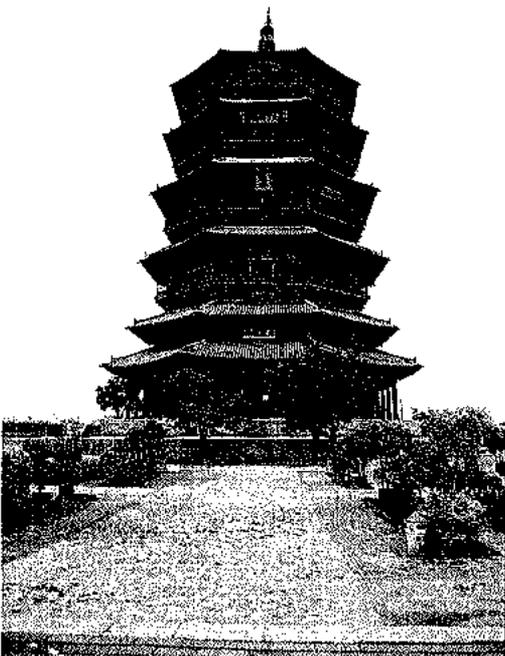
하게 외부기둥의 위치가 윗층으로 올라갈수록 하층보다 기둥지름이 반정도씩 겹치게 내부로 치우쳐 배치하여 건물의 외부가 상부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 각층이 안측으로 채감해가는 윤곽을 만들고 있다.

매층마다 탑중앙의 안쪽은 불상 안치를 위한 장소로 되었고 외측에는 사람들이 조망할 수 있는 회랑이 둘러져 있는 이 목탑은 문헌에 의하면 이 탑에 사용되고 있는 순포형식은 매우 복잡하며 약 60종류 이상을 헤아린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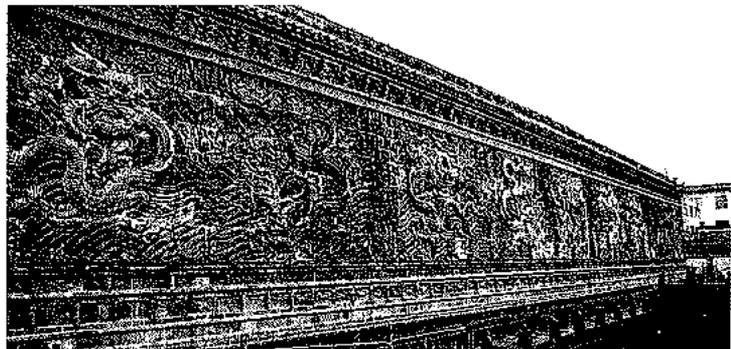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붕처마와 회랑하부를 받치고 있는 공포는 다양한 형식도 형식이지만 하나하나가 정교하면서도 힘차게 느껴졌고 오랜 풍상을 겪은 목재의 재질감은 단청을 칠하여 현란한 모습을 한 것 보다 꾸밈이 없어 한결 소박하게 보였다.

순 목조건축으로 1개의 못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하면서도 정교한 포작으로 축조된 구조형식이 이 탑의 공사 기술상의 커다란 성과이면서 또한 안전성 효과를 가져왔는데 원, 명조때 몇차례의 지진이 이 지방에서 일어났음에도 무너지지도 않고 아무 피해도 없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한다.

탑 전체의 인상은 규모도 규모이지만 비례와 안정감에서도 균형이 잘 잡혀져 있고 중후하면서도 위풍당당한 모습이다. 탑 최상부에 올라가서 주위를 둘러보면 광활한 평원이 구름에 싸인 멀리 있는 높고 낮은 연이은 산봉우리와 함께 발아래 펼쳐져 장관을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하나 늦은 시간 관계로 못들어가 본 내부가 두고 두고 미련을 갖게 한다. 지금으로부터 9백여년전 뛰어난 축조기술로 세워진 목조탑이 위대하고 장엄하기까지 한 형태로 전과 다름없이 훌륭하게 서 있는 것을 볼 때 이 응현목탑이야말로 고대 중국 건축물중 걸출한 작품이며 빛나는 건축유산의 하나라고 하겠다.



응현목탑



대동시에 있는 구룡벽



불공사 경내에 위치한 오룡벽

서원기능의 두 핵-사당과 강당

건축에는 늘 중심적인 건물이 있어 건축의 전반적인 틀을 잡게 한다. 가령 궁궐 건축의 정전, 상류주택의 안채와 사랑채, 사찰의 탑과 금당 등은 각기 고유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나름대로의 건축적 특성을 펼쳐 나간다. 향교의 대성전과 명륜당이 그러하듯이 서원의 사당과 강당은 서원건축의 시작이요 핵으로 등장한다. 이는 서원의 설립이 선현을 봉사하고 아울러 유학강론에 그 주목적이 있었기에 이 양대기능의 충족을 위한 제반 교육시설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즉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사당과 현세적인 강당은 시설의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 모든 서원에서 건립되었다. 두 건물을 포함하여 기타 서원의 건물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5)

A Study on the Confucian Architecture in Korea
서원건축(2)

김지민 / 목포대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by Kim Chi-Min

1. 머리에
2. 향교건축
3. 서원건축
4. 재실건축
5. 가묘건축
6. 정려건축
7. 맺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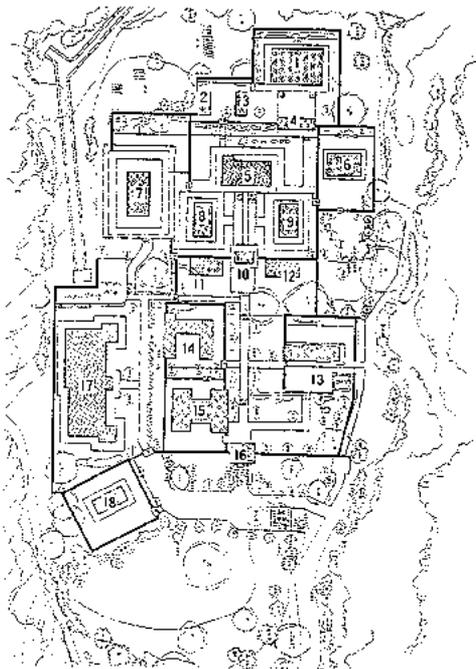
• 祠堂 :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춘추로 제향의식을 행하는 건물이다. 서원에 따라 영정도 함께 봉안하기도 한다. 이는 원생들이 흠모하는 선현들의 모습을 직접 가까운 곳에서 배알할 수 있어 존현숭배의 마음이 더욱 고취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배우는 자의 근본으로서 유학의 기본강령이 아

니었겠는가.

배향인은 보통 1인을 주향으로하여 시작하나 다시 존승하는 인물이 생기면 추가로 배향한다. 예를 들면 紹修書院은 安珦외에 安軸과 安輔가 더 추가로 배향되었고, 道東書院은 金宏弼을 주향으로 시작하였으나 110년후에 그의 외증손 鄭述을 새로 배향하였다. 筆岩書院 역시 金麟厚 선생을 주향으로 하고 후에 그의 제자이며 사위인 梁子徵을 추가



만대루에서 바라본 병산서원 강당. 건축가라면 누구나 손쉽게 잡을수 있는 장면이다. 사대부 가의 안마당 같은 스케일 이면서 한편으로는 성리학의 준엄한 가르침이 있는 것 같다. 강당 뒷편의 먼 屏山이 투각 안까지 들어오는 듯하다.



- 범례
1. 선덕사
 2. 서계기고
 3. 동계기고
 4. 내삼문
 5. 전교당
 6. 장판고
 7. 상교직사
 8. 사재
 9. 봉제
 10. 정문
 11. 서 광명실
 12. 동 광명실
 13. 도산서당
 14. 하교직사
 15. 농운정사
 16. 진도문
 17. 전서관
 18. 영락서재

도산서원 배치도
(자료: 문화재 관리국)

로 배향하였다. 전반적인 배향인의 수는 서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1~5인 정도로 나타났다. 위패는 보통 15×20×50cm 크기의 상자에 넣어 벽측에 배열되고 그 앞에는 祭需陣設을 위한 보통 110×80×75cm 크기의 탁자가 놓여진다.

사당의 명칭은 서원 특유의 고유명사에 「~祠」, 「書院」, 「~廟」 등의 어미를 붙여 호칭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 「~祠」로 불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陶山書院은 尙德祠, 筆岩書院은 祐東祠, 屏山書院은 尊德祠, 武城書院은 武城書院, 玉山書院은 體仁廟로.

사당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대부분이 아담한 정면 3칸 규모로 1~5인의 위패를 모시고 의식을 치르기에 적당한 공간적 규모로 지어졌다. 선현의 학문적 깊이와 당시의 유행풍토로 비해 지극히 유교적인 겸소한 공간이다.

• 講堂: 서원내 강학공간의 중심건물이다. 학생이 글을 배우는 곳이며 아울러 선생의 거처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서원내에서 제일 규모가 커 보통 정면 5칸 정도로 계획된다. 이 경우 중앙으로는 대청을 3칸 규모로 넓게 꾸미고 그 양 옆으로는 온돌방을 2개 드린다. 평면적으로는 지극히 단순한 구조이나 기능적으로는 여름과 겨울을 모두 수용하고 아울러 공적인 건물로서 품위도 갖게 한다. 이러한 구조는 향교의 명륜당과 함께 강당건축의 규범으로 등장한다.

이 건물 또한 사당과 같이 고유명칭이 붙는다. 즉 건물 중앙의 처마밑에 「~堂」, 「~書院」이란 명칭으로 현판이 걸려있는데 가령 道東書院은 中正堂, 玉山書院은 求仁堂, 屏山書院은 立教堂, 濼溪書院은 明成堂, 筆岩書院은 淸節堂, 深谷書院은 日昭堂, 德峰書院은 正義堂 등이다. 당시 모두 인간된 도리와 학문적 성취를 추구하는 상징적 당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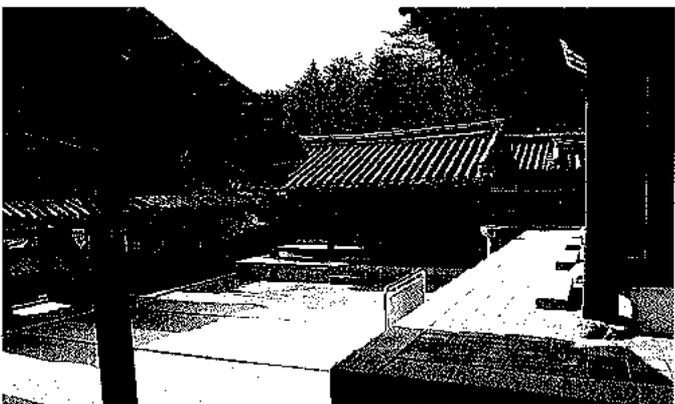
• 齋: 원생들이 기숙하는 곳으로 보통 강당 전면에 대칭으로 자리하고 있어 강당과 함께 교육공간의 핵심을 이룬다. 강당의 좌향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강당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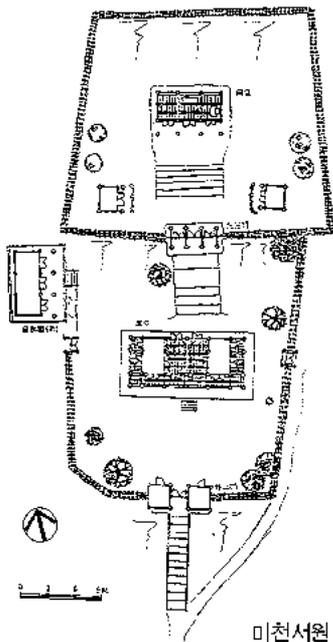


2



3

1. 후면에서 바라본 남계서원 전경. 소수서원 다음으로 현존하고 있는 서원 중 가장 오래된 서원이다(1552년 창건). 정여창 선생을 배향하고 있다. 그는 김광필, 조광조, 이언적, 이황과 함께 문묘에 배향될 정도로 한국 성리 학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2. 병산서원의 사당인 존덕사. 1613년에 창건된 병산서원은 유성룡 선생을 주향으로 모신 풍산유씨 가문의 유교성전이다. 건물은 전퇴를 두지 않은 정면 3칸의 단순한 맞배지붕이다. 그 앞에서 정교대 2개가 놓여있어 제향시 어두운 새벽 뜰을 밝힌다.
3. 도산서원 강학구역. 1574년에 창건된 도산서원은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퇴계 이황 선생을 모신 서원이다. 규모나 유행사적인 측면에서 한국 최고의 서원이라 할 수 있다.



미천서원은 1차 거유인 미수 허목(1592~1682)의 도학정산을 기르기 위해 숙종16년(1690)에 전남 나주에 건립된 서원이다. 이 서원은 나주지역에서는 물론이고 당시 호남지역 남인세력의 상징적인 구심점이었던 서원이다. 아쉽게도 이 서원은 고종5년(1868)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해철되었다가 1893년에 복원(사당)되었고 강당은 한말 후인 1930년에 중건을 보게 되었다. 현재 전국에는 이 서원과 같이 20㎡에 불과 사당과 강당 등만으로 세롭게 복원된 서원들이 수백에 이르고 있다.

미천서원 배치도

향하여 오른쪽의 재를 동재라 하고 왼쪽의 건물을 서재로 부른다. 동재에 기거하는 원생이 서재의 원생보다 선임이 된다. 그러나 동재라고 하여 서재보다 규모가 크거나 특별한 장식이 부가되는 것은 아니다.

서원의 원생 정원은 초기에는 10인 정도로 한정하였으나 후기로 올수록 그 수가 늘어나 문란의 정도가 꽤 심각한 정도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한때 賜額書院 20인, 未賜額서원 15인으로 법제화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았다.

동서 양재 역시 각 서원마다 고유의 명칭을 붙인 현판을 건다. 강당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지표로 삼기 위함이다. 그 예로 道東書院의 경우 居仁齋(東), 居義齋(西), 陶山書院은 傳約齋(東), 弘毅齋(西), 筆岩書院은 進德齋(東), 崇義齋(西), 玉山書院은 敏求齋(東), 闇修齋(西).

동서재는 강당에 비해 그 건축적 규모가 상당히 작다. 보통 정면 3~4칸 규모로 방 2~3개, 혹은 작은 대청 등으로 꾸며진다. 즉 살림집의 성격이 강하다.

• 藏板閣 : 書籍의 간행, 수집, 보관 및 관리 등을 위해 지어진 건물이다. 한국 최초의 서원인 紹修書院의 경우를 보면 서원을 세우면서 땅에서 캐낸 銅 300餘斤으로 서적을 구입하여 비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많은 서원에서 冊을 간행하였다고 하는데 徐有榘「鏤板考」라는 책에 의하면 正祖 20년까지 책을 간행한 서원이 78개소에 달하며 종류도 167종에 이른 것으로 나와있다. 책의 보급과 열람이 힘들던 시대에 있어 藏書의 기능을 담당했던 중요한 건물이다.

명칭은 藏板庫, 書庫, 經藏閣 등으로 불려진다. 현재도 여러 서원(陶山, 筆岩, 玉山, 懸岩 등)에서는 많은 목관을 이곳에 보관하고 있다.

• 典祀廳 : 제향사에 필요한 제수를 마련하고 器物을 보관하는 건물이다. 제향공간 가까이에 위치한다. 제기고로도 불리운다. 제사는 유교적 덕목을 키우는 첫번째 의식으로서 엄격한 서원제례는 유교생활의 규범이 된다. 전사정을 마련할 형편이 못되는 규모가 작은 서원에서는 교직사에서 이 기능을 대신한다.



4

4. 남계서원의 홍살문. 신성한 구역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문이다. 뒤에 서원의 정문인 풍수루가 보인다.
5. 소수서원 입구의 송림과 당간지주. 당간지주는 사찰의 깃발을 세울 때 세우는 일종의 버팀기둥이다. 소수서원자리는 본래 숙영사란 큰 사찰터였다. 종종 36년(1543)에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은 유·불 교체의 상징적 장소로도 의미를 갖는다.
6. 전라도 광주에 있는 월봉서원 전경. 이 서원은 본래 퇴계의 수제자인 고흥기대승(1527~1572)을 주벽으로 선조 11년(1578)에 세운 서원이다. 그러나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가 최근인 1980년에 현위치로 옮겨 복원이 되었다. 어렇듯 훼손되었던 전국의 수 많은 서원들은 건축적 중건을 통해 잃어 버렸던 우리의 유교문화를 복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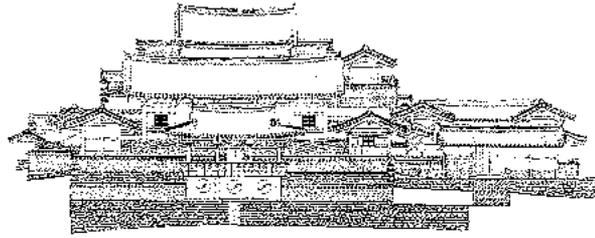
5



6

표1. 주요서원의 건물구성

서원명	건립년도	소재지	건물구성
紹修	1543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사당, 강당, 제실 3동, 장판각, 전사청, 영정각, 경영정, 교직사
濼溪	1552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사당, 강당, 동재, 서재, 장판각, 전사청, 루각(정문), 내삼문, 교직사
西岳	1561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사당, 강당, 동재, 서재, 전사청, 루각, 내삼문, 외삼문, 교직사
龜巖	1570	경상북도 선산군 선산면	사당, 강당, 동재, 서재, 루각, 교직사
玉山	1572	경상북도 칠성군 안강읍	사당, 강당, 동재, 서재, 전사청, 장판각, 경각, 비각, 내삼문, 외삼문, 교직사
陶山	1574	경상북도 안동시 토계동	사당, 강당, 동재, 서재, 장판각, 내삼문, 동제고, 서제고, 동·서광명실, 도산서당, 읍윤정사, 교직사 2동
道東	1568 1605(移建)	경상북도 달성군 구지면	사당, 강당, 동재, 서재, 장판각, 제고, 전사청, 내삼문, 루각(정문), 교직사
屏山	1614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사당, 강당, 동재, 서재, 장판각, 전사청, 내삼문, 루각, 외삼문, 교직사
武城	1615	전라북도 정읍시 철보면	사당, 강당, 동재, 전사청, 내삼문, 루각(정문), 교직사, 비각 4동
遜岩	1634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사당, 강당, 장판각, 정회당, 양생당, 응도당, 외삼문, 교직사
深谷	1650	경기도 용인군 수지구	사당, 강당, 장판각, 내삼문, 외삼문, 교직사
筆岩	1590 1672(移建)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사당, 강당, 동재, 서재, 장판각, 장서각, 정사청, 경장각, 내삼문, 루각(정문), 교직사
龜岡	1672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당, 강당, 동재, 서재, 외삼문, 교직사
德峰	1695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사당, 강당, 동재, 서재, 외삼문, 내삼문, 비각
龍淵	1691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사당, 강당, 외삼문, 내삼문
興岩	1702	경상북도 상주시 연원동	사당, 강당, 동재, 서재, 외삼문, 내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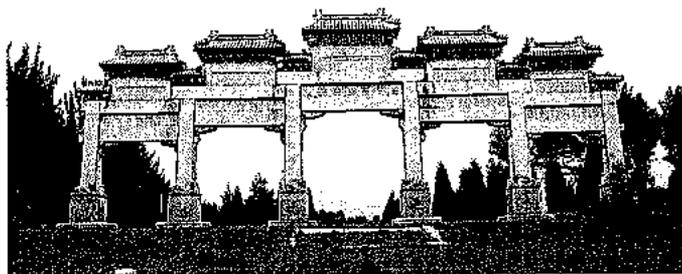
도동서원 전체 정면도
(자료: 새한건축사사무소)

것은 아니나 현존하는 대 유학자 서원에서 대부분 루각을 갖추고 있다. 루각은 곳에 따라서는 서원의 정문을 겸하는 곳도 있다.(武城, 筆岩, 道東, 濼溪書院 등). 명칭 역시 서원에 따라 고유 현판이 걸려 있다.(筆岩書院: 郭然樓, 武城書院: 絃歌樓, 玉山書院: 無邊樓, 道東書院: 水月樓, 屏山書院: 晚對樓 등).

이 건물은 강당, 동·서재가 이루는 절제된 강학공간의 성격을 바깥세계의 자연과 잘 융화시켜 주고 있다.

• 內·外三門: 문은 일차적으로 외부에 대해 내부의 영역을 예시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의해 내부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된다. 문의 기능은 개략 방어적 성격, 기념비적 성격, 통과 의례적인 성격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이는 동·서양 어디에서든 건축의 부차적인 요소로 중요시 되어 왔다. 가령 북경의 자금성에는 正殿 앞에 天安門, 端門, 午門, 太和門 등 여러개의 문이 중심축선에 있어 황제의 권위와 고궁의 신비감을 연출시키고 있다.

• 樓閣: 원생들의 휴식, 여가를 위해, 또는 시회의 장소 등으로 지은 건물이다. 모든 서원에서 반드시 건축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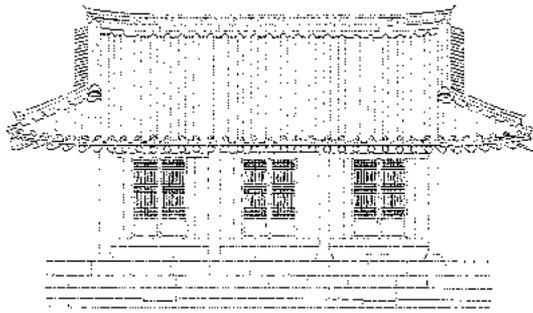


8



9

- 중국 명 13층 입구 맨 전면에 있는 석패방. 성스러운 경역의 시작임을 표시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문으로 우리나라 서원이나 향교의 입구에 세운 홍살문과 비슷하다.
- 도동서원 교직사. 교직사는 서원의 제반관리를 맡은 하수인들이 거처하는 일종의 살림집이다.
- 필암서원 관연루. 서원의 정문이다. 정면 3칸·측면 3칸의 2익공식 팔작 집이다. 호남지역 최고의 서원인 필암서원 역시 무성서원과 같이 완전히 평탄한 지형에 입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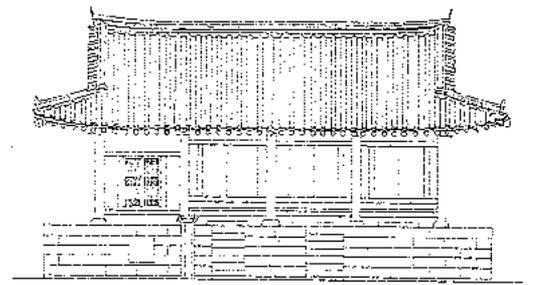


도산서원 尙德祠(사당) 입면도

서원건축의 경우 내삼문은 제향구역의 정문으로서 모든 서원에서 건립된다. 사당 전면의 같은 축선상에 위치하며 그 좌우로는 담장이 설치된다. 이 문의 성격은 그 안쪽이 聖域이 되므로 신과 사람이 만난다는 뜻으로 內神門이라고도 한다.

서원의 정문으로서 서원 맨 전면에 위치하는 외삼문은 외부와는 경계의 의미가 일차적으로 강한 문이다. 누각이 들어설 때는 이 문이 생략되는 곳도 있다. 이 문에는 편액을 걸어 상징적인 禮敎의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 가령 옥산서원의 경우는 亦樂門이라 하였고 도산서원은 進道門, 병산서원은 復禮門이라 하였다.

• 홍살문 : 이 문은 서원 영역 입구의 맨 전면에 세워지는 일종의 상징적인 문으로 사찰의 일주문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구조는 두개의 원형기둥을 나란히 세우고 그 위에 횡목을 걸은 다음 그 위에 뾰족한 살을 같은 간격으로 여러개 꽂아 놓는다. 이 문은 향교나 능에도 세워지는데 이는 성스러운 영역임을 알리는 표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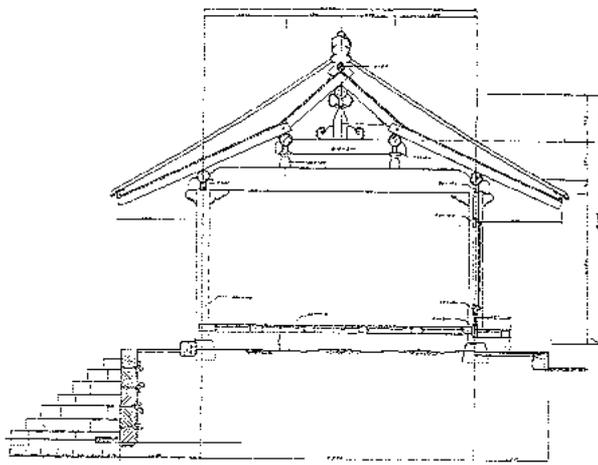
도산서원 典敎堂(강당) 입면도

로 이해할 수 있다. 홍살문 옆에는 下馬碑가 통상 놓여진다. 중국의 경우 明十三陵 전면 약 7km 되는 곳에는 정교하게 돌로 축조된 石牌坊이 있다.

• 校直舍 : 서원의 관리 및 제향시 음식마련을 위해 지어진 건물이다. 노비들도 거처한다. 구조는 그 지역의 일반 살림집의 형태로 되어 있다. 가령 영남 북부지역에서는 ㅁ자 내지 ㄷ자 구조로 되어 있고 호남지방에서는 一자형으로 많이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건물은 모든 서원에서 다 갖추어 진 것이 아니고 서원의 설립시기, 동기, 경제능력 등에 의해서 다르게 시설되었다. 특히 서원의 藍廳設 시기 및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사당과 강당만으로 서원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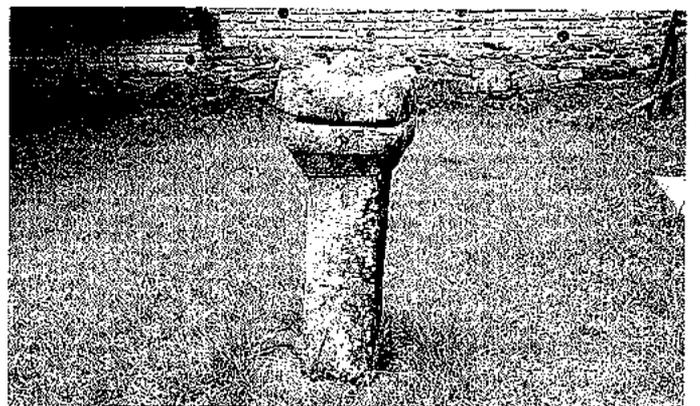
현재 전국의 수많은 서원중 大院君의 서원 撤廢後에서 제외되고 또한 본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건축사 연구의 주 대상이 되고 있는 주요 서원의 건물구성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도산서원 尙德祠(사당) 단면도



10



11

10. 도동서원의 서재인 거인재. 방 2칸과 대청마루 1칸이 전부인 단층하고 겸소한 맞배집이다. 유교의 "인" 사상이 그대로 배어 있는 듯 하다. 앞쪽에는 같은 규모로 거의제가 있다. 도동서원은 성리학의 내력기반을 굳건히 다진 영남학파 김광필을 모신 서원으로 창건은 선조 1년(1568)이다.
11. 도동서원 사당앞에 설치된 석등. 중앙의 화사석이 없어서 옥개석이 간석과 바로 맞물려 있다. 기능은 정료대와 같이 제향시 사당구역을 밝게 하기 위해 광송가지 등을 태우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서원의 자리잡기-자연+향리

16세기 이후 지역의 뚜렷한 유교문화권을 형성시켜온 서원은 그 건립에 있어 크게 2가지 요소로 그 장소성이 나타난다. 그 하나는 人的 환경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地理的 환경요소이다. 우선 인적 환경에 의한 서원의 입지를 살펴보면

서원의 건립위치는 존경받을 만한 선현의 일정한 연고지로 한정되어 진다. 즉 서원내에는 祠宇(祠堂)이라는 시설물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곳에 배향되는 주향자는 그 지역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 주로 나타난다. 예를들면 順興의 紹修書院은 유교의 선정 安珦의 고장에 세워진 서원이고 순천의 玉川서원은 戊午上禍때 김종직에 연루되어 순천으로 유배당해 왔던 寒暄堂 金宏弼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워진 서원이다. 장성의 筆岩서원은 乙巳土禍이후 정계에서 물러나 향리인 장성으로 돌아와서 학문에만 정진하다 세상을 떠난 河西 金麟厚(1478-1543)를 主壁으로 모신 서원이다. 표2는 전남지방을 중심으로 서원·사우에 주향으로 모신 인물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원·사우 건립의 인적 환경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표2. 서원·사우 건립의 인적환경 특성

건립특성	서원·사우수
향리에 건립	33(9)
지역적 연고지에 건립	15(8)
지역적 연고없이 건립	7(6)
기타	5
계	60(23)

· ()의 수는 賜額院·祠

조사대상 60여개 서원. 사우중 반수 이상이 주향자 자신의 향리에 院·祠가 건립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부의 서원은 주향자 자신이 생존시에 세운 서당이 발전하여 서원의 자리가 된 곳도 있다. 이를테면 陶山書院은 退溪가 생존시에 글을 가르치던 陶山書堂이 있던 곳이다. 이 글방을 모태로 하여 退溪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자리에 직접 제자들이 서원을 세운 것이다. 또 論山에 있는 遷岩書院도 沙溪 金長生이 서당을 차려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었는데 沙溪가 돌아가자 그 자리에 金長生을 奉祀하는 서원을 세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서원을 열거하면 표 3과 같다. 물론 이러한 서원은 이 외에도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지리적 환경에 의한 서원의 입지를 살펴보면

표3. 서당이 모체가 되어 설립된 서원

서원명	주향자	소재지
陶山書院	李 滉	安 東
德山書院	曹 植	普 州
屏山書院	柳成龍	安 東
遷岩書院	金長生	論 山
龜岡書院	尹 瑄, 尹 擥	論 山
筆巖書院	金麟厚	長 城
月峯書院	奇大升	光 州
華陽書院	宋時烈	槐 山
道山書院	權 諭	大 德
七山書院	兪 榮	川 州
滄溪書院	林 泳	羅 州
高山書院	李象鍊	東 州
檜淵書院	鄭 達	安 州
東洛書院	張顯光	星 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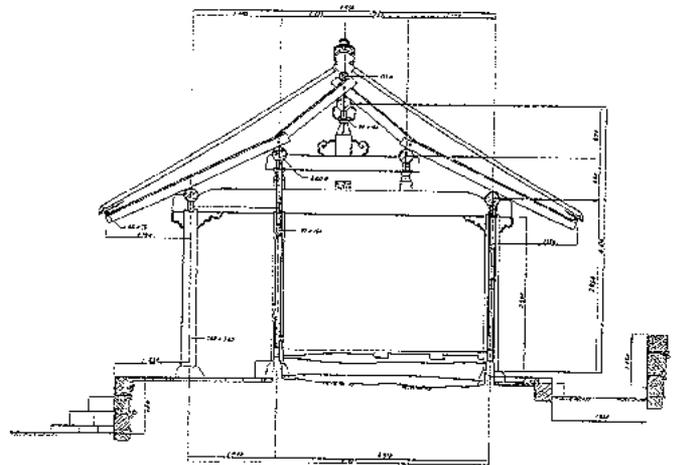
자료: 서원과 그 사회적 기능, 한국사론 8집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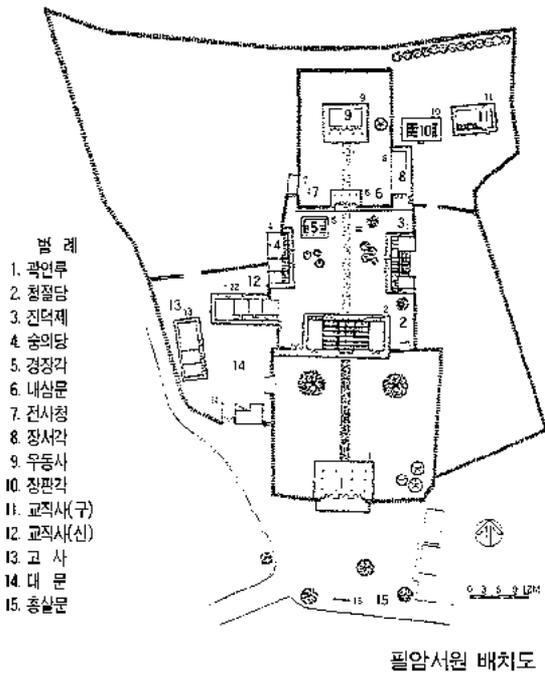


13



도산서원 典敎堂(강당) 단면도

- 경내 한쪽편에 위치한 소수서원의 학구제와 지락제. 본격적으로 서원건축이 정착될때 이러한 재실은 강당 전면에 대칭으로 놓여진다.
- 덕봉서원의 제향구역과 내삼문. 내삼문에서 중앙간은 신만 통과하는 문으로 제향시에만 열어 놓는다. 사람은 반드시 우측문으로 들어가고 좌측으로 나온다.



서원의 자리는 일반적으로 山水가 뛰어나고 적막한, 비교적 읍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향촌에 위치한다. 이는 서원의 설립 동기가 16세기의 사림정치 대두, 정치변화로 인한 隱遁思想 팽배, 향촌의 기능 쇠퇴 등에 있었기 때문에 인문지리적 입장에서 서원자리의 위치는 당연히 풍광경승이 뛰어난 향촌이 우선이었다. 서원제도의 정착에 크나큰 역할을 하였던 退溪는 서원 설립 동기중의 하나를 환경의 교육성 측면에 두어 교육하는 일의 외적 자유를 강조하였다. 그의 「上沈方伯書」

에서 서원이 관학인 국학이나 향교보다도 우월한 것중의 하나가 읍의 중심지에 있지 않고 산천 수려한 한적한 곳에 있어 변화한 환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교육적 환경론을 피력하였다. 退溪가 지은 「陶山雜詠 併記」에

靈之山の 한 줄기가 동쪽으로 나와 陶山이 되었다.(중략) 이 산은 그리 높거나 크지 않으며 그 골짜기가 높고 형세가 뛰어나고 치우침이 없이 높이 솟아, 사방의 산봉우리와 계곡들이 모두 손잡고 절하면서 그 산을 사방으로 둘러 안은 것 같다. 왼쪽에 있는 산을 東翠屏이라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산을 西翠屏이라 한다. 東屏은 淸涼山에서 나와 이 산 동쪽에 이르러서 벌려선 품이 아련히 트였고, 西屏은 靈之山에서 나와 이 산 서쪽에 이르러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높이 솟았다. 두 병풍이 마주 바라보면서 남쪽으로 꾸불꾸불 기어 내려가 8, 9리쯤 내려가다가, 東屏은 서쪽으로 달리고 西屏은 동쪽으로 달려서 넓고 넓은 들판의 이득한 밖에서 합세하였다. 산 뒤에 있는 물은 退溪라 하고, 산 남쪽에 있는 것을 洛川이라 한다. 退溪는 산 북쪽을 돌아 洛川에 들어 산 동쪽으로 흐르고 洛川은 東屏에서 나와 서쪽으로 산 기슭아래(山趾)에 이르러 넓어지고 물이 깊어졌다.(하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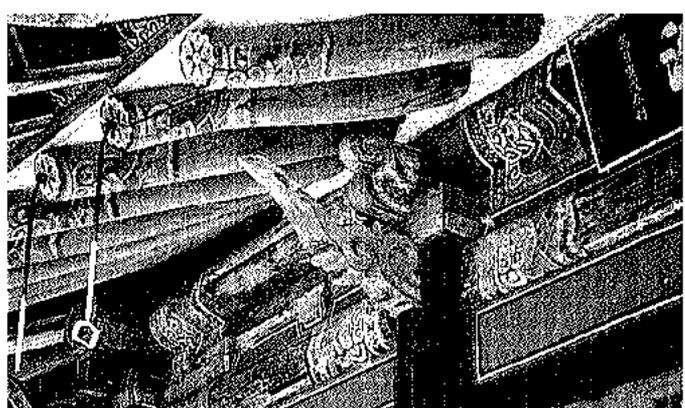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내용에서 우리는 退溪의 풍수관념에 의한 교지의 선택(뒷날 陶山書院이 되는 陶山書堂의 터를 잡는)과정을 잘 엿볼 수 있다. 계류와 강을 끼고 있는 屏山, 道東, 玉山書院 등도 풍수 사상에 입각한 경사지형 입지의 대표적 서원으로 손 꼽을 수 있다. 반면에 완전히 평탄한 지형에 입지하나 배산임야의 형국으로 터를 잡은 筆岩, 武城, 西岳書院 등도



"일조당"이란 현판을 걸은 심곡서원 강당. 조광조의 유교적 도덕관이 배어 있는 듯 치장하지 않은 단출한 3칸 팔작집이다.



소수서원 경내. 좌측이 강당이고 우측은 재실이다.



소수서원 강당 공포.

나름대로의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중국인 학자 劉伯驥도 그의 「廣東 書院制度」란 연구에서 서원의 입지론을 다음과 같이 밝혀 한국서원의 환경론과 거의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즉 서원을 세울 때 形勝의 땅을 택하는 까닭은 다음 두가지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첫째는 자연적 교육환경 조성으로 자연이 아름답고 뛰어난 경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영기를 품기하고 있어 傑出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일종의 天人合一인 사상 아래서의 風水應感說이라고 할 수 있고, 둘째로는 인위적 교육환경의 조성으로 서원의 위치는 잡다한 민가를 벗어나야 하고 우마소리와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서원은 그 입지적인 특성으로 인해 자연히 도읍의 중심지에서 대부분이 원거리에 위치할 수 밖에 없었다. 즉 자연과 어울리는 한적한 곳을 서원의 자리로 잡았던 것이다. 반면에 지방의 향교는 중앙의 조직에 의한 관학이었으며 또한 강학의 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지방민의 교화사업에도 큰 몫을 담당하였기에 표 4에서와 같이 서원과 는 위치선정에서 큰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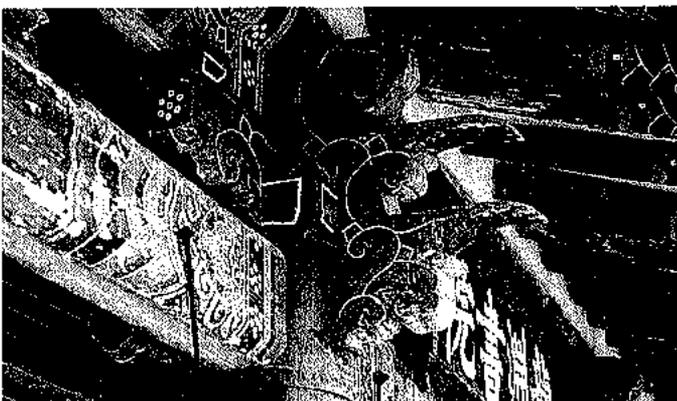
표4. 서원 및 향교위치

위 치	서 원 명	향 교 명
읍의 중심으로부터 2리 이내	忠烈, 蒙忠祠(居昌), 竹林, 詠鏡, 松林	靈巖, 泰仁, 玉果, 長興, 益山, 海南, 長水, 龍潭, 興德, 井邑, 和頂, 扶安, 咸悅, 高阜, 寶城, 勝安, 南原, 茂朱, 長城, 高敞, 南平, 金堤, 任齊, 抱川, 坡州, 寧越, 玄風, 禮安, 善山, 洪州, 禮川, 珍島
읍의 중심으로부터 3-4리 이내	彰範祠, 襄忠祠(鐵原), 淸聖廟, 紹修, 鹿洞, 城隍祠, 忠烈祠, 英山	同福, 康津, 光州, 礪山, 谷城, 蘆州, 慶州, 順興, 居昌, 咸陽, 晉州
읍의 중심으로부터 5-6리 이내	牛澤, 德峯, 西丘, 興岩, 兩江, 松鶴, 嶺賢祠, 壯岩, 禹谷, 忠烈祠(東萊)	光陽, 茂長, 全州, 咸平, 雲峯, 順天, 永禮, 尙州, 鴻山
읍의 중심으로부터 7-10리 이내	忠烈祠(忠州), 烏川, 三川, 松江, 德陽, 柳陽	昌平
읍의 중심으로부터 11-15리 이내	三峯, 道正, 花山, 筆岩, 道東, 屏山, 彰烈祠(鴻山)	
읍의 중심으로부터 16-20리 이내	茂城, 靈溪, 龍淵, 月峯, 義烈祠, 鶴山, 義由, 蘇江	
읍의 중심으로부터 21-30리 이내	襄忠祠(光州), 城山, 西忠, 龍功洞	
읍의 중심으로부터 31리 이내	玉洞, 忠範祠, 屏岩, 鳳山	
城廟內		鳳頂, 玉溝, 臨陂, 龍安, 永川

· 자료 : 『邑誌』 『輿地備考』
 · 서원은 대성군의 서원 철폐이후 남은 47개 서원과 전라도의 나주·남원·진안·경상도의 안동·경주·진관 내에 건립된 서원을 주 대상으로 하였음. 향교는 주로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하였음.



도동서원 강당의 기단연에는 용머리 장식 조각들이 4기가 있다.



흥연서원 사당 공포, 이익공 양식으로 화려하지 않은 서원건축의 규범을 잘 따르고 있다.



도산서원 경내. 강학구역으로의 출입문이 중앙에 보인다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 (9)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France
Autun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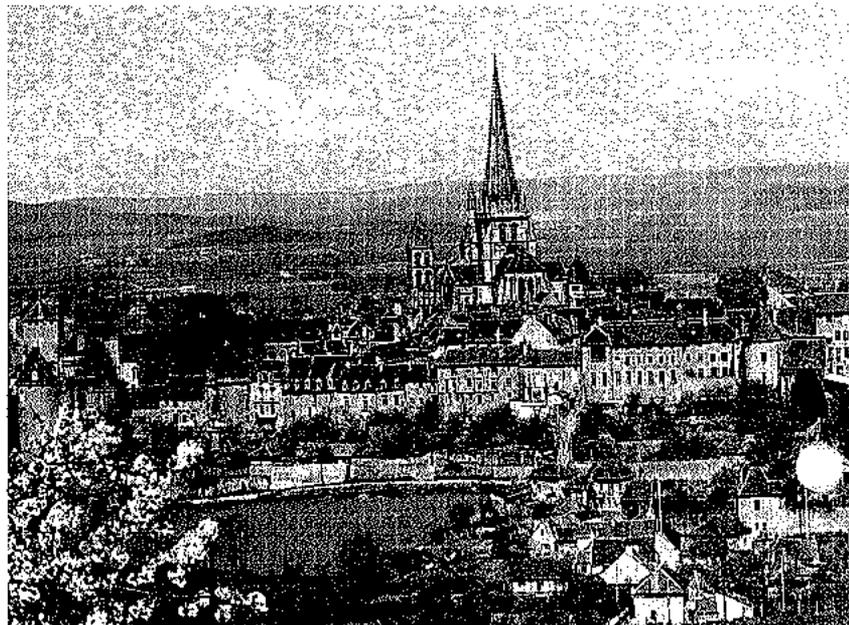
박호순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공학박사
by Park Hyo-Soon

1. 개요

로마시대 “골(Gaule : 프랑스의 옛날 이름)의 로마”로 불렸던 오땡(Autun)은 아우구스트 황제가 로마식의 큰 도시를 세우기로 결정하므로써 생긴 도시로 리옹(Lyon)과 불로뉴(Boulogne)를 잇는 상업적이며 전략상의 큰 육로 사이에 세워져 부유하고도 번창한 도시로 발전했었다. 그러나 3세기에 외세의 침입의 영향으로 오늘날에는 견고한 성벽과 로마식 극장의 유적 등 몇몇 유적만 남아있을 뿐이다. 중세기 오땡(Autun)은 니콜라 롤랭(Nicolas Rolin)과 그의 아들의 역할로 옛날의 명성을 다시 찾을 만큼 번영하기도 하였다. 니콜라 롤랭은 1376년 오땡(Autun)에서 태어나 그 시대의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으며 부르고뉴의 공작의 눈에 들어 그는 대법관직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와같이 고위직에 올랐어도 그가 태어난 고향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이에 영향을 받은 오땡(Autun)의 주교이자 추기경이었던 그의 아들은 오땡(Autun)을 종교적 중심지로 만들었으며 이 지역의 대표적 건물인 생 라자르(Saint-Lazare)대성당을 완성하기도 하였다.

2. 역사

5세기에 바실리크식 설계도에 따라 둥근 원주와 모자이크로 장식된 후진이 있는 첫번째 대성당이 건립되었다. 여러 주교들이 이 성당의 유지와 장식에 신경을 썼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7세기의 레제(Leger)성인은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 레제 성인은 궁중 감독관이던 에브로앵(Ebroin)에 의해 살해당하였지만 전 프랑스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주교가 되었으며 성인으로서의 업적의 여파가 널리 퍼진 관계로 스위스의 루체른 시에서도 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11세기 말과 12세기 초 약간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르강(Norgand)주교가 교구를 맡았는데 교구의 모든 주민과는 화합이나 의견의 일치를 갖지 못하였다. 그의 극



대성당과 오땡시 전경

단적인 과격한 행위 때문에 현재의 성당이 건립되었지만 그의 후임자로는 배우 학식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건축가이기도 했던 에티엔느 드 바제(Etienne de Bage)가 교구의 일을 맡게 되었으며, 노르강(Norgand)주교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그의 전임자였던 노르강(Norgand)을 멀리했던 모든 사람들과 화해를 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던 마리 마들렌느(Marie-Madeleine)성녀의 성유골은 오뎅(Autun)의 주교 관구에 있는 베즐레이(Vezelay)의 수도원에 있었는데 에티엔느 드 바제 주교는 베즐레이 수도원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리 마들렌느와 남매였던 라자르(Lazare)성인에게 봉헌할 순례지 성당을 건립하도록 결정하였다. 10세기 무렵 스페인의 쟁자크 드 콩포스텔(Saint-Jacques de Compostell)로 가는 도중에 있던 순례지는 셀 수도 없이 많았는데 이 많은 순례지 중 베즐레이에서 멀지않은 쟁 나제르 대성당도 라자르 성인의 성유골이 이곳에 안치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순례지로 선택되었다.

1119년 교황 칼릭스트(Callixte)2세가 오뎅을 지나가다 이곳에 살고 있는 그의 누이 에르망트뤼드 드바(Ermentrude de Bar)의 집에 머물렀으며 그가 이곳에 체류하는 동안 부르고뉴의 공작은 자신의 토지를 교회 참사원들에게 넘겨주었다. 18세기까지 성당 내진 한가운데 에르망트뤼드와 그의 남편의 무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에르망트뤼드가 성당의 재정적인 뒷받침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성당을 건립하는 공사는 초기에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빠르게 진행되어 1146년 정문을 제외하고 건축물이 완성되었으며 이어서 몇년뒤에는 정문마저 마무리하였다. 1146년 쟁 나제르(Saint-Nazaire)대성당에 있는 성유골을 쟁라자르(Saint-Lazare)대성당으로 옮겼으며 12세기말 쟁라자르 성당은 쟁 나제르성당과 같이 대성당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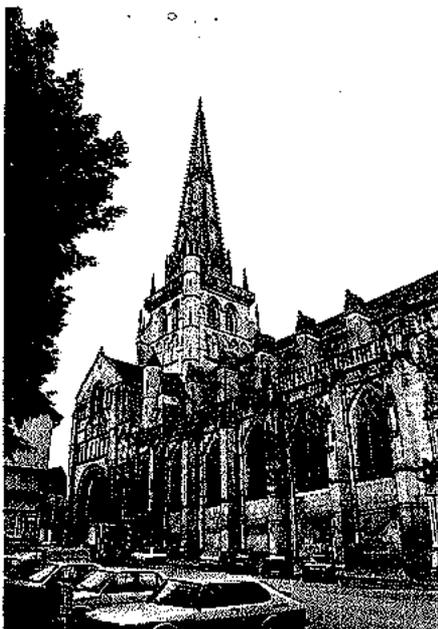
그러나 이 기간중 1120년에서 1146년 사이에 건립된 대건축물이 채 완성되기전 1130년에 교황 이노첸스(Innocent:이노첸트)2세에 의해 축성되기도 하였다. 이

후 1469년 화재로 피해를 입었던 종루는 재건축되었으며 15세기에 고딕양식의 첨탑을 세웠고 내진의 윗쪽 부분과 오른쪽 측랑의 작은 제단들은 같은 시기에 건립되었다. 왼쪽 측랑은 16세기의 것이며 빠레이 르 모니알(Paray-le-monial)에서 영감을 받은 정문의 두 탑은 비올레 르 뤁(Villet-le-Duc)이 복원공사를 할 때 건립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이 수차례의 개축과 복원을 하였지만 18세기 교회참사회원들이 내진과 중앙회중석 사이의 높은 주랑과 북쪽 정문의 합각벽 그리고 주제단 뒤에 있던 라자르 성인의 무덤을 파괴하였고 또한 중앙정문의 합각벽이 우스꽝스럽다고 합각벽에 석고를 바르고 부조로 된 그리스도의 머리를 떼어 내기도 하여 크게 손상을 입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석고를 발라둠으로 인해 파손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혁명이 끝난 후 일정기간이 지난 1837년에 이 유명한 합각벽은 석고를 제거하고 제 모습을 찾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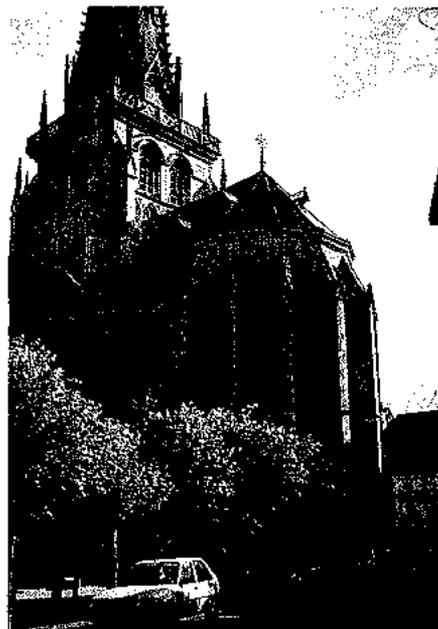
현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머리를 퐁랭 박물관의 수집품에서 발견되어 1948년 원래의 제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3.외부

대성당의 외부는 보는 이로 하여금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이라는 느낌을 주지않는데 이것은 15세기말 건립된 아름다운 종루 때문이다. 500년전 부터 이 도시를 보호해온 이 종루의 건립을 시도했던 대법관인 퐁랭의 이들은 현재 그의 이름을 딴 박물관이 되어버린 성당 옆의 저택에서 태어나고 죽었으며 본(Beaune)에 순례객들을 위한 수도원 숙박소를 건립하기도 하였다. 12세기부터 이 대성당에서 미사를 담당해왔던 교회 참사원들은 16세기에 중앙회중석 주위의 작은 제단 14실을 만들었다. 1766년 부터 측면의 정문에 조각된 합각벽이 없다. 왜냐하면 이 합각벽은 도시에 건물을 시공하여 판매하는 한 건축업자에게 팔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합각벽의 일부인 그 유명한 이브의 조각품이 우연히 1866



성당외부



성당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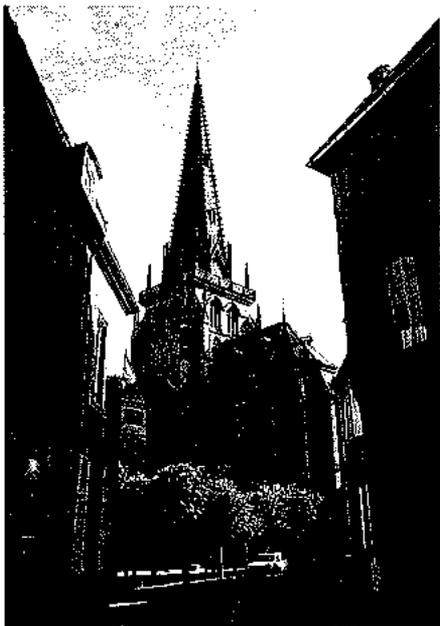
성당의부

년 Autun의 대광장에 있는 집의 담에서 발견되어 지금은 롤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두 탑과 정문은 12세기에 건립되었으며 탑은 빠레이 르 모니알(Paray-le-Monial)의 탑을 모델화하여 재건축되었다. 대서당 옆에 있는 아름다운 분수는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성당의 수호성인인 라자르 성인에게 봉헌된 것이다.

3-1 합각벽

합각벽의 주제는 마지막 심판으로 엄숙하고 냉정하며 거대한 그리스도가 이 심판을 주관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네 명의 천사가 받드는 후광으로 둘러싸여 승리의 왕좌에 앉아있으며 아래쪽의 두 천사는 매우 아름답고 품위가 있게 조각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머리 양쪽에 해와 달은 인간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는데 여기에 묘사된 사람의 형상을 한 해와 달은 생동감이 있다. 그리스도의 발치에는 조각가의 사인인 "Gislebertus Hoc Fecit"가 보인다. 상인방 속에 있는 수 많은 인물들은 부활한 남자와 여자들로 그들의 발아래 가지런히 정렬해 있는 관속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부활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관들이 매우 수수하면서도 암전하게 장식되어 있다는 점이다. 죽음을 연상시키는 모습은 가급적 피하고 관을 소벽처럼 만든 것이 특징이다. 관의 수는 16이며 관에서 나오는 사람은 38명이다. 38명에는 상당히 모자라는 관의 수이지만 어느 누구도 난처하게 하지 않게 하고 있다. 오른쪽에 있는 악인들은 왼쪽에 있는 선인들보다 서로의 간격이 넓는데 이것은 지옥보다 천국에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오른쪽에서 두번째 사람부터 보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술통을 두들기고 있는 주정뱅이를 볼 수 있고 또한 허공에 앉아있는 불쌍한 인간을 잡고 있는 거대한 손도 볼 수 있는데 후자의 이 거대한 손은 사도들 중의 한 사람을 흘렸던 악마의 두손이다. 이 불쌍한 사람의 오른쪽에는 뱀에게 가슴을 뜯기고 있는 여자로서 이는 음란함을 나타내고 있고 왼쪽에는 돈주머니를 목에 건 남자가

뱀에게 물리고 있는데 이것은 탐욕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악인들은 오른쪽 부터 두번째 인물을 보면 뾰족한 코를 가진 술 주정뱅이로 빈 술통을 두드리고 있고 다른 악인들은 특징이 없으나 마르고 헐벗은 그들의 신체와 머리를 움켜쥐거나, 두 주먹을 권 모습으로 그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그들을 비웃거나 비난하기 보다는 측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장면으로 경외심마저 들게 한다. 그리스도의 발 바로 아래에는 검을 든 한 천사가 악인을 밀고 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머리를 돌려 뒤를 돌아보는 악인의 모습에서 깊은 절망을 느낄 수 있다. 천사로부터 세번째에서 있는 사람은 가방에 그려진 조가비로 알 수 있듯이 쟁 샤크 드 콩브스델의 순례객이다. 그는 어깨에 순례자의 지팡이를 얹고 조심성 있게 두 나뭇잎 위로 걷고 있다. 피곤에 지친 발을 두 잎사귀 위에 얹어 놓으므로써 천국을 향한 마지막 단계를 끝마쳤다. 그의 뒤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순례객이 있다. 이 순례객 역시 앞의 순례객과 같은 자세로 예루살렘의 십자가가 새겨진 가방을 메고 있다. 그 뒤를 이어서 수도자들이 입던 투박한 모직물로 된 옷을 입은 한 수도자가 두 순례객의 뒤를 따르고 있으며 그는 이미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응시하고 있다. 수도자의 뒤에 한 가족이 뒤따르고 있다. 몸을 뒤로 돌리고 있는 가장은 그의 부인의 손을 잡고 있고 그의 부인은 관속에 앉아 있는 아이를 가리키고 있다. 일가족 뒤에는 두팔을 벌린 한 천사가 벌거벗은 세 어린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보호자이며 안내자인 천사에게 매달리며 그들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홀장을 든 한 주교가 그 다음에 있고 좀 더 멀리 또 다른 한 주교가 있다. 두 주교를 천국에 넣음으로써 다른 예술가들과는 달리 조각가는 성직자가 선하다는 표현을 하려했다. 악인들은 모두 벌거벗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선인들은 몇몇은 벌거벗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옷을 입어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는다. 합각벽의 중심부를 연구하기 위하여 먼저 악인들의 위를 보기로 한



15세기말 건립된 탑, 중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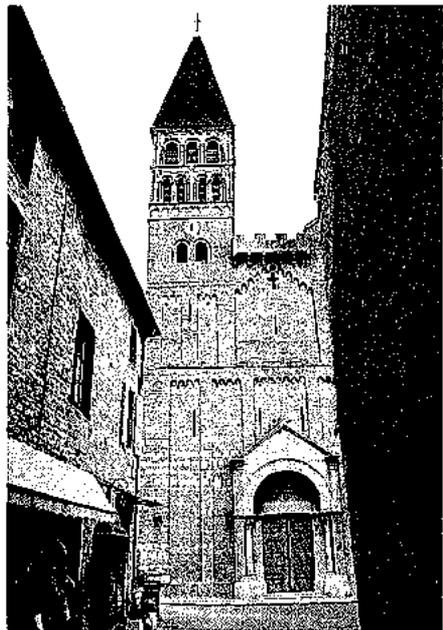
성당 외부

다. 영혼의 무게를 채는 장면을 보면 반달 모양의 큰 두 저울판은 선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매우 인상적인 모습이다. 왼쪽에 있는 천사 미카엘은 저울판을 점잖게 누르고 있으며 오른쪽의 악마는 미카엘 천사보다 덜 세련된 모습으로 자기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지도록 저울대를 붙잡고 있다. 반면 왼쪽 저울판 윗쪽에서 턱밑에 두 손을 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된 선인은 하늘로 날아가고 있으며 그가 주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의해 선인은 빨려들어가는 것 처럼 보인다. 미카엘 천사의 발치에는 두 인물이 머리가 셋달린 뱀에게 물리지 않으려고 천사에게 몸을 비싸 붙이고 있다. 지옥 가까운 곳의 이 장면은 보는 이의 마음을 끈다. 바작마르고 키가 큰 악마는 부러하고 불쌍한 악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그의 불만을 표현한다. 그의 뒤에는 냉소를 띤 세 악마가 죄인들을 갈고리로 걸어 잡거나, 지옥으로 그들을 밀어 넣고 있다. 괴물의 입이 나오는 개와 큰 통으로 나타내었다. 오른쪽 맨 끝, 상인 방 윗쪽에는 한 천사가 트럼펫을 불고 있다. 악마의 윗쪽에도 트럼펫을 부는 천사가 있으며 반대쪽에도 같은 모습의 천사가 대칭적으로 있다. 저울 윗쪽에는 영광의 자리에 두 사람이 앉아 있으며 한 사람은 책을 들고 있다. 이들은 그들의 어머니가 그들을 위해 마지막 심판의 날 그들에게 영광의 자리를 줄 것을 그리스도에게 부탁했던 복음사가 요한과 그의 아우 야고보이다. 그러나 전설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와 함께 동행할 엘리야와 에녹이라고도 한다. 미카엘 천사뒤에 가슴에 책을 소중하게 껴안고 하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두번째 복음사가 마태오 성인이다. 이렇게 해서 열두제자중 세 제자가 오른쪽에 있고 반대쪽에 아홉명의 제자가 있다. 줄을 선 그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손 높이에 닿아있고 그리스도 가까이 8명이 있다. 그들 각자는 불분명하다. 아홉번째 제자는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이는 천국을 담당하고 있는 베드로 성인으로 그는 거대한 열쇠를 쥐고 있다. 하늘과 땅의 전권을 쥐고 있는 베드로 성인은 열쇠가 두개가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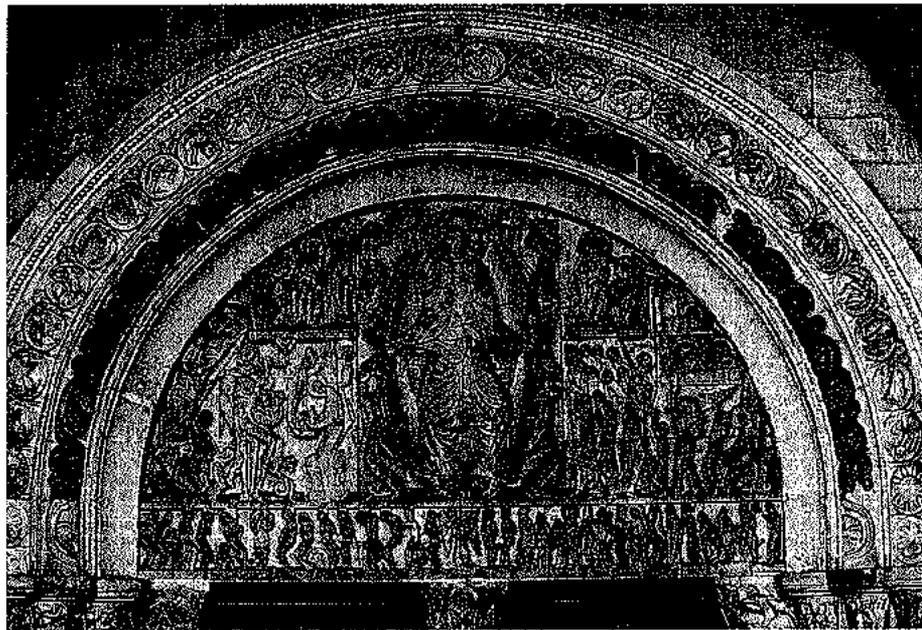
만 했다. 보통 우리가 하나라고 믿고 있지만 사도들의 머리위에 있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이다. 이 열쇠의 손잡이는 베드로 성인의 어깨위에 있고 베드로는 삭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베드로 성인은 열쇠 두개를 지닌 것에 만족하지 않고 천국의 입구를 지키고 있다. 천국의 입구는 세층의 홍예로 표현하여 맨 밑에는 이미 선별되어 천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 아주 작은 한 선인이 베드로와 손을 잡고 그에게 고백을 하고 있다. 그의 옆에는 또 다른 아주 작은 사람이 두 팔로 천사를 껴안고 있으나 천사는 그의 친구를 들어올리고 있다. 트럼펫을 든 천사의 양쪽에 있는 두 선인은 그들이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사도들의 윗쪽에는 단위에 성모마리아가 그의 아들 곁에 겸손하게 앉아 있다. 그리스도는 두 손을 크게 벌리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부조로 되어 합각벽에서 완전히 돌출되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역시 합각벽에서 돌출되어 있던 성모마리아의 머리이다. 불행히도 성모마리아의 머리는 알게 깎아 지금은 합각벽에서 약간 돌출되어 있다. 1766년 이 합각벽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한 교회 참사회원들은 여기에 석고를 바르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제거하고 성모마리아의 머리를 깎아내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 기간동안 이 합각벽은 석고 껍질에 싸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 아무도 합각벽을 제거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1837년 대혁명이 끝난 후 석고를 긁어낼 생각을 했다. 석고를 완전히 제거할 당시 다행스럽게도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에 의해 그리스도의 머리가 수집되어 룬랭성당에 보관되었다. 1948년 그리스도의 머리로 확인되어 합각벽의 원래 자리에 놓게 되었다.

합각벽 주위의 아치(아키볼트)에는 원래 요한 묵시록의 인물들과 구약성서의 인물들이 있었으나 1766년 합각벽에 석고를 입힐때 제거했다. 그중 다수가 룬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두번째 아키볼트에는 연속구도로



성당외부



지슬르베르튀스가 조각한 합각벽

된 아주 아름다운 잎사귀들이 있는데 장식적 효과가 크다. 세번째 아키볼트에는 황도 십이궁과 열두달의 농사일이 묘사되어 있다. 한해는 왼쪽부터 시작되어 있다. 꽃과 큰 잎사귀가 있는 두 메다이옹을 지나 세번째 메다이옹에서 잡고 있는 봄과 바람에 나무가지가 휘둘러지는 외투를 볼 수 있다. 네번째 메다이옹에는 힐링한 외투를 입고 머리도 덮은 겨울과 강렬한 태양을 피하고 있는 여름이 있다. 다섯번째 메다이옹에서 부터 황도 십이궁과 관계있는 달의 농사일을 볼 수 있다. 1월은 두텁게 옷을 입은 농부가 불결에서 밭을 따뜻하게 하고 큰 빵을 자르고 있다. 그 다음에는 불병자리가 조각되어 있고 2월은 손과 밭을 녹이는 농부로 표현되었고 물고기 자리를 지나 3월은 포도나무를 자르는 농부로 표현되었다. 양자리를 농부가 양떼와 함께 있는 4월이 있고 황소자리를 지나 5월은 원정을 떠나는 기사로 표현되었다. 아주 작은 그의 말 뒤에는 염소와 짐, 그리고 영주의 깃발이 있다. 쌍둥이 자리를 지나 합각벽의중앙부분에서 웅크리고 있는 조그만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1년을 나타낸다. 한 가운데에서 왼쪽 부분으로 가면 십이궁이 달보다 먼저 나온다. 계절이 다음으로 6월은 나무에서 막대한 과일을 먹는 사람으로 묘사되었고 사자자리를 지나 7월은 그의 과실을 수정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천사로 표현된 처녀자리를 지나 8월은 도리끼로 밀을 타작하는 농부로 표현되었고 천칭자리를 지나면 9월은 그의 술통 속에 포도를 발로 으깨며 포도를 먹고 있는 포도제배자로 묘사되었다. 이것은 지극한 행복을 나타낸다. 전갈자리를 지나면 10월은 돼지에게 주기위해 도토리나무를 흔들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되었다. 사수자리를 지나면 11월은 숲으로 돌아가는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염소자리를 지나면 12월은 어깨에 도끼를 맨 농부가 두 마리의 돼지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황도 십이궁 속에 표현된 소박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노동은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즐거운 가운데 하는 것으로 표현되었고 이와같은 연유로 12세기에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냈던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조각가는

각 장면마다 간결하게 표현했으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같은 일에 낯설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술가인 조각가가 역시 손으로 일하는 그들처럼 즐겁게 일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합각벽 위에서 인물들은 변형된데 반해 아키볼트 속의 인물들은 정상적으로 본래의 크기를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합각벽 주위를 점유한 이들은 단순한 그들의 노동에 의해 즐겁게 그들의 일을 한후 그들을 심판하기 보다는 반갑게 맞아들일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것이다. 심판의 마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는 두 팔을 벌린 채 인간을 심판하기보다는 받아들일 것이다. 이곳 합각벽에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승리를 표현했다. 그러나 인간인 그리스도는 잘못된 감상주의에 빠져 있지 않으며 그 주위의 이야기나 상인방 윗쪽의 이야기는 오히려 생생하고 강렬하게 나타나 있다. 상인방을 제외한 합각벽은 29점의 돌 블록으로 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전체를 이루고 있는 4명의 천사를 각각 다른 형태의 돌로 조각된 13점이 있다. 현재 비어 있는 아키볼트는 합각벽을 끝낸후 놓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합각벽은 세블록을 하나로 각각 지상에서 조각을 한 후 두 블록으로 되어 있는 상인방 위에 하나씩 없었다.

3-2 이브의 유혹(la tentation d'Evav)

톨랭 박물관에 소장된 것으로 로마네스크 양식 조각의 걸작품 중 하나로서 신체와 식물의 곡선을 세련되게 처리하여 관능적인 느낌을 넘쳐흐르게 했다. 1766년 까지 대성당의 북쪽 정면의 상인방을 장식했던 작품이다.

4. 내부

대성당의 안으로 들어가면 궁륭의 형태와 기둥위에 적용한 길게 세로로 관 홈은 방문객을 놀라게 한다. 대성당을 한바퀴 돌아가며 있는 아치 윗쪽의 트리포리움과 기둥위의 세로홈은 단순히 장식적인 것으로 도시 북쪽 출구에 있는 아루(Arroux)의 문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



측랑



기둥머리(음악의 네번째 음정)



기둥머리(미술사 시공의 추락)

한 양식은 12세기의 건축가에게 영감을 주었다. 꺾은 궁륭은 고딕양식과는 무관하며 여기서는 아치가 십자형으로 교차한 것을 볼 수 없다. 즉 반원형 궁륭대신 가운데 돌 끊어서 꺾은 궁륭으로 처리했다. 11세기말 클뤼니(Cliny)대성당을 건립할 때 클뤼니 수도회와 시토 수도회의 수도사들이 많이 이용한 이 건축술은 궁륭의 가운데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고 이론적으로는 가장 견고한 궁륭 처리법이었다.

클뤼니 성당과 시토(Citeaux)성당 덕분에 이런 형태의 궁륭은 부르기뇽식 로마네스크 양식이라 불리며 전 유럽과 근동과 중동지방가지도 이 건축술이 퍼졌지만 부르고뉴지방의 건축가들은 매우 신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무조건 중앙회중석을 직사광선을 밝게 하려고 하므로서 중앙회중석의 궁륭에 비해 약간 높은 측랑을 건립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벽날개는 아직 이용되지 않았으므로 측랑은 부벽의 역할을 해야 했는데 압력은 궁륭의 중앙에 작용하지 않고 양 측랑과 벽위에 작용을 하여 어떠한 지지를 받지 못했던 벽은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행히도 위험한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백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으며 벽이 벌어져 위험하게 되었을 때 벽 날개를 건립하는 방법이 강구되어 13세기 중반에 별로 아름답지는 않으나 효과적인 벽날개를 덧붙이게 되었다. 19세기에는 새로운 구조적 문제가 발생되어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궁륭의 무게를 경감시켰다. 내진의 윗쪽부분은 낙뢰로 로마네스크의 양식의 종루가 무너진 후인 15세기에 재건립하였고 맨 윗쪽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19세기의 작품이고 아래 두층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1939년에 제작되었다.

4-1 기둥머리

매우 아름답고 중요한 기둥머리들을 살펴보면 먼저 그리이스 신화에 나오는 독수리 사자가 검은 든 한 사람을 발로 누르고 있고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검으로 독수리 사자를 찌르고 있는 기둥머리가 있다. 두번째는 두마

리의 독수리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뱅상(Vincent)성인을 묘사한 기둥머리가 있다. 3세기 말 스페인의 부제였던 뱅상 성인은 순교를 당한후 맹수들에게 뜯기도록 벌거벗겨져 버려졌다.

독수리 한 마리가 그를 보호하고 있는데 대칭을 이루도록 조각가는 독수리를 두마리로 표현했다. 세번째 기둥머리는 마술사 시몽(Simon)의 승천을 나타낸다. 열두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의 마술사였던 시몽은 베드로 성인에게서 기적을 일으키는 비밀을 사려고 하나 베드로 성인을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시몽은 하늘에 올라가면서 그의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리와 팔에 날개를 고정 시키고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 성인과 바오로 성인이 보는 앞에서 날고 있다. 네번째 기둥머리는 마술사 시몽의 추락을 나타내는 작품으로서 베드로 성인과 바오로 성인은 기도를 하고 있고 시몽은 악마가 기뻐하고 있는 가운데 땅으로 위험하게 다시 추락하고 있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 악마는 떠돌석하게 비웃고 있는 모습이다. 이 작품은 대성당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중의 하나로 마술사 시몽은 교회의 재산이나 품위를 사거나 훔친 자들의 수호자이다.

다섯번째 기둥머리는 음악에서의 네번째 음을 나타낸다. 중세 초기 그레고리안 성가는 8음으로 작곡되었다. 클뤼니에서는 여덟명의 음악가가 각각의 음을 한정된 책을 가지고 여덟음을 표현했다. 이 중에 작은 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네번째 음 즉 솔페의 음을 나타내고 있다. 얼마 후 이 조각은 샤프트르(Chartres)성당에서 처럼 음악 자체를 나타내게 되었다. 여섯번째 기둥머리는 발을 씻기는 장면으로서 그리스도가 베드로 성인의 발을 씻기고 있는 장면인데 약간 흐릿한 이 작품은 지슬 르베르튀스의 작품은 아니다. 한 제자가 큰 수건을 들고 있고 다른 제자는 이 예식을 위해 발을 내밀고 있다. 일곱번째 기둥머리는 사자와 싸우는 기독교인의 힘을 나타내는 것으로 12세기에 자주 묘사된 이 기둥머리는 여섯번째의 기둥머리를 제작한 조각가가 조각을 하였다. 여덟번째 기둥머리는 모세의 금송아지를 표현한 것이



상인방(선인들이 표현한 것으로 뵈자크 드공 뵈스펠과 예루살렘 순례객들)



합각벽(미카엘 천사와 악마들이 영혼의 무게를 재는 장면)



기둥머리(마들렌느에게 발한 그리스도) 건축사 9601 97

다. 하느님의 계율판을 가진 모세가 금송아지를 치자 징그럽고도 거대한 악마가 나오는 모습이다. 아홉번째는 돌에 맞아 순교한 스테파노 성인을 묘사한 기둥머리이다. 부제였던 스테파노는 첫번째로 순교한 성인으로서 가운데 머리에 돌을 맞고 웅크리고 있고 악인들은 다른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으며 스테파노 성인은 매우 평온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부터 그를 맞으러 온 천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열한번째 기둥머리는 노아의 방주이다. 이 아름다운 기둥머리는 새롭고 경이로운 여행을 하게 될 노아의 아름다운 모험을 목가적인 형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왼쪽 창문에는 방주 속에 이미 자리를 잡은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보이고 중앙의 창문을 통해 두 짐승을 볼 수 있다. 오른쪽에는 식량을 보급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왼쪽에는 방주 속으로 한 어린이를 넣고 있는 것이 보인다.

16세기에 건립된 제의실 입구 옆에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릴 때의 광경을 그린 그림이 있다. 이것은 17세기 게르셴(Guerchin)이 제작했다. 몇계단을 올라가면 피에르 자냉(Pierre Jeannin) 과 그의 아내 안느게니오(Anne Gueniot)의 입상앞에 서게 된다. 그의 현명함 때문에 부르그뉴 지방은 1572년 8월24일 밤에 있었던 쟁 바르텔레미(Saint-Barthelemy)의 학살을 모면했다. 피에르 자냉은—왕들이 화가 났을 경우에는 시간을 끌어서 천천히 복종을 해야만 한다—면서 서면으로된 왕의 명령서를 요구하며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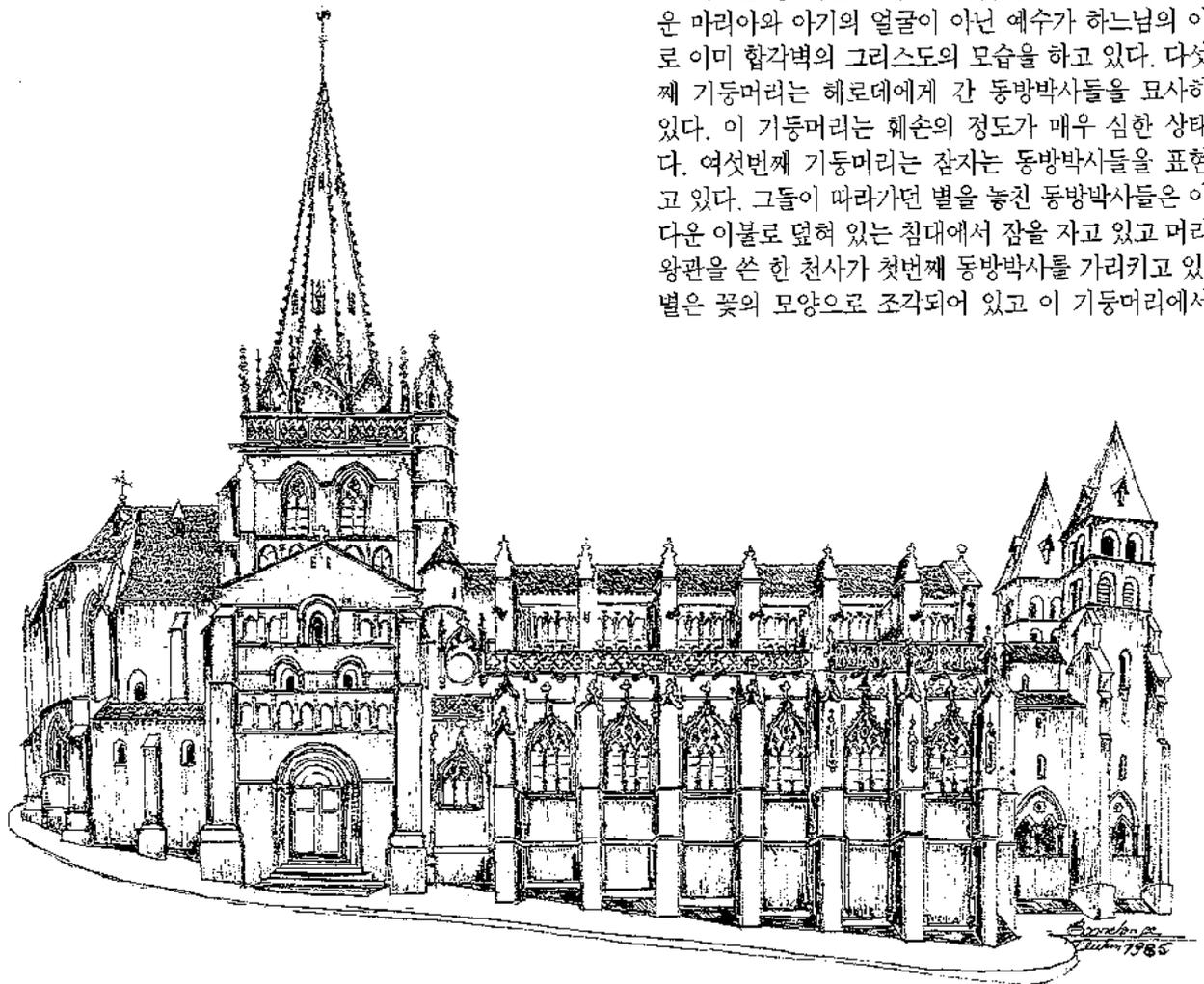
다. 그는 오명을 내려다보고 있는 산 꼭대기인 몽쥬(Montjeu)에 성을 건립했다.

4-2 교회 참사회의실

오른쪽의 작은 제단속으로 들어가 50계단을 오르면 교회참사회의실로 들어가게 된다. 이곳에 있는 다수의 기둥머리 중에는 유명한 것들이 많다. 기둥머리들은 좌우익랑과 내진속에 있다. 19세기 종루를 지탱하고 있는 네 기둥이 붕괴될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비올레 르 뉘(Viellet-le-Duc)의 참여로 그전보다 더 크고 강한 기둥을 다시 건립하여 보강을 하였다. 그리하여 기둥을 장식하고 있던 기둥머리들을 제거하여 이 교회 참사회의실에 놓았으며 원래의 기둥머리 자리에는 복사된 기둥머리를 놓았다. 기둥머리들은 눈 높이에 있어 쉽게 볼 수 있다.

첫번째 기둥머리는 카인의 죽음을 묘사한 것이다. 이것은 탈무드에서 나온 전설과 관계있는 것으로 카인은 그의 아들인 장넵 라멕(Lamech)에 의해 살해되는데 이때에 튜발카인(Tubalcain)이 라멕의 팔을 조종하는 모습이다.

두번째 기둥머리는 목매달아 죽은 유다를 나타낸다. 두 악마가 유다의 목을 감은 줄을 잡아 당기고 있다. 세번째 기둥머리에는 아담에게 묻고 있는 하느님을 표현했으며 아담의 옆에는 잎사귀 뒤에 몸을 숨기고 있는 이브가 있다. 네번째 기둥머리는 이집트로 피신하는 장면이다. 이것은 오명의 기둥머리들 중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미소를 띤 작은 당나귀와 책감잡 있는 요셉, 성스러운 마리아와 아기의 얼굴이 아닌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로 이미 합각벽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 다섯번째 기둥머리는 헤로데에게 간 동방박사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 기둥머리는 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이다. 여섯번째 기둥머리는 잠자는 동방박사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들이 따라가던 별을 놓친 동방박사들은 아름다운 이블로 덮혀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고 머리에 왕관을 쓴 한 천사가 첫번째 동방박사를 가리키고 있다. 별은 꽃의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고 이 기둥머리에서는



성당 외부전경(1986년 본느리르쥬(Bonneterge)가 펜으로 그린 데생)

다색배합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일곱번째 기둥머리는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다. 평범하면서도 아름다운 마리아가 아기예수를 안고 있고 아기예수는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선물을 만지려고 팔을 내밀고 있으며 옆에는 요셉이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앉아 있다. 여덟번째 기둥머리는 선과 악을 묘사하고 있다.

성작을 든 자비가 돈주머리를 든 탐욕의 악마를 발로 누르고 있고 소망은 절망의 악마를 발로 누르고 있다. 아홉번째 기둥머리에는 주교와 건축가 또는 조각가가 교회에 봉헌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열번째 기둥머리는 작은 사람이 독수리의 머리와 날개에 말의 몸을 가진 회랍신화에 나오는 괴물을 공격하는 장면이다.

이 기둥머리는 합각벽 아래에 이어있다. 열두번째 기둥머리는 힐끗 보기만 해도 사람을 죽였다는 회랍신화에 나오는 괴사를 묘사한 것으로 머리는 새의 모습이며 뱀의 꼬리를 하고 있다. 열세번째 기둥머리는 새와 싸우고 있는 사람을 묘사한 것이다. 매우 고전적인 주제로 두루미에 대해 싸우는 난장을 표현한 것이다.

그외 다른 기둥머리에는 잎사귀를 조각해 놓았으며 대부분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다.

4-3 내부의 기둥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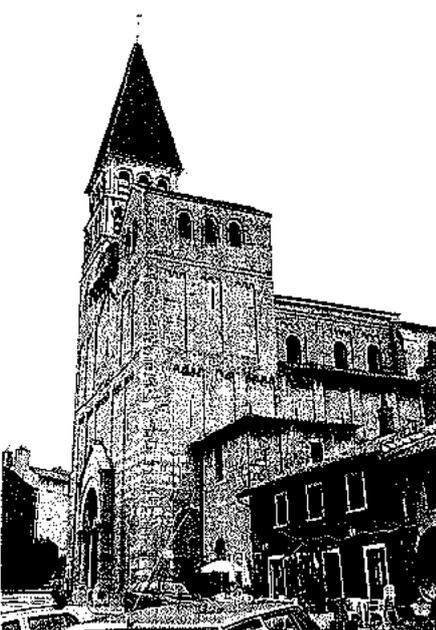
교회 참사회의실에서 다시 내려와서 내진으로 가기전에 악의 상징인 목신과 인어를 조각해놓은 기둥머리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첫번째 시험을 받는 예수를 표현해 놓은 기둥머리가 있으며 이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한 이방인을 짓밟고 있는 기둥머리가 있다. 이 주제는 프랑스의 서쪽지방에서 자주 볼 수 있다. 31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오뎡(Autun)에 간 것을 나타내는 장면이다.

4-4 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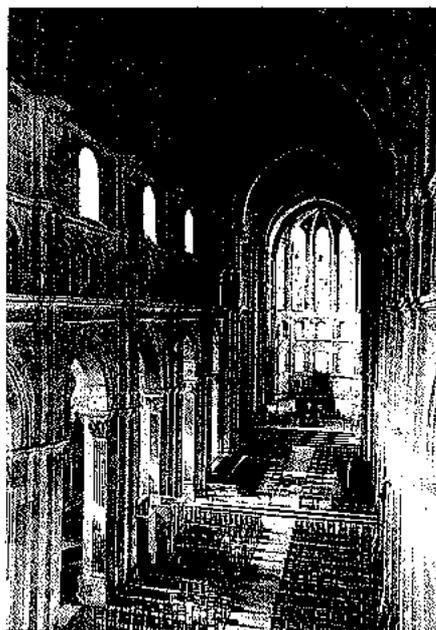
두 층의 창문이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후진은 18세기 말 대리석으로 막았으나 1939년 이 대리석을 제거하였고 생 장(Saint-Jean)성당에 대리석을 놓았다. 이 두

층은 매우 상이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슬르베르튀스의 조각술을 18세기 대리석으로 볼 일 때 제거했던 기둥머리들과 함께 윗층에서만 볼 수 있다. 아래층 창 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1939년 장 고탱(Jean Gaudin)의 아뜰리에에서 제작했으며 후진에서는 대형 파이프 오르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876년 메르클랭(Merklin)이 제작한 것으로 음향이 매우 뛰어나다. 후진에도 아름다운 기둥머리들이 여럿 있었는데 첫번째 기둥머리는 복원된 것으로서 창세기에 나오는 낙원의 4대강을 묘사하고 있다. 두번째 기둥머리는 엠마오의 순례객을 나타낸다. 부활절 날 순례객 차림을 한 그리스도가 엠마오로 가는길에 여행객들을 만나고 있다. 세번째 기둥머리는 음란함을 묘사하고 있다. 불꽃 모양의 머리를 한 여자가 악마에게 단단히 잡혀 있는 키작은 사람 앞에서 있는 모습이다. 성당내부에는 16세기초에 건립된 아름다운 계단이 있는데 이곳을 지나 종루로 갈 수가 있다.

네번째 기둥머리에는 마리 마들렌에게 나타난 예수가 조각되어 있으며 이 기둥머리는 미완성으로 그리스도의 발아래 있는 마들렌스와 무덤으로 가고 있는 성녀들을 볼 수 있다. 다섯번째 기둥머리는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나타내고 있다. 굴속에 앉아있는 다니엘은 석방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굴의 양쪽에 두마리의 사자가 그를 삼키기 위해 지키고 있으며 왼쪽에는 천사에 의해 이끌려온 예언자 하바쿠크이 다니엘에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다. 여섯번째 기둥머리는 악마가 두번째로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장면이다. 예루살렘의 사원을 나타내는 탑의 꼭대기에서 악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다. 측량에는 16세기에 건립된 작은 계단이 있는데 여기에는 1515년에 제작된 단하나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다. 그리스도의 가계를 나타낸 제세의 나무로 다윗의 아버지 제세가 가운데 있고 맨아래에는 그의 자손들이 있다. 왼쪽에는 하아프를 켜는 다윗이 있으며 예수와 마리아는 위에 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이사야서를 삽화로 표현한 것이다. 작품의 맨위에는 매우 아름다운 악



성당외부



중앙회중석



상인방 (악인들)

사 천사들이 여럿있다. 그 옆의 작은 제단에는 1834년 오뎡 대성당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로마인들이 점령했을 당시 오뎡의 첫번째 순교자 쟁포리앙(Symphorien)성인을 그린 그림이 있다. Ingres가 제작한 이 그림의 중앙에는 쟁포리앙이 군인들과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고 성벽 꼭대기에서 있는 그의 모친은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할 뿐이다"면서 순교하는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매일 수없이 읽히는 이 말은 카톨릭의 장례예식 때 들을 수 있다. 그 다음의 기둥머리는 바오로의 개종을 표현한 것이다. 다마스르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본 바오로는 그 후 세례를 받는다. 여덟번째 기둥머리는 석방된 베드로 성인을 묘사하고 있다. 아름다운 감옥 속에서 목에 줄을 걸고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 출구를 가리키고 있다. 아홉번째 기둥머리는 가마솥에 있는 세 명의 히브리인들을 묘사하고 있다. 바빌론에서 체포된 젊은 히브리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가마솥에 던져지지만 히브리인들은 한 천사에 의해 보호를 받아 불꽃의 한 가운데서 침착하게 세 명의 히브리인들은 아름다운 성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열번째 기둥머리는 안스와 요아킴은 한 천사에게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모가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열한번째 기둥머리는 아기예수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는데 성모마리아는 누워있고 아기예수는 산파가 나무통에서 씻기고 있으며 요셉은 자고 있다.

열두번째 기둥머리는 제물로 바쳐지는 이삭을 표현하고 있다. 검은 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하고 있다. 양의 목을 잡고 있는 한 천사가 아브라함의 검은 잡고 있으며 그가 붙들고 있는 양이 인간대신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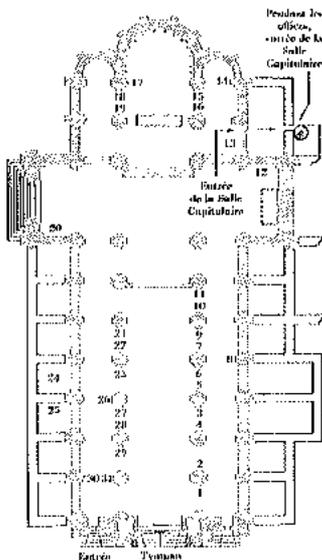
5. 맺음말

오뎡(Autun) 대성당은 중앙회중석의 지붕 아래에 있

는 작은 주랑이 서쪽 정문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요소이지만 외부에서 볼 때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이라는 느낌을 주지않는 평범한 성당이다. 그러나 이 성당은 성당의 건축적인면 보다도 정문 상부 합각벽의 조각에 더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야 되리라 본다. 이 합각벽에는 마지막 심판이 조각되어 있어 가장 아름답고 세계적으로 배놓을 수 없는 조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합각벽의 조각은 지슬르베르튀스가 제작한 것과 베즐레이의 여러조각 작품에 그의 마크가 있어 지슬르베르튀스는 베즐레이에서 왔다는 것 밖에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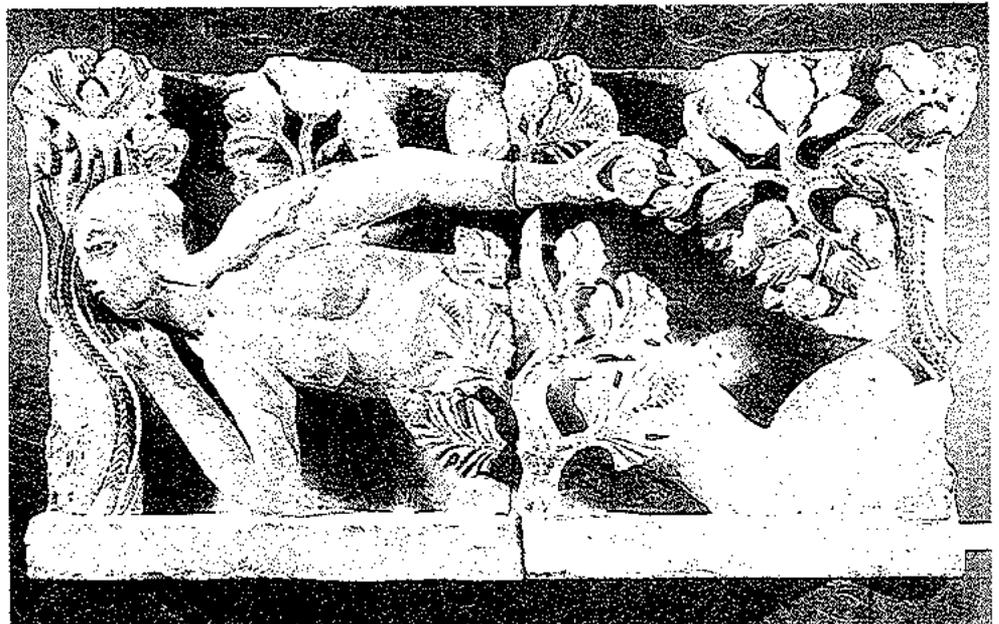
12세기의 가장 위대한 조각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지슬르베르튀스의 조각은 우아하고 품위가 있으며 표현이 간결한 것이 특징인데 대성당 전체에서 그의 마크가 재발견되는 것은 독특하다. 해부학적인 구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미화된 이 조각술은 여러 세기 동안 인정받지 못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 합각벽의 조각이외에도 배 놓을 수 없는 조각은 이브의 유혹(La Tentation d' Eav)으로서 현재는 대성당 가까이 있는 룰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들러 로마네스크 양식 조각의 걸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곳에 소장된 라자르 성인의 유해, 오뎡(Autun)의 성모마리아, 몰랭(Moulins)의 대가가 제작한 성모마리아와 아기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룰랭 추기경의 그림등이 있으므로 이 당시 예술에 대한 깊은 의미를 새겨보는 것도 방문의 가치를 증가시킬 것이라 판단된다.

주 (1) 열두제자중의 한 사람인 바르톨로메오의 축일은 8월24일이다. 1572년 8월24일 샤를르(Charles)9세의 명령으로 바르톨로메오의 축일 밤에 파리에서는 프로테스탄트교도들을 학살했다. 프로테스탄트교의 우두머리들과 3000명 이상의 신자들이 파리에서 학살당했다. 8월28일 왕은 학살을 중지하도록 명령했으나 지방에서는 그 후에도 여러 달 동안 학살이 계속되었고 이로인해 내전이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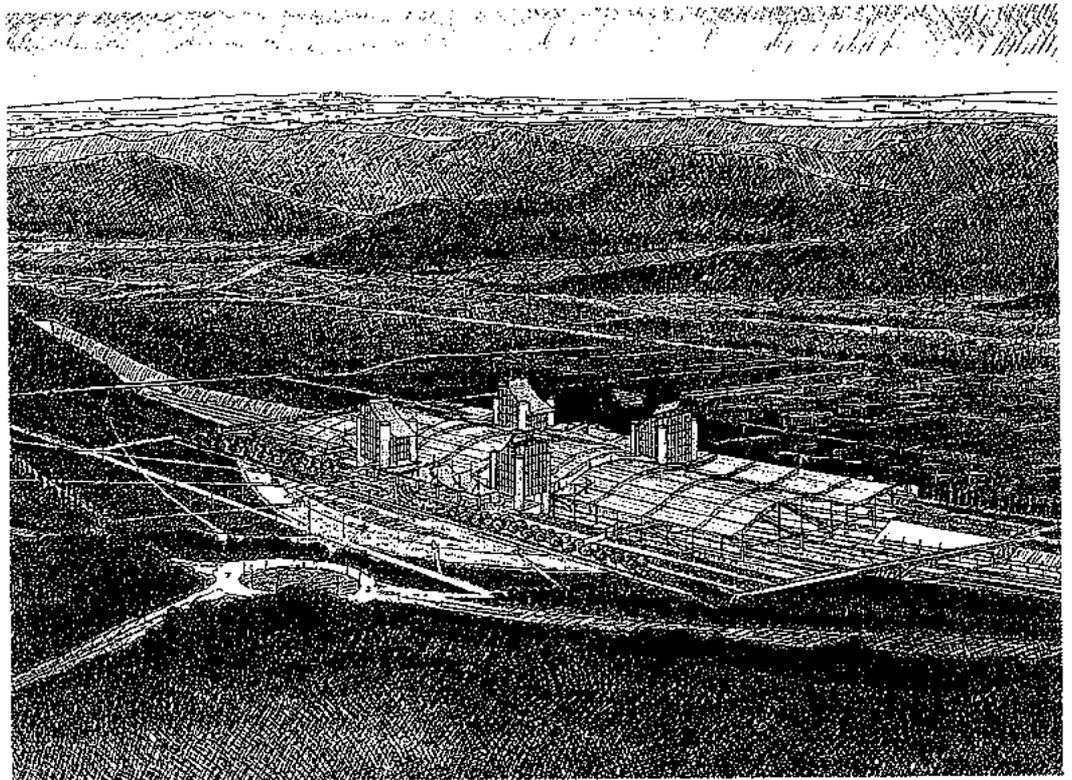


1-1 XII^e siècle, comersé
1-2 XIII^e siècle, débris
1-3 Postérieur au XII^e siècle

평면도



지슬르베르튀스의 이브(현재는 룰랭 박물관에 있으나 이전에는 측문의 상인방에 있었다)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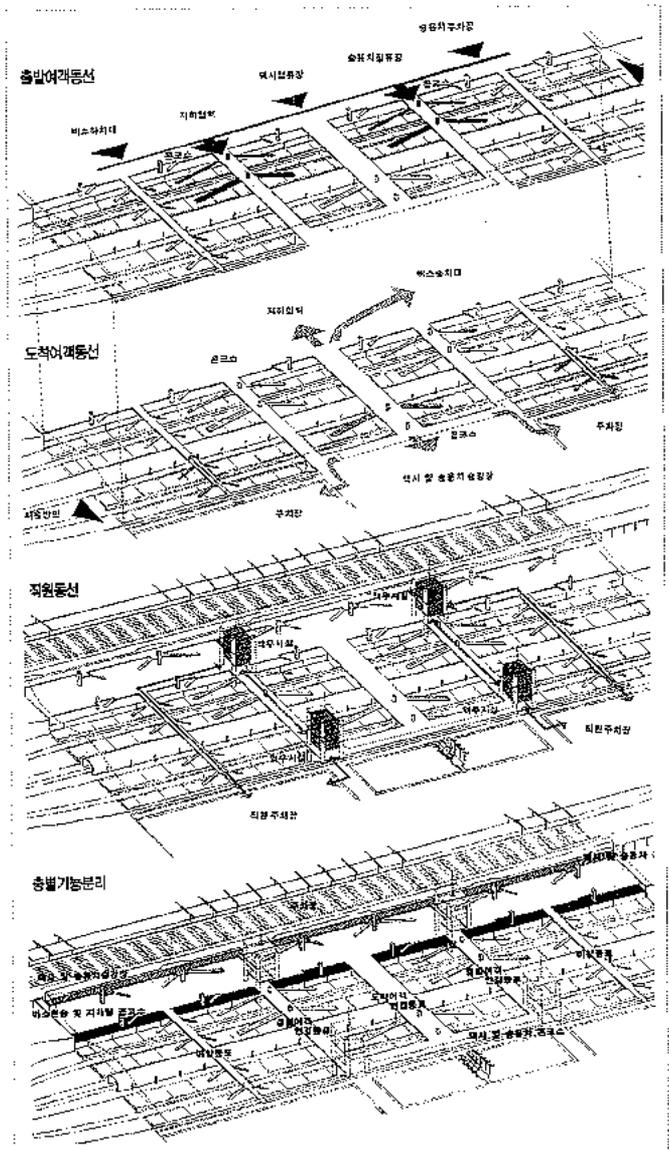
남서울 통합역사

남서울역사는 경기도의 서부 중앙에 위치하며 서울시청에서 남서쪽으로 17km, 광명시청에서 남쪽으로 6.7km 떨어져 있으며, 인천, 시흥, 안산, 수원을 비롯하여 평촌, 산본, 과천 등 수도권 신도시들로 이루어지는 위성도시군의 기하학적인 중심에 놓인다. 또한 인천-성남, 서북부수도권-서남부수도권 지역을 잇는 광역 도시화벨트가 교차하는 광역생활권 교통의 요충지로 지난 95년 5월 10일 현상설계경기공고를 하여 총 14개 작품이 접수된 결과 95년 8월 22일 무영건축(대표 손광민)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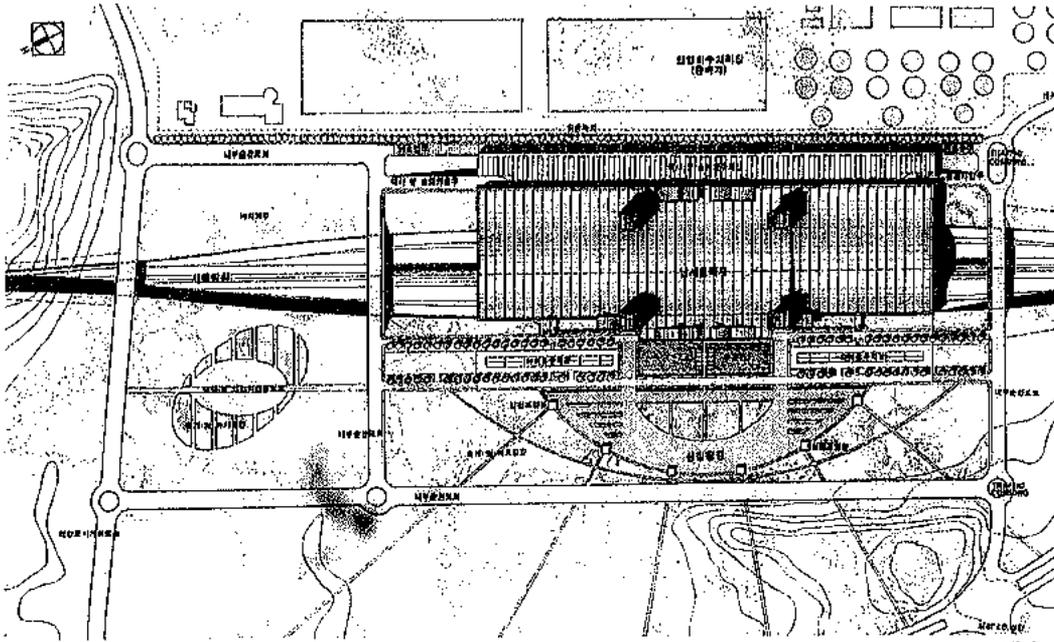
당선작

무영건축
(대표 손광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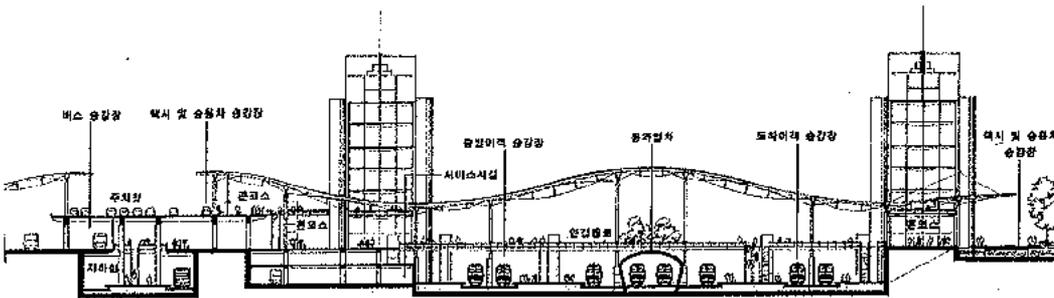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일원
부지면적 / 274,000㎡
건축면적 / 64,000㎡
연 면 적 / 1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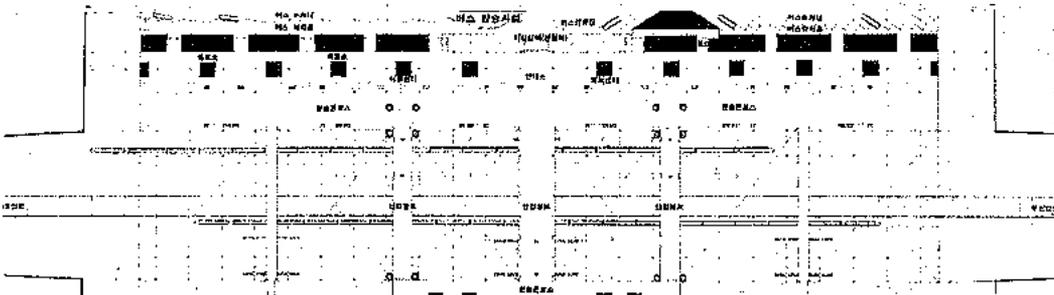
동선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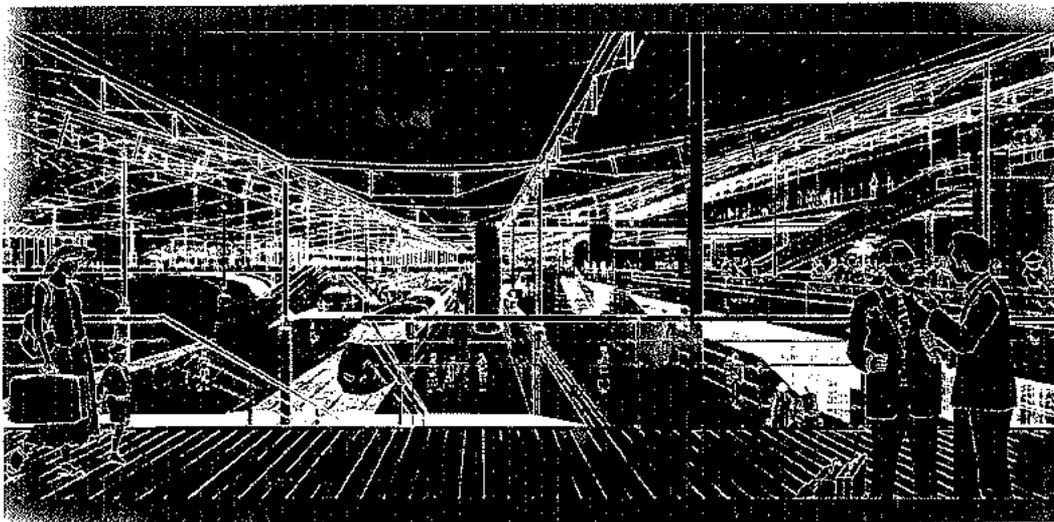
배치도



단면도



1층 평면도



내부 투시도

계획개념

- 정면의 이중성
- 4방향 공통조망 부여 및 양호한 접근성
- 열차소음 및 풍압에 대한 처리
- 계획지반고의 조정에 의한 개방감 확보
- 입체적 도로체계에 의한 버스, 택시, 승용차 동선의 분리 및 지하철역에 대한 효율적인 동선계획
- 객차의 단위길이를 적용한 모듈계획
- 도착여객, 출발여객 및 직원 동선의 분리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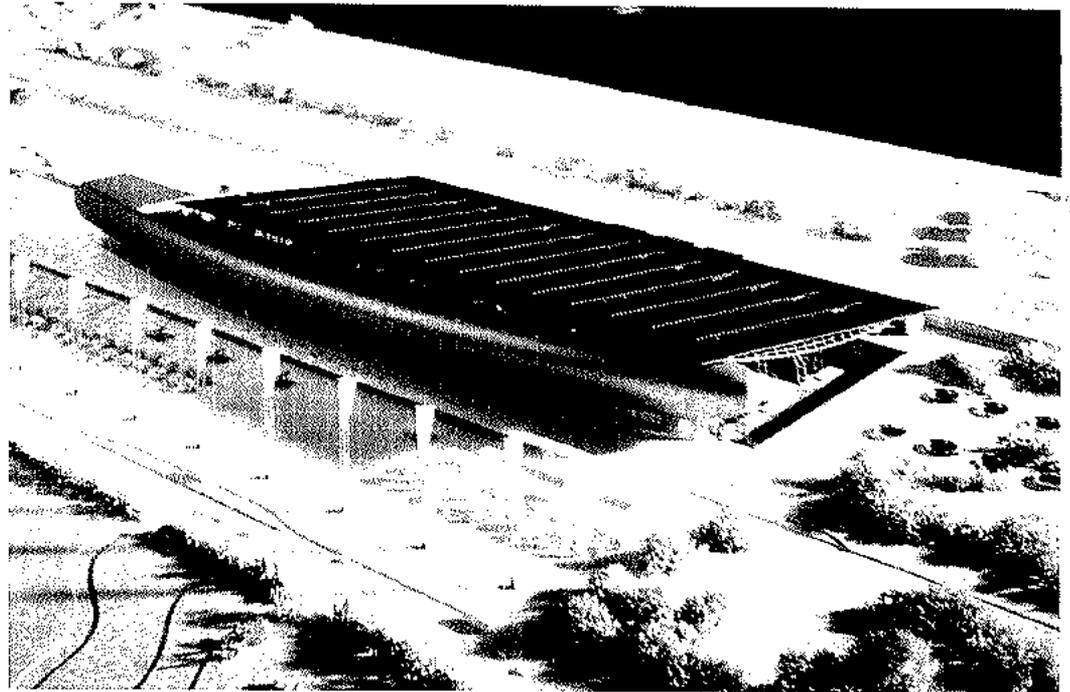
- 고속철도역사의 기능분석, 여객동선 처리, 무난한 구조처리, 승강장 상부의 개방된 분위기 조성면에서 타 작품보다 우수하다.
- 그러나 지붕위의 4개의 탑 조형성과 방대한 지붕 면적에 대한 유지 관리면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심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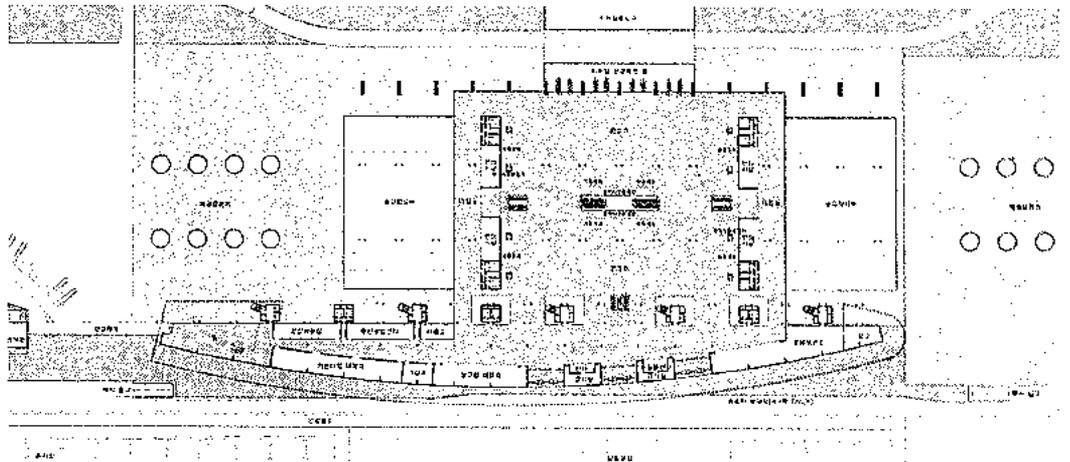
- 위원장 / 안영배(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 위 원 / 김진균(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기(연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손장렬(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원제무(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문보(동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상순(롯데건설 사장), 이현호(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남철(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심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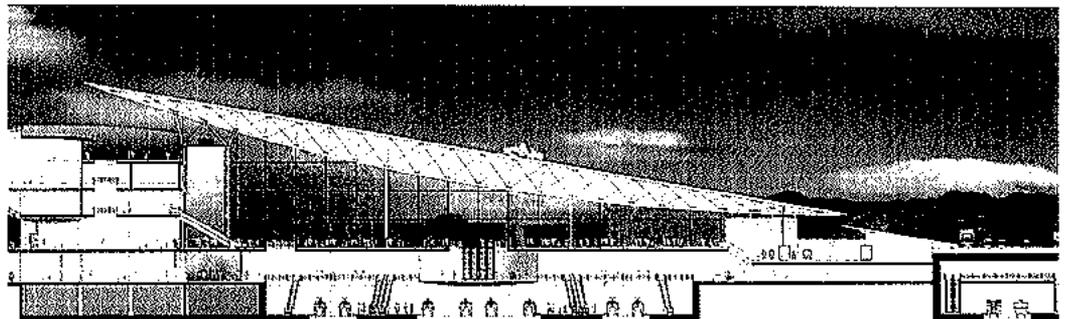
- 당선작 / 무영건축(설계권 부여)
- 우수작 / 동우건축(상금 5천만원)
- 가 작 / 삼민건축, 정림건축(상금 3천만원)
- 입 선 / 정일엔지니어링, 아키텐, 공간, 협연, 에이그룹, 신아건축(상금 1천만원)



조감도



1층 평면도



단면도

우수작

동우건축
(대표 강철규)

심사평

-형태는 간결·명료하고 현대적 이미지가 충분히 반영됐다.
-지붕은 간결하고 예리한 면이 있으나 직선·평면으로 단순하게 처리되었고, 채광이 부족한 점이 약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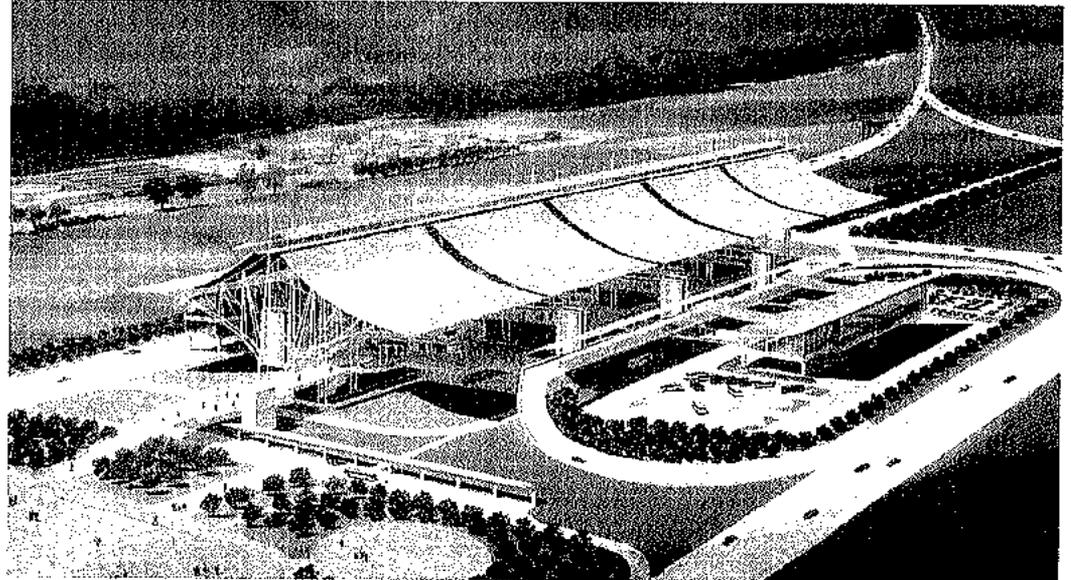
-역사 전면의 돌출부분은 역사 내부를 패쇄화하고 압박감을 주며,
-광장이 넓고 주차장은 대규모로 집중되어 되어 교통체증을 유발할 소지가 많다.
-1층 중앙 콘코스에 동선이 집중되어 혼란스러운 점이 아쉽다.

가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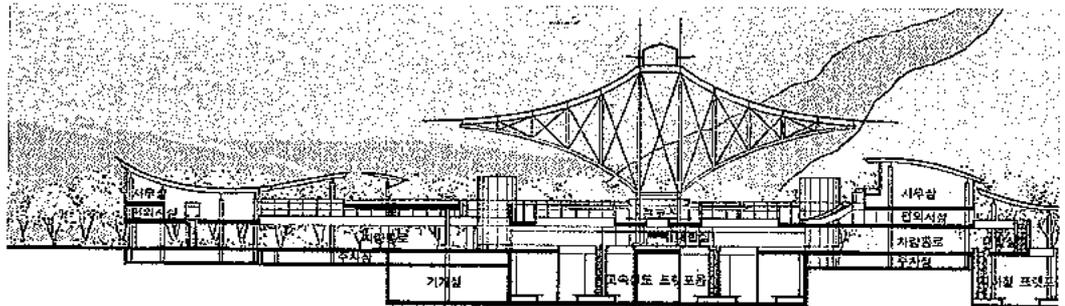
삼민건축
(대표 김윤식)

심사평

- 한국의 전통건축 이미지로 간결하게 다룬 반면 지나치게 거대한 점이 아쉽다.
- 버스환승 시설은 역사 중앙부에 위치하여 환승이 용이하나 답답한 느낌이 든다.
- 지붕 구조와 설비계획에 무리가 따른다.
- 승객 동선은 수직화, 다층화되어 혼란스럽다.



조감도



버스환승시설

고속철도 역사

지하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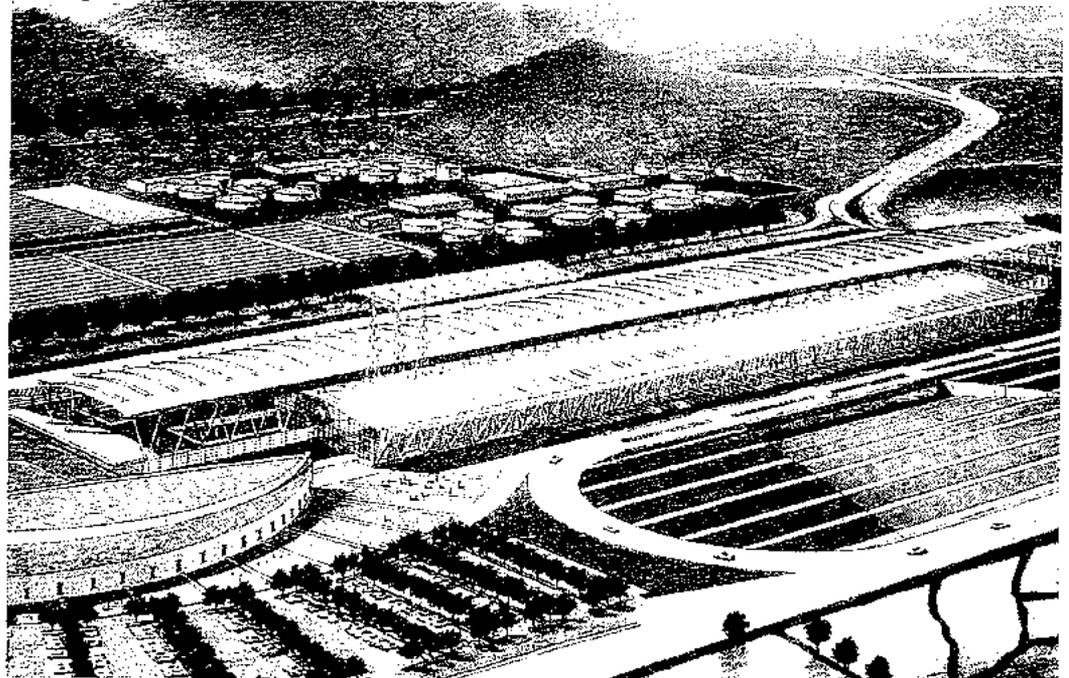
단면도

가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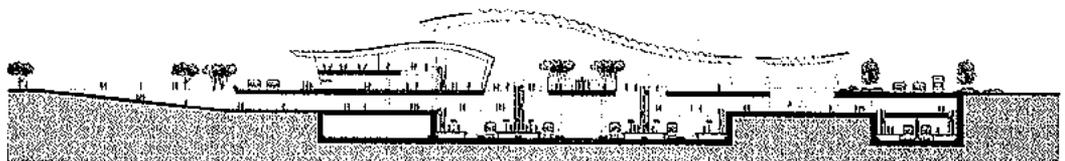
정림건축
(대표 김형일)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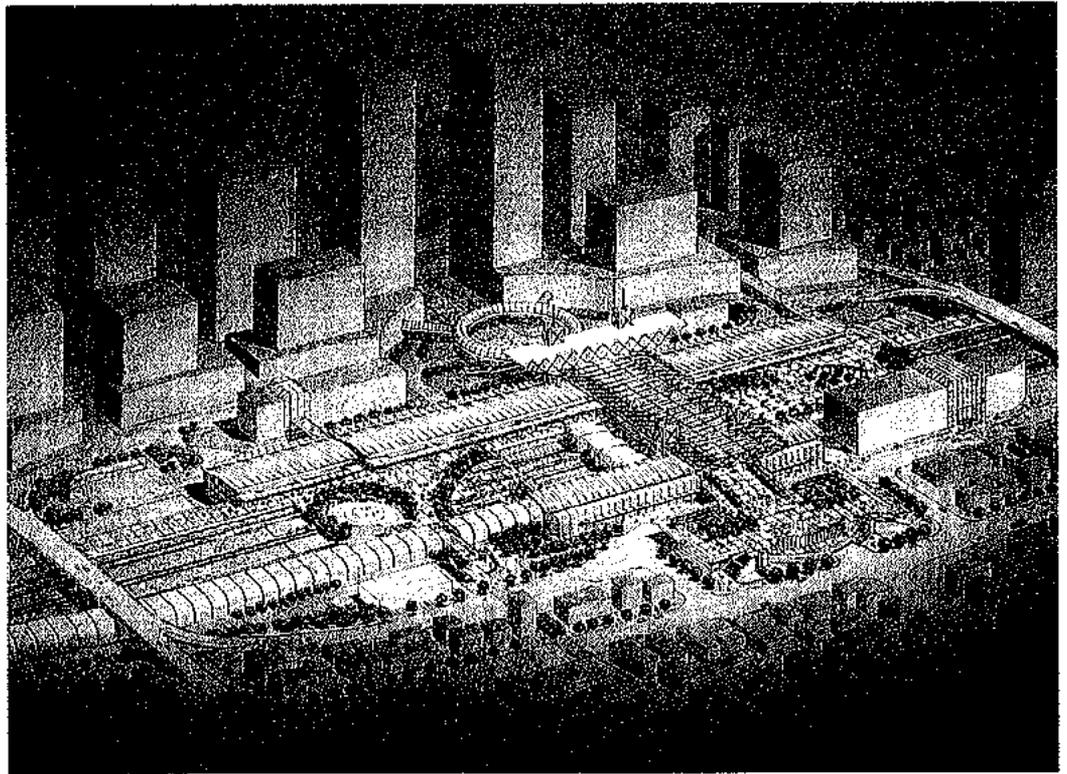
- 유선형의 지붕은 유연과 속도감을 주나 상징성이 미흡하다.
- 역사 내부 공간은 과정없이 적절한 규모로 분할되어 시원하고 밝은 느낌을 준다.
- 역사내부 동선과 버스 환승 동선은 간결 분명하다.
- 대규모 옥내공간의 유지가 어렵고 주차장까지의 거리가 멀다.



조감도



단면도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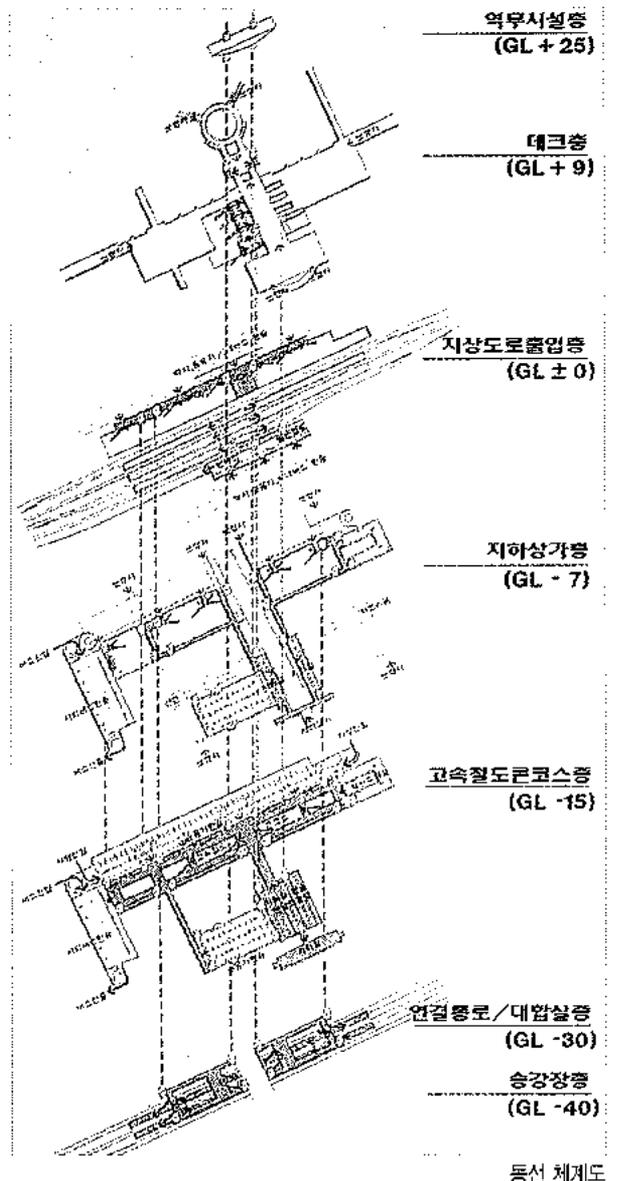
대전 통합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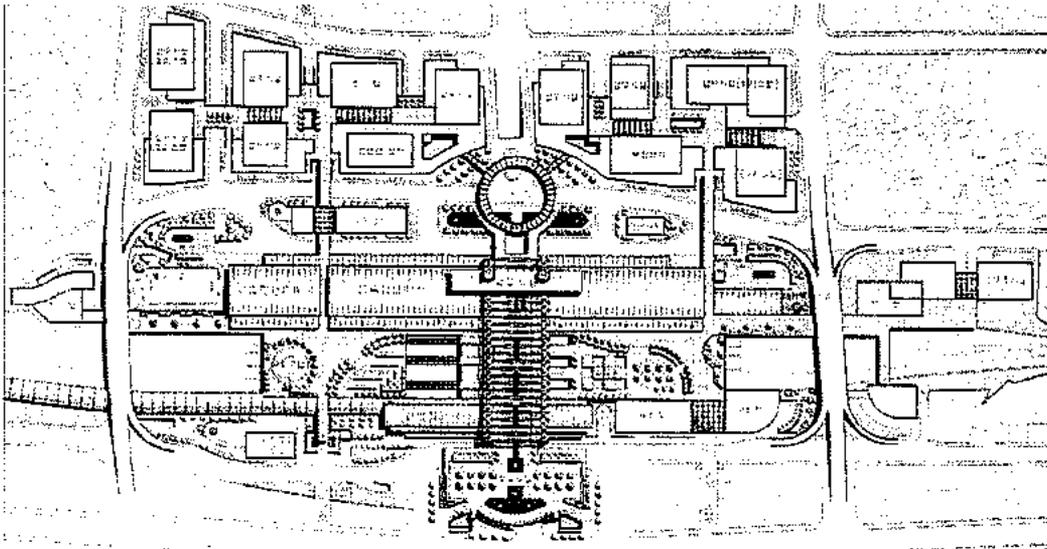
대전통합역사는 공간체계상으로는 국토의 중심부이며 남북을 관통하는 교통축의 결절점에 위치하며, 도시기능체계상으로는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수도권 기능 분담을 위해 중앙행정기능, 교육연구기능, 첨단산업기능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내륙 교통 수단인 경부 및 호남선 철도와 고속도로의 집·분산 지점으로 전국 주요도시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다. 작년 8월 7일 대전통합역사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 경기 공고를 하고, 11월 7일 작품을 접수한 결과 12개 작품이 응모하여 단우·모람건축(대표 최명철)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95년 11월 14일 발표했다.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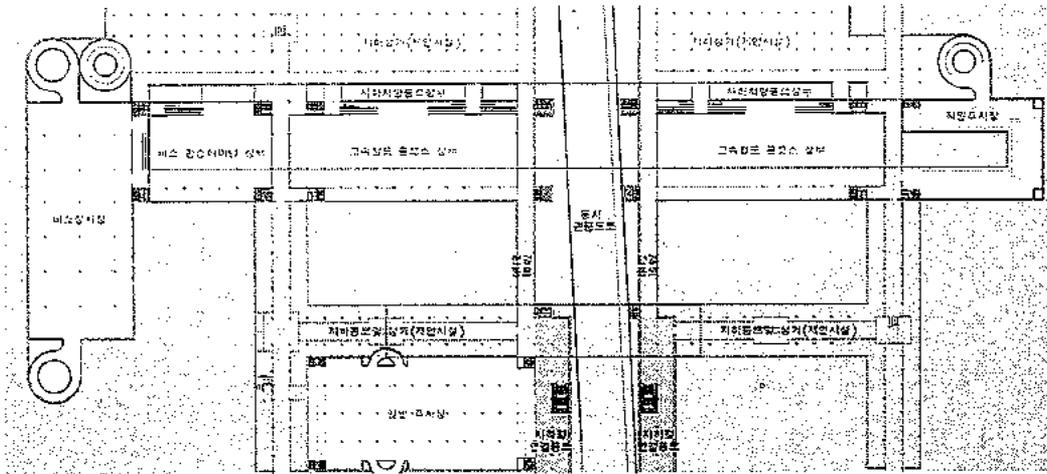
단우·모람건축
(대표 최명철)

위치/대전광역시 동구 정동1번지
부지면적/304,000㎡
연면적/1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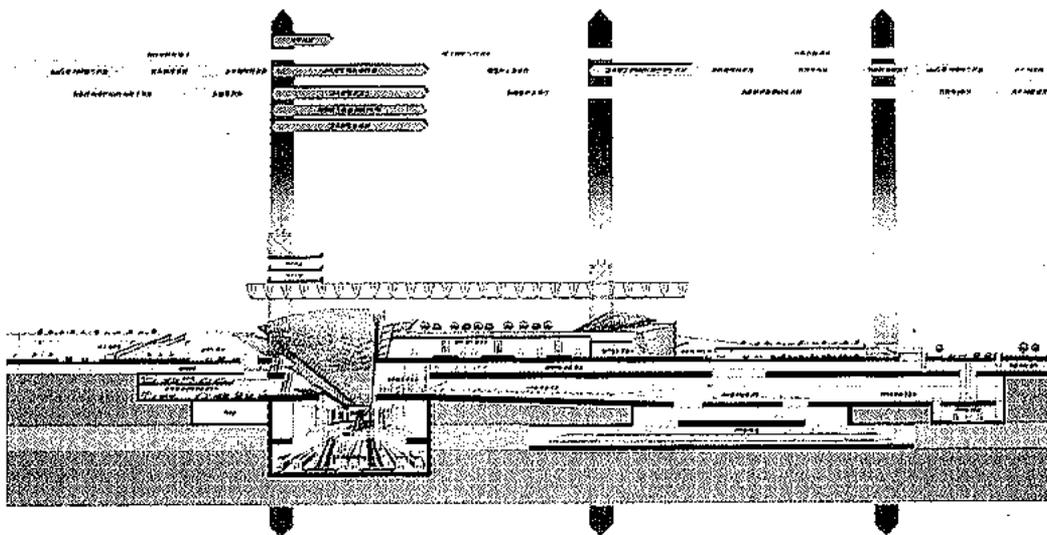




배치도



지하층 평면도



단면도

계획개념

- 기능에 따른 역사의 분리로 다양한 접근성 유도
- 루프형의 일방통행으로 인한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
- 안전한 보행동선과 시민의 휴식을 위한 도시 녹지공간 제공
- 기존 도심 및 주변 개발과의 연계를 고려한 지하1층의 도시 친화적 공간 조성
- 대중교통수단과의 편리한 환승을 유도하기 위한 콘코스의 배치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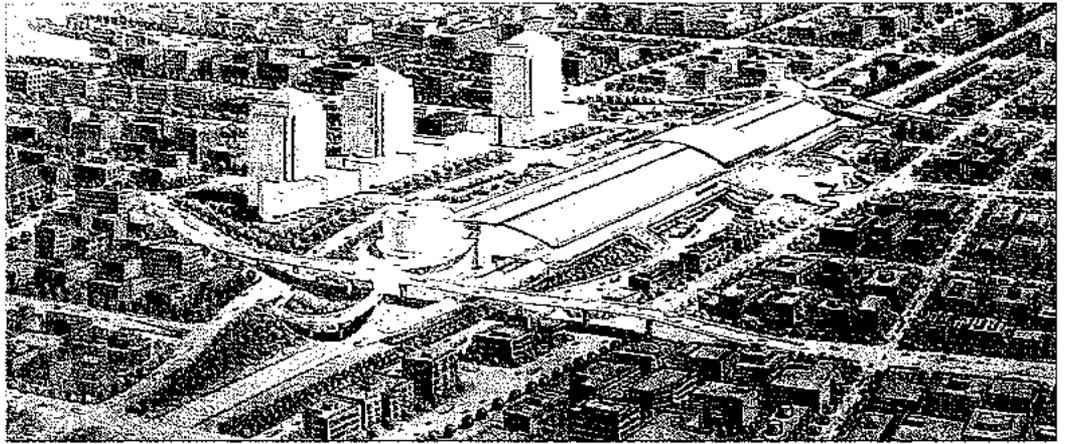
- 고속철도 역사의 도시적 맥락과의 조화, 데크광장의 적극적 활용, 접근 교통체계의 원활, 상징적 이미지, 경제성 및 단계적 개발면에서 타작품보다 우수하다.
- 역과 시민활동을 연계하여 시민의 친환경적 역으로 승화시켰다.
- 데크위의 스페이스 프레임은 기능적인 면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심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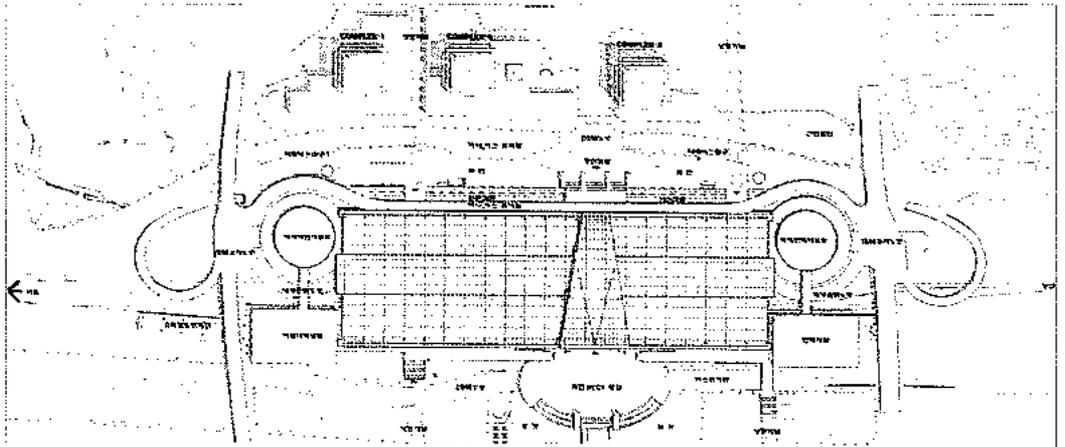
- 위원장 / 조창한(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위 원 / 김상균(철도청 영선과 과장), 김정욱(대전시 도시계획국 국장), 심우갑(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양동양(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오덕성(충남대 건축학과 교수), 유원(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경희(연세대 건축학과 교수), 이은규(대전시의회 의원), 장성준(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정석희(국토개발원 연구위원, 박사)

심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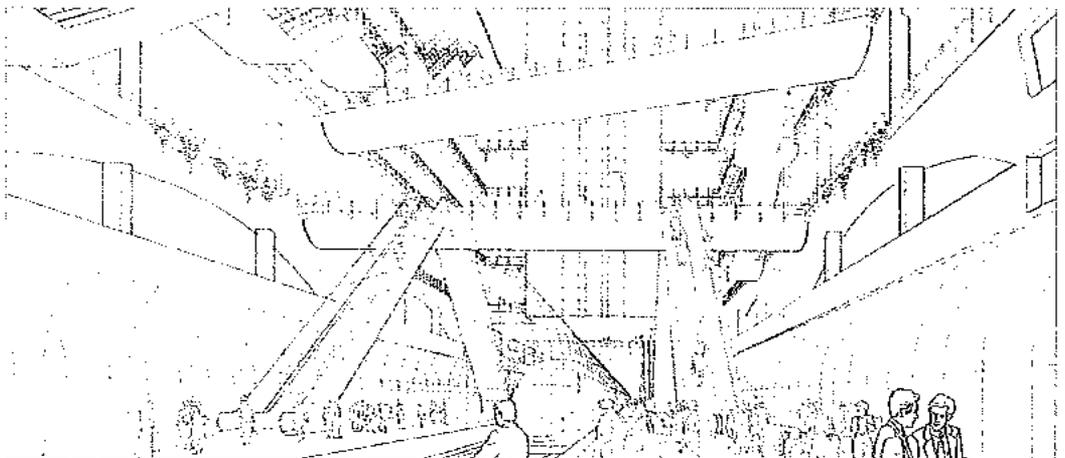
- 당선작 / 단우·모람 (설계권 부여)
- 우수작 / 성원·진홍·백림 (상금 5천만원)
- 가 작 / 서울·해안 (상금 3천만원)
- 입 선 / 간삼, 공간, 신조, 아키플렌, 창우정, 환경동인·이건(상금 1천만원)



조감도



배치도



내부 투시도

우수작

성원·진홍·백림건축
(대표 이명진)

심사평

-지하철, 국철, 반복선과의 환승 체계와 내부동선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역사의 쾌적한 환경과 실내채광 유입을 비교적 잘 처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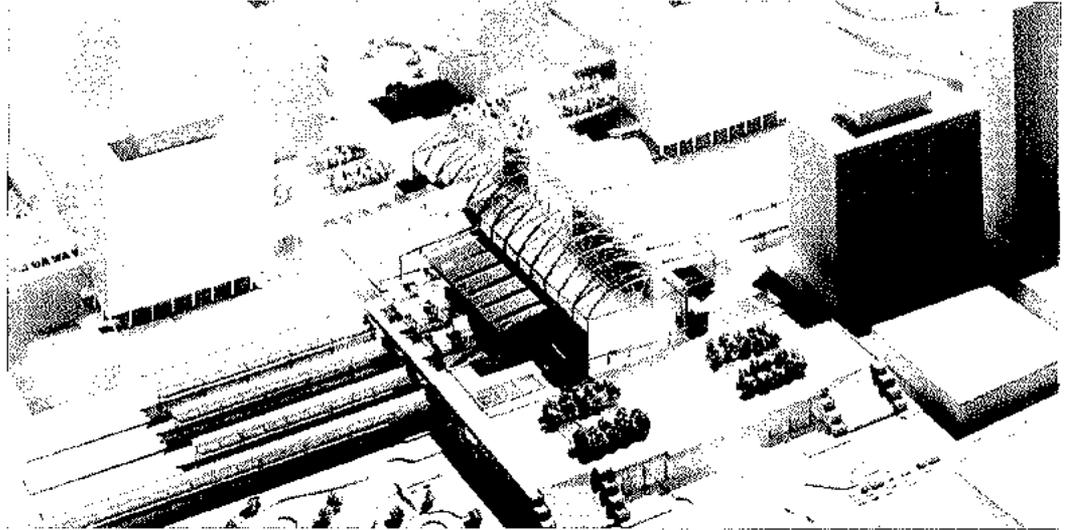
-그러나 내부공간이 단조롭고 역의 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이 결여 되었으며
-무리한 지붕구조의 처리는 환경 계획에 문제를 제기할 만 하다.

가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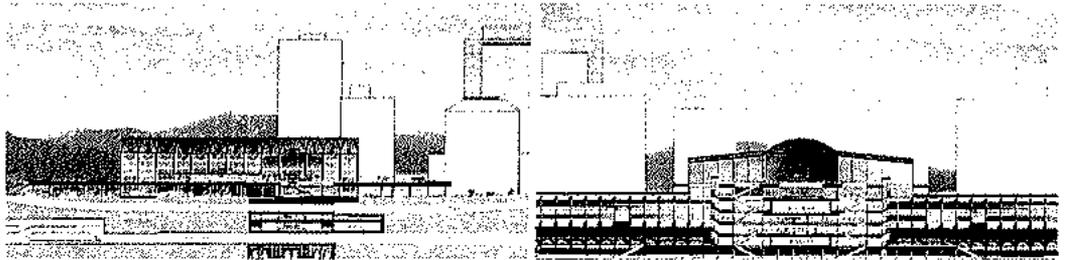
서울건축
(대표 임웅)

심사평

- 역사의 접근, 교통체계의 환승 체계의 편리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소홀히 처리하였고 역의 상징성도 결여되었다.
- 내부공간의 부족과 환승시 장애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 보행동선과 데크와의 연결이 지나치게 단절된 느낌을 준다.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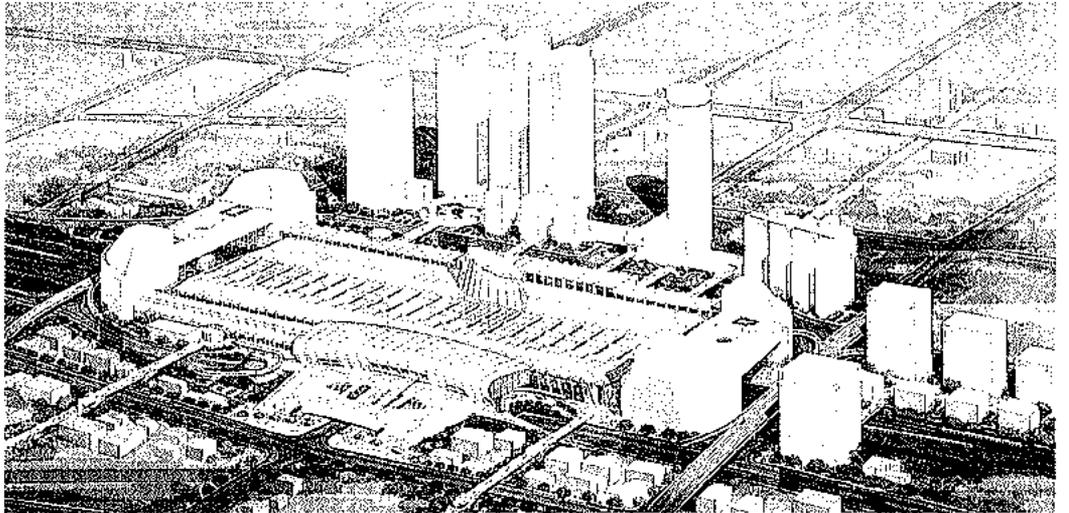
단면도

가 작

해안건축
(대표 윤세한)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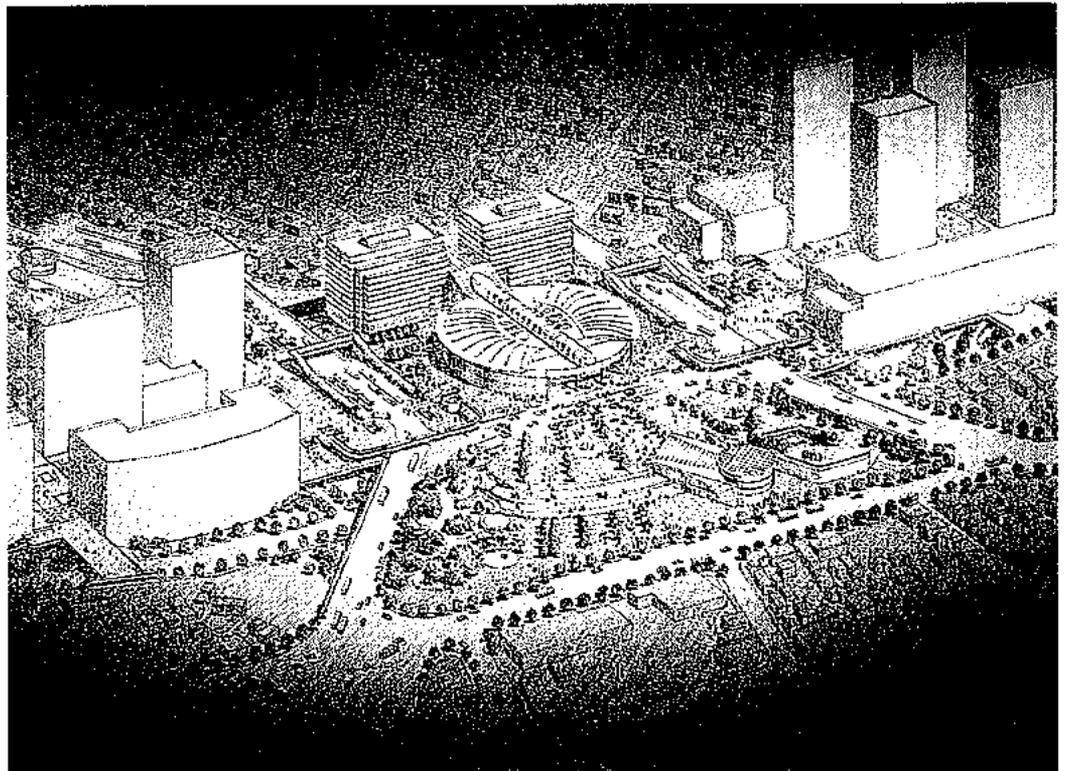
- 동서역을 분리하고 역사의 개방감과 접근교통체계가 비교적 무난하다.
- 지나친 지붕구조로 구조계획 및 경제성 면에서 문제가 제기될만 하다.
- 중심축의 형성과 역의 상징성 표현에 다소 미흡하며,
- 내부공간의 환승동선체계가 복잡, 혼란스럽다.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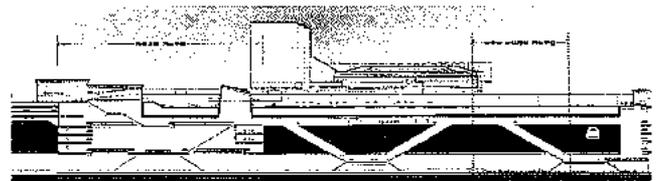
단면도



조감도

동대구 통합역사

동대구통합역사는 공간체계상으로는 국토의 동남부 내륙지역에 위치하여 경부, 구마, 88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망과 경부선, 대구선 등의 철도가 경유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또한 도시기능체계상으로는 경상북도를 포함한 대구시 주변지역의 중추관리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통산업과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배후지역의 강한 흡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남해 임해공업단지가 대구를 중심으로 선형으로 입지하여 동해안 관리자원 도시로서의 입지가 기대되는 동대구통합역사 건립 현상설계경기에서 지난 12월 95년 7월 작품을 마감, 총 9개 작품이 응모하여 심사한 결과 서한건축(대표 신국범)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12월 12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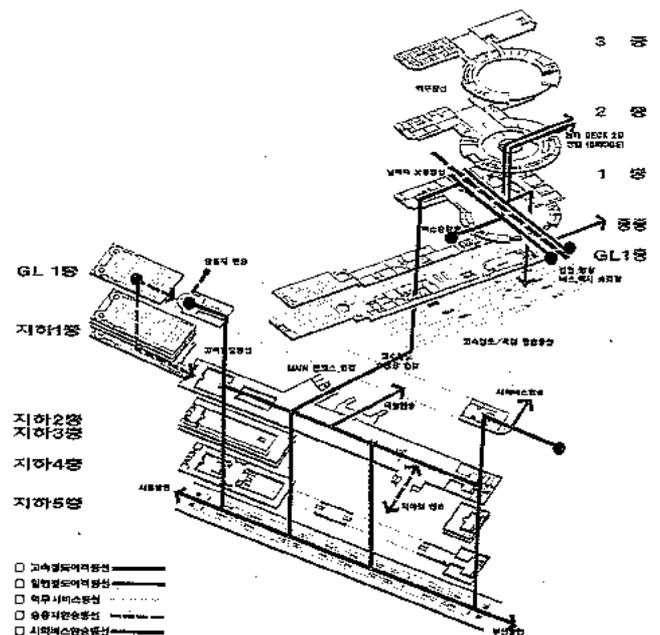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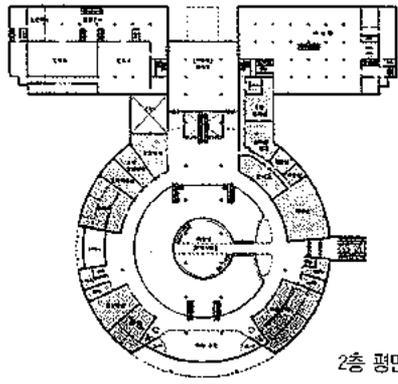
당선작

서한건축
(대표 신국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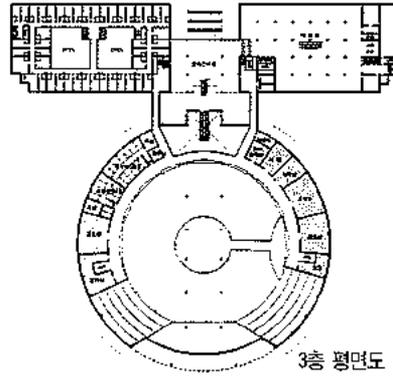
위치 / 대구 광역시 신천동, 산암동 효목동 일대
부지면적 / 321,000㎡
연면적 / 9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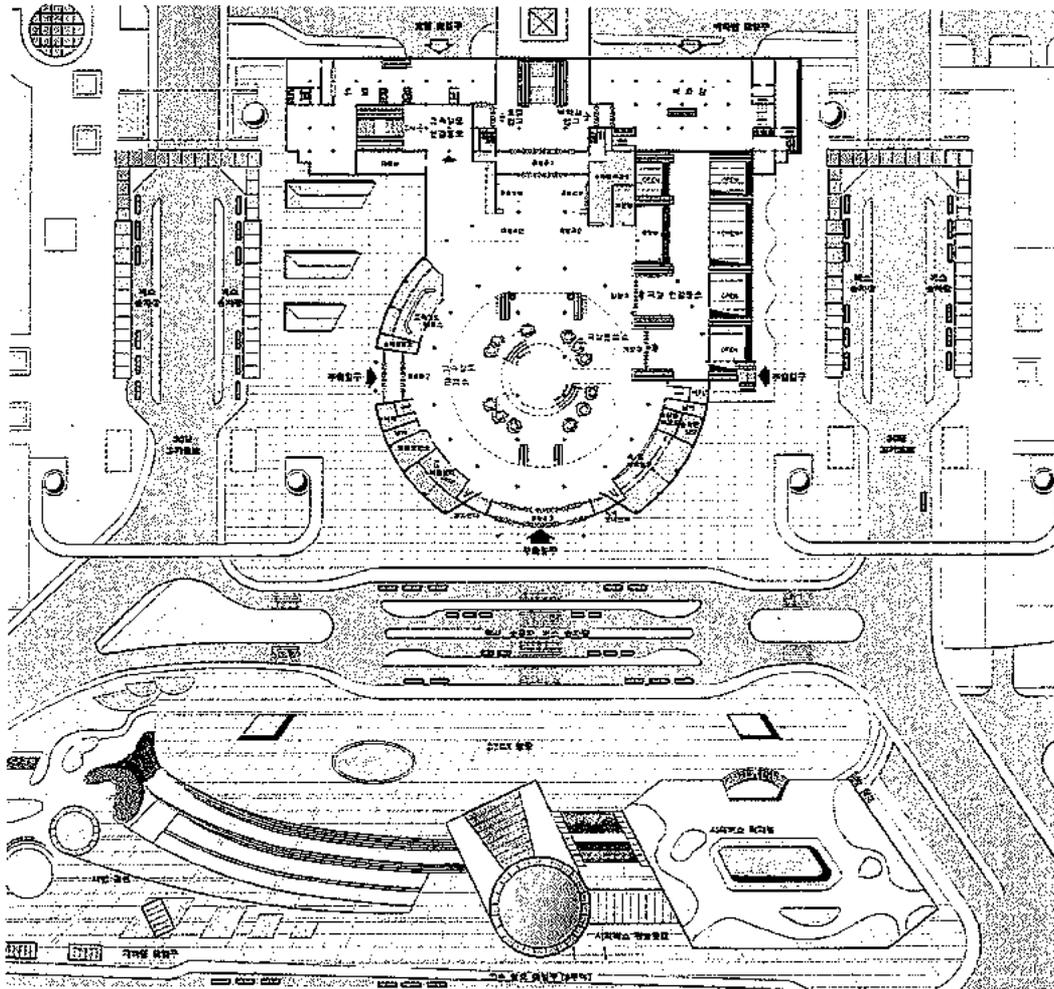
동선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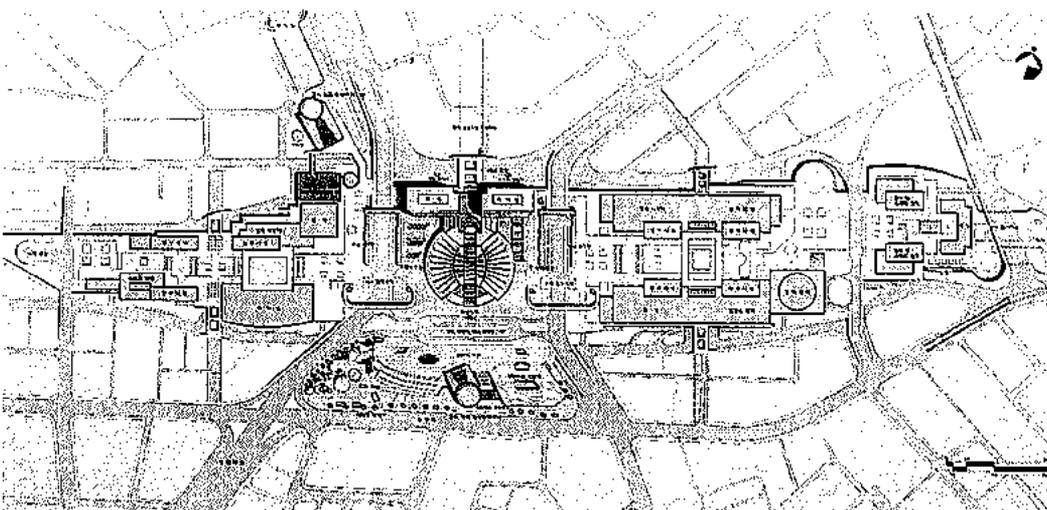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건축개념

- 대구지역의 관문, 교통시설거점, 도시중심으로서의 상징적 의미 구축
- 역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구성
- 보행자 동선체계 확립 및 교통수단간 환승체계 구축
- 단지가발에서 특징적인 외부공간 형성
- 양분된 도시기능 활성화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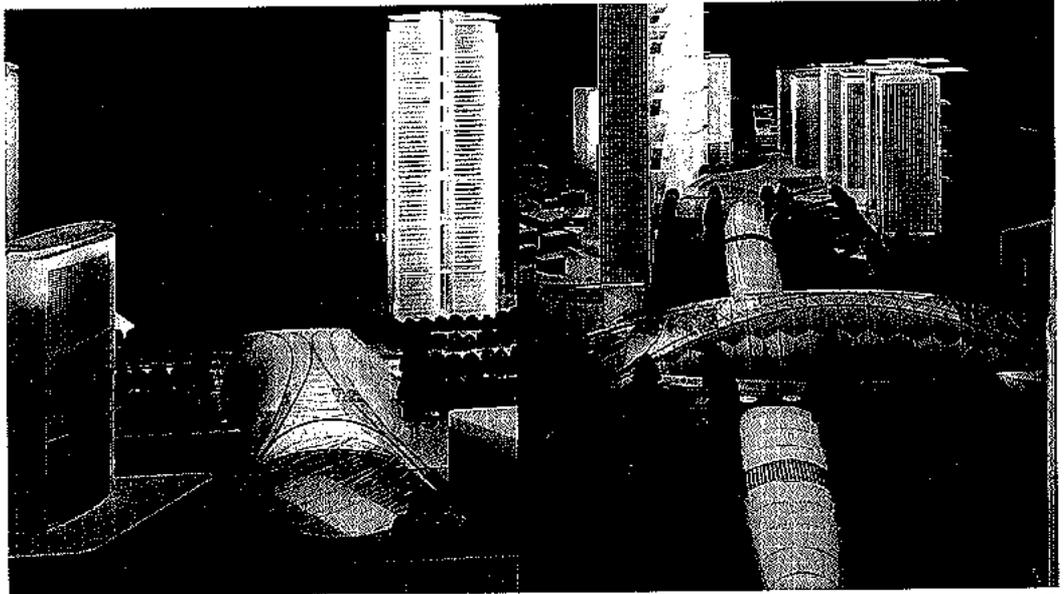
- 건물의 배치, 크기, 공간이 대청으로 계획되어 점원한 조형성을 보였으며,
- 고속철도, 일반철도, 지하철과의 환승연결이 용이하고, 구조상 무리한 수법을 쓰지 않고 합리적 해법으로 처리하여 타 작품보다 우수하였다.
- 거대한 원형 평판은 네방향으로 잘 어우러진다.

심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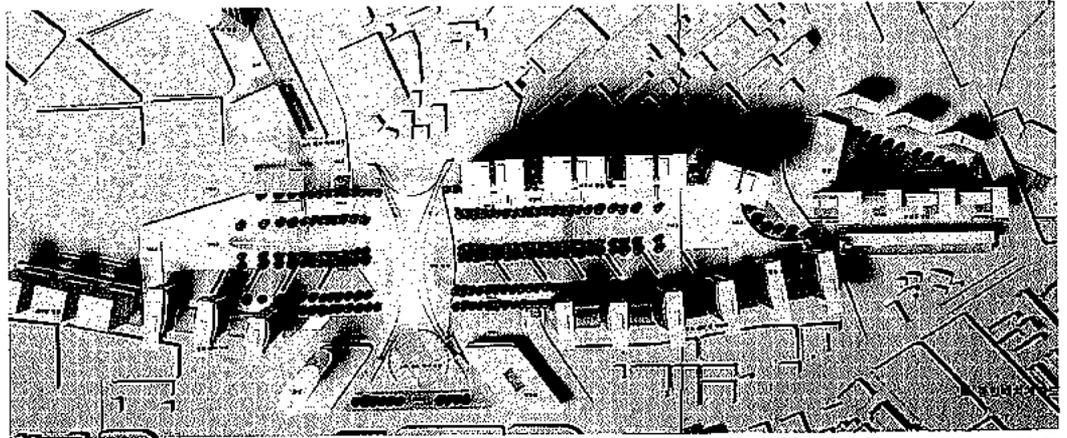
- 위원장 / 이상순(롯데건설 사장)
- 위 원 / 김상균(철도청 영선과 과장), 김일진(영남대 건축학과 교수), 심우갑(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양동양(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여흥구(한양대 건축학과 교수), 윤도근(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이정덕(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장성준(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장재윤(대구시 도시계획국 국장), 조창한(경희대 건축학과 교수)

심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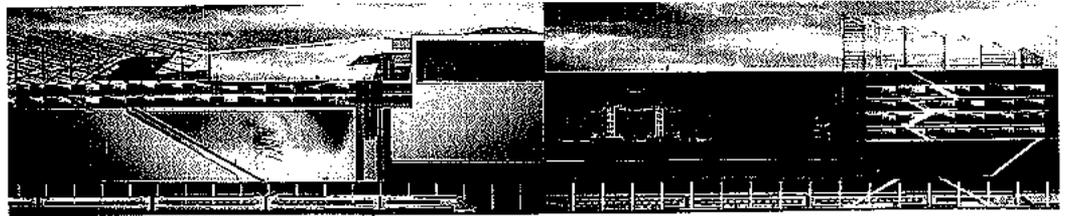
- 당선작 / 서한건축
- 우수작 / 건원건축
- 가 작 / 동우건축, 해안건축
- 입 선 / 동남아태, 디에스티, 선진, 포스에이씨, 한국



모형도



배지도



단면도

우수작

건원건축
(대표 박홍길)

심사평

- 투명 구조의 상징성과 독특한 분위기는 현대적인 이미지를 표현했으며,
- 대규모의 구조방식은 힘찬 표현이며 원형의 수직 환승공간은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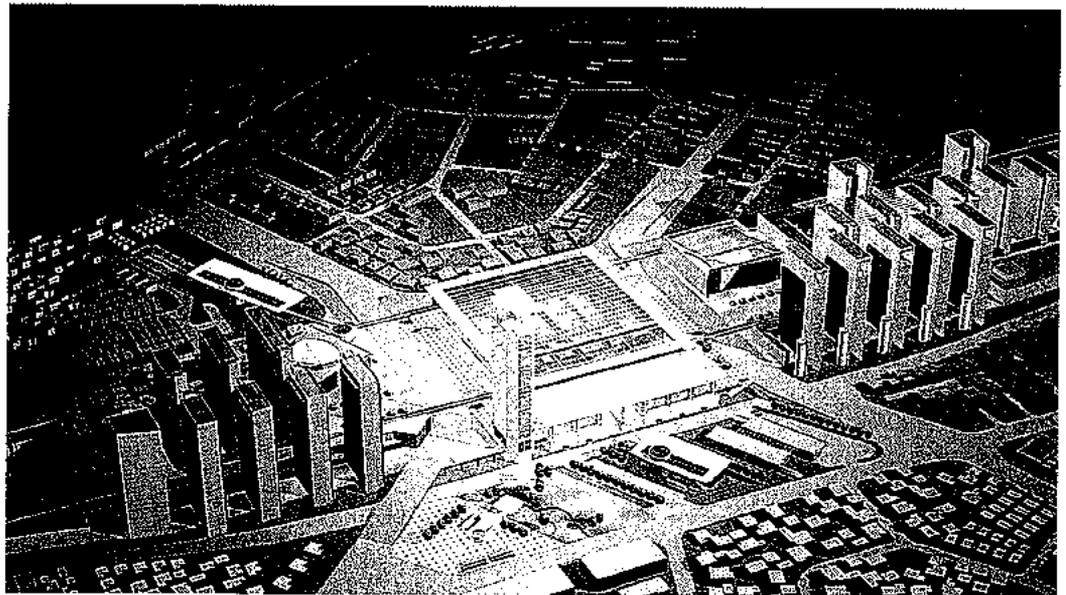
- 로운 기능 해석의 아이디어로 신선하다.
- 역사에서의 광장개념이 희박하고 남북 교통도로를 조경으로 덮은 점이 아쉽다.

가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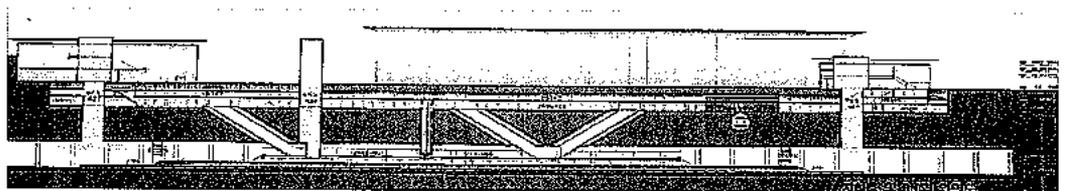
동우건축
(대표 김태인)

심사평

- 단순한 직방체의 평판구조물은 간결·강력한 인상의 조형성을 표현했으며,
- 단순한 구조로 합리적이며 역사기능을 집중화하여 효율성이 높다.
- 대지크기에 비해 터미널의 규모 과다로 광장 등 주위에 여유공간이 협소한 점이 아쉽다.
- 1층 승강장과 2층이 개방되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콘코스 구성이 혼란스럽다.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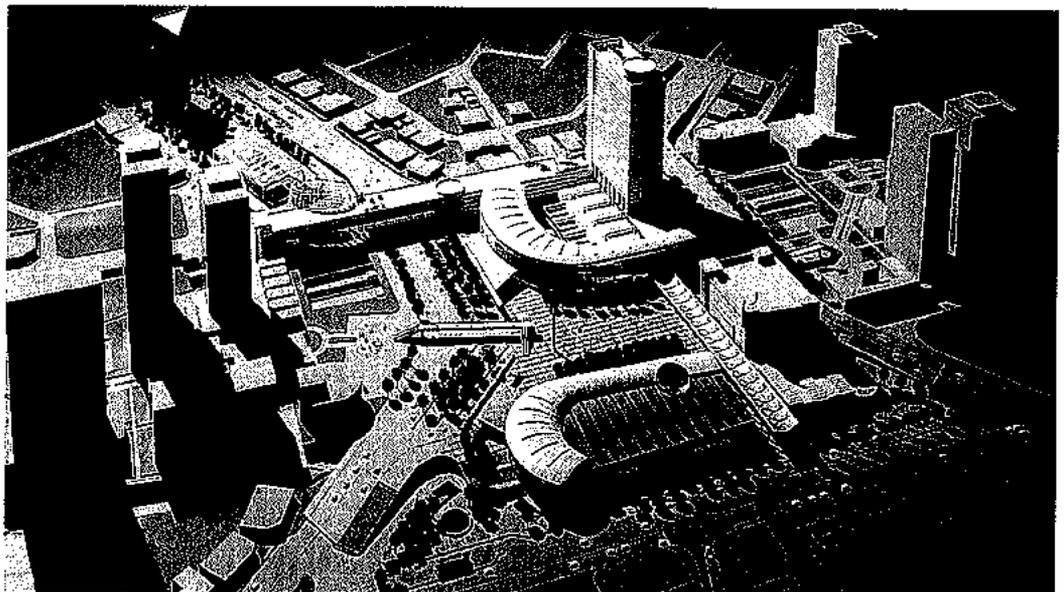
단면도

가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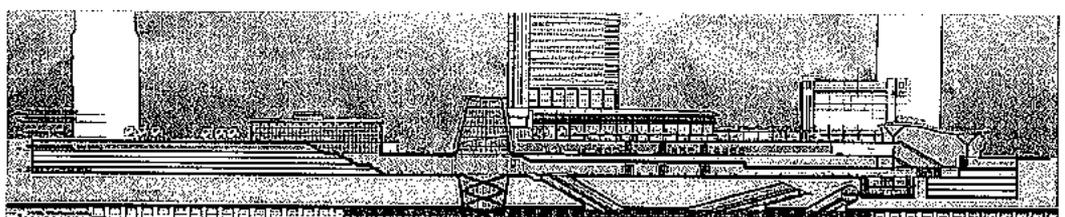
해안건축
(대표 윤세한)

심사평

- 두개의 곡면성 구조체는 상징성, 유기적 연관성의 독특한 외관을 표현했으며,
- 조형적 상징성을 구조로써 해결하는데 여러가지 노력을 하였으나,
-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터미널이 양분되어 중심성이 결여되었다.
- 선로상에 고층건물동이 계획되어 구조상 어려운 문제점이 예상된다.



모형도



단면도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4,891호, 1995년 12월 30일)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1995. 1. 5. 법률 제491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허가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도중 경미한 설계변경은 사용승인신청시에 일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

나.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구조기술사가 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시 구조안전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책임감리수준으로 공사감리를 강화함(영 제5조제3항제8호·제19조제1항 및 제91조의3제1항제3호).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용도변경시 지켜야 할 관련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영 제14조 및 별표 16).

라. 토지굴착이나 옹벽공사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시 토목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공사현장 및 인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영 제91조의3제3항제3호).

마. 녹지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5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조정함(영 제78조 및 제80조).

〈법제처 제공〉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중 "필요한 규모이하의"를 "필요한"으로 하고, 동항제14호 본문중 "용도로써 그 면적이 주된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합계의 50퍼센트미만으로서"를 "용도로써"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고온·고압증기양생원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럭 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제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조(길이 35미터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도로"를 "당해 도로"로 한다.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관련분야의 기능계 또는 기술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건축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자

4.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에서 현장관리인으로서 필요한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제1항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

항제3호중 “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을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허가”를 “허가제한”으로 하며,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를 “건축조례”로 한다.

8. 연면적 5천㎡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과 16층이상인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적용의 완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후퇴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고속국도의 중심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300미터이내”를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로, “시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건축허가(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로, “서울특별시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의 규정을 말한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2. 해군기지법 제6조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2
8. 항공법 제82조 및 제93조
9. 학교건법 제6조
10. 산림법 제62조·제70조 및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및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및 제18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그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단독주택 등 3층이하의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당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에 있는 지역안의 건축물 평균높이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3.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시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 “85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2조제1항 본문중 “시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이하인 경우”를 “이하이거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용도변경)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상호간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기준을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경

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 제3조·법 제5조·법 제5조의2·법 제5조의3·법 제6조·법 제9조·법 제10조 내지 제13조·법 제15조·법 제20조 내지 제23조·법 제25조·법 제26조·법 제29조·법 제32조 내지 제34조·법 제38조 내지 제59조·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법 제60조 내지 제76조·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및 법 제77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중 "시장등"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조립식구조로 되어 있거나 외벽이 없는 자동차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50㎡이하인 것

제 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임시사용의 승인신청 등")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중전의 제1항)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시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전의 제2항)중 "시장 등은 제1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전의 제3항) 단서중 "시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9조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규모·및 구조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과 건축물의 구조안전·미관 및 기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여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이용관리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1항 각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의 명의 등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하는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조 제1항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라 함은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다다른 때를 말한다.

1.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다. 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5개층마다 바닥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2.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 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④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건축 등의 공사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부투자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제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목·전기·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 등의 공사

2. 연속된 5개층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이상인 건축 등의 공사

3. 아파트의 건축 등의 공사

⑥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업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중 "시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제28항제2항제1호중 "연면적이"를 "연면적의 합계가"로, "연면적에"를 "연면적의 합계에"로, "적하여야 한다."를 "적할 것"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연면적"을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제2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당해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2조제1항중 "10만"을 "1만"으로,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본문중 "무도유흥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항중 "무도유흥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을 피난계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을 "피난계단"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호중 "무도유흥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중 "무도유흥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한다.

제3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제49조"를 "제48조"로 한다.

②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는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제2항중 "무도유흥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축물의"를 "건축물(아파트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구획하여야 한다"를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기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제4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 방화구획의 구조 등 기술적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의 제목중 "계단"을 "계단 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계단의 경사도 기타 계단의 구조"를 "계단의 경사도, 계단의 구조와 계단에 대체되는 경사로의 구조"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2항 본문중 "무도유흥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경계벽"을 "경계벽(발코니부분을 제외한다)로 한다."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5조중 "3미터"를 "2미터"로 한다.

제56조 제1항 본문중 "건축물"을 "건축물(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단층으로서 연면적이 50㎡ 이하인 부속건축물"로 하며, 동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무도유흥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무도유흥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생활권청소년시설"을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0항제2호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을 "한국산업규격표시품"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3호중 "자가발전소"를 "자가 발전"으로, "방송·통신시설(전신전화국을 제외한다)"을 "방송·통신시설(전신전화국을 제외한다), 공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③ 노래연습장·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중 "건축물"을 "건축물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 한다.

제6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미관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모양에 관하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조례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2.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3. 제118조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 등 관리법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78조제1항중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8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시장 등"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제79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제80조제1항제11호·제13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이상(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이상)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이상(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이상)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60㎡이상

제81조제4호중 "시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주간에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본문중 "법 제51조제1항"을 "법 제51항제1조항 및 법 제52조"로 한다.

제84조제1항중 "구역안의"를 "구역(당해 구역안에 막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안의"로, "모든 도로"를

"모든 도로(막다른 도로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제2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복지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제8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 본문중 "5천㎡이상"을 "5천㎡이상(건축물안의 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시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 동조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을 "사용승인서를"로 한다.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절수설비의 설치 기준) 연면적이 100㎡이상인 건축물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거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구조기술사 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1. 층수가 16층이상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② 연면적이 1만㎡이상인 건축물(개별난방을 설치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③ 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굴착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의하여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 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

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설계도서는 설계자와 함께 당해 구조기술사 등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5조제1항 “전용변소가”를 “전용화장실”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6조의 제목을 “(오수정화시설 등의 구조)”에서 “(하수처리설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분뇨정화조”를 “정화조”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물의 하수도는 하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안의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97조중 “비상조명장치로서 소방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98조중 “채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갖추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종합유선방송망을 접속하기 위한 통신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난방·급탕·취사 등의 용도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령 또는 도시가스사업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국가가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건설교통부장관(국가가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절차”로 한다.

제108조제2호 및 제3호중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로 한다.”를 각각 “1.2배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한다.”로 하고, 동조제6호중 “10분의 2를 가산한 높이로 한다.”를 “1.2배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한다.”로 한다.

제113조제4항 본문중 “법 제47조·법 제48조”를 “법 제48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법 제48조”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용적률로, “건폐율·용적률”을 “용적률”로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장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 등”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방법·결과통보·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내지 제8조 및 동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 본문중 “시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18조제1항중 “법 제9조·법 제13조제1항·법 제16조제2항·법 제18조(착공신고에 관한 사항 및 제1항·후단을 제외한다)”를 법 제9조(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법 제13조제1항·법 제16조제2항·법 제18조”로 하고, “법 제53조의 규정은”을 “법 제50조의 규정은 제5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3조의 규정은”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높이 8미터”를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시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제119조제1항제2호중 “중심선(처마·차양·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후퇴한 선)”을 “중심선(처마·차양·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하고, 동항제3호나목중 “공동주택”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하며, 동항제5호다목 본문중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고탑 및 광고판의 경우 제10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제9장에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의2(분쟁조정) ① 법 제7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아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

을 보류할 수 있다.

⑤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벌칙)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보·지붕 및 주단계(다만, 사잇벽·사잇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량·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본문,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호 단서, 제110조제2항 단서, 제111조제2항 및 제112조제4항·제5항·제7항·제8항·제10항중 "시장 등"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10조제2항중 "시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제4호나목 (4)중 "당구장·헬스클럽·볼링장·당구장"으로 하고, 동목 (5)중 "종교집회장"을 "종교집회장·공연장"으로 하며, 동목 (7)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인 제조업·수리점"을 "제조업·수리점·세탁소"로 하고, 동목 (8)중 "당구장·청소년전자유기장"을 "청소년전자유기장"으로 하며, 동목 (9)중 "에너지학원·기술계학원(주산·부기·타자·속기·경리·속셈·속독·용년·변론·언어교정·컴퓨터에 한한다)·독서실"을 "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만인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목 (11)중 "단란주점으로서"를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로 하며, 동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의약품도매점·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만인 것

별표 1제5호가목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을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별표 1 제7호가목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로 하고, 동호다목중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1 제1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소매시장 :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별표 1 제14호다목중 "당구장·유기장"을 "유기장"으로 하고, 동호바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5호가목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기타 이와 유사한 것(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경마장"을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 냉동·냉장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하역장

별표 1 제21호의 제목중 "중기관련시설"을 "건설기계관련 시설"로 하고,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별표 1 제2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별표 1 제28호 가목중 "송·중계시설"을 "송신·수신·중계시설"로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중 "주차장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로 한다.

별표 3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판매시설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면적이 종전의 연면적의 2배(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4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의 건축물을 말한다]

별표 4 제2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공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에 속하는 공장과 필립현상소(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

별표 5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장례식장

별표 6 제2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장례식장

별표 7 제2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장례식장

별표 8,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장례식장

별표 12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축사

별표 13 제2호 아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창고시설

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위험물관매취급소에 한한다)

별표 14 제1호 바목 내지 거목을 각각 사목 내지 너목으로 하고, 동호에 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창고시설

별표 14 제2호차목을 삭제하고, 동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

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중 "(건축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기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1. 비고란 제11호중 "교육연구시설, 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 건축물에는"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에는"으로 한다.

[별표 16]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분류(제14조관련)

1. 주거시설군: 주거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열거한 것

나. 단독주택·다중주택·공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관람집회시설군: 각종 문화·사회·종교·오락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건축물(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가.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나. 회의장·공회장·예식장

다. 운동경기관람장(관람석이 있는 것에 한한다),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자동차경주장·체육관(관람석이 있는 것에 한한다)

라. 종교집회장, 장례식장

마.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어린이회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동·식물원

3. 영업·업무시설군: 각종 형태의 영업·서비스용역·업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장소 또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음식점, 관광휴게시설중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것

나. 목욕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다. 관람석이 없는 체육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것

라. 유흥주점·유기장·무도학원·무도장·안마시술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

마. 일반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것

4. 숙박시설군: 여행객 등의 숙박의 용도에 사용되는 장소 또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나. 호텔·여관·여인숙·유스호스텔·휴양콘도미니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교육시설군: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 및 사회교육에 사용되는 장소 또는 건축물(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가.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나. 교육원·연수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 공장·산업시설군: 각종 물품의 제조·수리와 작업의 용도에 사용되는 장소 또는 건축물(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나. 공장·작업장·발전소·자동차정비공장·폐차장·세차장·자동차검사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군: 인체에 유해한 각종 물질, 인화하기 쉬운 물질, 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 등을 제조·처리·저장하는 장소 또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나.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유독물판매소 기타 소방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의료 및 요양시설군: 정신적·육체적 활동을 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나 관찰을 요하는 자들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건축물(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전염병원·약약진료소·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 판매유통시설군: 상품의 판매·저장에 사용되는 장소 또는 건축물(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나. 도매시장·소매시장·구판장·공판장·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여객운송시설군: 각종 교통수단에 의하여 다중의 교통운수에 이용되는 장소 또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공항터미널·항만여객터미널 기타 이와 유사한 것